

제주 문예 연감

2014 JEJU CULTURE & ARTS YEARBOOK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발간사

제주문화예술계의 현주소가 담긴 열한 번째 『제주문예연감』을 발간합니다.

제주문예연감은 지난 한 해 동안 제주문화예술계의 활동상을 정리, 수록하고 10개의 장르별 활동경향, 종합적 진단과 평가 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문예연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문학, 미술, 서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등 10개 장르의 제주문화예술계가 양과 질적인 성장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보다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누리는 도민의 문화복지 지수 향상에 대한 평가가 알차게 분석되었으면 하지만 연감이라는 특성에 의해 한계가 있음을 밝힙니다.

연감은 한 해 동안의 사건이나 주요 자료, 통계 등을 모아서 일 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료의 수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문화예술계의 지난 일 년 간의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별, 개인별 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누락되거나 장르 간 명확한 분류가 어려운 예도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언론기사 외에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제공 자료가 기본이 되지만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주문예연감이 제주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의 문화 환경을 읽는 자료이자 밑받침이 될 살진 토양이 되기를 바라며, 발간작업에 힘써 주신 집필진과 연감의 생명력인 기초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제주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11.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 승 환**

Contents

총론 /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름값 하는 '특별한' 문화예술을 기대하며 김수열 · 18

문학 / 다양한 행사와 활동, 스미지 못하는 아쉬움 변종태 · 30

미술 / 2013년 제주미술의 현황과 과제 이경은 · 44

서예 / 2013년도 제주서단의 활동과 점검 오장순 · 52

사진 / 제주 사진, 2013 이창훈 · 62

건축 / 2013년 제주건축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김태일 · 78

목차

국악 / 2013년 제주국악의 공연 현황 및 내용 분석 김형진 · 94

양악 / 2013 제주양악 현황 홍정호 · 110

연극 / 2013 제주연극의 현황과 과제 강용준 ·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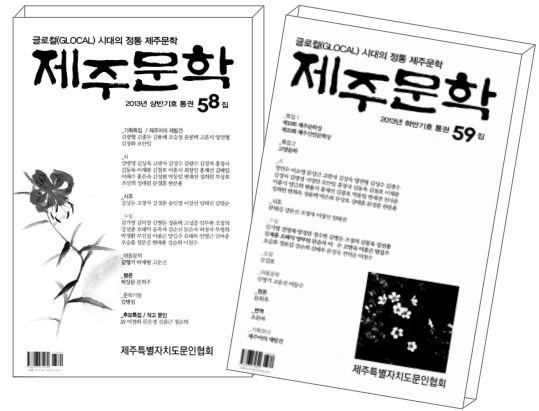
무용 / 2013 제주 무용계의 현황과 미래 이애리 · 144

영상 / 2013 제주 영상계-지역 영상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혁진 · 158

편람 / 각 장르별 연보 · 173



▲제주작가 제40호~43호
_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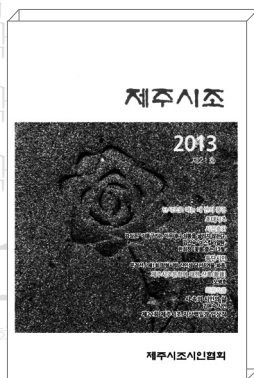
▲제주문학 58집~59집
_제주특별자치도문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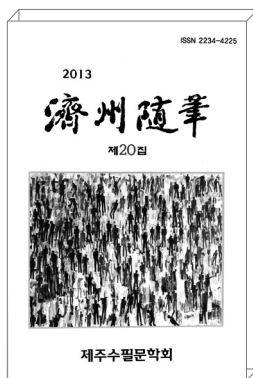
▲Kollim문학 21집 출판기념회_Kollim문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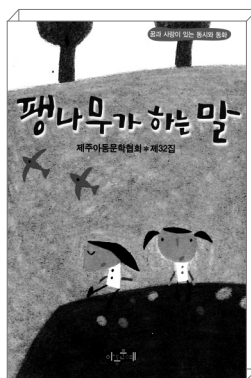
▲Baeknoksul 14집 출판기념회_백록수필문학회



▲제주시조 제21호
_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수필 제20집
_제주수필문학회



▲제주아동문학협회
제32집_제주아동문학협회



▲서귀포문학 24집
_한국문인협회서귀포지부



▲제72회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회원전
제22회 제주미술제_(사)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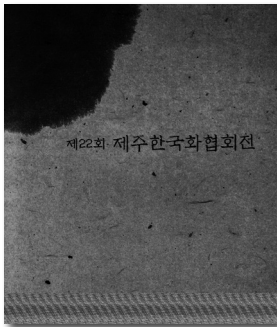
▲한·중 미술교류전
_(사)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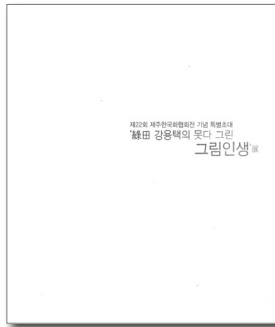
▲제15회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전
_(사)한국미술협회서귀포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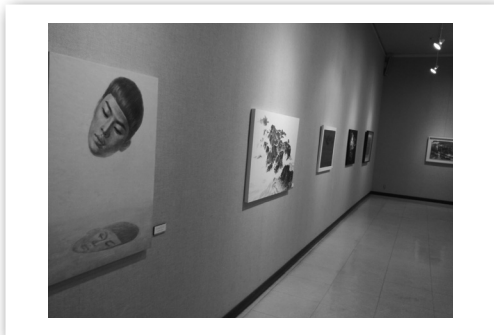
▲제12회 제주도예가회 정기전
_제주도예가회



▲제22회 한국화협회전_제주한국화협회



▲제12회 미술동인 집전_미술동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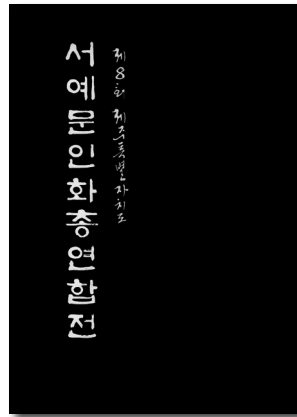
▲2013 섬·여백전_섬·여백회



▲2013 판.에디션_제주판화가협회



▲상묵30, 신탐라기행전_상묵희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 총연합회
_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2013 서예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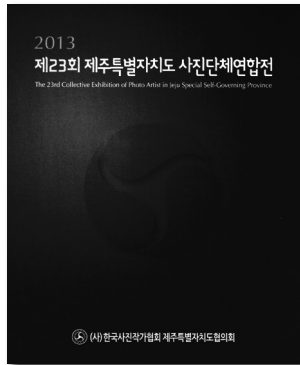
_ (사)한국서예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전
_(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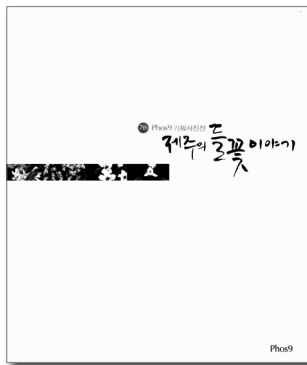
▲제주어멍덜어멍 살앗수광
_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단체연합전
_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2013 제주지부 회원전
_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Phos9 기획사진전
_ Phos9



▲제21회 녹색사진연구회 정기회원전_녹색사진연구회



▲제35회 기획주제전
- 제주영상동인



▲한·중 국제사진문화 교류전
_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제12회 섬에서 부는 바람 사진전
_ 섬에서 부는바람

2014 제주문예연감

화보로 보는_건축



▲대한민국건축대전 입상작품 제주순회전 및 회원전

_한국건축가협회제주건축가회



▲2013제주건축문화축제

_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제주지회,
한국건축가협회제주지회 공동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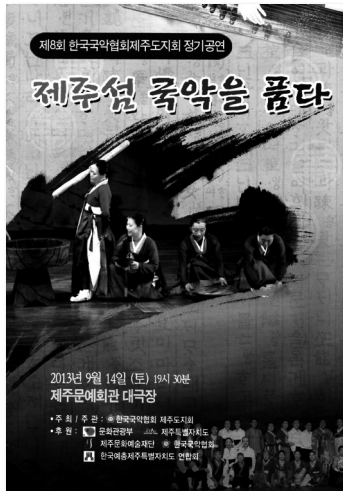
▲2013제주건축문화축제

_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 부문
본상을 수상한 '에스엠원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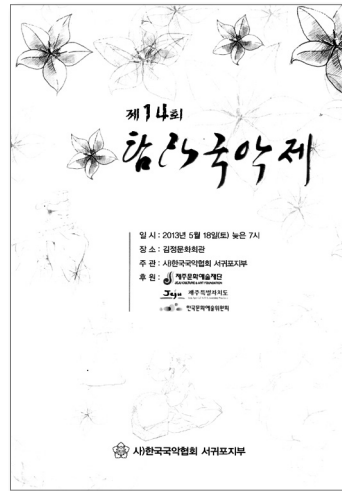


▲건축학회 제주지회 학술포럼

_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건축사회



▲제8회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정기공연
_ (사)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제14회 탐라국악제
_ (사)한국국악협회서귀포지부



▲허튼굿_노리안마로



▲2013 일요상설 공연
소나무숲 국악 콘서트
_국악연희단하나아트



▲제주섬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
소리축제-아리랑 아라리요
_민요페소리앗



▲삼석울림
_풍물굿패신나락



▲제81회 정기연주회_제주특별자치도립합창단



▲제103회 정기연주회_제주특별자치도립교향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_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제44회 정기연주회_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2013 가곡의 밤_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음악드라마-뽕꼬랑 레스토랑_제주콘서트콰이어



▲제19회 정기연주회_제주앙상블준



▲추억에 팝스 콘서트_한라윈드앙상블



▲제22회 소극장 연극축제
_(사)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낮술
_극단가람



▲낭독극장 다랑쉬
_극단세이레극장



▲무지개물고기
_세이레어린이극장



▲죽쓰는 할망
_자파리연구소



▲모두를 위한 동화 비오는날의 풍경 레이니데이
_꿈꾸는고물상



▲제43회 정기공연
_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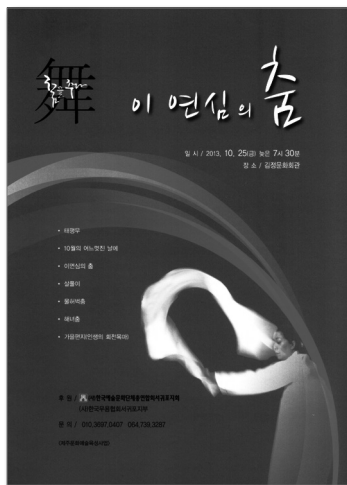
▲제 65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 추모공연
_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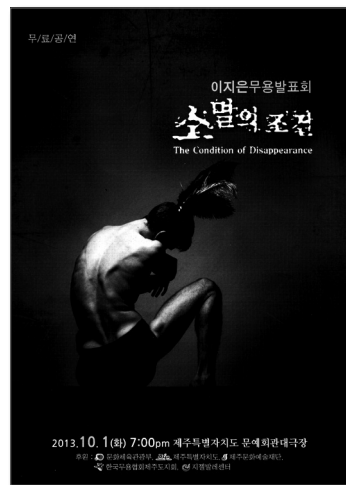
▲바람의춤 숨비소리
_(사)한국무용협회제주지부



▲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
_한국무용협회제주도지회



▲이연심의 춤
_이연심



▲이지은무용발표회_소멸의조건
_이지은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_ (사)제주여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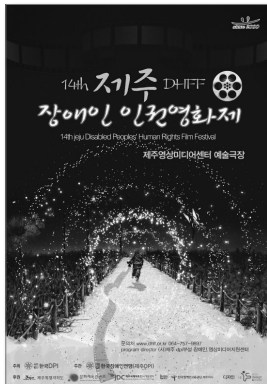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_감독과의 대화
_ (사)제주여민회



▲제4회 제주프랑스영화제 '사랑해파리'
_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제4회 제주프랑스영화제 '사랑해파리'-개막식
_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제14회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_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제14회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_조직위 출범식
_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제9회 제주영화제_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제9회 제주영화제-개막식_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총론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름값 하는 ‘특별한’ 문화예술을 기대하며

김수열

시인/제주작가회의 회장

I. 들어가며

우리들에게 장편소설 『녹두장군』으로 널리 알려진 송기숙 선생이 사적인 자리에서 문화란 무엇이라는 질문에 “짐승이 아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라고 짧고 굵게 풍자적인 정의를 내리시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크고 날카로움에 놀란 적이 있었다.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짐승이 아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라는 점에서 선생은 ‘짐승’의 대척점에 ‘인간’을 두고 문화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들만이 소통하는 기호는 있을지 몰라도 짐승이 학습을 통해 취사선택되고 시대를 반영하면서 대물림되는 문화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생의 이러한 풍자는 수정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근간에 와서 ‘문화’라는 보통명사는 전가의 보도처럼 동물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종횡무진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기업문화, 음식문화, 군사문화, 대학문화, 도시문화, 농촌문화 등등 아무튼 오늘날의 ‘문화’는 전방위적이고 불가치적으로 전락한 처지라 어디서든 누구든 갖다 붙이면 문화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받아들이면서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문화기본법 3조(정의)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징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문화에 대한 규정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듯 보이지만 ‘동물이 아닌 인간’이 하는 모든 것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함의에는 인간만이 지니는 본질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지구 상에 인간이 탄생한 이래 인간의 역사는 자연과의 부단한 투쟁의 기록이며, 투쟁의 지향점은 ‘보다 나은 삶’에 두고 있다. 그 과정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중층

적으로 누적되면서 오늘의 문화가 형성되어 왔고 앞으로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동물이 아닌 인간’에 의한 문화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직관과 감성적 표현 영역이 바로 예술이다. 때로는 숨결로, 때로는 온몸으로, 때로는 붓으로 ‘지금-여기’에서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부단한 감성적 실천행위가 곧 예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지금-여기’ 즉 ‘2013년-제주’라는 시간성과 공간성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2013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때 제주의 문화예술은 그러한 시간성을 어떤 그릇에 무슨 내용으로 담아냈을까를 살피는 일이 될 것이다.

총평 집필 청탁을 받고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는 부문별 전문가들에 의해 정리된 10개 부문의 평가서였다. 총평이 보다 진정성과 객관성을 지니려면 부문별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평가서에 기대지 않고 직접 자료를 찾고 조사하면서 나름의 판단으로 총평을 작성해야 했겠지만 그것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부문별 약평은 전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평가서를 요약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의 수고로운 글을 읽으며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평가의 지표 내지는 평가의 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부문별 평가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 혹은 평가의 틀을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를 작성자들과 공유하는 사전작업이 전제되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아쉬웠으며 차후에라도 이런 점들은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II. 2013년 제주문화예술 약평

(1) 문학 부문에서는 문학단체로서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뿐만 아니라 자체 발간하는 기관지인 <제주문학>과 <제주작가>를 통해 회원들의 문학적 성취를 가시적으로 독자들에게 제시해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각종 행사에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두 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학 행사를 ‘그들만의 축제’ 정도로 여기는 풍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작품집 발간은 전년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장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신인 등단의 경우도 작품집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시와 수필에만 편중된 현상을 띠었다.

문학행사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행사가 열려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학의 장을 마

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주시사랑회〉의 꾸준한 시낭송 행사는 100회를 돌파하고도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가칭)제주문학관 건립과 관련된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의 대표적 문학단체인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를 중심으로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제주문학의 집’을 개관한 이후 그 활동이 사실상 멈춰버린 감이 없지 않다. 문학관 건립이 문인들의 실속 챙기기나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두고 싶다. 다른 지역의 경우 문인 개인의 문학 적 업적을 기리는 문학관이 전국 각지에 건립되어 해당 지역의 문학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제주문학관 건립은 더는 늦춰서는 안 될 지역 문학의 현안인 것이다. 새로 출발한 도정에 기대를 걸어본다.

(2) 미술 부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볼 때 개인 및 단체전이 299건으로 2012년 227건에 비해 다소 진전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소규모 공간들이 증가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다채로운 전시 형태가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도외에서 이주해 온 미술인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다.

2013년을 대표할 만한 미술 부문으로는 탐라미술인협회가 중심이 된 프린지페스티벌을 들 수 있겠는데, 비주류 예술가 혹은 단체들 그리고 아마추어부터 전문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된 프로그램으로는 거리 전시, 벽화그리기, 체험미술 등으로 구성된 프린지 아트워크 등이 있는데 원도심 거리에서 예술이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맞물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두 번째로 ‘왓종 미술관’의 개관이다. 이 미술관은 스위스 건축가 다비데 마쿨로(Davide Macullo)가 설계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1층에는 어린이 미술교육실과 수장고, 도예실을 갖추었고, 2층은 전시공간으로 이왓종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앞으로 서귀포의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 번째로 서울 홍대 앞에서 12년간 ‘실험예술축제’를 꾸려왔던 김백기 작가가 한국 퍼포먼스 아트 35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실험예술축제를 연 것인데 15개국에서 5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중섭 거리,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강정포구 등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 바 있다.

끝으로 제주도립미술관이 개최한 〈세계미술거장전-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전〉을 들 수 있겠다. 연인원 7만 명이 다녀감으로써 도내에서 진행된 단일 행사로는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전시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3) 서예 부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인전과 특별기획전 7회, 단체전과 공모전 등 다채로운 전시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전 및 특별기획전의 경우 <남계 박경석 유작전>(2. 11.~16.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2013 세계문자 서예 대표작가 제주초청전>(3. 7.~12.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주서화의 맥 특별전>(5. 30.~7. 1. 제주대학교 박물관), <박동규·장지중 2인 서화전>(8. 30.~9. 3.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규당 조종숙 작품전>(9. 7.~14. 제주현대미술관), <서귀소옹과 20세기 서화거장 김여 유희강>(10. 4.~11. 11. 소암기념관), <대호 김형식 전각전 '꽃밭 속 삶의 여운'>(11. 2.~7. 조천읍 선흘꽃밭) 등이 열렸다.

단체전으로는 <제4회 백록예문회전>(2012. 12. 29.~2013. 1. 2.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7회 탐라서예문화회전>(2013. 1. 8.~12.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3회 상지서회전>(2. 3.~8.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2회 목랑회전>(2. 17.~22.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13회 한연회 서예전>(2. 24.~28.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한·중 장애인 서화 국제교류전>(4. 7.~11. 중국 심천시 나호구 문원각 예술관), <상묵30 신탐라기행전>(4. 17.~21.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4회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제주지회전>(4. 27.~5. 1.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주·부산 서화교류제목전>(5. 5.~13. 신산갤러리), <한국서가협회 제주·인천교류전>(5. 10.~1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제4회 지원문인화회 회원전>(5. 18.~22.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56회 영주연묵전>(5. 30.~6. 3.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전>(6. 9.~13.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12회 해정 박태준 선생 추모서전>(6. 25.~29.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주-대구·경북 서예가협회 교류전>(7. 19.~24.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2013 제주서예문화축제>(7. 25.~29.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주-강원 문인화 교류전>(8. 16.~20.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아름다운 한글서예전>(8. 21.~24.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전>(9. 4.~7.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부채그림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9. 18.~27.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제57회 서귀포소묵회전>(10. 8.~12.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전북 서예교류전>(10. 17.~23. 군산 예술의전당),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초대작가전>(11. 1.~6.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졌다.

공모전으로는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대전>, <제39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제12회 한글사랑 서예대전>, <제13회 전국추사서예대전>,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 등이 다채롭게 열려 많은 수상작이 배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다채로운 행사에도 불구하고 1) 인적 구성의 노령화와 청년작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2) 학교 교육의 서예교육 부재 3) 서예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인문학과의 접목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4) 사진 부문의 경우, 2013년은 그 어느 해보다 왕성한 활동을 보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은 대표적 전시예술이기에 전시 공간 확보와 전시 기회 제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내 여러 기관에서 전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활발한 사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각종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특별 전시실 및 로비는 물론이고 세계자연유산센터, 한라수목원 생태학습관 전시실, 제주웰컴센터, 4·3평화공원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면서 일회성에 그치던 전시가 순회 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사진전은 2012년 44회(개인전 10회, 단체전 19회, 기관 전시 8회, 공모전 3회, 기타 4회)에서 2013년에는 67회(개인전 9회, 단체전 35회, 기관 전시 8회, 공모전 8회, 기타 7회)로 양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편차는 사진 부문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2012년 제주시 36회, 서귀포시 6회, 도외 2회. 2013년 제주시 54회, 서귀포시 9회, 도외 4회)

개인전 분야에서 2013년 기억할 만한 전시는 사진작가 곽상필의 〈상필이가 만난 사람들〉 시리즈가 어느덧 12회를 맞아 동문재래시장을 주제로 전시를 펼쳤다는 점이다. 불편한 신체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작가보다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그는 이외에도 야생화 주제전, 4·3 주제전, 제주자연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자연사랑미술관’을 만들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재철의 작품 활동이다. 〈비둘이 당근과 무 이야기〉(3. 17.~24.), 〈나무와 돌이 함께한 세월〉(6. 1.~9. 30.) 등이 눈여겨볼 만한 전시였다.

단체전으로는 탐라사진가협회가 주최한 4·3 관련 전시가 눈에 띈다. 해마다 4·3을 맞아 시대정신에 입각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탐라사진가협회는 2013년에도 4·3 사진전 〈후유장애인들의 아픔을 다시 듣다〉(4. 3.~7.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저 켜것들의 삶〉 사진전(4. 3.~7.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잃어버린 마을에 남은 자들〉 사진전(4. 11.~25. 4·3 평화공원 전시실) 등을 선보였다. 특히 탐라미술가협회에서 활동 중인 김기삼의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4·3진상규명운동〉(1. 4.~10. 신산갤러리)은 그야말로 사진으로 보는 제주 4·3의 역사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2013년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공모전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총 11회에 걸쳐 공모전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사)한국사진가협회 제주지부의 공모전이 예년에 비해 추가되면서 많은 사진동호인들의 창작 열기를 북돋아주었다는 점이다.

(5) 2013년 제주 건축계에서는 다른 부문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실질적인 건축 행위를 통한 구조물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문화활동, 그리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를 위한 지원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행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 3단체(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가 주축이 된 <제주건축문화축제>가 열렸다. 9월 14일 제주 북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아름다운 집 그리기’, ‘아름다운 거리(마을) 풍경 그리기’, ‘미래의 도시 모습 그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미래 시민이 될 어린이들에게 도시와 건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 문화적 가치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3 제주건축문화대상이 함께 열렸는데 2013년부터는 학생설계공모 부문의 질적 수준 및 제주미술대전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설계공모전은 워크숍 형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두 번째로는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건축대전 입상작품 제주 순회전 및 한국건축가협회 회원전’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문화예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건축대전 입상작품 80여 점과 제주건축가회 회원작품 15점이 출품되어 제주도 건축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원전과 2013 제주건축문화대상 수상작품이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홀에서 열려 제주도민들의 건축문화의식 향상과 건축사 및 건축 관련 학생들의 창작 의욕 고취 및 제주건축계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6) 국악 부문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한 해였다. 2012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국악 관련 단체가 50개 단체에서 64개 단체로 늘었다는 점, 국악 관련 행사가 초청 공연을 포함해 2012년 50여 차례에서 80여 차례로 늘었다는 점은 표면적으로 양적인 성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2012년 나타났던 민요 중심의 단체 수와 공연 그리고 타악 중심의 단체 수와 공연 횟수의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체 수가 늘어난 민요의 경우 등록된 단체는 많으나 단 한 차례의 공연 실적도 없는 단체가 상당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우선 민요 단체가 지나치게 난립 양상을 띠고 있고 그 활동도 강습회를 중심으로 민요 보급에 치중하면서 생겨난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악 분야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첫째 타악 공연 단체인 <노리안마로>와 민요 단체인 <민요패 소리앗>의 꾸준한 활동이다. 특히 <노리안마로>의 호주CNY페스티벌 참가(2. 6.~10.), 2013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가(7. 25), 뒤 몽드 생로즈

민속축전 참가(8. 1.~10.), 프라이머 멕시코 코리아 참가(9. 24.~30.) 등을 통해 제주의 타악 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민요패 소리왓〉이 제주의 굿이라는 원형질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창작하고 있는 작품들은 앞으로 제주 민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대정여고에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중앙여고 국악관현악단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보완해 나간다면 제주 국악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도립국악관현악단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이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제주 국악계가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1) 창작국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제주 국악계에는 비평다운 비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국악 작곡 기법을 전수할 마땅한 교육기관이 전무하고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와 비교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3) 전통 국악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국적 불명의 음악이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창작되고 발표되고 있다는 점 등은 제주 국악계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7) 양악 부문은 전년 대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부문이라 하겠다. 물론 조사 방법을 보완하다 보니 급증한 면이 없지 않으나 2012년 212회 공연에서 2013년에는 643회로 무려 3배 정도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제주시가 492회로 76.5%에 해당하는 반면 서귀포시는 151회로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부문에 비해 지역적 편차가 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에 관악단과 합창단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양악을 다시 클래식 공연과 복합공연 그리고 기타로 분류했을 때 클래식 공연이 440건으로 68.4%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공연을 다시 세분화하여 기악, 성악, 오페라로 나누었을 때 기악 분야가 338건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공연이 기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클래식 분야를 구성원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전문음악단체 공연이 354건(80.5%), 청소년 음악단체 공연이 54건(12.3%), 동호인 음악단체 공연이 32건(7.2%)으로 나타나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양악 부문에서는 클래식이, 클래식 중에서는 기악이, 구성원별로는 전문 집단에 의한 공연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전문가 집단에 의한 공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양한 활동과 공연을 통해 도민의 음악적 감성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전문가 집단의 활동에 비해 청소년과 동호인의 활동이 눈에 띄게 열악하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시대와 조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문화 활동,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레퍼토리 개발 등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과 동호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8) 연극 부문의 경우, 여느 해와 다름없이 도내 극단의 공연보다는 도외 극단의 공연이 활발한, 다시 말해 도내 극단의 침체가 전년에 이어 지속되는 현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과리연구소의 <오돌또기>는 전국 7개 도시 순회공연과 일본 초청 공연이 이루어졌고, 놀이패 한라산이 주최한 전국민족극한마당 행사가 제주에서 열려 전국의 마당극 단체들이 축제를 벌였는데 여기에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극단 달오름, 푸에르토리코에서 활동하는 극단이 합류하여 풍성한 마당극의 다양한 모습을 관극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3년 제주 연극 부문의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제31회 전국연극제 예선대회를 겸한 제22회 제주연극제가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주관으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려 도내 3개 극단이 참가했다.

또 제6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해비치리조트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전국 문예회관, 문화예술단체와 기획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 공연장 소프트웨어업체 관계자는 물론 도민, 관광객이 함께하는 제주 지역 대규모 문화 이벤트로 기획되었으나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와 함께 제16회 제주청소년연극제가 7월 1일부터 5일까지 3개 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렸으며, '생명의 호흡, 평화의 몸짓'을 슬로건으로 놀이패 한라산이 주관한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바로 뒤를 이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제26회 전국민족극한마당이 제주도문예회관 일대와 명도암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그 밖에도 9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2013 제주전국장애인연극제가 개최되었으며, 도내 극단들의 연극 축제인 제22회 소극장연극축제가 12월 8일부터 3주간에 걸쳐 극단 가람, 극단 이어도, 극단 세이레극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2013년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소극장연극축제는 지역 소극장이 침체 일로에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인적 자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제주 지역에서 신인 등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9) 무용 부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다른 장르에 비해 그 활동이 매우 미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총 15회에 그쳤던 도내외 공

연이 2013년에는 34회로 갑절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다른 장르에 비해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은 무용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2012년 총 15회의 공연 중 제주도의 공연 1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14회가 제주시에에서만 이루어졌고, 2013년에도 제주도의 공연 2회, 서귀포 공연 3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통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립무용단에 의한 활동으로, 도립무용단의 활동을 제외하면 제주의 무용은 그 자취를 찾아보기도 힘든 현실이라는 점이다. 물론 무용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 이를테면 무용 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무용인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땅히 보여줄 만한 제주다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제주에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만의 것이 산재함을 감안할 때 무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2013년 제주에서 이루어진 기억할 만한 공연 2건을 소개해 보면, 우선 서귀포에서 〈춤을 추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무용인 이연심 선생의 발표회가 그것이다. 태평무와 살풀이, 물허벅춤과 해녀춤을 선보였고, 특히 여러 무용수들과 함께 한 ‘나의 휘파람은 차라리 통곡을’이란 작품은 제주 여인들의 고단한 삶을 춤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나머지 하나는 2013년 12월 제주춤아카데미가 한라아트홀에서 개최한 김희숙 선생의 춤공연이 그것이다. 자신의 스승인 고(故) 송근우 선생의 춤사위를 비롯하여 제주굿에서 발원한 춤의 시원을 담아내고자 한 노력이 돋보였던 공연이었다. ‘해조음’, ‘영개울림’, ‘한량무’, ‘새타령춤’, ‘검무’, ‘말명장고’, ‘생불할망’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말명장고’와 ‘생불할망’은 제주의 굿에서 차용하여 제주의 무용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10) 영상 부문에서 2013년은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오명 감독의 〈지슬〉이 1월 말 열린 세계 최대 독립영화제인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국내 작품 최초로 극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기쁜 소식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3월 전국 개봉과 동시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양성영화 극영화 부문 흥행 기록을 새로 세우는 기염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4년 만에 부활한 제9회 제주영화제는 2013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메가박스 제주와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에서 열렸는데 출품된 2백여 편의 작품 중 예심을 통과한 30편이 본선에 진출하여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사)제주여민회와 설문대여성문화

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가 ‘여성, 어깨를 맞대고 나서다’라는 주제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려 11개국 29편의 다양한 ‘여성 영화’들이 제주의 관객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어 제14회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열려 국내 11개 작품, 해외 9개 작품 등 총 20개 작품이 선을 보였으며, 영화를 통한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제주프랑스영화제가 ‘사랑해 파리’라는 주제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열렸다.

영상 부문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부분은 제주 남원초 6학년 고유경 학생이 제작한 〈나는 자유를 갈망한다〉와 오지민 학생이 제작한 〈남자답게 사는 법〉이 제13회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에서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장이 수여하는 장려상을 받음으로써 남원초가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에서 5년 연속 입상하는 ‘영화 명문’ 학교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지원은 ‘첨단영상도시’라는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다.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영상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제주만의 특성을 담은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영상교육 환경 조성이 무척 아쉬운 한 해였다.

III. 나오며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2013년 제주의 문화예술을 두루 살펴보았다. 부문별 전문가들의 글에 힘입어 총평을 쓸 수 있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적어두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자 한다.

우선 ‘연감’에 대한 생각이다. 사전적 의미로 ‘연감’은 ‘어떤 분야에 관하여 한 해 동안 일어난 경과, 사건, 통계 따위를 수록하여 일 년에 한 번씩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이라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예연감’은 ‘한 해 동안에 문학과 예술계에서 일어난 일을 계통적이고 통계적으로 엮어 기록한 책’에 해당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 정리된 자료가 ‘2013년 한 해 동안 문학과 예술계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자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전문가들에게 전달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이 연감은 전혀 자료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감은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이다. 지금은 엄연한 디지털 시대이다. 이참에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이 ‘연감’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한 번 기록된 역사는 그 자

체가 곧 역사가 되는 것이며, 기록되지 않은 역사 혹은 왜곡된 역사는 그 자체가 버려진 역사 혹은 뒤뜰린 역사로 영원히 잊히거나 잘못 기록된 채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여느 해나 마찬가지로 많은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제주’라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충족하는 예술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문화예술행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립 또는 관변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켜봐야 했다.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넓히고 감성적인 삶의 질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는 문화예술행사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질적 심화 혹은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다시 말해 행사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작가 혹은 예술가의 개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식의 전환을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전년과 비교하여 나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는 행사라면 도민들은 더는 찾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행사를 위한 행사’, ‘그들만의 축제’, ‘그 나물에 그 밥’으로는 관객들을 더는 끌어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문화지수라는 말이 있다. 문화예술지수라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듯싶다. 얼마나 훌륭한 예술이 얼마만큼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그 속에서 삶의 감동과 행복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제주는 많은 가능성을 지닌 곳이다. 자연환경이 그렇고 인문학적 조건이 또한 그렇다. 이제 남은 것은 문화예술행정과 문화예술인들의 인식 전환이 아닐까 한다. 문화예술로 행복한 도시는 바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시대와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할 일이다.

蛇足

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 2013년 제주문화예술계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사건은 광대이자 심방인 ‘정공철’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1980년 서슬 퍼런 시절에 광대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때로는 마당극 광대로서 때로는 심방으로서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한 그에 대해 2013년을 평가하는 자리에 아무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물론 부문별 평가가 예술가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몇 자 남겨 기억하고자 한다.

문화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다양한 행사와 활동, 스미지 못하는 아쉬움 - 2013년 제주지역 문학의 현황과 과제

변 중 태

시인/〈다충〉편집주간

I. 제주는 중심인가, 주변인가

제주는 중심인가, 주변인가? 이 물음에 어이없어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주변이라는 대답을 하건, 중심이라는 대답을 하건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 다만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터이니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대답은 지역 문학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기에 그의 대답은 지역 문학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매우 유의미할 수밖에 없다. 언제부턴가 중앙집권적인 정치 형태는 지방분권화라는 용어로 대치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듯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각 부처가 소위 중앙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빠져나와 각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수장을 뽑고, 의회 의원을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뽑는 지방선거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더더욱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자치도, 그것도 특별자치도라는 그럴 듯한 기치를 내건 지도 어느덧 9년이 지났다.(2006.07.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하지만 이러한 이름에 걸맞은 자치가 실현되었느냐는 본고의 영역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자치화 시대의 문학 부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인 지역을 너무나 당연하게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이는 정치·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부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각종 언론이나 문예지에서 ‘중앙 대 지방’이라는 문화의 이원화 구도의 문제점을 종종 진단하곤 했다. 그 시절만 해도 문학을 포함한 모든 문화 현상이 서울이라는 ‘중앙’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던 것이 현실이었으니, 어쩌면 그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초고속 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유통의 주기가 짧아져 전국이 말 그대로 일일생활권으로 묶인 요즘은 그 사정이 좀 달라졌을까. 유감스럽게도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리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주간을 맡고 있는 〈다충〉은 중앙 일변도의 문학적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안티테

제로서 지역 문학의 활성화를 목표로 1999년 창간했다. 그 당시 인구 50여 만 남짓, 전국 대비 1%에 불과한 제주에서 순수문예지를 창간하는 것은 누구의 말마따나 ‘정신 나간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들이 우리의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해인가 한국문인협회가 주최하는 문학세미나가 제주에서 열린 적이 있었다. 전국의 문인들이 모여 세미나를 마치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다른 지역 문인들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인, 혹은 소설 쓰는 아무개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주에서도 원로라고 할 만한 선배 문인들은 ‘제주의 아무개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바탕에는 철저하게 자신은 변두리의 문인이라는 소외의식이 자리하고 있던 것이라고밖에 들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3류 문인(하긴 문인에도 등급이 있거나 한지는 모르겠지만)이 제주를 찾으면 쫓아나가 술을 사고 밥을 사는 모습을 종종 보았던 것이 자극제가 된 것도 사실이었다.

자치화가 자리 잡은 요즘은 제주 문인들이 그 시절의 변두리 의식을 벗어나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자기가 사는 동네의 문학을 가버이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고, 서울 지역의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할 기회만 찾고 있다. 전국에서 350종이 넘는 순수문예지가 발간되고 있고, 그 중에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문예지보다 훨씬 질적으로 우수한 문예지들이 각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 쪽으로만 시선을 고정시킨 것은 혹시 아직도 방면(放免) 받고 풀려날 날만을 기다리는 유배인의 후손으로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까닭에 필자도 ‘지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990년대 문민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정부는 일정 부분의 행정 및 재정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변두리를 의미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지역’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범 1기 때 문학, 미술 등의 장르 소위원회 외에 ‘지역문화소위원회’를 두어 소외되고 낙후를 의미하던 지방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적인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그 어느 곳도 ‘지역’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은 그 지역의 정체성이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어 전국, 아니 세계에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 전달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서울 손님 접대하기 식 유배의 유습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문학적 현상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누락된 것은 필자가 수집한 자료를 보충하여 기술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미비로 말미암아 혹시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II. 제주문학단체의 양(陽)과 음(陰)

지역 문학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문단의 움직임이 먼저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제주 문단은 제주문인협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제주작가회의(1998년 2월 14일 창립 당시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지회)로 나뉘고 난 뒤 두 단체를 중심으로 제주 문학의 큰 흐름을 이어왔다. 하지만 문단 위주의 문학의 지형도는 2천 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그 색깔이 희미해져 두 단체 모두 뚜렷한 문학 이념을 표방하기보다 지역 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부수적으로 문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지역 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자극이 되고 있음도 사실인데, 제주문인협회의 2013년도 주요 행사로는, 2013 시의 향기를 찾아서,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제주4·3 65주기 추념 시화전·시낭송회, 의녀 홍윤애 추모문학제, 제52회 탐라문화제 문학축제, 제13회 제주문학상 및 제23회 제주신인문학상, 『해뜨는 섬 우도 발간』 등이 있는데, 이 역시 지역 문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문학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반년간(半年刊)으로 발간되는 『제주문학』은 그동안 일었던 불협화음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와 기획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주작가회의의 주요 행사로는 4·3 시화전, 4·3 평화 문학기행, 오월문학제 및 전국문학인대회, 제주작가 신인상 시상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 문학의 터전을 다졌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지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주작가』를 계간으로 발간하여 회원들의 작품은 물론, 외부 기고와 기획 등을 통해 지역 문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두 단체의 활동은 여전히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음도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학인들의 단체에서 주도하는 각종 행사는 도민들의 참여가 지극히 저조한 현상을 보임으로써, ‘당신들의 축제’로 자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본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두 문학단체의 잘못이라거나, 행사의 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지역의 문학을 가버이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마인드도 그러한 현상의 원인임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문학적 풍토를 조성하는 일에 지속적 관심을 쏟는 것은 두 단체가 지닌 향후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그 외의 문학 단체로 <국제P.E.N클럽 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연간(年刊)으로 무크지를 영한 대역본으로 발간하는가 하면, 외국과 활발한 문학 교

류로 제주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르 클레지오(Jean-Marie Gustave Le Clezio)를 조명하면서, 작가의 문학적 고향인 모리셔스를 방문, 현지 문인협회와 교류로 지역 문학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해 국내에 소개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Ⅲ. 동인 활동과 지역 문학의 활성화

우리 한국문학의 역사에서 문단의 시대는 끝나고 있다는 선언적 명제를 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도 사실인데, 이른바 동인지 문단이 그것이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각종 동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문학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문학적 지향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문학관(文學觀)을 함께하기 위해 소규모 동인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합평하고, 동인지를 발간하고,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학적 성취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의 문학적 토양을 살찌우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역 문학과 함께한 동인은 누가 뭐래도 <한라산문학동인>임을 아는 사람은 안다. 생활문학을 표방하면서 창립한 이 동인은, 그동안 구성원들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등단을 하고, 동인지를 발간하고, 시화전을 여는 등 왕성한 문학적 성취를 이룩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문학의 지형이 탄탄해졌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다음 제주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것은 <다충문학동인>이다. 1991년 동인을 결성하고, 제주를 중심으로 서울 지부 동인회를 결성하여 전국화를 꾀하고 있는데, 동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주를 기반으로 1999년 계간문에 <다충>을 창간하기도 하여 제주 문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음을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예연감』에 제대로 언급되거나 조명되지 않아 제주문학의 역사가 아닌 듯이 취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 동인은 반년간 동인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다충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지령 62호를 넘기고 있다.

시조 중심의 동인으로 결성되어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인으로 <정드리문학회>를 빼놓을 수 없다. 정기적인 자작시 합평회를 통해 서로의 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연간으로 작품집을 발간하는데, 도내외 초대시인의 작품을 수록하기도 하고, 주목할 만한 시인을 집중 조명하는 코너 등은 눈길을 끈다.

그 밖에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초승문학동인>이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한다는 소식과 <고광문학동인>이 결성되어 동인지를 발간한다거나, 지역별로 <구좌문학회>, <애월문학회>, <성산포문학회> 등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같은 문예지 출신끼리 문학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와,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독서회의 활동도 지역의 문학적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각 장르별 문학회의 활동도 활발하여, 문협과 작가회의를 초월한 모임으로, 연간 작품집을 발간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 문학의 비옥한 토양을 이루고 있음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특히 시조와 수필 장르는 활발하고, <젊은시조문학회>의 활발한 활동 또한 두드러진 성과로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

IV. 지역 주민들 속으로 스미는 문학 행사

문인 단체와 동인들이 자기만족적인 행사를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문학 운동 내지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는 것 또한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다. 단지 문인 자신들과 문학 단체나 모임에서 열심히 한다고 지역 문학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내 모 서점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서점 대표는 지역의 문학을 아끼는 마음에 지역 문인 코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도내 작가와 시인들의 작품집을 잘 보이는 곳에 별도로 운영을 했다. 그런데 어느 문인이 그를 찾아와서 자신의 작품집은 제주문인 코너에서 빼고 일반 작품집들과 섞어 달라고 하더라. 이유인즉슨, 제주문인이라고 하면 지역 독자들이 낯잡아봐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성경에도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없다(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고 하고, 속담에도 ‘자기 동네 처녀 예쁜 줄 모른다’거나, ‘자기 동네 무당 용한 줄 모른다’는 말이 있음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자기 지역 문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먼저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가. 어떤 문학 행사를 참석해 봐도, 문인들끼리 ‘당신들의 축제’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자괴감 어린 탄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그 서점의 제주문학 코너는 오래지 않아 철수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행사들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행사들이 적지 않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행사는, 제주시사랑회의 시 낭송회일 것이다. 제주시사랑회는 지난 10년 여 동안 매월 마지막 목요일 저녁 7시 산지천 해상호에서 제주도내 시인과 시민들을 초청해 시 낭송회를 꾸준히 가져왔다. 시 낭송을 문학 외적인 예술 장르로 인식하는

분위기에서도 구성원들은 꾸준히 생활 속으로 시를 스며들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3년 제100회를 기념하는 정기 시 낭송회를 <제주의 겨울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한라도서관 홀에서 개최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문학적 분위기와 시적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제주문인협회가 주관하는 문학동인축제가 산지천 분수광장에서 열려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인들 간 교유의 장이 됨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접근 기회를 제공하였다. 탐라문화제 기간에는 한라산문학동인의 시화전이 탐동 야외음악당 광장에서, 문화거리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제주작가회의가 주관한 2013 포엠 콘서트 '거리에 흐르는 가을의 시' 행사가 각각 열렸고, 제주문인협회는 제1회 의녀 홍윤애 추모문학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행사는 유배인 조정철을 사랑한 제주 여인, 열녀 홍윤애(?~1781)는 조선 정조 때 살았던 '제주의 춘향'으로 평가되는 여인인데, 제주 유배사와 더불어 그를 추모하는 문학제 행사를 통해 잊혀가는 지역 문화와 역사를 문학적으로 일깨웠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각 단체나 동호인별로 문학 기행이나 문학의 밤, 출판 기념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에도 문학계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V. 작품집, 작가들의 정신적 열매

이 땅의 문인으로서 자신의 피와 땀을 적어 써놓은 작품을 엮어 작품집을 낸다는 것은,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기에 필생의 역작(力作)을 가려 꼼꼼히 손질을 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인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나온 작품집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는 문인의 좋은 작품집을 읽고, 그로 인해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문인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문학 사회에 대한 책무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 제주 문학의 충위를 커켜이 쌓아올린 작가들이 적지 않다. 자신들의 창작의 결과물인 작품집 발간이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였는데, 특히 시와 수필 부문의 발간 실적은 지역 문단을 양적으로 풍성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제주도내 문인들의 분포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시와 수필 분야에 치중되고 있음은 문학의 불균형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특히 희곡과 평론 분야의 적은 발간 실적은 옅은 작가층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 부문 신인들을 발굴, 지역 문학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와 시조 분야는 15명, 소설 2명, 희곡 1명, 수필

16명, 아동문학 3명 등의 순증 현상을 보인 반면, 평론과 기타 분야에서는 발간 실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1〉 2012년과 2013년의 발간 작품집 비교

연도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기타	계
2012	25		7	0	7	3	2	7	51
2013	35	5	9	1	23	6	0	0	79

VI. 지역 문학의 미래, 신인 등단

문학의 미래를 이끌 신인들의 등장은 문학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반가운 일이다. 물론 1980년대 이후를 ‘문인 대량생산 시대’라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고, 그러한 바탕에는 함량 미달의 신인들이 문단에 쏟아져 나오는 현상도, 그로 인해 문학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고스란히 우리 문학사회가 떠안아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기관지를 제외하고 350종이 넘는 문예지가 발간되고 있다. 그 문예지들을 통해 등단하는 문인의 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많은 문예지들 가운데, 그 발간 주체들이 진정한 문학 정신을 가지고 발간하는 문예지는 채 10%가 못 된다는 비판을 들은 적이 있다. 흔히 말하는 ‘문학 장사꾼’들이 생계나 벌이를 위해 등단 장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까닭에, 등단을 고려한 문학청년(연세가 지긋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런 표현이나, 등단 이전에 문학 공부를 하는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들 입장에서는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언젠가 한국문인협회가 제주에 와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 문인이 이사장에게 건의하기를, “문단에 삼류들이 너무 설치는데, 문협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에 대해 당시 이사장은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 “선생님, 삼류면 차라리 낫습니다. 6류, 7류가 설치하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인들 중에는 ‘등단이 완성’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경우를 본다. 등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도 좋다.’는 정도의 면허증을 딴 셈인데, 등단만 하면 대가인척 하는 사람도 적잖이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신인들의 등단이 무척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문단에 등단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물론, 아직 일본에서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등단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본디 글 잘 쓰는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니라,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뽑는 제도다. 그런데 문학교시라고 일컬어지는 신춘문예 당선자조차 당선작이 대표작인 경우를

너무나 흔하게 보아왔다. 심지어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면서, 등단 거래를 했다는 얘기도 비일비재하게 들리는 것을 보면, 문인이라는 것을 고가의 장식품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될 듯하여 씁쓸함을 느끼게 된다.

지난해 우리 제주 문단에 새내기로 등장한 사람들은 시인 5명, 수필가 6명 등인데, 이 중 소설 분야나 평론, 희곡 등은 전무한 형편이고, 시와 수필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학의 장르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개성과 적성이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 흔히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다 같은 문학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필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발상 이전의 단계, 기본적인 사고 체계가 다른 장르들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이나 언어를 다루는 방향도 전혀 다른 섬세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장르 선택에 앞서 자신의 기본적인 성향을 먼저 판단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신인들의 등단에 시와 수필을 제외한 장르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 제주지역 문학의 편중 현상을 심화하는 것이라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더구나 비단 지난해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어떤 이는 제주 문학에서 소설 장르가 열악한 이유를 지역 방언에서 찾기도 한다. 표준어권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제주 사람들이 소설을 쓰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진단도 그럴 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제주의 풍광과 제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맛있는 소설을 써낼 소설가들의 등장이 간절히 바라진다. 또한 지역의 문학 현상에 대한 예리한 비평을 해줄 비평가, 우리의 넉넉한 구전들에 현대적인 옷을 입혀줄 수 있는 희곡 작가의 출현도 간절하다.

〈표2〉 2013년 등단 신인 일람

장르	성명	내용
시	김철수	〈문예운동〉 2013 봄호(117호) 시 부문 당선/ 당선작 「심언의 다리」 등 3편
시	박은희	첫 시집 발간/ 시집 「춤추는 옛장수」
시	오상석	〈문학광장〉 9·10월호 신인문학상 당선 / 당선작 「달팽이」 등 3편
시	신태희	제주문인협회 2013년 신인문학상 당선/ 당선작 「바늘귀이야기」 등 4편
시	김대술	첫 시집 발간/ 시집 「바다의 푸른 눈동자」
수필	은희	〈현대수필〉 2013 여름호 신인상 당선 / 당선작 「언어에 대한 단상」
수필	곽한나	〈문학시대〉 2013년 봄호 당선 / 당선작 「풍경 속의 풍경」
수필	강덕수	월간 〈한국시〉 2013년 8월호 수필 부문 신인작품상 당선 / 당선작 「고향에 진 빚」 등 3편
수필	한복섭	〈대한문학〉 2013 가을호(통권 43호) 수필 부문 신인문학상 당선 / 당선작 「아내의 생일」 등 2편
수필	강성균	〈현대문예〉 추천문학상 수필 부문 당선 / 당선작 「어머니에게 아들은 무엇인가」
수필	현정희	〈수필과비평〉 제146호 신인상 당선/ 당선작 「조약돌의 사상」

VII. 지역 내 공모전과 문예지의 발간

지금까지 연감에서 거론되지 않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은 지역 내 공모전과 문예지 발간을 들 수 있겠다. 제주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사와 단체에서 전국 단위 문예 작품을 공모하는 것은 지역 문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라일보>의 신춘문예 작품 공모와 <영주신춘문예> 작품 공모는 그동안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 더 나아가 세계에 제주지역의 문학적 역량을 제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심사를 해 보면 세계 각처와 전국에서 엄청난 응모 작품들이 몰려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창간과 더불어 실시해 온 <한라일보> 신춘문예는 지난 25년 동안 전국 단위로 작품을 공모해 지역 문학의 위상을 제고해왔다.

뿐만 아니라, 제주문인협회에서 공모하는 제주신인문학상이나, 제주작가회의에서 공모하는 제주작가 신인공모전, 또한 최근 제주4·3평화문학상운영위원회에서 공모하는 4·3문예작품 공모와 <제주매일신문>이 공모하는 제주평화문학상도 제주의 문학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다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작품성이 우수한 당선자들을 뽑아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문학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한 <다충문학동인>이 주축이 되어 발간해 온 계간문예 <다충> 또한 지역 문학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지역이 중심이다’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할 무렵, 전국 주요 도시에서 문예지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대구의 <시와반시>, 그다음 부산의 <시와사상>에 이어 광주의 <시와사람>이 창간되고 나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전국 단위 문예지인 <다충>이 제주에서 발간되어 15년을 넘기면서 2013년 겨울호까지 지령(誌齡) 60호를 발간하였고, 그 이후로도 발간되고 있다. 계간문예 <다충>에서도 신인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타의 다른 문예지들과는 달리 2회 추천제를 통해 엄격한 신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국 단위 문예작품 공모나 지역 문예지 발간에 대해 지역 문학과 예술의 역사적 정리라 할 수 있는 <문예연감>에서 제대로 언급되거나 조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문학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한 것인지, 혹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질시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제주 문학예술의 역사를 정리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표3〉 제주지역 작품 공모 현황

단체	공모명	모집단위 및 응모자격
계간문예 〈다층〉	다층신인상 공모	전국(기성 포함)
나는기자다	영주신춘문예 공모	전국(기성 포함)
제주4·3평화문학상운영위원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전국(기성 포함)
제주매일신문	제주평화문학상 공모	전국(기성 포함)
제주문인협회	제주신인문학상 공모	제주, 제주 연고(미등단 신인)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신인상 공모	제주, 제주 연고(미등단 신인)
한라일보	신춘한라문예 공모	전국(기성 포함)

VIII. 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노력은 제자리

지역 문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문학적 분위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문학관 건립이다. 아직 제주에는 이렇다 할 만한 문학관이 전무한 실정이고 보면, 제주지역에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 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학관 건립은 2003년 제주작가회의 정책토론회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지역의 대표적 문학 단체인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를 중심으로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사라봉 인근에 ‘제주문학의 집’을 개관한 이후 그 활동은 사실상 멈춰버린 감이 없지 않다.(<한라일보>, 2014년 3월 10일자 기사, 『제주문학관 건립 추진 ‘지지부진’』 참조) 문학관 건립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문인들의 실속 차리거나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문인 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문학관이 전국 각지에 건립되면서 해당 지역의 문학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이를 위한 움직임이 전무하여, 제주문학관 건립이 요원해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임기 만료를 앞둔 도지사에게 새로운 사업 추진을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는 ‘문학’을 소비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비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 하지만 문학이 ‘돈’이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가령, 경남 하동의 경우, 박경리의 전작장편 『토지(土地)』의 배경이 되는 ‘최참관 댁’ 복원 사업을 당시 군수가 추진할 때, 군의회를 비롯한 상당수 군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군수는 그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을 하였고, 보여줄 것 없던 마을에 연중무휴로 꾸준히 관람객이 이어지고 있는 사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학관 건립에 대한 획기적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제주문학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 회장이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는 제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도 이름뿐인 조직이 됐다.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13~2022년)에 제주문학관 건립이 ‘새로운 문화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포함됐지만 이대로라면 1차 중장기계획처럼 예산 확보 난항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구색 맞추기’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언론의 지적(〈한라일보〉 기사)을 문학인과 지역 사회는 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IX. 제주문학의 성과와 아쉬움

지금까지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제주지역에서 있었던 문학 현상들을 파노라마식으로 일별해 보았다. 그 결과 문학의 각 분야에서 전국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성과나 결과를 산출한 것은 분명하다. 주변 의식을 털어내기 위한 문인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며, 어느 지역과도 견줄 만한 역량을 갖춰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학 단체로서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뿐만 아니라, 자체 발간하는 기관지인 〈제주문학〉과 〈제주작가〉를 통해 회원들의 문학적 성취를 가시적으로 독자들에게 제시해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각종 행사에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두 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학 행사를 ‘당신들의 축제’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풍조, 편 가르기 식으로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등의 문제점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문학 행사에 냉담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동인 활동은 지역 문학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성취를 보였던 부분인데, 이는 문단 붕괴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라산문학동인〉과 〈다충문학동인〉, 〈정드리문학회〉의 활동은 그 중에서도 평가할 만한 성취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문학 행사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행사가 열려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학의 장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주시사랑회〉의 꾸준한 낭송 행사는 100회를 돌파하고도 지속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행사들은 소속 회원들 위주의 행사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의 동기유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작품집 발간은 전해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장르에 편

중되어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해당 장르 소속 문인들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기에 시, 소설, 수필 이외 장르의 작품집도 지역 독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희망해 본다.

지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신인 등단의 경우도 작품집의 경우와 다르지 않아서, 시와 수필에만 편중된 현상을 띠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학이 특정 장르에 편중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보는 듯하여 염려되는 현상이다.

그동안 조명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과 문예지 발간을 살펴보았다. 7개의 공모전이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지역 문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도 문학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15년 동안 꾸준히 발간되어온 문예지 <다충>도 지역 문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의 문학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문학적 향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이는 비단 문학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지역 만큼 양적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집약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문화적 빈곤감을 느끼며, 아직도 ‘중양’으로 불리던 서울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기 지역의 문화에 대한 애착으로 시선을 돌리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문화 혹은 문학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문화 광장으로 이끌어내는 주체가 필요한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를 위한 노력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다. 그래야만 지역 간 문화 격차를 극복하고, 타 지역과의 변별성, 특수성이 강조된 우리만의 문학을 생산하여, 중양(중심) 대 지역(변두리)이라는 그릇된 관습과 타성을 극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술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2013년 제주미술의 현황과 과제

이 경 은

기당미술관 큐레이터

I. 서론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결코 문화의 범주에서만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화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환경과 지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과 유기적으로 관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주미술을 들여다볼 때 좁게 미술가의 개인적인 활동으로만 한정지어서는 피상적인 이야기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미술 외에 외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볼 때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밀도 있게 들여다볼 만한 2013년도 제주미술계의 현황 자료가 충분치 않고 또 완전하지도 않다. 곳곳에서 오류들이 눈에 띄어 바로잡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본론에서는 미술활동의 범위를 전시와 행사로 크게 구분하여 다루었으며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쉽도록 2010년 이후 통계적 수치를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2013년도 전반적인 제주미술의 현황과 이후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2013년 제주미술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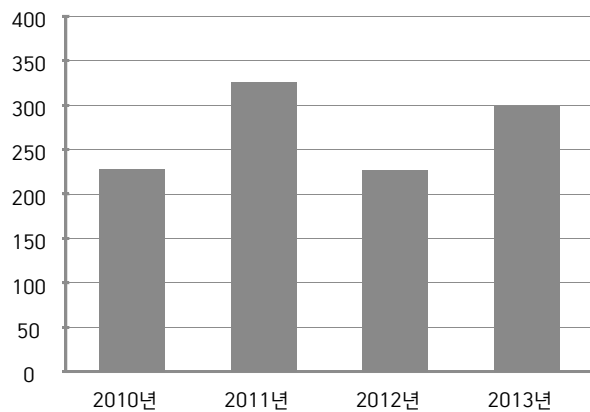
1. 전시활동

2013년도 미술활동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표1>과 <표2>에서 보여주듯 총 299건의 미술활동이 열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전시 270건, 기타 행사 9건, 각종 수상이 20건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인 2012년도 227건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전시가 크게 늘었고 행사는 조금 감소했다. 그러나 2011년 326건으로 활

황세를 보였던 미술활동이 2012년 대폭 급감했다가 2013년에는 다소 반등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이즈음 문화예술 보조금사업에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고 정산 절차들이 매년 까다롭게 요구되는 등 대부분 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제주 미술인들에게 어렵게 요구되는 보조금사업이 미술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는 양적인 면과 다양성에서 확실한 반등의 조짐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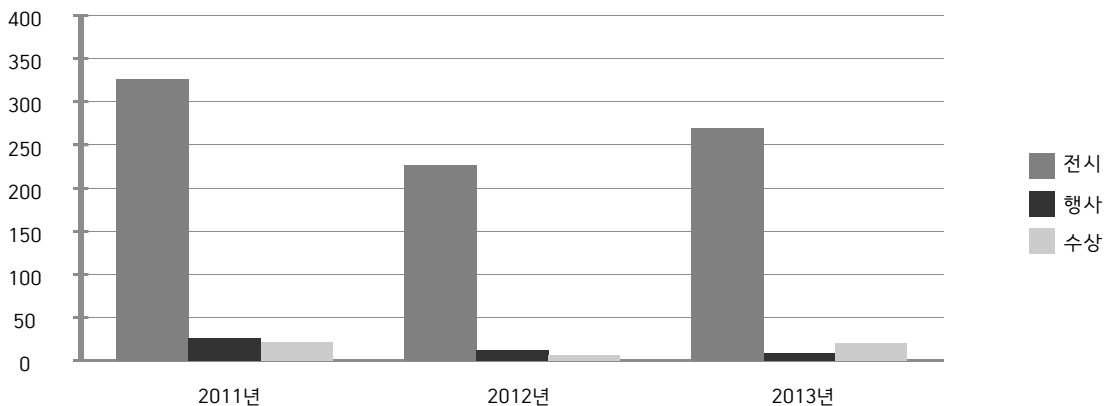
〈표 1〉 전시활동 변화 추이

구분	건수
2010년	228
2011년	326
2012년	227
2013년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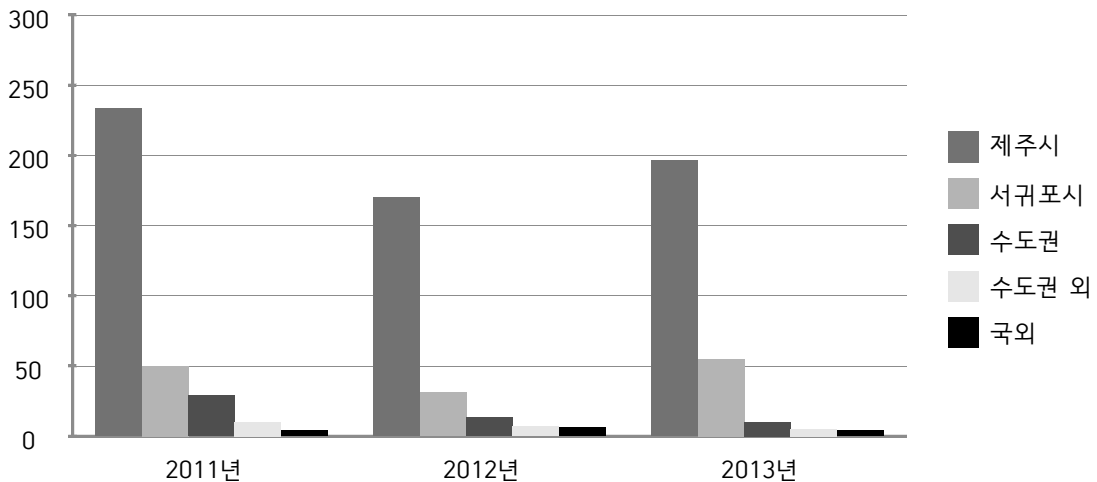
〈표 2〉 전년 대비 미술 관련 활동 변화 추이(전체)

구분	전시	행사	수상	계
2011년	326	26	22	374
2012년	227	12	6	245
2013년	270	9	20	299



〈표 3〉 지역별 전시활동 추이(도내·외 활동)

연도	구분	도내		도외		국외	계
		제주시	서귀포시	수도권	수도권 외		
2011년	건 수	233	50	29	10	4	326
	비율(%)	71.5	15.3	8.9	3.1	1.2	100
2012년	건 수	170	31	13	7	6	227
	비율(%)	74.9	13.7	5.7	3.1	2.6	100
2013년	건 수	196	55	10	5	4	270
	비율(%)	72.5	20.4	3.7	1.9	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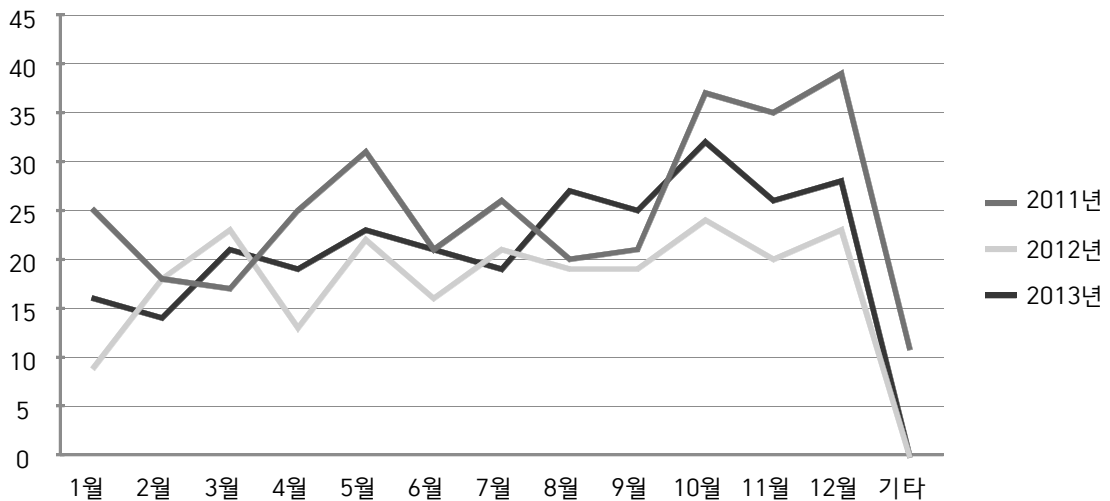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역별 전시활동 추이를 살펴보자. 〈표3〉에서 보여주듯이 2013년도 제주 미술인들의 전시활동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예상됐던 대로 제주시 지역이 72.5%로 가장 높았고 서귀포시 지역이 20.4%, 그리고 수도권과 국외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지역 간 비율 변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제주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소폭 감소한 반면 서귀포시 지역은 다소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을 비롯한 이중섭 거리, 공공미술프로젝트(유토피아로) 등 인프라 증가로 서귀포시 지역 문화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외 작가들의 이주와 이들 중 대다수가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월별 전시 횟수로 살펴본 전시활동은 편중됨이 없이 고루 분포되고 있는데 8~12월을 다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표 4〉 시기별 도내 미술전시 통계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타	계
2011년	건수	25	18	17	25	31	21	26	20	21	37	35	39	11	326
	비율(%)	8	6	5	8	10	6	8	6	6	11	11	12	3	100
2012년	건수	9	18	23	13	22	16	21	19	19	24	20	23	0	227
	비율(%)	4	8	10	6	10	7	9	8	8	11	9	10	0	100
2013년	건수	16	14	21	19	23	21	19	27	25	32	26	28	0	270
	비율(%)	6	5	7	7	8	8	8	10	9	12	9	11	0	100



〈표 5〉 2013년도 미술 전시회 성향별 통계

구분	개인전	단체전	기획전	공모전	소장전	기타	계
건수	129	63	65	1	12	0	270
비율(%)	47.8	23.3	24.1	0.4	4.4	0.0	100

전시회 성향을 개인전, 단체전, 기획전, 공모전, 소장전, 기타로 구분해 보았을 때 개인전이 4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획전과 단체전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전에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문예회관 등이 주관하는 기획전시뿐만 아니라 협회와 그룹 같은 단체라 하더라도 의도를 갖고 회원과 비회원 구분 없이 참여했던 전시도 포함했다.

다음은 도내 전시장별로 개최한 전시 횟수를 통해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2013년 장소별 통계(도내 활동)

구분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기타	계
	문예 회관	도립 미술관	현대 미술관	설문대 여성 센터	연 갤러리	현인 갤러리	노리 갤러리	이중섭 창작 스튜 디오	이중섭 /소암 /기당 미술관	문화 공간 쉽		
건수	63	11	9	11	39	11	7	28	12	3	49	243
비율(%)	25.9	4.5	3.7	4.5	16.0	4.5	2.9	11.5	4.9	1.2	20.2	100

도내 전시 공간 중 가장 많은 63회의 전시 횟수를 기록한 곳은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이다. 여전히 대관전시의 일번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로 전시가 많이 열린 곳은 놀랍게도 39회의 전시가 열린 연갤러리다. 도내에서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사설 화랑이 39회의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매우 공격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신진작가 기획전 등의 시도는 도내 젊은 작가들의 창작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28회의 전시가 열려 세 번째로 많은 전시가 이루어진 곳은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전시실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하면 갑절 이상 늘어났다. 규모는 작지만 이중섭 창작스튜디오와 이중섭미술관, 문화의 거리 등 주변 시설과 연계성이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츰 서귀포의 대표적 대관 전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이다. 그 외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기획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문화공간 ‘쉽’과 갤러리 ‘양’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2. 기타 행사

2013년 한 해에 크고 작은 미술행사들이 많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행사로 꼽는다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프린지페스티벌, ‘왓종 미술관’ 개관, 한국실험예술제 등을 들 수 있다.

프린지(Fringe)는 주변부, 비주류, 가장자리, 변방 등을 뜻하는 말로 비주류 예술가들 또는 단체들, 그리고 아마추어부터 전문 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2013년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주최로 펼쳐졌다.

이 페스티벌의 주된 프로그램은 프린지 시어터, 소규모 영화제인 프린지 시네마를 비롯해 거리 전시와 벽화그리기, 체험미술 등으로 구성된 프린지 아트워크 등이 열렸고 그 밖

에 문학콘서트와 야외 공연인 아트로드, 원도심 올레 답사 등 소규모 프로그램들도 같이 열렸다. 거리를 중심으로 예술이 구심점이 돼서 진행되는 이러한 예술프로젝트들은 앞으로 구도심 재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0년대 초반부터 서귀포에 정착해 오랫동안 제주에서 작업해 온 이왈중 화백이 드디어 ‘왈중 미술관’을 개관했다. 서귀포시 동홍동 정방폭포 맞은편에 문을 연 ‘왈중 미술관’은 스위스 건축가 다비데 마쿨로(Davide Macullo)가 설계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전체 면적 992㎡ 규모의 3층 건물로 외형은 백자 찻잔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미술관 1층에는 어린이 미술교육실과 수장고, 도예실을 갖췄고 2층에 마련된 전시실에는 이왈중 화백의 회화와 도예 작품 50~6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또 하나의 지역 문화 명소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12월 끝자락에는 또 하나의 큰 행사가 펼쳐져서 제주문화계에 신선한 바람이 불었다. 제주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실험예술축제가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서귀포로 이주한 행위예술가 겸 기획자로 그동안 홍대 앞에서 12년간 ‘한국실험예술제’를 꾸려왔던 김백기 작가가 한국 퍼포먼스 아트 35주년을 맞이해 ‘한국실험예술제’를 제주도로 가져왔다. 이 예술제는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중섭 거리,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강정포구 등지에서 펼쳐졌는데 15개국에서 5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III. 결 론

앞서 2013년 제주미술계의 활동을 통계를 통해 총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를 토대로 문화예술의 깊이와 가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전시 몇 회 개최되었다고 해서 전반적인 미술활동이 어떻다고 말한다는 것은 매우 선부르고 또한 민망한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적 분석들은 아주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전제하에 봐주길 바란다.

2013년도 전반적인 미술활동은 전년도에 비해 수치상 다소 나아졌다는 점은 확실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눈에 썰 만큼 변동이 크지 않았고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소규모 공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시방식 또한 시대적 추세에 맞춰 다변화된 점은 눈에 띈다. 아마도 도내 문화이주자들의 증가세에 맞물려 소규모 전시 공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영향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주시내에 아라리오갤러리가

개관되고 국제갤러리 제주관이 건립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앞으로 대형 갤러리들도 속속 제주 러시가 붐을 이룰 것으로 보여 몇 년 안에 제주 미술관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우선 2013년 제주미술에 손꼽을 만한 행사를 든다면 제주도립미술관이 개최한 <세계미술거장전-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전과 <제12회 한국실험예술제>를 들 수 있겠다. <세계미술거장전-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전은 도내에서 처음 열리는 매머드급 전시로 연 인원 7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도내에서 진행됐던 단일 전시로는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기록을 남겼고, 제주에서도 미술 전시로 흥행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전시였다.

그다음 <제12회 한국실험예술제>를 들 수 있겠는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국제 퍼포먼스 예술제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16개국에서 퍼포머들이 참여해 독특한 퍼포먼스들을 선보여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전의 도내 미술활동이 전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시활동에 머물렀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미술활동의 외연을 상당 부분 넓혔다는 데 많은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도내 미술활동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앞서 본 통계상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여전히 보조금 여부에 따라 변동의 폭이 심하게 나타나서 허약한 미술계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기업 혹은 상업 화랑의 부족을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도내 미술계가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기대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점은 제주 예술계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 폐지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임시처방적인 보조금 자부담 비율 폐지로 제주미술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미술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미술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 아트페어를 유치하고 문화기업과 상업 화랑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제주미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서예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2013년도 제주서단의 활동과 점검

오 장 순

(사)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 부지회장

I. 들어가며

2013년에도 제주서단은 연례행사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원로·중견작가들의 개인전과 특별기획전, 동호인 단체 및 법인단체들의 회원전과 교류전, 각종 법인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과 그에 따른 입상자 배출이 있었다.

작가 개개인의 서예활동과 단체의 살림과 운영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하고 있다. 서예 문화가 성장의 정점에 서서 진로 설정에 애를 먹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꾸준히 창작에 몰두하고 전시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예인들의 저력이 새삼스럽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공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도 제주도 서예 문화 영역에서 전반적인 활동을 살펴 보면서 그 의미를 새겨 보겠다. 내용 전개는 개인전과 특별기획전, 단체전, 공모전 순으로 진행하고 나서 현 시점을 점검해 보겠다. 혹시 자료 누락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II. 개인전 및 특별전

「남계 박정석 유작전」(2. 11.~16. 제주도문예회관 제1전시실)은 40여 년을 교육계에 몸담아 온 작가가 개인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타계하여 유작전으로 열린 전시였다. 문인화의 전통적 기법을 따르면서도 독특한 풍취가 있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2013 세계문자 서예 대표작가 제주초청전」(3. 7.~12.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장호성) 초청으로 한글서예사랑모임(이사장 현병찬)이 주관하여 청주 해동연서회 부설 세계문자서예협회(회장 김동연)와 함께 전시한 행사였다. 중앙서단의 김단희, 윤춘수, 이현종, 정문장, 정복동, 조성자, 현병찬 등 대표작가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제주서화의 맥 특별전」(5. 30.~7. 1.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제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동전)이 제주대학교 개교 61주년과 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전시였다. 전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우암 송시열과 추사 김정희, 김영수 목사의 글씨와 마애석각 탁본류, 다음으로 근대 이후 제주의 대표적 서예가인 홍종시, 김석익, 원용식, 강용범, 현중화, 홍정표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 다른 하나는 근대 제주도의 대표 민화 중 하나인 '문자도'를 내세웠다.

「박동규·장지중 2인 서화전」(8. 30.~9. 3.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은 제주KCTV가 개국 18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행사로 한국에서는 제주 출신의 박동규, 중국에서는 장지중 작가를 초대한 행사이다. 2011년 초대전시에 이어 마련되었고 2차 전시는 9월 말 중국 호남성 악록서원에서 펼쳐졌다.

「규장 조종숙 작품전」(9. 7.~14. 제주현대미술관)이 제주현대미술관(관장 강운영) 기획전으로 열렸다. 저지리 문화예술인마을 입주 작가인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응집된 결과물들을 정선하여 60여 점의 작품들을 내걸었다.

「서귀소옹과 20세기 서화거장 겸여 유희강」(10. 4.~11. 11. 소암기념관)이 소암기념관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마련됐다. 20세기 동시대를 대표하는 한국서예계의 거목 소암 현중화와 겸여 유희강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한 전시였다. 겸여의 글씨가 좀 더 거칠고 묵직한 힘이 있는 반면 소암은 부드럽고 유려한 분위기를 띤다는 차별성도 전시 관람의 한 포인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각 개인전으로는 보기 드문 「대호 김형식 전각전 '꽃밭 속 삶의 여운」(11. 2.~7. 조천읍 선흘꽃밭)이 있었다. 작가는 전통 전각 작품을 비롯하여 전각기법을 응용하여 옛 기와에 문양과 글씨를 새긴 작품 등으로 전각 세계의 다양성을 연출하였다.

III. 단체전

2013년도 첫 서예행사로 열린 「제4회 백록예문회전」(2012. 12. 29.~2013. 1. 2.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은 백록예문회(회장 오상현)가 주최한 행사로 한글, 한문 5체, 문인화, 전각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회원들이 평소 연마한 내공을 펼쳐 보인 전시였다.

「제7회 탐라서예문화회전」(2013. 1. 8.~12.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은 탐라서예문화회(회장 김태행)가 마련한 행사로 회원들이 취미 혹은 수양의 방편으로 학습하고 창작한 작품을 내걸었다.

상지서회(회장 문영진)의 세 번째 회원전인 「상지서회전」(2. 3.~8. 제주도문예회관 1전

시설)에서는 김종직이 조선시대 제주의 풍속을 노래한 장편 시 ‘탁라가’ 14수를 회원들이 1수씩 작품화한 대형작품과 ‘명심보감구’ ‘법성계구’ 등 출품 회원의 개성을 살린 작품들로 전시를 구성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제2회 목랑회전」(2. 17.~22. 제주도문예회관 2전시실)은 목랑회(회장 김두찬)의 두 번째 회원전으로 문화센터 등에서 문인화를 학습한 회원들이 마련한 전시였다.

한연회(회장 이항영)가 주최한 「제13회 한연회 서예전」(2. 24.~28.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에서는 우당 윤희구의 ‘천자동사(千字東史)’를 한문 5체로 서사한 대형작품을 비롯하여 회원들의 서력 향상에 중점을 둔 작품들로 구성된 행사였다.

삼다연서학회(이사장 김선영)가 주최한 「한·중 장애인 서화 국제 교류전」(4. 7.~11. 중국 심천시 나호구 문원각 예술관)은 도내 장애인 서예 작품과 삼다연서학회 회원들이 마련한 국제교류전이였다.

1984년 창립 이래 매년 회원전을 열고 있는 상목회(회장 김혜정)는 「상목30 신탐라기행전」(4. 17.~21.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을 열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작품 내용에 등장하는 도내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단체 회원전으로 열린 「제4회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제주지회전」(4. 27.~5. 1.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은 국서련 제주지회(회장 백종식) 회원과 본부 임원, 전국 각 지회 회원이 찬조 출품한 행사로 전국 각 지역 작가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작품을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는 행사로 평가 받았다.

대한서화예술협회 제주지회(지회장 김안국)가 마련한 「제주·부산 서화교류 제묵전」(5. 5.~13. 신산갤러리)은 제주 회원과 부산·경남 회원들이 80여 점을 전시한 행사로 양 지역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양상철)는 인천광역시지회 회원과 교류전을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하여 2012년 제주 교류전에 이어 상호 우의를 다지고 작품세계의 교감을 모색하였다.

「제4회 지원문인화회 회원전」(5. 18.~22. 제주도문예회관 2전시실)은 지원문인화회(회장 김종수)가 마련한 행사로 문화센터 등에서 학습한 문인화 작품 50여 점을 전시하였다.

1965년 창립되어 근대 제주도 서예사에서 가장 오래된 서예단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영주연묵회(이사장 현병찬)는 「제56회 영주연묵전」(5. 30.~6. 3.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을 열었다. 제주의 서맥을 이어간다는 의지와 노력이 드러난 전시였다.

도내 서예인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대표회장 현병찬)가 주최한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전」(6. 9.~13. 제주도문예회관 1·2전시실) 및 부속 행사들도 있었다. 전시에는 도내 15개 단체 소속 서예

인 180여 명이 출품하였고, 부속 행사로 열린 '제4회 제주서예문인화의 날' 행사에서 전시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호평을 받은 양남자 작가가 제주작가상, 고창부 작가가 원로작가상을 받았다.

정연회(회장 부현일)는 「제12회 해정 박태준 선생 추모서전」(6. 25.~29.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박태준 선생 타계 12주기를 맞아 회원들과 초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제주-대구·경북 서예가협회 교류전」(7. 19.~24.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은 제주특별자치도서예가협회(회장 임정택) 주최로 열려 양 지역 간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예문인화의 예술적 안목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서예문화의 대중화를 기치로 내건 「2013 제주서예문화축제」(7. 25.~29.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가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김영진) 주최로 열렸다. 행사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서예대전 입상작품전', '화산 양윤수 작가 초청전', '붓은 나의 친구', '찾아가는 서예문화 축제', 문인화·전각·캘리그라피 체험의 날 등을 마련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서예인들과 어우러지는 자리를 가졌다.

제주문인화연구회(회장 장응호)가 마련한 「제주-강원 문인화 교류전」(8. 16.~20.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은 양 지역 회원들이 유대감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한 자리로 50여 점의 문인화와 수묵담채화를 선보였다.

한글서예묵연회(회장 최명자)가 마련한 「아름다운 한글서예전」(8. 21.~24.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은 궁체 고문과 현대문, 판본체, 민체 등 다양한 서체와 합동대작을 함께 전시한 행사였다. 2차 전시는 한경면 저지리 '먹글이 있는 집'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회장 황옥선)가 마련한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전」(9. 4.~7.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은 '제주 유배인의 삶의 조망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행초서체를 비롯한 문인화, 서각 작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시의 흥미를 돋웠다.

「부채그림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9. 18.~27.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은 한국문인화협회 제주지회(지회장 고정인)가 마련한 행사로 선면예술 전시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의 자연적인 맛과 풍취를 전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57회 서귀포소묵회전」(10. 8.~12.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서귀포소묵회(회장 김경호)가 마련한 행사로 소암서예의 맥을 제주 동부지역에서 펼쳐보았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제주-전북 서예교류전」(10. 17.~23. 군산 예술의전당)은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김영진)와 전라북도지회(지회장 김명숙) 간 회원 교류전으로 2012년 제주 전시에 이어 답방으로 군산에서 열렸다. 양 단체 130여 명이 출품하여 서화예술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 간 우의를 도모하였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서예 초대작가전」(11. 1.~6.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은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서예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영)가 마련한 행사로 서예분과 소속 회원 55명 중 44명이 출품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서각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김병연)의 「제9회 회원전」, 한국서도협회 제주지회가 주최한 「제주서도협회 회원전」, 삼무서회가 주최한 「제11회 삼무서회전」 등의 전시가 있었다.

IV. 공모전 및 수상자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김영진)가 주최한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대전」(7. 25.~29.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에 114점이 출품되어 1차 심사와 특선 이상 후보자에 대한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21점, 입선 54점이 선정되었는데 대상은 전서 부문에 ‘채근담구’를 출품한 천평옥, 우수상에 한글 부문 김연숙, 해서 부문 강정림이 수상하였다. 한편 제주도서예대전은 초대작가 초청전, 제주서예문화 탐방, 열린 전시 ‘붓은 나의 친구’ 등 일련의 행사와 함께 2013 제주서예문화축제의 주 행사로 진행되었다.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한 「제39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8. 21.~9. 3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서예 부문 대상에 고경옥, 문인화 부문 대상에는 양영란이 선정되었다.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이사장 현병찬)이 개최한 「제12회 한글사랑서예대전」에서는 최고상인 한글 으뜸상에 김민정의 ‘면암정가’, 최우수상에는 조정화, 이복래가 입상하였다. 수상작품들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제13회 전국추사서예대전」에서는 종합 대상에 서영옥, 한문 부문 대상에 임순현, 김진범, 문인화 부문 대상에 이상연이 선정되었다.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양상철)가 주최한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12. 21.~25. 제주도문예회관 1·2전시실)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257점이 접수되어 161점의 입상작품이 선정되었다. 대상에는 윤정미, 우수상에 윤영춘, 양우근, 심연희, 김정호, 윤두진이 선정되었다.

V. 마치며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주시단의 여러 가지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례적인 회원전이나 교류전 등이 중심이 되었고 몇몇 특별기획전과 개인전이 있었다. 지금까지 서예문화 분야가 양적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나, 질적인 면에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점검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1. 인적 구성의 노령화와 청년작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이 문제는 비단 서예문화 장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모든 영역의 핵심적인 문제,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중대한 문제이다. 출산율 저조와 독신 가정 확산,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가적 문제이다 보니 서예문화 분야에서도 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따른 서예문화 분야의 새로운 문제점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예문화 분야로 진입하는 신인들 상당수가 직장 퇴직 후 여가 선용으로 서예를 익힌 사람들이다 보니 기초부터 체계적인 서예 학습 없이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이 양적 우세에 있다 보니 서단의 주류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
- 2) 청년 전업 작가층의 감소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서예문화 전반을 섭렵하고 인문학적 정신세계까지 투영된 서예작품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단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 3) 청소년층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서예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사설학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예문화 융성에 사설학원이 인적·물적 자양분을 제공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예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세 가지 문제점을 놓고 보더라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서예인들의 자구책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2. 학교 교육의 문제

현재 교육제도상 초등, 중·고등학교에서 서예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초등학교는 그나마 방과 후 교실을 통하여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 서예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문화 선진국이 되려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살아 있어야 한다. 전통문화를 학교 교육에서부터 학생들이 몸으로 익히고, 그것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때 한국 문화의 자양분이 되고, 다른 나라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가 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 세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이라 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꼭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예문화적 측면에서 지적할 것은 서예와 한자 교육의 활성화이다. 청소년기 서예교육은 정서 순화와 집중력과 조형감각 배양 등에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자교육은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우리 민족의 주요 유산이 대부분 한자로 기록되어 박물관 자료실에서 훗날의 판독자를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족(蛇足)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청소년기에 서예를 학습한 학생이 외국에 유학을 가서 그의 친구들에게 합죽선에 우리 고유의 한글서예로 한국의 시를 써서 선물한다면 얼마나 한국적인가? 꿈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예술 차원으로 발전시킨 민족이다.

3. 서예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인문학 접목

서예문화가 지금까지는 양적 확장에 힘입어 문화예술 분야 중심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현 시점에 종래 방식만으론 더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비록 일시적 현상으로만 보기에겐 심상치 않은 캘리그래피의 등장이다. 캘리그래피란 글씨를 개성에 맞게 표현하는 기법으로 간략히 정의할 수 있는바, 전통서예 기법과 많은 기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전통서예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응용한 장르로 볼 수도 있다. 전통서예를 외면하던 대중들이 캘리그래피에 왜 진지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전통서예가 기법 숙련에 초점이 있고, 캘리그래피는 인간의 감각적인 표현과 인식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예 분야에서도 전통적 기법에 연연해하지 말고 시대 정서에 맞게 개방적인 자세로 조형 표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문화예술의 전당인 제주문예회관에서 전시 부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예 전시에 가 보면 개막식에 맞춰 출품자와 초청 내빈이 일시에 우르르 왔다가 다음날부터는 전시장이 썰렁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감동이 없기 때문이다. 출품 작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시(漢詩) 구절을 서예기법으로 적당히 얼버무려서 작품을 내건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찰해서 작품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서예문화가 전통문화라는 명분으로 서예가들만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관객이 와서 진지하게 관람해 주길 바란다면 머지않아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예술영역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서예인들이 깊이 통찰하여 전통서예 기법상으로도 숙련도가 높고 창작물의 내용과 구성도 인문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관객 지향적으로 개선될 때 서예문화가 창작자와 향유자가 공감하는 예술장르로 발전하리라 기대해 본다.

사진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제주 사진, 2013

이 창 훈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감사

I. 들어가는 말

21세기를 맞아 제주는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인식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WCC(세계환경보전총회) 개최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환상의 섬 그 자체이다. 해마다 제주를 찾아 일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으며, 제주의 모습도 점점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제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진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파라다이스임에 틀림없다. 사계절 다양한 촬영 소재와 최상의 기상 조건, 산악 지형과 드넓은 해양, 그 속에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들.... 또한 새로운 열풍으로 다가온 제주 올레길과 트래킹 코스, 해안도로변의 빈집들을 이용한 예술인 입주나 카페촌 형성 등이 바로 제주를 찾고, 제주에 매료되어 빠져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제주 열풍은 사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제주를 사진에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 동호회가 생겨나고, 저마다 특색 있는 시각으로 제주를 표현해 내고 있다. 2, 3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10여 개의 디지털사진동호회들이 새롭게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으며 문화대학, 시민대학, 문화강좌 등을 통해 사진반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의 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진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진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기회도 많아지면서 제주의 사진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5월 펼쳐진 <제24회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에서는 무려 30여 단체에서 320점이 넘는 출품작들을 한데 모아 공동 전시하는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최근 결성된 동호회들은 단체마다 특정한 주제전들을 펼치면서 보다 전문적인 시각의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런 동호회들의 전시회가 2013년 한 해에도 풍성하게 펼쳐졌다.

사진이 대표적인 전시예술이기에 전시 공간 확보와 전시 기회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제주도내 여러 기관들이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사진 전시를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으며,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특별전시실이나 로비 등을 활용한 전시 행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 기관으로는 세계자연유산센터, 한라수목원 생태학습관전시실, 제주웰컴센터, 4·3평화공원, 제주도청 로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들은 일회성 전시로 끝나버리던 과거 전시 행태를 바꿔 2, 3차에 걸친 순회 전시를 통해 더 많은 관중들에게 사진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창작된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사진을 더욱 잘할 수 있는 주변 여건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여건을 토대로 보다 풍성한 수확의 결실들이 우리 앞에 보일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제 2013년 한 해 동안 다양하게 펼쳐졌던 제주 사진계의 전시와 행사 등 전반적인 동향을 함께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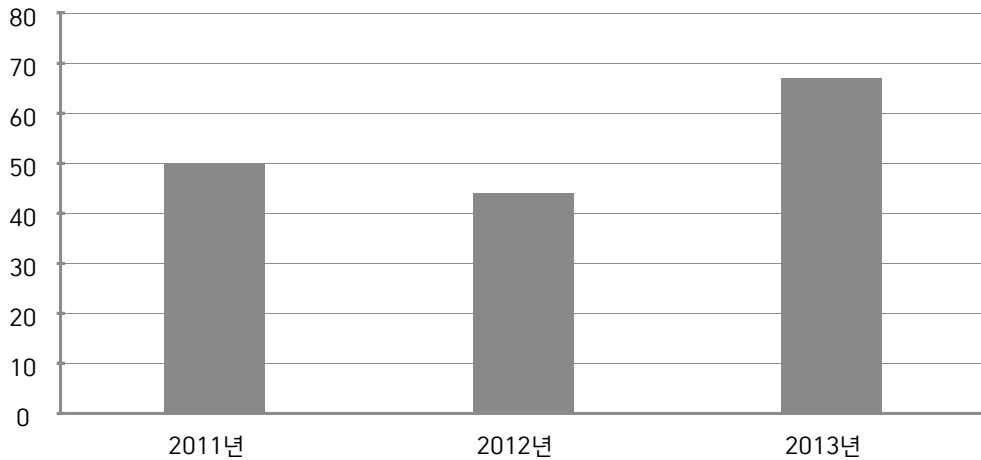
II. 2013년 제주 사진 현황

1. 현황 분석

2013년도 한 해 동안 열린 사진 행사들을 정리하면서 먼저 자료의 부실함을 절감하였다. 우선적으로 사진 행사에 대한 실적을 분류하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 필자가 직접 확인하면서 자료들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한 해 동안 펼쳐진 행사는 모두 67건이었는데, 2012년도에도 많은 행사들이 통계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바이다. 통계로 보면 2011년과 2012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2013년에 사진 전시와 행사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고기보다 실제로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2년도에 자료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많은 사진 관련 행사들이 연례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으며, 필자가 확인한 결과 2012년도 사진 행사가 일부 누락된 것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사진 활동 추이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건 수	50회	44회	6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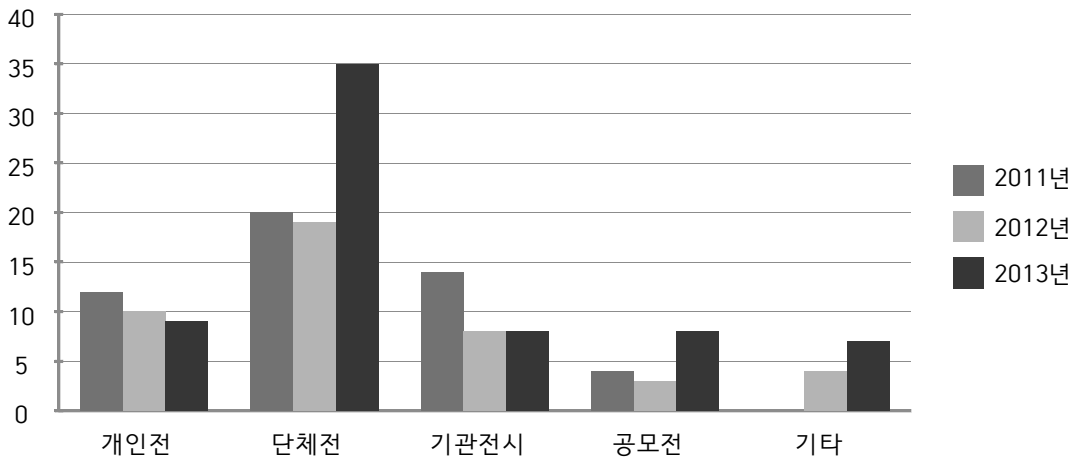


2013년도 한 해 동안 펼쳐진 총 67건의 사진 전시와 관련 행사들을 전시 성향이나 지역별 개최 여부 등을 통계로 종합해 보면 <표 2>, <표 3>과 같다. 수치적 결과만 본다면 예년에 비해 단체전과 공모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2012년도의 경우는 자료 파악의 문제점도 없지 않은 것 같다. 2013년에는 사진 전시와 기관들의 전시, 공모전 활성화, 기타 행사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단체전이 증가한 것은 DSLR 카메라의 보급 확산으로 사진동호회들이 새롭게 결성되면서 전시회를 펼치는 경우도 있었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진공모전도 한 해 동안 많이 열렸기 때문이다.

<표 2> 최근 사진 전시 활동 현황

연도	구분	개인전 전시	단체전 전시	기관 전시	공모전	기타	계
2011년	건수	12	20	14	4	0	50
	비율(%)	24.0	40.0	28.0	8.0	0	100
2012년	건수	10	19	8	3	4	44
	비율(%)	22.7	43.2	18.2	6.8	9.1	100
2013년	건수	9	35	8	8	7	67
	비율(%)	13.4	52.2	11.9	11.9	10.5	100

※ 개인전이나 단체전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사진 전시를 장소만 다른 곳에서 재전시한 경우는 1회로 통계 처리하였으며, 공모전의 경우는 수상작 전시를 한 경우나 책자로 발간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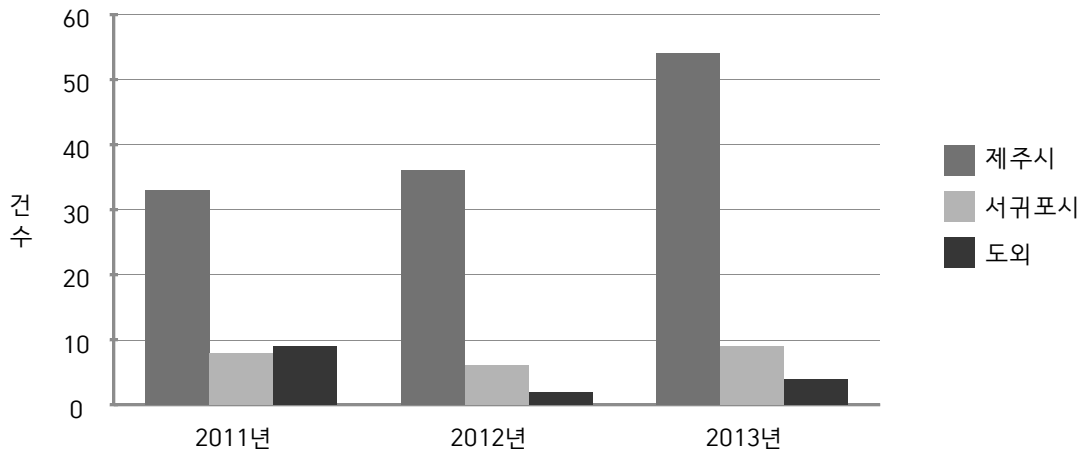


또한 전시 장소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예년과 같이 대부분 전시행사가 제주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도외 전시 또한 4회에 그쳐 제주지역 작가들이 전시 장소 선택에 있어 보다 광역적이고 진취적인 전시 기획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설된 전시 공간에 대한 정보 부재도 이와 같은 지역 편중적 전시를 초래하므로, 새로운 전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최근 지역별 사진 전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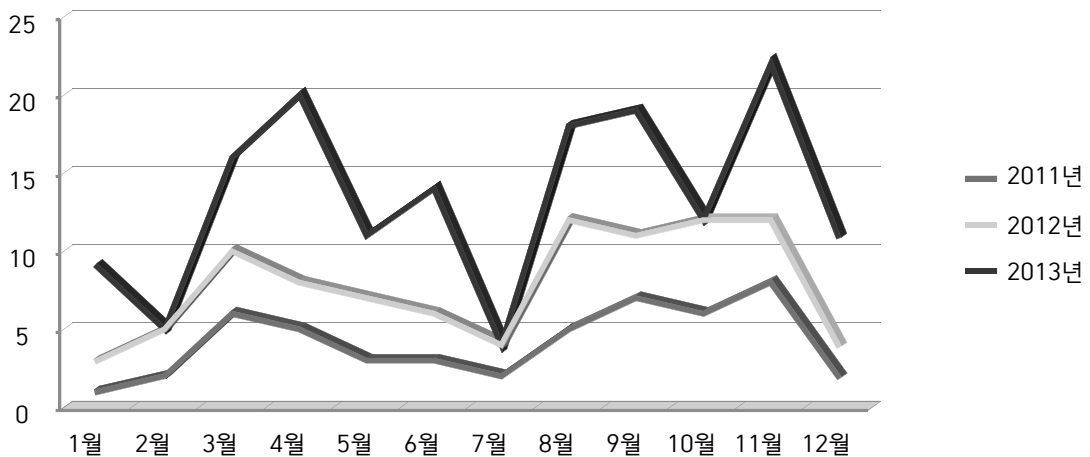
연도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계
2011년	건수	33	8	9	50
	비율(%)	66	16	18	100
2012년	건수	36	6	2	44
	비율(%)	81.8	13.6	4.6	100
2013년	건수	54	9	4	67
	비율(%)	80.6	13.4	6.0	100

〈표 4〉를 통해 살펴보면 3개년 간 연중 전시가 가장 활발하게 개최된 달은 4월과 11월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달은 2월과 7월, 10월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월별 사진 전시 현황(전시 시작일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1년	1	2	6	5	3	3	2	5	7	6	8	2	50
2012년	2	3	4	3	4	3	2	7	4	6	4	2	44
2013년	6	0	6	12	4	8	0	6	8	0	10	7	67



2. 전시 형태 및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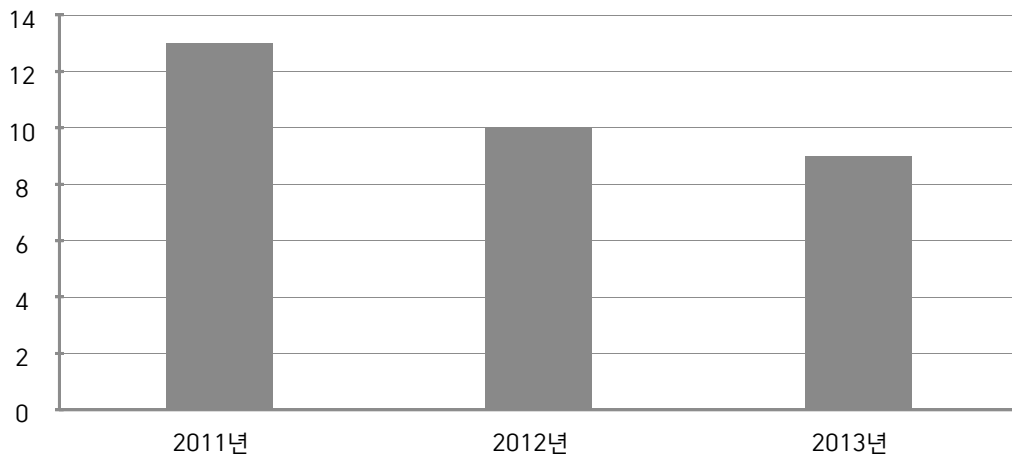
전시 형태에 따라 개인전과 단체전, 기관 전시, 공모전 등으로 세분하여 한 해 동안 열린 전시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전시 형태별 분석에 의한 〈표〉 자료들을 통해 전시 현황들을 소개하고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새로운 사조나 경향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인전 현황

2013년에는 모두 9차례의 개인전이 열렸다. 개인전의 경우 2011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개인전의 경우 문화예술재단이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성향이 큰 데 반해, 예술 활동의 지원에 대한 방향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으로 바뀌면서 수혜자들이 점차 줄어들며 나타난 상황으로 분석된다. 즉, 과거 소액다수의 수혜보다는 고액소수의 지원 행태로 전환되면서 개인전을 열려는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 기회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표 5〉 연도별 개인전 전시 추이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건 수	13회	10회	9회



2013년의 개인전 중 광상필의 '상필이가 만난 사람들' 시리즈는 어느덧 12번째를 맞아 동문재래시장을 주제로 전시회를 펼치고 있다. 자신의 어려운 신체적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의 그 어느 작가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대단한 작가정신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다. 그 외에도 야생화 주제전, 4·3 주제전, 제주 자연을 주제로 한 전시들이 펼쳐졌다.

〈표 6〉 2013년 사진 개인전 현황

기 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3. 2.~3. 17.	고병희의 '제주의 야생초'	금능꿈차롱 작은도서관	고병희
3. 11.~5. 30.	비둘이 당근과 무 이야기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
3. 17.~3. 24.	상필이가 만난 사람들 XII - 동문재래시장	동문재래시장	곽상필
3. 21.~4. 2.	섬의 전설-제주도 사진전	인사동 갤러리나우	안영상
4. 1.~4. 10.	'60년 만의 귀향, 2박3일의 기록' 사진전	4·3평화공원	강정효
6. 1.~9. 30.	나무와 돌이 함께한 세월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
11. 18.~2014. 2. 28.	신용만의 한라산 겨울이야기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신용만
12. 5.~12. 19.	심상현 사막야생화 사진전	제주웰컴센터	심상현
12. 24.~2014. 2. 28.	금단의 숲:꽃자왈, 숲의 기록	경기창작센터	박형근

2) 단체전 현황

2013년에 열린 단체전은 모두 35회이며, 2012년도의 19회에 비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자료 파악의 오류로 실제적인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단체전은 201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신생 사진동호회도 늘어나고, 학생이나 일반인들의 사진 전시 행사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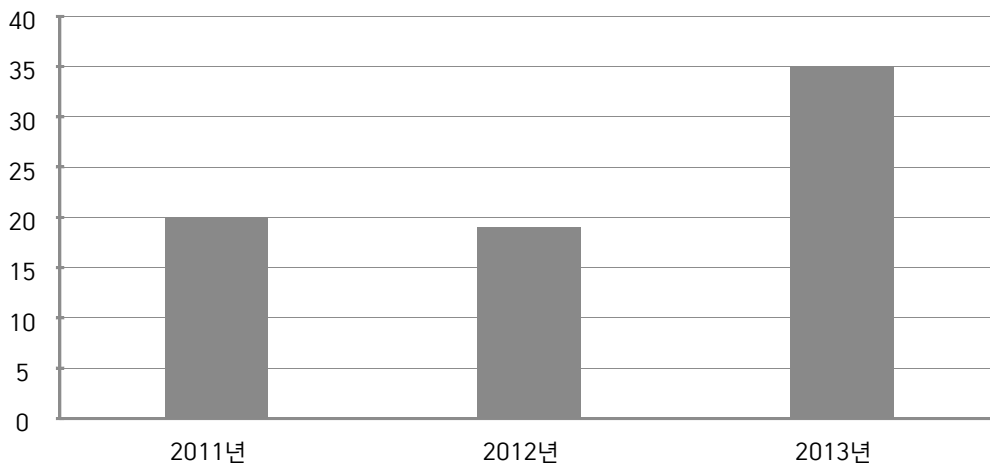
2013년에는 탐라사진가협회의 4·3관련 전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활동을 펼쳐오던 사진동호회들의 전시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개인전과 마찬가지로 전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문예진흥기금이나 공공기관 보조금 등 지원금의 수혜가 줄어들면서 연례적인 회원전이나 정기전 등의 발표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단체들에 대한 균형 있는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변화를 수용하고 단체들 스스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능동적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전시 행태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며, 단체들 스스로 자생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3년에 열린 단체전 가운데 창립한 지 2, 3년 내 신생 동호회에 의한 전시는 모두 10회로, 신생 단체들의 사진 전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생 단체들의 구성원과 구성력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진인구의 증가가 폭넓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시 공간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은 연중 2회 이상 전시를 하고 있다.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창립한 지 10년 이상 된 사진동호

회들의 전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으며, 이들의 보다 활발한 창작 열기를 기대해 본다.

〈표 7〉 연도별 단체전 전시 추이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건 수	20회	19회	35회



〈표 8〉 2013년 단체전 현황

기간	전시명	전시장소	주관 및 주최
1. 1.~1. 31	조류 천연기념물 전시회	한라수목원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1. 4.~1. 9.	제주대학교사진동아리 JPC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 사진동아리JPC회
1. 13.~1. 17.	제12회 섬에서 부는 바람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섬에서 부는 바람
1. 15.~2. 24.	제주자생버섯 사진 전시회	한라도서관	포스나인
1. 18~1. 22.	2012 보도사진 · 영상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카메라기자회
3. 1.~3. 6.	제주수중사진연구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수중사진연구회
4. 1.~4. 15.	한라산지킴이가 소개하는 한라산의 사계	제주웰컴센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4. 2.~4. 6.	제주사진교실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사진교실
4. 3.~4. 7.	4·3 사진전 '후유장애인들의 아픔을 다시 듣다'	제주도문예회관	탐라사진가협의회
4. 3.~4. 7.	'저 켜것들의 삶'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탐라사진가협의회
4. 11.~4. 25.	'잃어버린 마을에 남은 자들' 사진전	4·3평화공원 전시실	탐라사진가협의회
4. 12.~4. 16.	제21회 녹색사진연구회 정기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녹색사진연구회

4. 22.~4. 26.	제23회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협의회
4. 31.~5. 10.	제주야생화 생태사진전	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야생화회
5. 4.	2013제주평화예술제	제주도문예회관마당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협의회
5. 6.~5. 17.	제주올레-찾아가는 사진전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민속사진연구회
5. 13.~5. 17.	제18회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가톨릭제주교구 사진가회
6. 1.~6. 30.	한라산 꽃 친구들	한라산어리목탐방소	한라산사진동호회
6. 4.~6. 8.	제주영상동인 '돌의 나라-제주'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영상동인
6. 4.~6. 8.	제21회 오름사진연구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오름사진연구회
6. 5.~6. 30.	제주환경사진전	세계자연유산센터	한국환경사진협회 제주도본부
6. 7.	'사라져가는 제주포구'사진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6. 20.~6. 25.	제주도치과의사회 사진동호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치과의사회 사진동호회
8. 1.~8. 31.	제주돌문화사진가회원전	메이즈랜드	제주돌문화사진가회
8. 16.~8. 20.	제8회 제주딴블루포토클럽 수중사진 전시회	제주도문예회관	딴블루포토클럽
8. 25.~8. 29.	한·중·일·네덜란드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환경사진연합회
9. 7.~9. 11.	'제주 들꽃이야기'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포스나인
9. 23.~9. 27.	제주문화원 카페포토1004 사진전	제주문화원전시실	카페포토1004
9. 24.~9. 29.	제주 중산간마을 사진전	종로구 류가헌	제주도여행학교
11. 1.~11. 22.	올레풍경 6주년 전시회	이중섭거리 야외전시장	올레풍경
11. 7.~11. 11.	제39회 한라사우회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한라사우회
11. 12.~11. 16.	회원전 및 한·중 국제사진문화 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11. 18.~11. 22.	'제주 바닷돌 이미지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민속사진연구회
11. 23.~12. 7.	정전 60주년 보도사진전	자연사랑미술관	한국보도사진가협회
12. 18.~12. 22.	제주특별자치도사진학회 회원전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진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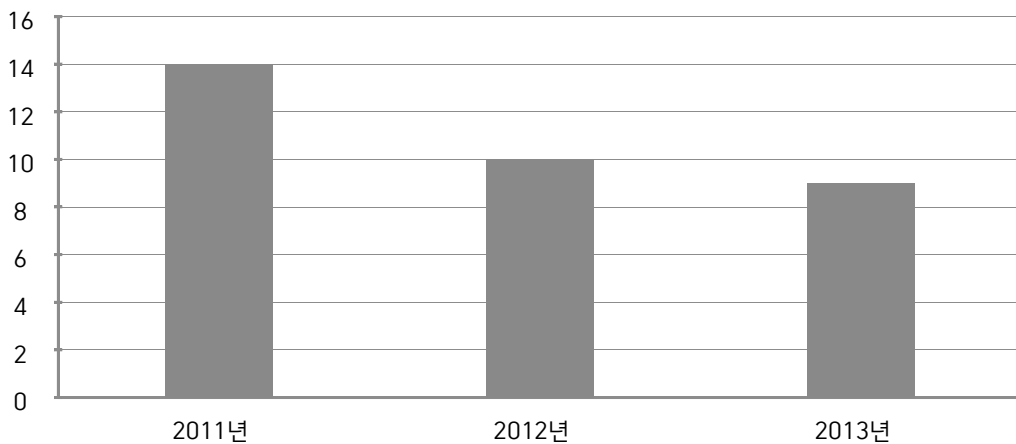
3) 기관 전시 현황

사진동호회나 개인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진 전시 행사도 2013년 한 해 동안 모두 9회에 걸쳐 펼쳐졌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진전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되돌아보는 전시 등 안보 관련 전시가 눈에 띄고, 그 외에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공모전의 입상작 전시, 대한항공의 여행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이 있었다. 제주불교신문사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 사진집 발간에 즈음하여 사진전을 함께 개

최하면서 제주의 불교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비록 전시 횟수로는 다소 감소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관들이 전시하는 사진 행사는 매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표 9〉 연도별 기관 주최 전시 추이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건 수	14회	10회	9회



〈표 10〉 2013년 기관 주최 전시 현황

기간	전시명	전시장소	주관 및 주최
1. 4.~1. 10.	사진으로 보는 4·3진상규명 운동 김기삼 사진전	신산갤러리	제주4·3평화재단
3. 20.~3. 26.	세계 기상의 날 기념 기상·기후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지방기상청
5. 26.~5. 26.	제방사 도민 대상 안보교육 사진 전시	서귀포월드컵 경기장 일대	해군제주방어사령부
9. 3.~11. 31.	제2회 아름다운서귀포사진공모전 입 상작 전시회	ICC Jeju	서귀포시/한국사진 작가협회 서귀포지부
9. 13.~9. 17.	옛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불교신문
9. 19.~10. 10.	제주들불축제 사진전	국회의사당	제주시청
9. 30.~10. 4.	남북정상회담 사진전	제주도청별관 로비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11. 27.~12. 3.	제20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제주칼빌딩	대한항공

4) 공모전 현황

2013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사진 공모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의 공모전이 예년에 비해 3, 4회 추가되면서 횟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들도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몇몇 공모전이 더 시행되었으나 순수 창작품을 공모하는 내용보다는 생활 주변의 이야깃거리를 소재로 한 공모전이거나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등이어서 이는 기타 행사로 분류하였다. 사진 공모전은 사진인구의 저변 확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공모전을 통해 자신들의 사진 실력을 겨루면서 창작열을 제고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들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표 11〉 2013년 사진 공모전 현황

일자	공모전명	전시장소	주최 및 주관
4. 2.	휴양형MICE사진공모전	제주테크노파크	(사)제주지역사업평가원/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4. 10.	2013제주들불축제사진촬영대회	들불축제현장	제주시청/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4. 23.	제4회 다모영다나눔다사랑 사진공모전	제주학생문화원 로비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7. 29.	제주경마공원과 함께하는 말 사진공모전	제주경마장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8. 5.	제2회아름다운서귀포사진공모전	ICC Jeju	서귀포시
8. 15.~9. 15.	2013우도사계절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	우도등대	제주해양관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8. 21.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제주문예회관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10. 24.	제5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동아일보
11. 22.~12. 1.	감귤아트전국사진공모전	2013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	서귀포시/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11. 29.~12. 3.	제52회 탐라문화제 기념 전국사진촬영대회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12. 24.	제1회 제주조릿대사진공모전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3. 사진 행사 및 공모전 수상자 현황

제주지역 사진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단체의 수장으로 선출되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13년 시작되는 3년 임기의 새 회장에 홍순

병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는 장윤석이 새 지부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5월 초 열린 ‘2013제주평화예술제’ 기간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주관으로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을 행사장인 제주도문예회관 앞마당에서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무료 가족사진 촬영행사도 함께 열었다.

또한 근래 제주에 정착하는 예술인들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사진가들도 속속 제주에 정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예술인마을이나 빈집 프로젝트, 마을살리기 행사와 병행하여 자신들의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머지않아 이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제주의 모습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참신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3년 열린 공모전이나 사진 관련 수상자 현황은 <표 12>와 같다. 제주의 풍광과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주제로 한 공모전과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등이 풍성하게 열렸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자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표 12> 2013년 사진 관련 수상자 현황

일자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4. 2.	이호정	휴양형MICE사진공모전 대상	민속굿판2	(사)제주지역사업평가원/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4. 10.	오봉희	2013제주들불축제 사진촬영대회 금상	불꽃놀이	제주시청/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4. 23.	박민애	제4회 다모영다나눔다사랑 사진공모전 다사랑상	증조모의 사랑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7. 29.	송은민	제주경마공원과 함께하는 말 사진공모전 금상	아이와 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8. 5.	임채환	제2회아름다운서귀포 사진공모전 금상	주상절리	서귀포시
8. 21.	고영석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대상	넋들이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9. 30.	강희만	제129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여긴 내 구역이야	한국사진기자협회
10. 24.	고봉수	제5회 제주국제사진 공모전 대상	제주의 봄	제주특별자치도/동아일보
11. 14.	조규남	감굴아트전국사진공모전 금상	굴밭설경	서귀포시/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11. 27.	최용환	제52회 탐라문화제 기념 전국사진촬영대회 금상	축제장으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12. 24.	김현종	제1회 제주조릿대 사진공모전 금상	한라산조릿대	제주테크노파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4. 사진집 발간

2013년의 사진집 발간 사업은 제주불교신문사에서 발행한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 사진집을 들 수 있다. 이 사진집은 1908년부터 2013년까지 100년의 세월을 넘어 제주불교계의 상황들을 선명하게 기록한 것으로 근대 제주불교의 역사적인 장면들을 한 컷 한 컷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권말에 제주불교의 역사를 첨부하여 불교문화에 대한 종합적 안내서로서 기능도 갖추게 되었다.

이 사진집에 실린 옛 사진들은 연종스님과 보각스님, 제주사범대학부설중학교 등이 소장했던 사진들이며, 제주불교신문사 성호스님의 주관 하에 발행하게 되었다.

〈표 13〉 사진서적 출판 현황

일자	서 명	발행처
9. 1.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	제주불교신문사

5. 기타 행사

2013년 열린 사진 행사 중 흥미로운 전시들도 있었는데 그 중 프시케월드에서 펼쳐진 ‘내셔널지오그래픽 창간 125주년기념 사진전’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을 조명한 세계적 수준의 작품들을 제주에서 장기 전시를 통해 관람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로 꼽을 수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해마다 전 세계 사진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공모전을 펼치며, 세계 곳곳의 숨은 비경들과 경이로운 자연현상,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해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마추어 사진인들의 활동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제주서중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작업한 사진들을 자연 속 갤러리에서 펼쳐 보인 ‘i-休 사진전’ 행사나 신산갤러리에서 열린 혜정원 지적장애인 10명의 다큐멘터리 사진작품전 ‘사진으로 보는 아름다운 세상’은 그들이 비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심미적 감성을 드러내 보인 참신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버려졌던 마을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갤러리 우다에서 열렸던 ‘나도 사진작가’ 전시회는 한 사진작가와 지역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엮어낸 전시회로 마을 곳곳을 소개하며, 나의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흥미로운 전시기획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표 14〉 2013년 기타 사진 행사

기 간	전시명	전시장소	주관 및 주최
6. 1.~ 2014. 5. 31.	내셔널지오그래픽 창간 125주년 사진전	프시케월드	프시케월드
8. 9.~8. 30.	감귤박물관 기후사진 전시회	감귤박물관	서귀포기상대
8. 21.~8. 27.	제39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입상작 전시	제주도문예회관	예총제주도연합회
11. 22.~11. 24.	찾아가는 예술 동아리 i-休 사진 전시회	한라수목원	제주서중학교
12. 6.~12. 15.	제1회 섬 속의 섬을 사진과 함께 전시	한국방송대 제주지역대학	수강생 작품
12. 19.~12. 20.	사진으로 보는 아름다운 세상	신산갤러리	혜정원 지적장애인 10명
12. 21.~ 2014. 1. 21	나도 사진작가	갤러리 우다	김병욱 작가와 어린이들

이외에도 2013년 한 해 동안 제주도내에서 펼쳐진 다양한 축제나 행사 동안 홍보성 사진전들도 다양하게 열렸다. 농수축산물의 상품성을 알리는 사진전, 문화행사 기록사진전, 행사 홍보성 사진전, 추모사진전, 환경의식 고취 사진전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대략 18회 정도의 축제 관련 사진 전시가 이뤄졌다.

III. 나오는 말

2013년 한 해 동안 제주에서 펼쳐졌던 사진 활동들을 들여다보며 다양한 창작적 시도와 꾸준한 전시 노력들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언론이나 뉴스에 발표되지 않은 수많은 사진가들의 숨은 활동들도 있었을 것이며, 자기계발을 위한 인고의 노력들도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제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새로운 창작동아리들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창작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보이리라 기대해 본다.

앞으로 사진계는 디지털사진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흐름은 매우 유동적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에 대해 항상 고민하며 자기만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다. 어쩌면 변화는 새로운 기회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규모 창작스튜디오형 기획 작업들이 새로운 바람으로 일고 있는 것도 제주의 현실인 것 같다. 글을 시작하며 거론한 것처럼 제주는 항상 우리 곁에서 무

한한 보배의 창고로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그 소재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던가?

끝으로 문예연감을 집필하면서 몇 가지 소회를 적고자 한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제공하는 세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현실적 활동 상황을 제대로 견지할 수 있는 자료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집필자가 전체적인 동향이나 행사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겠지만, 기초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집필자가 매년 바뀌면서 사진 행사의 분류나 분석에 대한 입장이 집필자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수치 통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도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수치 분석에 대한 집필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집필자들이 어느 정도 통일성 있는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문예연감 원고 작성 원칙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축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2013년 제주건축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I. 들어가며

2008년 1월 22일 유력 중앙일간지 1면에 ‘정치, 디자인을 이야기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건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던 적이 있다. 아마 건국 이래 디자인이라는 키워드, 그것도 도시와 건축의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기는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도시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만큼 매년 수많은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국가는 없을 것 같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독특한 주거의식인 집에 대한 집착과 부동산의 자산적 가치에 대한 집착, 여기에 정치적 영향까지 가세하다 보니 미래지향적인 도시디자인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자동차 중심의 괴물 같은 도시가 끊임없이 생산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문화적 자산으로서 건축은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공간이 되기도 한다. 2013년 제주건축계에서도 다양한 건축 활동이 전개되었다. 건축행위를 통한 구조물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문화활동, 그리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를 위한 지원활동 등 다양한 건축활동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 결과들을 정리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제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2013년 제주건축계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

1. 건축 3단체가 주축이 된 제주건축문화축제

기본적으로 건축은 공공예술의 성격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 존재로 생각되어야 하는 필연성 때문에 창조적 결과물로서 건축물은 국가 혹은 지역의 역사와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건축은 그것이 가진 개별적인 문화 예술성뿐만 아니라, 도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주변의 환경적 요소들과 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상적이고 감성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건축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과 인식 위에 건축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문화축제를 추진하게 됐다.

건축문화축제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제주지역사회 건축문화 창달에 미력하나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의 시대라고 한다. 건축을 통한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인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고, 건축문화축제의 중요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13년 건축문화축제에서도 건축인들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들이 작은 기초를 쌓았다고 평가된다.

제주건축 3단체(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가 주최하는 가장 큰 건축 관련 행사는 ‘제주건축문화축제’이다.

2013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2013 건축문화축제 최고 의결기구이며 조직위원회와 별도로 2013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하부 기구로서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5인,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및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에서 각 3인을 추대, 2013 제주건축문화축제 운영을 총괄하는 2013 제주건축문화축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2013 제주건축문화축제 운영위원장은 양성필(건축사사무소 아키제주 대표)이 맡았다.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제주 도시건축 그리기대회

2013 제주건축문화축제의 행사로 ‘아름다운 제주 도시건축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거리의 모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생각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신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제주 도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 도시건축을 주제로 그리기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미래 시민이 될 아동들이 도시와 건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 문화적 가치를 쌓게 됨으로써 발전적인 제주의 미래 도시와 건축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그림 1〉 ‘아름다운 제주 도시건축 그리기 대회’의 행사 및 심사 모습.

그리기 대회는 제주북초등학교 일원에서 2013년 9월 14일 토요일(오전 10:00 ~ 오후 2:00) 개최되었으며,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초등학생들이 참가하여 열심히 자신의 솜씨를 뽐내는 자리가 되었다. 주어진 주제는 아름다운 집 그리기, 아름다운 거리(마을) 풍경 그리기, 미래의 도시 모습 그리기였으며 심사는 김원구(한국수채화협회 제주 이사·한국미협 회원), 양경식(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이 맡았다.

2) 2013 제주건축문화대상

도내 건축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의 건축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제주건축문화대상이다. 제주도내에서 실시되는 건축 관련 시상 중 가장 권위 있는 시상이라 할 수 있다. 제주건축문화대상은 준공건축물 부문, 학생설계 공모 부문, 건축사진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어 왔으나 2013년부터 학생설계공모 부문의 경우 응모작품의 질적 수준 및 제주미술대전과의 중복적인 프로그램 성격 등을 고려하여 워크숍 형식으로 변경 추진되었다.

심사는 2013년 9월 24일(화) 이뤄졌으며 준공건축물 수상작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상작 및 수상자

수상내용	작 품 명	수 상 자
건축문화대상	NXC센터	가우건축사사무소(대표 양건)
본 상	녹고피 안트레센터	예원건축사사무소(대표 임성추)
	위드건축사사무소(대표 김형섭)	위드건축사사무소(대표 김형섭)
특 선	생각하는 정원 화장실	김한진건축사사무소(대표 김한진)
	오정현	예림건축사사무소(대표 오용화)

시상식은 2013년 10월 10일(목) 이루어졌고 제주도청 별관 홀에서 전시되었다.

준공건축물 및 건축사진 심사위원들은 〈표 2〉와 같다.

〈표 2〉 제주건축문화축제 준공건축물 및 건축사진 심사위원

심사분야	성명	소속기관(단체) 및 직위	비고
준공건축물	최찬환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건축가협회(도외)
	김인철	아르키움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학회(도외)
	박순관	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건축학회(도내)
	최재권	제주관광대학교 인테리어건축과 교수	건축학회(도내)
건축사진	김병국	제주관광대학교 방송사진영상학과 교수	
	이창훈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감사	
	김성욱	건축사사무소 가인 대표	건축사협회

3) 워크숍

건축 3단체 행사 중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인 워크숍은 기존 학생공모전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 처음 추진되었다. 단순히 학기 중 과제물이 주류를 이루었던 학생공모전의 틀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건축적 사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워크숍은 참여 학생과 튜터들이 팀을 구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건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건축인들의 작은 축제이기도 해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참여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과정을 진행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모전에서 배울 수 없었던 교류와 소통, 아이디어의 건축화 작업 과정 등 다양한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한다.



〈그림 2〉 워크숍에서 토론 및 작업 모습.

그러나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워크숍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았다.

첫째, 주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도출이다. 이번 워크숍은 대상지역이 제주시 명도암 이었고, 명도암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주변의 적절한 공간을 맡아 땅을 해석하고 필요한 대안을 찾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암이라는 지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역에 대한 인문사회적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 집중하지 않은 팀들이 대부분이었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 역시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건축은 땅 위에 삶의 공간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 땅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과정 속에 수요자에게 필요한 삶의 공간을 위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발표 형식과 내용의 문제이다.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타인의 시선을 유혹할 수 있는 좋은 건축물을 생산하였다고 해도 타인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는 자신의 생각에 머물게 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결과물을 논리적으로 호소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였고, 일부 팀의 경우 진지하고 열정적인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부족했다는 한계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비록 아쉬움이 남는 워크숍이었으나 공모전에서 찾을 수 없었던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제주건축계의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어서 2014년 행사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대한민국건축대전 입상작품 제주 순회전 및 한국건축가협회 회원전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에서는 제주도의 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대한민국건축대전 수상작품들을 초청하여 12년 동안 매년 전시회를 해오고 있다. 2013년에는 12월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제주건축가 회원작품과 함께 대한민국건축대전 수상작품이 전시되었다.

구체적인 전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대전 초대작가 작품(90점) △건축대전 일반 공모전 입상작(10점) △BEST 7 수상작(7점)+특별상(1점)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회원 작품(10점)



〈그림 3〉 대한민국건축대전 입상작품 제주 순회전 및 제주건축가회 회원전 개막식 모습.

그리고 개막식 당일에는 올해에도 작품을 수상한 솔토건축사사무소의 조남호 대표가 ‘건축의 물리적 차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림 4〉 건축가 조남호 대표의 특별 강연 모습.

3.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원전 및 회원 수상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원전(작품 29점)이 201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 수상작들(준공건축물 부문 10점, 건축사진 부문 11점, 아름다운 제주 도시건축 그리기대회 수상작 20점, 건축워크숍 부문 수상작 8점)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여 제주도민의 건축문화 의식 향상과 건축사 및 건축 관련 학생들의 창작의욕 고취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고, 제주건축계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데도 노력하였다. 전시회는 10월 2일(수)부터 14일(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홀에서 열렸다.



〈그림 5〉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전시회를 겸한 2013년 제주건축문화축제 건축전시회 행사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원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이 설계한 단독주택 ‘에스엠원 하우스’가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 부문 본상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품은 제주 전통가옥 배치의 특징이 공간적으로 잘 담겨 있고 여러 개의 작은 마당과 앞마당이 위계를 갖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제주의 폭낭을 연상시키는 마당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6〉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 부문 본상을 수상한 ‘에스엠원 하우스’.

4.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활동

1) 건축답사

제주의 문화는 돌문화이다. 제주사람들의 다양하고 지혜로운 삶의 흔적들이 바로 올레담, 밭담 등의 돌문화이며, 아름다운 제주의 땅 위에 수놓은 인간 활동의 흔적이자 독특하고 오묘하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제주만의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제주의 돌담은 토지나 가옥의 경계를 정하는 의미를 넘어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사용하는 돌도 큰 돌뿐만 아니라 작은 돌, 밋밋한 돌, 모난 돌, 둥글넓적한 돌들이 모두 필요하다. 각각의 돌들이 제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돌과 돌만으로 짜인 제주의 돌담은 일종의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돌담에는 작은 힘 하나하나를 모아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그림 7〉 답사가 진행되었던 하도리의 밭담 전경.

갈등과 반목, 대립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상 최대의 폭풍에도 무너지지 내리지 않은 제주민가의 돌담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3년부터 세계농업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왔고 2014년에 등재되어 더욱 의미 있는 답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는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2년에 이어 건축답사를 실시했다. 1차 건축답사의 주제는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 밭담이었다. 1차 현장답사는 박경훈(제주전통문화연구소 소

장)의 현장 강연과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하도리 마을 중심으로 별방진성과 포구, 원담, 그리고 하도리만의 독특한 발담 풍경을 둘러보았다.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제 : 제주의 돌문화를 찾아-하도리 마을 일대의 발담 중심-

△ 현장 강연 : 박경훈(제주전통문화연구소 소장)

△ 일 시 : 2013년 7월 20일(토) 오전 9시30분

△ 출발장소 : 제주지방종합청사 정문(시민복지타운 내 위치)

△ 답사 코스 : 하도리 포구(포구와 원담 답사)→별방진성 출발→진성 내 마을 골목길과 발담→진성 외곽 마을의 발담→당→해안도로→식사 후 출발

2) 건축포럼 개최

뒤돌아보면 2012년은 건축잡지를 통해 제주지역 유명 건축가의 작품들이 소개되는 한편 지역건축가 역시 건축상 수상 등을 통해 제주현대건축이 새롭게 평가받았던 한 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상공모설계 등을 통해 좋은 건축물을 건립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건설비용 초과, 참여비용 과다 지출, 그리고 심사의 불공정성 등 현상공모를 발주하는 부서와 참여 건축가 모두 불만족스러운 인식을 갖고 있으며 현상공모 설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최근 제주도는 환경수도에 전력을 쏟고 있다. 환경수도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자연과 동화된 삶의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환경만큼이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을 담을 수 있는 건축을 구축하기 위해 제대로 된 현상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필요하면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도 개선해야 하고 전문성이 있는 조직 구성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가들 역시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현상설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제주지회 주최의 건축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은 공공성이 있는 사회자원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건축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의 문화적 수준 향상과 직결된다는 인식의 토대 위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설계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여를 위한 공공건축물 발주방식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 제주지회 기획도서 「제주 도시 건축의 문화와 환경」 출간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국은 급속한 산업화의 길을 걸었고, 이는 유한(有限)한 자원을 짧은 기간에 막대하게 소비함과 아울러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지구환경문제’라 부르고 있다. 특히 기계문명과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해 온 20세기 인류 문명은 과도한 인조환경의 확대를 가져왔고 인간과 환경의 유기체적 삶의 연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동양적 세계관이 수용된 유기체적 세계관이 발달하면서 인간 대 자연의 대립이라는 서양의 이원론적 사고는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경향은 산업적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른바 녹색산업으로 불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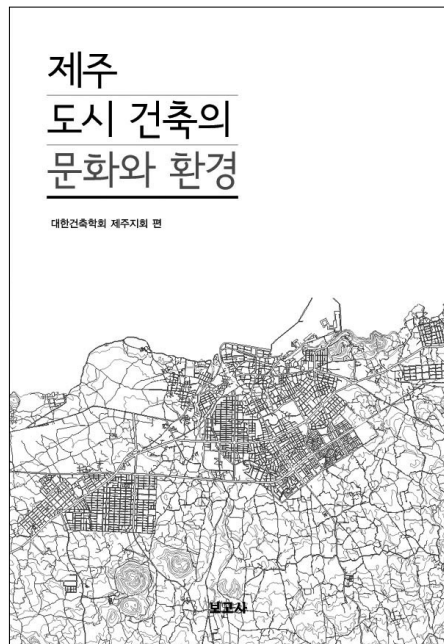
그러나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자연환경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호해 가려는 실천적 노력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이 가진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할 때, 학회 전문가와 건축가가 도시재생 사업이나 공공디자인 사업과 같이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학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학회 자체의 조직 구성과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인식하고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에서는 연구자들만 모인 아카데미한 집단으로서 차원을 벗어나 국가 혹은 지역사회와 접점을 찾으려는 다양한 노력과 필요성 때문에 「제주 도시 건축의 문화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기획도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5.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건축부문

2013년은 제주도미술대전이 제39회를 맞이한 해였다. 제주도의 미술 부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7월 22일부터 제주도문예회관과 제주시민회관 등지에서 총 367점의 응모작을 심사하여 188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그 중 건축 부문의 경우 9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건축 작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제주의 풍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산과 해변 등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을 위시한 인문적 특징을 창조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8〉 출간된 기획도서
「제주 도시 건축의 문화와 환경」 표지.

〈표 3〉 제주도미술대전 건축 부문 수상작

수상내용	수상작	수상자
대상	The old man and the sea	김정식
우수	통하다	김민희
특선	나의 일상공간과 상업공간이 만나다	김현
	IT교육문화센터	정소희
입선	기억을 그리다	이명범, 고유미
	P+N=F+@(요트클럽하우스)	최준우
	들판의 연못	김창균
	휴머니즘	이은성

III. 2013년 제주건축계의 이슈와 과제 :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가칭) 설계경기가 보여준 한국건축계의 슬픈 현실

2013년에도 현상설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이하 김창열 미술관) 설계경기는 추진 과정과 심사 종료 후 제출 모형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면과 트위터 등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건축계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한 설계경기 진행 과정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제출 모형 처리 문제만으로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불만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설계경기 추진 과정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논쟁 1. 공공성 강한 미술관의 위치에 대한 검토가 적절했는가?

미술관의 위치 문제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기당미술관을 비롯하여 사설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의 대중화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창열 미술관 건립 위치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내에 위치하게 되어 시민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대중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자칫 예술가를 위한 예술 공간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미술관을 찾는 제주도민의 비율이 높지 않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술관과 공원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를 만든 스페인 빌바오의 쿠켄하임 미술관처럼 도시 문제 해소와 시민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해 낼 수 있는 미술관의 위치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관 부지 선정 과정에 관계전문가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는 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행정편의 중심의 설계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9〉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부지.

논쟁 2. 도립미술관으로서 규모는 적정한가?

미술관의 규모 문제이다. 김창열 미술관 건립 장소와 인접하여 2007년 개관한 제주현대미술관이 건립되어 비교적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김창열 미술관이 제주현대미술관(연면적 1,773㎡, 지하 1층 지상 2층)과 거의 유사하게 연면적 1,3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뿐만 아니라 미술관 내 공간 구성도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는 거의 유사한 기능과 규모의 미술관을 집중함으로써 문화예술 공간의 편중화, 상호보완적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유지되어 온 제주현대미술관의 정상적 기능마저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예상된다.

논쟁 3.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는가?

제주도 문화공간에 대한 기본적 방향은 ‘제주도 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에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김창열 미술관 건립 과정에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주도 문화예술의 중장기 계획 측면에서 미술관의 위치와 규모, 프로그램 등이 재론될 여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논쟁 4. 심사위 구성은 적절했는가?

설계경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건축계획과 설계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심사위원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과 구성 비율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김창열 미술관 설계경기에서도 관례대로 심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각 대학별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진행하였으나 이는 추천의 형식을 빌렸을 뿐, 과거 행정기관이나 발주처의 담당부서가 각 대학별 배려 차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필요에 따라 제주도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인해 매번 돌아가며 참여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 김창열 미술관 심사위원 구성은 건축설계, 건축디자인,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설비, 미술관, 미술평론, 예술 분야와 같이 모호한 분야로 구분하여 이뤄졌고 당초 발표된 심사위원에는 기증 당사자인 김창열 화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심사의 공정성 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논쟁 5 : 심사 다음날 쓰레기로 처리된 제출 모형

이처럼 김창열 미술관 설계경기는 시작 단계에서 미술관이 들어설 장소 문제와 과업지시서의 적절성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 직전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칭 김창열 도립미술관 설계경기 심사 다음날 출품 모형이 쓰레기로 처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행정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건축설계는 인문학적 가치를 갖는 땅의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공간화하는 창조적 작업이기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힘든 작업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품작 하나하나가 참여 건축가의 전문지식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쓰레기로 처리되었으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참가 희망자들에게 배포된 과업지시서의 당선작 및 입상작에 관한 사항 중 '낙선작에 대한 응모작품의 반환은 입상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아야 하며 반환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서 규칙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모형을 쓰레기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당선작과 낙선작 모두를 도청과 시청, 이외의 공공장소에 전시하여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 건축가의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창조적 건축 작품을 공유(共有)하는 것도 의미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전시를 통해 발주처의 노력과 애로사항, 행정기관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 완공

후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전시기간을 통해 참여 건축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건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건설경제의 요소로서 건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환경으로서 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김창열 미술관 설계경기 주관 부서가 문화정책과였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IV. 맺으며

흔히 도시를 생명체의 집합체라고 정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도시의 성장과 진화, 쇠퇴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다양한 도시건축을 생산해 내면서 도시만의 독특한 이미지, 풍경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은 문화풍경이라고 부른다.

도시의 문화풍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조화라는 점이다.

이를 위한 도시건축의 디자인은 삶의 공간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며, 나아가 문화적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수준을 한결 업그레이드하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2013년에도 다양한 건축 활동이 전개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생산적인 논의 과정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제주의 도시와 건축이 갖는 매력적 요소들을 어떻게 디자인해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세계자연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악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2013년 제주국악의 공연 현황 및 내용 분석

김 형 진

성읍민속마을취타대 음악감독

I. 들어가며

2013년 제주의 국악 공연은 80여 건으로 전년도 50여 건에 비하여 50% 이상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이 다양한 장르 간 교섭으로 인해 탈장르화하고 있고, 내용적 비정형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국악 공연 양상은 탈장르화와 비정형성, 탈전통화, 상품화와 양극화 등의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장르 간 교섭과 내용적 비정형성 외에 공연장에서 갈수록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함께 상품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요즘 제주는 지역적 정체성을 요구받는 동시에 탈 지역을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칠머리당굿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제주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세 개의 타이틀을 거머쥐어 세계로부터 지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음악을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것 또한 제주 국악인들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이런 다소 상충되는 요구를 제주 국악인들이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소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악 전공자들의 경제적 불평등과 무관심, 특히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런 시대적 소명만을 요구하기에는 미안한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한 공적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아직은 미미한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3년 국악 공연을 중심으로 제주 국악의 현주소를 가늠해보고 그 분석을 통하여 제주 국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기대해본다.

국악이란 한국음악을 뜻한다. 한국음악이란 한국에서 연주되는 모든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음악, 또는 한국적 토양에서 나온 음악을 가리킨다. 필자는 국악이란 용어보다 우리 음악이란 용어를 더 선호한다.

예로부터 남달리 노래와 춤을 즐겼던 우리 민족은 고유한 음악을 발전시켜 왔다. 오랜

세월 동안 문화 전반에 걸친 중국과 교류를 통해 중국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음악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권 민족의 음악과 확연히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면서 발전해 왔다.

국악을 하다 보면 흔히 전통음악을 박제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국악을 권위에 의해 고정시키려 하고, 현대화한 퓨전 국악을 듣고 ‘저것은 우리 음악이 아니다’라고 비판부터 내놓는다. 또한, 퓨전 국악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라 강요하고 편견이나 배타적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 이것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은 필자의 주변에서도 일어난다.

지금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화 시대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는 전통음악에 대한 관점에도 전통예술을 현대화하려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스토리텔링은 국악 분야에서 특히 고민해야 할 요소가 되고 있다. 난타는 현재 가장 세계화에 맞게 전통예술의 현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공연이다. 한국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의 경쾌하고 속도감 있는 리듬을 바탕으로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전통 타악이 현시대에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맞게 전통예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예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맞지만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하고, ‘우리 것이면 무조건 다 좋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한국적이지만 세계화에 맞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그래야 국악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편견보다는 새롭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세계화 시대에 한국적인 것을 지키는 진정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정관념이나 국악 창작곡에 대한 편견보다 개성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전통문화관이며, 전통예술의 현대화에 적합한 태도라 생각한다.

제주지역에서 국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국악관현악단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문화의 정수를 수출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무를 수행할 주체들이 부재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문화 활동은 미미하였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역적 정체성만을 고집한 음악들은 분명 한계가 있다. 다양한 우리나라의 음악들을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획득하는 것에 제주 국악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제주의 국악은 지역적 정체성과 현대화된 우리 음악을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전통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II. 2013년 제주도 국악단체 및 공연 현황 및 내용 분석

1. 제주도 국악 현황

현대의 문화는 문화 개방에 따른 세계의 문화 홍수 속에 급변하고 있으며 청중들은 새로운 음악의 공연예술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기존 공연예술보다는 빠르게 변해가는 새로운 공연예술을 위한 창작의 방향을 갈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악인들이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음악에 대한 창작욕구와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 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에 대한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고할 때라 생각된다.

제주 국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지역에는 제주국악사가 없다. 민중들의 애환이 담긴 구수한 소리와 가락들을 담아내고 지켜온 명인·명창들의 인물사가 없으며, 현재까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단체들에 대한 기록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우리 지역 대학교에는 향토 국악 발전을 위한 연구소나 협의체가 없다. 지역에 산재한 민속악 발굴, 학술 심포지엄 등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문화예술 교육과 국악 교육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서양문화 일변도에 매몰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음악을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제주국악협회가 주관하여 선발하는 국악 분야 예술 강사들이 각 학교 현장에 파견되어 국악을 교육하고 있으나 국악 꿈나무 발굴·육성을 위한 노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향토 국악인들의 화합이 급선무이다. 지역 국악인들은 서로의 개인 이해관계,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전문가와 비전문가, 국악협회 지회장 선출 등에 얽혀 대치 구도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양분되어 비바람에 시달린 야생화처럼 건강한 전통음악의 풀뿌리를 싱그럽게 뻗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악협회가 제주민요를 부르는 이들만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국악을 전공한 젊은 국악인들이 배제된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한다면 국악의 다양한 발전을 모색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서양음악 일변도의 도시 문화정책 하에서는 우리 음악이 숨 쉴 공간이 부족하다. 문화는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문화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립국악원을 유치하는 것도 그 한 가지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립예술단을 활성화하여 국악단을 창

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국악관현악단이 없는 국내 유일의 도시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필자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다. 또한 국악인들의 화합과 시대적 특성에 맞춘 지역적 작품 공동 개발과 일관성 있는 단일체의 목소리를 기대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제주의 국악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본다.

2. 제주도 국악 단체 관련 현황

전년도에 비해 단체의 성격이 국악단 가향의 경우 판소리 중심이던 단체에서 대금 연주자 전병규가 참여하면서 실내악 중심 단체로 변화하였다. 또한 대정여고에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됨으로써 다양한 관현악곡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등록 단체들은 많으나 단 한 차례의 공연도 올리지 않은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쉬움이다. 예술단체는 무대를 통하여 그 성과물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활동 영역이다. 특히 민요패의 경우 공연물을 아예 올리지 않는 단체들도 수두룩하다. 이런 경향은 민요단이 너무 난립해 있고, 또 그 역할을 지역에서 강습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요 보급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생겨난 결과로 본다. 물론 민요의 보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술단체의 경우 그 성과물을 무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표 1〉 2013년 도내 국악단체 장르별 분포 현황

구분	민요 /개인	판소리	시조	관현 악단	실내악	타악	무속	협회	연구회	연회패	계
단체 수	27	3	3	3	10	5	2	3	3	5	64
비율(%)	42	4.5	4.5	4.5	16	8	3.5	4.5	4.5	8	100
공연 횟수	16	3	0	1	4	27	6	5	0	3	65
비율(%)	26	5	0	1	6	42	9	6	0	5	100

※1. 탐라문화제 기간 및 각종 경연대회 제외 2. 초청단체 공연 제외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 국악계의 구성은 거의 반에 이르는 약 42%가 민요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민요의 경우 단체 수는 압도적으로 많으나 공연 횟수를 보면 현저히 적다. 민요단체의 경우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량과 민요 보급 및 강습회를 중점 사업으로 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 반면 타악의 경우 단체 수는 적지만 공연의 수행 비율은 거의 반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이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공연-해외공연 포함-도 물론 있으며, 또 동일 공연이지만 중복 공연 횟수 등-1일 2회 공연 등-이 제외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오류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결국 공연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기획능력 부재와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기 쉽다. 그리고 일정 정도는 지원 예산의 출처에 따라 보고되는 곳이 달라서 일어나는 오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공연의 편중 현상이 심한 것이 사실이고 명맥만 유지하는 단체 또한 많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표면적이거나 통계에 잡힌 국악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 50개소에서 64개소로 늘었고, 공연 등 국악 관련 행사가 초청공연 등을 포함, 50여 차례에서 80여 차례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전수사업, 복합사업, 축제 기타 경연대회 등 제외).

2012년 나타났던, 민요 중심의 단체 수와 비례한 공연 대비 타악 등이 중심이 된 기악 단체 수와 비례한 공연 횟수의 불균형은 2013년에도 여전한 모습이었다.

또한 과연 어디까지를 국악 공연으로 볼 것인가, 연희 종목을 국악에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 등은 지난 반세기 국악의 역사가 걸어오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개념적 오류 문제가 포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순수한 국악 공연은 오늘날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국악관현악, 실내악, 독주회에 연주되는 대부분 음악은 이미 그 자체로 국악의 요소와 비국악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음악들이다. 이에 대한 제주만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3. 장르별 공연 현황

<표 2> 민요 공연

일자	단체명	공연명
2. 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요동아리	함께하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민요동아리 민요공연'
3. 9.	제주농요보존회 / 제주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제주농요공연
3.13.	제주대학교 문화광장	제주농요 김향옥 초청공연
4. 5.	제주농요보존회 / 제주시	왕벚꽃축제 제주농요공연
5.1.~9.30.	서귀포문화원 / 서귀포문화원부설민속보존예술단	어르신문화동아리활성화민속공연
5.9.~10.17. (주 1회)	해녀노래보존회(사라예술단) / 해녀박물관	관광객과 함께하는 해녀노래 공연
5.1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요동아리	함께하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민요동아리 민요공연'
5.10.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6. 5.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 문화예술진흥원	국악뮤지컬 하얀눈썹호랑이
6. 5.	엠제이플래닛 / 해비치아트페스티벌 / 문화예술진흥원	컨템포러리 판소리 <북극가>

6. 8.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6.13.~7.11. (주 1회)	해녀노래보존회(사라예술단)	찾아가는 문화예술 '제주바당어명소리' 공연
8.17.	제주농요보존회	제주농요 전승을 위한 공연
8.31.	제주농요보존회	제6회 전통문화향연
9. 7.	제주탐라예술단	제21회 정기공연 '제주 고택한마당'
9.7.~9.8.	민요패 소리왓	제주 섬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 소리축제 -아리랑 아라리요
9.14.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제8회 정기공연 '제주섬 국악을 품다'
9.28.	서귀포문화원	제17회 서귀포칠십리가요제
11.22.~11.24.	민요패 소리왓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소옥의 아리랑-
11. 23.	(재)한국관소리보존회제주지부	국악의 꽃 관소리 한마당
12. 22.	제주시민속보존협의회	테우리코시, 도그네 포제 걸궁 공연
12.24.~12.25.	민요패 소리왓	공연 '삼승할망꽃놀이', '우리 할망넌 영 살았수다'

MBC는 일찍이 '한국민요대전' 사업으로 방대한 토속민요 자료를 내놓은 바 있으며, 후속 사업으로 '북한민요전집'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출판물이 나오면서 이제는 누구든 민요 자료가 없어 무엇을 못 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20년 넘게 각 분야에서 토속민요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민요를 아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로는 누구나 토속민요가 발굴돼서 좋다고 하고, 창작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좋아하지만, 실제 결과물은 뚜렷한 것이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사람들은 눈앞에 자료가 널려 있는데도 그것을 쉽사리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과 함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단체들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제주의 민요를 공연하는 주체가 되는 국악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악계는 일정한 울타리가 형성되어 있다. 넓지 않은 울타리다. 국악인들 스스로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고, 관객들도 울타리 안에서 논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 시각이 부족해지기 쉽다.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공연을 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느낌이 부족하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관객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크게 궁금해 하지 않는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다.

국악비평가라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잘못된 점을 짚어주기보다는 대강 잘했다고

하고 만다. 그러니 음악가들은 자신들이 만든 음악의 수준이 어떤지, 연주의 수준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스스로 공연을 되돌아보고 국악 동호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더 좋은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려 고민해야 할 텐데, 남의 의견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음악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프로 정신이 없으면 대강대강 해도 괜찮은 아마추어나 다름없을 것이다. 국악계 안에서는 그렇게 해도 자기가 최고인지 몰라도, 국악계 밖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악의 여건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프로가 여건을 핑계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전문적 기획력을 과감히 도입하여 그 내용이 비슷비슷한 무대를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제주민요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그 무대를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민요패 소리왓’의 작업에서 그 희망을 본다.

〈표 3〉 타악 공연

일자	단체명	공연명
1. 2.	(주)노리안마로	허튼 곳
2. 6.	(주)노리안마로, (사)제주큰굿보존회	제주 큰굿이야기 ‘허튼곳-신임하소록’
2. 6.~2.10.	(주)노리안마로, 비스타엔터테인먼트	호주CNY페스티벌(시드니)
3. 6.	(주)노리안마로	허튼곳
4. 3.	(주)노리안마로	4:3비나리
4. 3.	(주)노리안마로	제주 큰굿 이야기 ‘허튼곳-불도맞이2’
5. 1.	(주)노리안마로, (사)제주큰굿보존회	제주 큰굿 이야기 ‘허튼곳-보세감상’
5. 1.~10. 31.	(주)노리안마로	신명을 전하는 저잣거리다이내믹 예술난장 제주광대들2
5. 18.	(주)노리안마로,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박물관의 날
5. 25.	풍물굿패 신나락	찾아가는 연물굿
5. 26.	풍물굿패 신나락	찾아가는 연물굿
6. 5.	(주)노리안마로	제주 큰굿이야기 ‘허튼곳-용놀이’
6. 5.	(사)노름마치예술단 / 해비치아트페스티벌 / 문화예술진흥원	노름마치 풍[風] THE K-WIND
6. 5.	(사)문화프로덕션도모 / 해비치아트페스티벌 / 문화예술진흥원	SOUL 打
6. 22.	풍물굿패 신나락	찾아가는 연물굿
6. 23.	풍물굿패 신나락	찾아가는 연물굿
6. 26.	(주)노리안마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장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가락’
6. 28.	(주)노리안마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장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가락’

6. 29.	풍물굿패 신나락	찾아가는 연물굿
7. 3.	(주)노리안마로	제주 큰굿 이야기 '관세우'
7. 6.~8. 25. (매주일요일)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2013 일요상설공연 소나무숲 국악콘서트
7. 25.	(주)노리안마로	정기공연 '푸다시'(2013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 참가작)
8. 1.~8. 10.	(주)노리안마로	뒤 몽드 생로즈 민속축전
8. 12.~8. 28.	(주)노리안마로 / 프린지 페스티벌	꼭 봐야 할 공연 10
9. 7.	제주탐라예술단	제21회 정기공연 '제주 고향마당'
9. 24~09. 30	(주)노리안마로 /멕시코	프라이어 멕시코 코리아
10. 24.	(주)노리안마로	NEO(네오) 푸다시
11. 29.~11. 30.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2013 국악콘서트 '通'
12. 22.	제주시민속보존협의회	테우리코시, 도그네 포제 걸궁 공연
12. 27.	(주)노리안마로	2013 연말맞이 희망나눔 '난장'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물놀이는 전통 풍물을 무대공연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잊혀져 가던 풍물 장단의 멋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악의 대중화를 대폭 앞당긴 커다란 공로가 있다. 이러한 성공은 국악의 현대화와 대중화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한 성공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더는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정체된 장르가 된 것 같다. 다른 장르의 국악 창작곡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에 비하면 사물놀이 창작곡은 아주 드물게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사물놀이가 과거의 레퍼토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정체의 주원인으로 생각한다. 서양음악 장르인 재즈와의 결합도 시도했고, 전통음악 장르인 무속장단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즈와의 결합은 선율이 장단에 앞서는 음악 원리상, 재즈 선율에 장단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했으며, 무속장단의 도입은 리듬의 단순함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대중화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활발한 공연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장단만 써먹고 다른 음악 요소를 방치해온 데 있다. 사람의 목소리를 적절히 활용한다든가 선율악기의 활용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로지 리듬만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누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제주의 타악은 그 명성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사라져가는 전통 장단과 선율과 노래와 몸짓을 부활시킬 능력이 있다. 모든 국악이 그렇듯,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음악 창작에 답이 있고 하나아트의 경우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또한 신나락과 노리안마로의 경우 전통적 타악 공연에서 제주도 무속장단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무속장단을 체계화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사물놀이가 생겨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더는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정체된 장르가 된 요즘 현상에서도 노리안마로의 2013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는 제주의 타악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제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노리안마로의 진화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즐거운 궁금증을 가져본다.

〈표 4〉 기악 공연

일자	단체명	공연명
3. 23.	국립제주박물관	토요박물관 산책무대-퓨전 국악밴드 ‘고래야(古來惹)’공연
4. 13.	대낭소리	대금연주회
4. 24.	제주대학교 문화광장	국악공연팀 풍류에 초청공연 ‘악(樂)요(樂)락(樂)’
6. 3.	(사)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 국립국악원 등	2013년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함께하는 ‘국악 신세계로’
7. 25.	KBS제주방송총국	KBS국악관현악단 남상일의 흥부놀부 이야기
9. 14.	카페 세바	국악이 재즈를 만났을 때
10. 12.	제주택견전통문화 예술원	제12회 거문고 정악정기연주회
10. 12.	국악단 가향	가향과 함께하는 국악여행
12. 15.	제주국악관현악단	2013 제주국악관현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에서 기악 공연은 과거 제주교사국악관현악단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뤄져왔으나 몇 년 전부터는 그 활동이 미미해지면서 한동안 볼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현상은 제주의 지역 정체성을 담은 기악곡이 한정되어 있고, 도내 대학에 국악과가 없어서 전공자가 적은 데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연유로 제주의 기악 공연은 아직 그 지평을 넓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작에 대한 고민도 하는 현실이다. 전승과 보존에 대한 능력이 아쉬운 것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 등에 대한 중압감이 같이 존재하기에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5~2010년 제주국악단을 중심으로 한 실내악 공연이 제주의 국악 공연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고, 실내악 해연풍의 공연 등으로 제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던 공연이 요즘 미미해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신 제주국악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제주국악관현악단이 2011년 창단되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내부 결속의 문제 때문인지 제주국악인들이 많이 빠져나가 2013년 공연은 많은 수의 외지 연주자들이 참여한 공연을 보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악인들이 단합하여 공연을 올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싶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정여고에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기존 중악여고 국악관현악단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보완을 해 나간다면 우리 음악의 발

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제주에 미래의 국악인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어 좋은 일이고, 비록 아마추어의 공연이지만 다양한 국악관현악곡을 즐길 수 있어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립이건 국립이건 제주에 국악관현악단이 시급히 창단되어 제주의 음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도정에 기대를 가져본다.

〈표 5〉 판소리 공연

일자	단체명	공연명
6. 1.	(재)한국판소리보존회제주지부	권미숙의 창작곡 제주아리랑과 육자배기 발표회
6. 5.	엠제이플래닛 / 해비치아트페스티벌 / 문화예술진흥원	컨템포러리 판소리 〈북극가〉
11. 23.	(재)한국판소리보존회제주지부	국악의 꽃 판소리 한마당
12. 13.	(사)로천예악진흥협회	전통 예술 제주전

판소리 또한 기악의 평가 범주와 같이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악에 비하여 접할 기회가 더욱 협소한 장르라 할 것이다. 위낙에 제주가 민요가 발달한 곳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지역적 특성상 전라도 지역의 노래라는 인식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판소리는 세계 인류문화로 등록됐고, 또한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서 인기는 지역적 정체성이라는 한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가향판소리 현희순의 활발한 판소리 보급 및 공연 활동과 함께 (재)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지부 등이 중심이 되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제주 국악에서 판소리의 저변을 넓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6〉 굿 공연

일자	단체명	공연명
3. 12.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영등환영풍어제
3. 25.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영등송별대제
8. 17.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계사년 가뭄해소 기우제굿
9. 7.	제주탐라예술단	제21회 정기공연 ‘제주 굿한마당’
9. 28.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故 안사인 선생님 추모굿
12. 30.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주도민 무사안녕 기원굿 ‘시왕맞이’

제주에서 굿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은 이미 유네스코 중요무형문화재 등재에서 보듯이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욕심을 낸다면 전승이 확고히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문화예술의 보존가치뿐만이 아닌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걸맞게 그들이 참여하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었으면 한다. 제주 곳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의 내력, 그 방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들이 좀 더 쉽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무대화하는 방법을 젊은 국악인들에게 기대하여본다.

〈표 7〉 퓨전 국악 공연

일자	단체명	공연명
6. 5.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 해비치아트페스티벌 / 문화예술진흥원	국악뮤지컬 하얀눈썹호랑이
6. 5.	아즐가 / 해비치아트페스티벌 / 문화예술진흥원	봄, 여름, 가을, 겨울
6. 5.	스톤제즈 / 해비치아트페스티벌 / 문화예술진흥원	THE BEYONDERS
10. 19.	남도민속보존회	남도민속보존회 제13회 정기공연
10. 25.	제주스테이 비우다	제주스테이 비우다의 두 번째 하우스콘서트 - 음악트리오YPK

이른바 퓨전 국악이라고 발표되는 곡들 중에도 퓨전이 아니라 서양음악풍 곡이 많다. 퓨전 국악이란 국악과 다른 음악이 섞인 것을 말할 텐데, 국악이 전혀 섞이지 않았는데도 퓨전 국악이라고 한다. 알고 보면, 국악기 몇 개를 양악기와 섞어 연주했다고 해서 퓨전 국악이라고 하는데, 이는 악기가 섞인 것을 음악이 섞인 것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음악이 섞이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악 공연 양상은 탈장르화와 비정형성, 탈전통화, 상품화와 양극화 등의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장르 간 교섭과 내용적 비정형성 외에 공연장에서 갈수록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대중음악 양식을 모방한 자극적 상품화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표 8〉 종합공연

일자	단체명	공연명
10. 14.	유명주전통춤무용단	유명주의 춤
10. 19.	제주빌레앙상블,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바람의 섬 두 번째 이야기
10. 19.	남도민속보존회	남도민속보존회 제13회 정기공연
10. 25.	제주스테이 비우다	제주스테이 비우다의 두 번째 하우스콘서트 - 음악트리오YPK
12. 20.	서귀포문화원	서귀포문화예술인의 밤

종합공연의 경우 그 장르의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용이 주를 이루는다면 굿이 주를 이루기도 하고 여러 단체의 합동 공연의 경우 분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사실이다.

해마다 연감통계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또한 연희 종목 포함 여부이다. 사실 연희라는 말은 오늘날 농악, 무가, 탈놀이 등 민속예능 종목을 포괄하는 분류체계로 통칭되고 있지만, 이는 1990년대 이후 조성된 관습적 용어이며, 용어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원래 연희는 ‘연행하다’ 혹은 ‘구현하다’는 의미의 술어로 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 ‘공연하다’와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 그것이 농악, 무가, 탈놀이 이론 전공자들에 의해 1990년대 이후 대학 커리큘럼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마치 합리적 분류용어인 것처럼 오도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전통연희개론서에는 판소리, 궁중정재 등 전통예술 전반이 모조리 연희 종목으로 포괄되어 있는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연희라는 용어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음악·무용·연극적 요소가 결합된 이들 민속예능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든 통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사실 모두 ‘전통예술’이고 ‘민속예능’이며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과 같은 말로도 포괄할 수 있으나, ‘국악’이나 ‘전통음악’은 아니므로, 이들을 통계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국악’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용어로 통계 분류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겠다.

4. 문제점

1) 국악 비평의 부재

국악에서 창작국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악 비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예술 분야에서는 그래도 비평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주 국악계만은 비평의 부재가 현실이다. 비평의 본래 기능은 미흡한 것을 지적해줌으로써 더 좋은 작품을 만들게 하는 데 있다.

비평이 제대로 돼야만 작품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서 국악이 활성화하고, 그래야 비평가의 영역도 넓어진다. 객관적인 비평이 음악가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악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평가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2) 교육과 논쟁의 부재

국악 작곡 기법에 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간혹 연주자들이 작곡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국악 작곡이론이 아닌 서양 작곡이론을 배우곤 한다. 논쟁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비학문적 풍토가 만연한 것도 문제다. 자신의 이론에 후배가 학술적인 이의를 제기하면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으로 배척해버린다. 건전한 비판을 받아

들여 자신의 이론을 수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학자들을 국악 이론계에서는 만나기는 어렵다. 타 지역이나 타 민족 전통음악에 대한 비교연구도 부족하다. 다른 나라의 민족음악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우리 음악에 대한 연구가 훨씬 잘될 수 있다.

3) 국악으로서 정체성 부족

국악계에서 발표되는 모든 음악들은 모두 ‘국악’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다. 작곡가든 연주가든 국악계에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만드는 음악은 국악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국악으로 발표되는 음악 중에는 국악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않은(또는 갖지 못한) 음악이 많다. 국악으로서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국악의 정체성은 당연히 전통 국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전통 국악의 음계, 선법, 장단, 시김새, 말붙임새 등 음악적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국악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요즘 발표되는 국악계의 창작 음악 중에는 이런 요소들이 거의 들어 있지 않은 곡들이 많다.

III. 나오며

지금까지 국악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나뉘어 제시해 보았다.

제주의 국악은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 양과 질에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동안 잊혔던 훌륭한 음악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여건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전통음악은 세계 어느 나라 음악에도 뒤지지 않는 예술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다.

보존과 올곧은 전승, 그리고 새로운 창작은 국악인들 스스로 국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육지부의 경우 민간 기획사 공연뿐만 아니라 국공립단체 공연 역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형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제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제주는 민요의 보고’만을 외치며 앞길을 헤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요의 경우 동호회 성격의 아마추어리즘을 탈피함과 동시에 공연 기획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타악의 경우 공연 횟수가 많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우수한 기량에 맞는 무대기법과 이야기 구조를 갖추어 나가리라 믿는다.

굿 분야의 경우 위치에 걸맞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연 접근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기악과 판소리의 경우는 장르 저변 확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여긴다.

연희, 퓨전 등은 장르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주의 국악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음악에 비해 열세다. 감상용 음악시장에서는 여전히 서양 고전음악이나 팝에 비해 국악은 현저한 열세다.

국악은 한정된 시장, 일종의 틈새시장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자립 기반이 약해 공공 기금에 의존하는 양상이다.

위에 지적한 문제가 단시일에 풀릴 것도 아니며 제주 국악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나 제주국악계와 문화예술계 내외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사극 ‘정도전’에서 혁명에 성공한 후 음악을 정비하는 정도전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장면을 필자는 유심히 보았다. 종묘제례악을 정비한다거나 ‘몽금척’, ‘수보록’, ‘납씨곡’ 등 건국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랫말을 써서 바치는 장면과 그가 조선경국전을 집필하는 장면을 보았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음악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밝히는 동시에 그 나라의 문명을 나타내는 척도였다.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에서 예악 사상은 지식인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 후 음악 정비 사업은 국가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노력들은 정도전을 거쳐 세종의 음악에 대한 연구와 열정, 세조의 음악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성조 때 완성된 악학궤범이라는 위대한 음악서를 통해 결실을 맺는다.

끝으로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에서 밝힌 음악에 대한 견해를 마무리 글로 적어본다.

“음악이란 올바른 성정(性情)에 근원을 두고 소리와 글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종묘에서 연주하는 제사음악은 조상의 거룩한 덕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고 조정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엄숙함과 존경을 지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승에 있는 이를 위해 음악을 사용하면 조상이 감격하고, 이승에서 사용하면 군신이 화합하며, 또 이를 방방곡곡으로 널리 퍼뜨리면 교화가 실현되고 풍속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니 음악의 효과는 이렇듯 시원하다.”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었다.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을 기대해본다.

야
야
야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2013 제주양악 현황

홍 정 호

모던아츠 대표

I. 서론

순수예술(기초예술) 분야는 예술 자체가 갖는 가치, 창의성의 핵심이며 문화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아비투스(habitus)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하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제주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은 제주의 정체성, 다양성, 역사성, 현장성과 함께 동시대 예술적 흐름을 담고 있기에 이들의 존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지역 콘텐츠산업 인력의 기반이기도 하다.

양악 부문의 공연 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연을 통한 공연단체와 관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인구 비례당 공연 횟수에 대한 수치적 관점은 전국에 비추어 보아도 상위권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연의 질적 수준과 내용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프로페셔널을 지향하는 지역 공연단체들의 공연과 관객 유치에 관해 도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수준 때문이 아니라는 인식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에 대한 관객 유치의 결과는 제주예술단체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역설이다. 예술단체들의 보다 전문적인 모습과 창작활동으로 제주 순수기초예술 분야와 나아가 혁신과 창조성을 동반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 생산과 문화산업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2013년 제주 양악 분야 공연 현황

1. 2013년 양악 분야 총 공연 횟수 및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 「문예연감」 편람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양악 공연의 양적 추이를 살필 수 있다. 편람 자료는 공연장과 언론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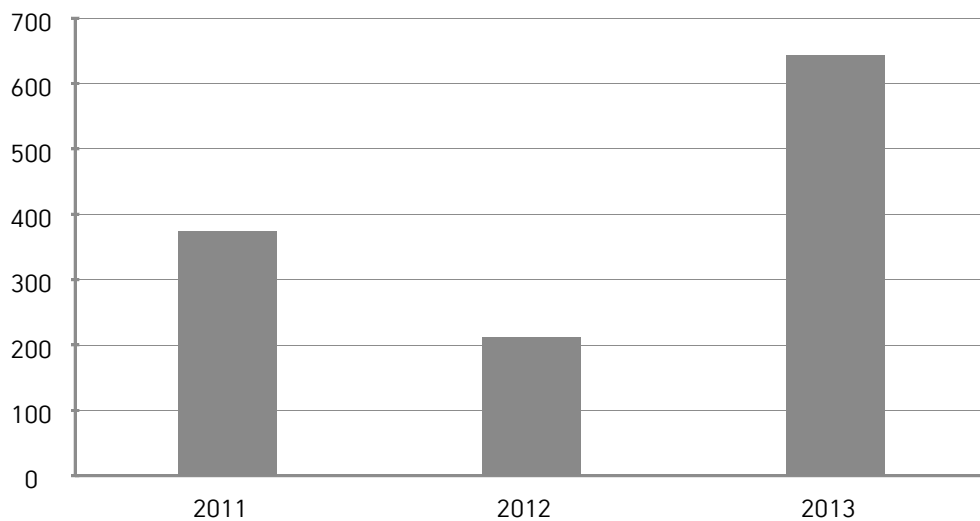
누락된 공연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연 자료의 수집과 현황은 세심한 주의와 정확성을 바탕으로 할 때 자료로서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양악 공연은 643회 무대에 올랐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많은 공연 횟수다. 2013년 공연이 급등한 이유는 조사 방법을 보완해 양악 공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경로를 확대한 결과이다.

〈표 1〉 최근 3년간 양악 공연 횟수 추이

연도	2011	2012	2013
공연 횟수	374	212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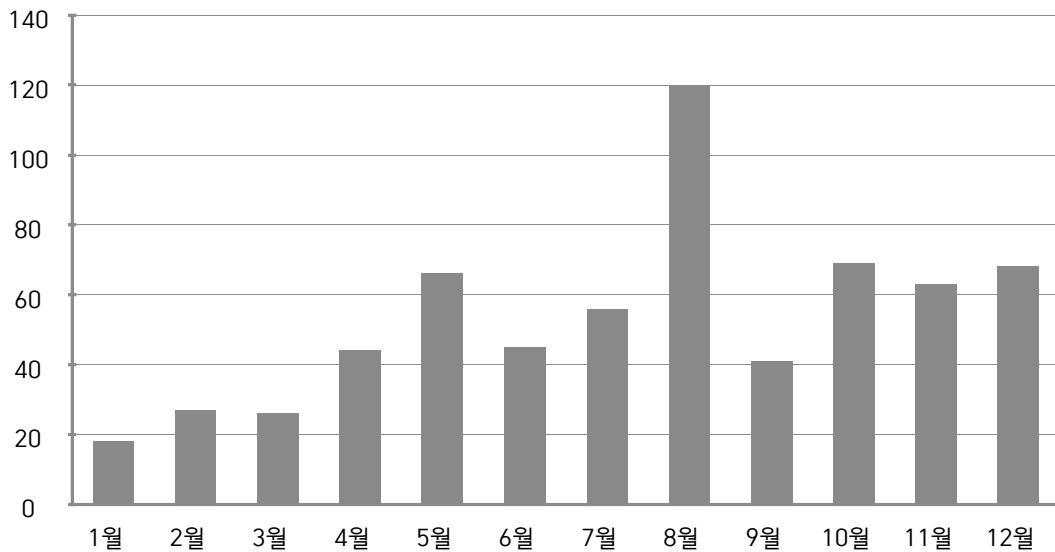


2. 2013년 양악 분야 월별 공연 현황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여름과 연말에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연예술 장르에서 관찰되는 패턴은 M자형이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관광지라는 특성과 함께 축제가 여름에 몰려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8월의 공연이 압도적으로 많은 때문이다.

〈표 2〉 2013년 양악 분야 월별 공연 현황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연 횟수	18	27	26	44	66	45	56	120	41	69	63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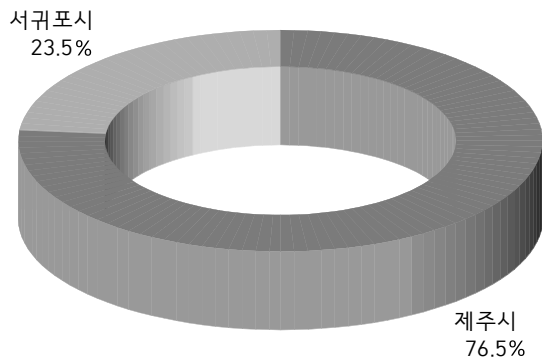


3. 2013년 양악 분야 지역별 공연현황

지역별 공연 횟수에서 제주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제주시 인구 45만 명(75%), 서귀포시 15만 명(25%)임을 감안할 때 제주시 지역에 비해 서귀포 지역의 음악활동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주시 지역은 공연장을 중심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반면 서귀포시 지역은 관광지 특성상 공연장 이외의 관광지 공연 및 찾아가는 공연이 활발하다는 것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연 차이일 것이다.

〈표 3〉 2013년 양악 분야 지역별 공연 현황

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공연 횟수	492(76.5%)	151(23.5%)



4. 2013년 양악 분야 거시적 공연 현황

거시적 관점에서 클래식, 대중음악, 복합으로 분류했다.

공연단체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공연 건수보다 공연 횟수에 중점을 두었다. 한 공연이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회 공연을 이어가는 양악 공연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클래식 공연 단체의 공연 내용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팝스(Pop's) 콘서트와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함께 공연하는 경우 '복합'으로 구분하였다.

대중음악 안에서도 재즈, 밴드, 뉴에이지 음악 등, 세분화된 장르 구분이 필요하지만 2013년에는 통합적인 공연 횟수만을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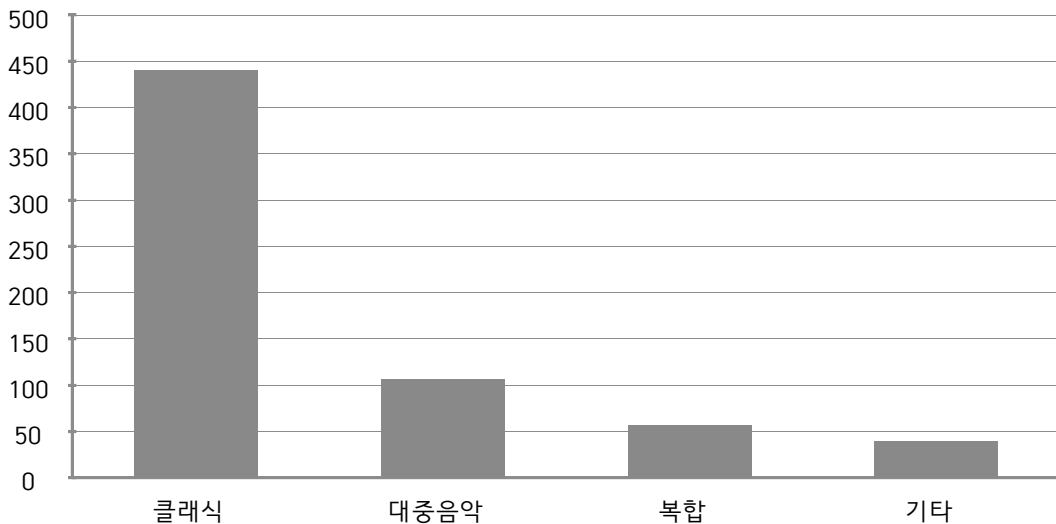
'기타'는 기념식이나 추념식에서 공연된 부분으로 단독 공연으로 보기 어렵거나 혹은 축제와 같은 공연을 '기타' 장르로 구분하였다.

장르별 공연 횟수 분포는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공연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한두 숫자로 단순화해서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이 숫자들은 개별 공연들이 품고 있을 질적인 차이와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하지만, '2013년 제주 음악 공연계'라는 표면을 한눈에 보여준다.

공연 횟수로는 클래식 공연이 440회로 68.4%를 차지해 다른 장르를 압도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대중음악이 106회로 16.5%의 비중을 차지한 것만 보더라도 그 격차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어 복합 57회(8.9%), 기타 40회(6.2%)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 2013년 양악 분야 공연 현황

구분	클래식	대중음악	복합	기타
공연 횟수	440(68.4%)	106(16.5%)	57(8.9%)	40(6.2%)



5. 2013년 양악 클래식 분야 장르별 공연 현황

양악 분야 장르별 분류는 클래식 분야 440회 공연을 바탕으로 세분화한 것이며 오페라, 기악, 성악으로 구분하였다.

공연 건수보다 공연 횟수에 중점을 두었다. 한 공연이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회 공연을 이어가는 양악 공연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의 공연을 기악에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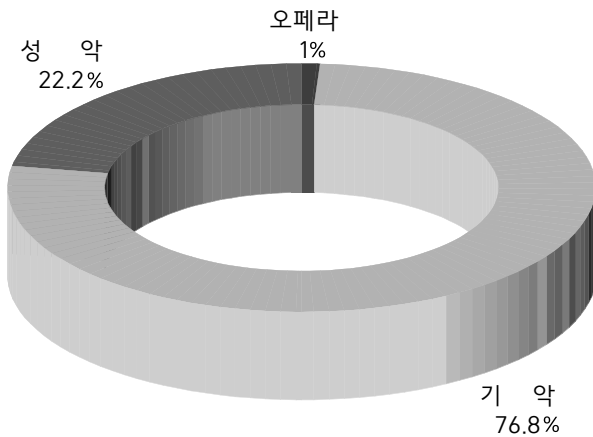
공연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하였으며 ‘콘서트 오페라’ 및 ‘갈라콘서트’는 성악 분야로 분류하였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함께 공연된 ‘복합’ 부분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총 440회의 클래식 공연 중 기악 공연이 338회로 76.8%를 차지했으며 성악이 98회로 22.2%의 비중을 차지했다. 클래식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오페라는 4회(1%)였다.

〈표 5〉 2013년 양악 분야 클래식 장르별 공연 현황

장르	오페라	기악	성악
공연 횟수	4(1%)	338(76.8%)	98(22.2%)



6. 2013년 양악 클래식 분야 구성원별 공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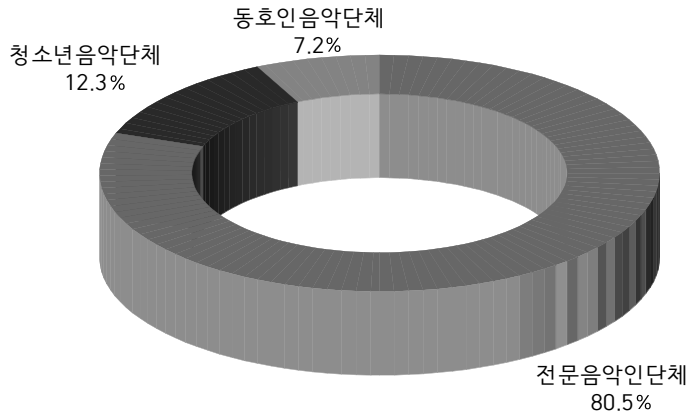
양악 분야 구성원별 분류는 클래식 분야 440회 공연을 바탕으로 세분화한 것이며 전문가, 동호인회,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정확한 표본 도출을 위해서라면 청소년그룹의 학교 내 자체 공연과 사설 음악학원들의 공연들을 포함해야 마땅하지만 자료 수집의 한계로 조사 대상 및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

총 440회의 클래식 공연 중 도립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 공연은 354회로 80.5%를 차지했으며 이어 청소년 공연단체가 54회로 12.3%의 비중을 차지했다. 삶의 질을 표출할 수 있는 동호인 단체의 공연은 32회(7.2%)였다. 더 많은 아마추어 공연단체의 활성화와 청소년그룹의 음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그룹의 열정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표 6〉 2013년 양악 클래식 분야 구성원별 공연 현황

단체	전문음악단체	청소년음악단체	동호인음악단체
공연 횟수	354(80.5%)	54(12.3%)	32(7.2%)



7. 2013년 양악 클래식 분야 공연장 및 장소별 공연 현황

양악 분야 구성원별 분류는 클래식 분야 440회 공연을 공연 공간 중심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제주의 경우 전문 콘서트홀이 없으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을 비롯한 대부분 극장은 다목적홀로 지어져 있다. 이 공간에서 클래식 공연을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음향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내 공연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아트센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정문화회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제주해변공연장을 비롯한 야외 공연은 ‘야외 공연’으로, 제주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방문 공연은 ‘학교 방문 공연’으로, 제주의료원을 비롯한 시설 방문 공연은 ‘시설 방문 공연’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 카페 세바를 비롯한 소규모 공연의 경우 ‘기타’ 공연으로 처리하였다.

2회 공연 미만의 한라아트홀 소극장,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 제주컨벤션센터의 공연은 ‘기타’ 분류에 포함시켰다.

총 440회의 클래식 공연 중 제주문예회관 대극장(892석) 공연은 117회로 26.6%를 차지했으며 제주아트센터(1,184석)가 26회로 6%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극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453석)에서는 58회(13.2%)의 공연이 있었다. 서귀포 지역의 김정문화회관(383석)에서는 6회(1.4%),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7회(1.6%)의 공연이 치러졌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공연은 각각 5회(1.1%)였으며, 200석 규모의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은 19회(4.3%)였다.

야외 공연에 대한 상세 분류는 다음과 같이 23곳에서 107회(24.3%)의 공연이 이뤄졌다.

△제주해변공연장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한림읍 야외공연장 △서귀포 새연교 특설무대 △제주종합경기장 △탐라신화공원 △기당미술관 △서북전시관 △이중섭거리 △제주시 벤처마루 △절물휴양림 △노형근린공원 △노형제1공원 △예래생태공원 △한림공원 △약천사 △제주향교 △월영사 △우도검멀레해변 △금능으뜸해변 △용눈이오름 △산방산 유람선 △방신문계곡

학교 방문 공연은 다음과 같이 33개교에서 39회(8.9%) 실시됐다.

△제주고 △영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애월고 △신업중 △곽금초 △귀덕초 △대정초 △무릉초 △물메초 △백록초 △법환초 △북촌초 △사계초 △삼양초 △새서귀초 △서귀포서초 △송당초 △애월더덕분교 △영평초 △의귀초 △종달초 △평대초 △하귀일초 △한마음초 △함덕초 △화북초 △효돈초 △제주영지학교 △제주영송학교 △온성학교 △서귀포오석학교

기타 공연은 2회 미만이거나 소규모 공연장에서의 공연으로 다음과 같이 22곳에서 23회(5.2%) 이뤄졌다.

△제주컨벤션센터 △한라아트홀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 △제주도립미술관 △제남도서관 △국립박물관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신라호텔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제주성안교회 △제주웰컴센터 △동홍아트센터 △영화문화예술센터 △해비치호텔 △본태박물관 △김영갑갤러리 △스테이 비우다 △각 북카페 △탐라교육원 △카페 세바

시설 방문 공연은 다음과 같이 16개 시설에서 19회(4.3%)의 공연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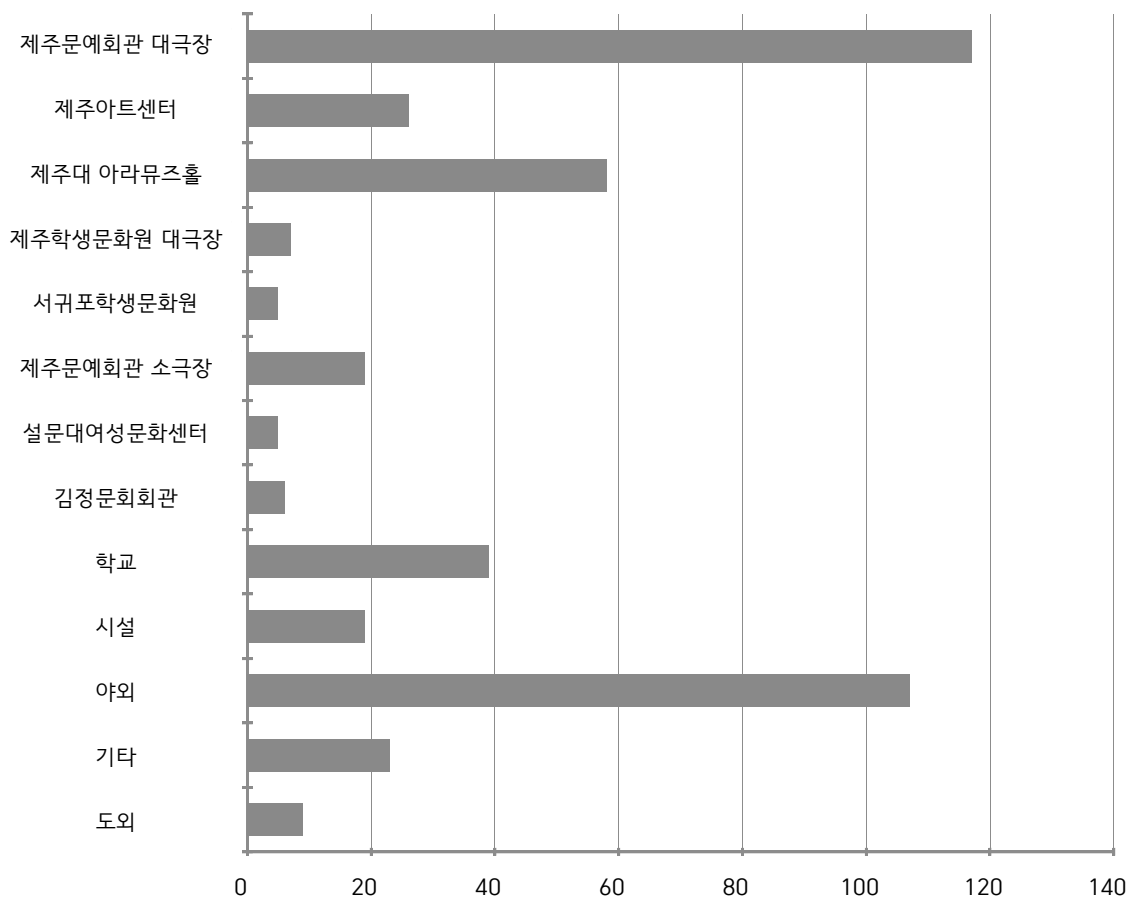
△제주의료원 △제주튼튼병원 △제주한마음병원 △S중앙병원 △구좌읍 실버복지타운 △종달리 실버복지타운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제주정신요양원 △서호요양원 △성요셉요양원 △제주사랑요양원 △제주 애덕의집 △정혜재활원 △제주해안경비단

도외에서 치른 공연은 9회(2%)로 해외 공연을 포함하였다.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IBK홀 △목원대학교 콘서트홀 △서울 광화문광장 △베이징 국가대극원 △독일 쾰른 △로렐라이 △이탈리아 페루지아

〈표 7〉 2013년 양악 클래식 분야 공연 공간별 공연 현황

장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아트센터	제주대 아라뮤즈홀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횟수	117(26.6%)	26(6%)	58(13.2%)	7(1.6%)	
장소	서귀포 학생문화원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김정문화회관	
횟수	5(1.1%)	19(4.3%)	5(1.1%)	6(1.4%)	
장소	학교	시설	야외	기타	도외
횟수	39(8.9%)	19(4.3%)	107(24.3%)	23(5.2%)	9(2%)



8. 2013년 양악 클래식 분야 도립 단체별 공연 현황

양악 클래식 분야 도립 단체별 분류는 제주 문화예술의 척도인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 합창단과 도립 서귀포관악단과 서귀포합창단의 활동을 분석한 것이다.

클래식 음악의 목적은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철학으로 이끄는 방향성에 있다. 그만큼 보다 전문가적인 영역의 공연물이어야 한다. 인류가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을 전하는 철학을 관객에게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도립 서귀포예술단의 활동은 그 의미를 조금은 벗어나 있는 듯하다. 행사에 동원한다든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예술단 운영에 서귀포시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진정한 예술이 함께하는 도시 이미지는 전시성 공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제적 존재감에서 오는 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도립 제주교향악단의 레퍼토리는 음악사적 관점에서 그리 넓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향악단의 공연 내용은 제주 예술의 척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Northumbria University)의 크리스토퍼 베일리(Christopher Bailey), 스티븐 마일즈(Steven Miles), 피터 스타크(Peter Stark) 교수는 영국 문화정책 수립의 문화정책 변화에 대한 단계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930년대-예술을 통한 빈곤 퇴치 △1940년대-성인예술교육 △1950년대-순수예술 확대 △1970~1980년대-국민들의 예술 접근성 강화 및 문화산업시대 △1990년대-지역문화 활성화와 창조산업 확대 △2000년대-예술교육과 예술을 통한 사회통합시대

위에서 언급한 영국의 문화예술 방향성에 대하여 도립 제주교향악단은 많은 고민과 함께 제주의 예술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라는 바이다.

〈표 8〉 2013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공연 현황

구분	정기	기획	특별	이동	순회	행사	계
교향악단	6	7	8	7	2	3	33
합창단	4	8	5	7	0	6	30
합동연주	0	5	0	0	5	2	12
계	10	20	13	14	7	11	75

〈표 9〉 2013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공연 현황

구분	정기	기획	특별	이동	초청	행사	계
관악단	2	16	23	14	9	9	73
합창단	2	6	19	5	0	3	35
합동연주	0	0	0	0	0	1	1
계	4	22	42	19	9	13	109

〈2013년 도립 제주교향악단 공연 레퍼토리〉

■ 제주예술단 2013 신년음악회 2013년 1월 10일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무소르그스키 / 교향시 ‘민둥산의 하룻밤’

멘델스존 /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사단조, 작품 25

레하르 / ‘금과 은’ 왈츠, 작품 79

이흥렬 / 꽃구름 속에

구노 /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현제명 / 희망의 나라로

마스카니 /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엘가 / 위풍당당 행진곡, 작품 39

베르디 /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행진과 합창’

베르디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 11시 콘서트 2013년 2월 1일(금) 오전 11시 제주아트센터

모차르트 / 교향곡 제 40번, 작품 550 - 1st. Mov. Molto Allegro

모차르트 /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 622 - 2nd. Mov. Adagio

헨델 /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시바여왕의 도착’

생상스 /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 Piano

주폐 / 서곡 ‘시인과 농부’

■ 제103회 정기연주회 2013년 2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베토벤 / 서곡 ‘에그몬트’, 작품 84

생상 /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사단조, 작품 22 Piano 심희정

베토벤 / 교향곡 제 7번 가장조, 작품 92

■ 신춘음악회 2013년 2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바그니 / 서곡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사단조, 작품 26 Violin 이강원

모차르트 / 교향곡 제 41번 다장조 '주피터', 작품 551- I. Allegro vivace

로시니 / 서곡 '윌리엄 텔'

무소르그스키 / 〈전람회의 그림〉 중 '제 9곡, 10곡'

■ 새내기를 위한 캠퍼스 음악회 2013년 3월 8일(금) 오후 2시 제주관광대학 컨벤션홀

주폐 / 서곡 '경기병'

웨버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나를 생각해줘요.' Soprano 배서영

이흥렬 / 꽃구름 속에 Soprano 배서영

드보르작 / 슬라브 무곡 작품 72, 제 8번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다장조, 작품 467- II. Andante III. Allegro vivace assai

모차르트 / 호른 협주곡 제 1번 라장조, 작품 412- I. Allegro

클락 / 음악의 유희

베델트 / 영화음악 '캐리비안의 해적'

■ 제104회 정기연주회 2013년 4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김정길 / 연작교향시 〈백록담〉 중 제 3편 '한라산 비경'(2008)

차이코프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바이올린

이영조 / 섬집 아기 환상곡(2007)

안익태 / 한국 환상곡

■ 2013 교향악축제 2013년 4월 15일(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정길 / 연작교향시 〈백록담〉 중 제 3편 '한라산 비경'(2008)

차이코프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바이올린

이영조 / 섬집 아기 환상곡(2007)

안익태 / 한국 환상곡

■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 2013년 5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오펜바흐 / 서곡 '천국과 지옥'

슈타미츠 / 비올라 협주곡 라장조, 작품.1- I. Allegro

프로코피에프 /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 작품.67’
 차이코프스키 / 발레모음곡 〈백조와 호수, 작품.20〉 중 ‘정정’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봄의 소리 왈츠, 작품.410’
 송 오브 애니메이션 arr. 이문석
 로저스 / 영화음악 ‘사운드 오브 뮤직’ arr. 이문석

■ 제105회 정기연주회 2013년 6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작품 43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 4번 사장조, 작품 58
 베토벤 / 교향곡 제 3번 내림마장조 〈영웅〉, 작품 55

■ 해설이 있는 그린콘서트 2013년 7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쇼스타코비치 / 축전 서곡
 차이코프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I. Allegro moderato
 브람스 / 헝가리안 댄스 제 1번
 드보르작 / 슬라브 댄스 제 5번, 작품 46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내림마장조 〈황제〉, 작품 73- III. Rondo. Allegro
 하차투리안 / 발레 모음곡 〈가이느〉 중 ‘칼의 춤’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 5번 마단조, 작품 64- IV. Finale

■ 2013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 개막공연 2013년 7월 25일(목) 오후 8시 제주해변공연장

로시니 / 서곡 ‘윌리엄 텔’
 푸치니 / 오페라 〈자니스키키〉 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구노 / 오페라 〈로니오와 줄리엣〉 중 왈츠 송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조두남 / 뱃노래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웨버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내가 당신께 바라는 전부’
 로사우로 / 마림바 협주곡 중 4악장 ‘Farewell’
 이문석 편곡 / 송 오브 애니메이션
 로저스 / 영화음악 ‘사운드 오브 뮤직’
 밤배, 얼룩고무신, 긴머리 소녀, 일기
 이문석 편곡 / Joy Chorus
 웨버 / Concert Celebration

- 제106회 정기연주회 2013년 9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 모차르트 /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작품 620
 - 베토벤 / 교향곡 제 2번 라장조, 작품 36
 - 스트라빈스키 / 모음곡 <불새> (1919 Version)

- 제107회 정기연주회 2013년 10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 바그너 / 서곡 <탄호이저>
 -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 3번 다단조, 작품 37
 - 베토벤 / 교향곡 제 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 2013 우수 신인 데뷔 연주회 2013년 11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 모차르트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
 -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 제108회 정기연주회 2013년 12월 3일(화)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 베버 /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
 - 베토벤 / 바이올린·첼로·피아노를 위한 3중 협주곡 다장조, 작품 56
 - 브람스 / 교향곡 제 2번 라장조, 작품 73

- 제주예술단 2013 송년음악회 2013년 12월 19일(목)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 요한 스트라우스 / 오페레타 <박쥐> 서곡
 - 하이든 / 교향곡 제 45번 <고별>
 - 이수인 / 고향의 노래
 - 김효근 / 눈
 - 모차르트 / 오페라 <돈 지오바니> '내 손을 잡아주오'
 - 모차르트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이제는 못 날으리'
 - 라라 / 그라나다
 - 베르디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이상하다! 이상해!'
 - 푸치니 / 오페라 <투란도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 베르디 / 오페라 <나부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 베르디 / 오페라 <아이다> '개선 행진곡'

9. 2013년 양악 분야 수상 현황

한국예총 제주도총연합회가 수여한 2013년 제주예술인상에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의 김인규 지휘자가 수상했다.

마초문화재단과 (사)국제합창교류센터가 주최한 제6회 오리엔탈 칸센투스 국제합창제에서 제주쁘로빠체 합창단이 청소년부 합창 부문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III. 결 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한 1인 1악기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에 대한 기초가 세워지고 있다. 미래 음악애호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살펴야 한다. 아마추어 음악애호가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그것은 문화예술단체 입장에서 관객층을 두텁게 할 뿐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문가 단체들의 음악활동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음악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음으로써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이다’라고 정의한다. ‘클래식은 지루하다’라는 선입견은 전문공연예술단체가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음악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것이다. 관객 입장에서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배움 없이도 음악이 주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 70명의 연주자들이 하나 된 감정으로 내뿜는 감정의 향기를 관객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수준 낮고 조잡한 감정의 표현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연주자들과 거리를 더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공연활동이 그 무엇보다도 예리하고 섬세하게 다루어지길 소망한다. 다양한 공연예술 활동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공연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성숙한 공연 제작과 관객 개발에 더 많은 고민을 주문한다.

아울러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누리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음악가들과 애호가들의 예술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마음의 응원을 보낸다.

연극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2013 제주연극의 현황과 과제

강 용 준

희곡작가/전 제주연극협회 회장

I. 들어가며

2013년 제주의 연극계는 예년처럼 도내 극단의 공연보다 도외 극단의 공연이 활발한 해였다. 도내 극단의 경우 예년에 비해 공연 횟수나 편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도외 극단은 2012년보다 공연 작품 수는 4.8배, 공연 횟수는 한 작품으로 두 달 이상 장기 공연하기 때문에 3.8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장세는 2012년에는 마당극이나 아동극의 경우를 통계에서 제외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내 극단의 침체는 도외 공연 참가가 저조하고 수상 실적이 없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극단 가람의 전국연극제 참가,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전국청소년연극제 참가 외에 아동극전문극단 자파리연구소의 활동밖에 없다.

그럼에도 자파리연구소는 ‘오돌또기’라는 작품으로 일본 초청 공연을 했고, 전국 7개 지방에서 순회공연을 가졌음은 특기할 만하다.

이처럼 도내 극단의 활동이 침체를 걷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열악한 공연 환경, 특히 연극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스타 연기자의 부재로 공연이 도내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고, 도내 극단의 재정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연극을 직업으로 삼는 젊은 연극자가 턱없이 부족한 데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한편, 2013년에는 전국민족극한마당 행사가 제주에서 열려 전국의 마당극 단체들이 축제를 벌였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극단 향로와 달오름 극단, 푸에르토리코의 극단까지 참가하여 풍성한 마당극의 다양한 모습들을 관극할 기회가 되었다.

이 글은 2013년 한 해 제주 무대에 올린 연극 공연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다만, 쇼나 이벤트 행사에 포함된 연극 공연이나 성격이 모호한 공연은 제외하였으며, ‘난타’, 뮤지컬 ‘판타스틱’과 같이 상설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연중 공연들은 공연 횟수 집계 가 어려워 제외했다.

또한 도내 신문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여기에 누락된 공연은 인터넷 검색과 당사자를 인터뷰하여 통계에 넣어 분석하였다.

글의 순서는 2013년 한 해 도내·외 극단의 총 공연 현황을 분석하면서, 도내 극단 공연 현황을 장르별로 분석하여 정리하였고, 도외 극단의 공연 현황을 2011~2012년 상황과 비교분석해 봤다. 그리고 시간, 공간에 따른 월별, 지역별, 장소별 공연 현황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도내에서 열린 연극 행사와 2013년도에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했으며,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제주연극계의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II. 2013년 공연 현황 분석

1. 2013년 총공연 현황

2013년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총 공연 횟수는 114개 작품 541회에 달했다. 물론 상설공연장에서 연중 공연되는 작품을 제외하고도 통계로만 보면 매일 1.5편의 연극이 공연되었다는 말이다.

이 중 일반 연극이 30편 265회(50.0%)로 절반에 가까웠고, 다음으로 아동극이 34편 164회(30.3%), 뮤지컬은 14편 47회(8.7%), 청소년극이 4편 26회(4.8%)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에 비해 엄청난 신장세를 보였는데, 작품 편수로는 51회, 공연 횟수로는 244회 많은 것은 도외 한 극단이 한 공연장에서 세 작품을 장기 공연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에는 총 63편 297회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일반 연극이 31편 148회(49.8%), 아동극이 17편 67회(22.6%), 뮤지컬이 8편 51회(17.2%), 청소년극이 7편 31회(5.7%) 공연되었다.

뮤지컬은 2012년에 비해 작품 편수가 6편 늘었으나 공연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 역시 도내 극단의 뮤지컬 공연 횟수가 적었음을 말해 준다.

청소년극 역시 4편으로 2012년 7편에 비해 적은데, 이는 제주청소년연극제에 참가한 학교가 줄어들었음에 기인한다.

아동극의 경우 34편으로 2012년에 비해 배로 증가했고 공연 횟수 역시 100회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는 전년도 도외 극단의 공연을 아예 무시한 결과다. 즉 집필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도외 극단이 제작한 아동극을 아예 통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통계는 각 공연장의 공연기록을 보고 일일이 조사해 통계에 넣었다.

마당극의 경우는 전년도 통계가 없어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2013년에는 전국민족극한

마당 행사가 제주에서 열려 도외 극단의 참가로 작품 편수와 공연 횟수가 늘어났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표 1〉 2013년 도내·외 극단 연극 공연 현황

구분		일반연극	뮤지컬	청소년극	아동극	마당극	계
공연 횟수	도내	87	9	26	58	4	184
	도외	178	38	0	106	35	357
	계	265	47	26	164	39	541
작품 편수	도내	19	2	4	10	2	37
	도외	11	12	0	24	30	77
	계	30	14	4	34	32	114

〈표 2〉 2012년 도내·외 극단 연극 공연 현황

구분		일반연극	뮤지컬	청소년극	아동극	마당극	계
공연 횟수	도내	67	38	31	67	0	203
	도외	81	13	0	0	0	94
	계	148	51	31	67	0	297
작품 편수	도내	20	3	7	17	0	47
	도외	11	5	0	0	0	16
	계	31	8	7	17	0	63

2. 도내 극단 공연 현황

1) 도내 극단 총 공연 현황

2013년 도내 극단은 37편의 작품을 제작하여 184회 공연을 가졌다.

이는 2011년 54편 285회 공연이나 2012년 47편 203회 공연에 비해 작품 편수나 공연 횟수가 점점 감소 추세여서 제주 연극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일반 연극을 보면 2011년 34편 173회나 공연되던 것이 2012년에는 20편 67회 공연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19편 제작에 87회 공연에 그쳤다.

작품 편수에서 보면 2012년과 비교해 1편이 적은 데 비하여 공연 횟수는 오히려 20회 늘어난 것은 도내 극단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기보다 한 작품을 여러 번 공연했음을 의미한다.

뮤지컬은 제작 편수가 너무 적고 공연은 단발성으로 끝나 2012년에 비교해 75% 감소했

다. 이는 서울에서 뮤지컬 붐이 일고 있는 현상에 비하면 뮤지컬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결과라 생각한다.

청소년극 연시 2012년 7편 31회 공연에 비해 2013년에는 4편 26회에 그쳐 작품 편수나 공연 횟수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학교연극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는 아동극에서도 마찬가지로 2012년 17편에 비하면 10편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도내 연극 단체가 신규 연기자나 연출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침체기에 놓여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3〉 2011~2013년 도내 극단 공연 현황

구분		일반연극	뮤지컬	청소년극	아동극	마당극	계
2011년	공연 횟수	173	10	6	77	19	285
	작품 편수	34	1	5	8	6	54
2012년	공연 횟수	67	38	31	67	0	203
	작품 편수	20	3	7	17	0	47
2013년	공연 횟수	87	9	26	58	4	184
	작품 편수	19	2	4	10	2	37

2) 도내 극단 장르별 공연 현황

(1) 성인극(일반 연극, 뮤지컬, 마당극)

도내 성인 관객을 대상으로 연극을 제작하는 극단은 2013년 현재 7곳이다.

그런데 이들 7개 극단이 일 년 동안 제작한 작품 수가 16편이고 84회 공연을 했다.

2012년 16편 67회 공연에 비하면 공연 횟수는 늘어났으나 작품 편수는 줄어들었다.

이는 통계분석 방법이 달라서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다. 즉 2012년에는 같은 작품을 장소를 바꿔 공연하면 또 다른 작품 편수로 통계 처리했기 때문이고, 또한 마당극 공연을 제외했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

극단가람(대표 이상용)은 ‘해가 지면 달이 뜨고’(김태수 작·이상용 연출), 제주 출신의 첫 번째 목사인 이도종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길 위에서 길을 찾다’, 뮤지컬 ‘낯술’(이상용 작·연출), ‘동치미’(김용을 작·이상용 연출), ‘늙은 부부의 이야기’(위성신 작·홍창현 연출) 등 5편을 한라아트홀 등지에서 올렸는데, 특히 뮤지컬 ‘낯술’은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과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갖기도 했다.

극단세이레극장(대표 강상훈)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제작된 ‘비

연소’(이상우 작·정민자 연출), ‘크리스마스에 삼십만 원을 만날 확률’(오세혁 작·강상훈 연출), ‘기막힌 동거’(김나영 작·정민자 연출)를 무대에 올렸다. 특히 ‘크리스마스에 삼십만 원을 만날 확률’과 ‘기막힌 동거’를 단막극 시리즈로 자체 소극장인 세이레 아트센터에서 장기 공연하였다.

극단이어도(대표 김광흡)는 ‘돼지사냥’(이상우 작·김광흡 연출), ‘도둑의 품격’(다리오 포 작·한지훈 각색·연출), ‘의자는 잘못 없다’(선옥현 작·강종임 연출),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이승미 작·정상언 연출) 등 4편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자체 소극장 미에랑 무대에 올렸다. 특히 이어도는 작품마다 연출을 달리해 가능성을 시험한 한 해였다.

이 밖에도 극단웃음꽃(대표 김좌훈)은 감성 연극 ‘15분’(작자 미상·이지 연출)을 1월 중순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올렸고, 극단 오이(대표 오상운)는 삼도2동 주민센터 앞 자체 소극장인 예술공간 오이에서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김정숙 작·오상운 연출)을 공연했다.

놀이패한라산은 ‘사월굿 마지막 빨치산’을, 연극자리 소풍은 ‘춤추었을 뿐인데’를 각각 제주4·3 평화인권마당극제와 제27회 전국민족극한마당에서 공연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극단가람의 경우 작품 편수와 공연 횟수에서 절반으로 줄었고, 극단 세이레극장의 경우는 작품 편수는 같으나 공연 횟수가 늘었으며, 극단이어도의 경우는 작품 편수나 공연 횟수에서 갑절 이상 늘었다.

〈표 4〉 2013년 도내 극단 성인극 공연 현황

구분	극단가람	극단 세이레	극단 이어도	극단 웃음꽃	극단오이	놀이패 한라산	연극자리 소풍	계
공연 횟수	16	40	15	5	4	2	2	84
작품 편수	5	3	4	1	1	1	1	16

〈표 5〉 2012년 도내 극단 성인극 공연 현황

구분	극단가람	극단 세이레	극단 이어도	극단 웃음꽃	극단오이	놀이패 한라산	연극자리 소풍	계
공연 횟수	33	22	4	8	0	0	0	67
작품 편수	9	3	2	2	0	0	0	16

(2) 청소년극

청소년극은 2012년 5개 공연단체가 28편을 공연하였다. 이는 전국청소년연극제 예선대회를 겸한 제주청소년연극제에 참여한 고등학교 연극반이 적었고, 다만 극단세이레극장에서 1편을 제작해 학교를 순방하며 20회 순회공연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다.

2013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주청소년연극제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대정여고 3개 학교만 참가했고, 극단세이레극장이 ‘난 아프지 않아’란 작품을 제작하여 지방학교 순회공연을 23회 한 것이 전부다.

이처럼 청소년극이 저조한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도 문제지만 연극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표 6〉 2013년 도내 청소년극 공연 현황

구분	세이레	제주사대부고	제주외고	대정여고	계
공연 횟수	23	1	1	1	26
작품 편수	1	1	1	1	4

(3) 아동극

2012년에는 세이레어린이극장(대표 정민자)이 5편 40회 공연, 자파리연구소(대표 성민철)가 3편 44회 공연을 했다.

2013년 도내 아동극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는 4개 극단으로 늘었다.

세이레어린이극장은 ‘탐나를 구하라’, ‘글방의 아이들’, ‘무지개물고기’ 등 세 편으로 14회의 공연을 가졌는데, 이는 2012년의 작품 편수나 공연 횟수에 비하면 아주 저조한 실적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무지개물고기’는 산방도서관, 한경도서관, 애월도서관, 표선도서관에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공연됐다.

자파리연구소는 설문대할망 신화를 소재로 한 ‘죽 쑤는 할망’, ‘으랏! 천둥아’, ‘꿈꾸는 아이들’을 자체 소극장인 간드락소극장(대표 오순희)에서 공연했다.

또한 일본 가고시마 어린이예술센터 주최 ‘우수국제공연예술가와의 만남’에 초청을 받아 ‘오돌또기’를 공연했고, 전국 7곳과 성산에서 공연을 벌였다.

한편 극단수놓음공연예술(대표 김영울)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공연했으며, 장애인인형극단인 깨비랑(회장 박용배)은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3월, 6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14회 공연했다.

제주문화기획연구소는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복합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창작뮤지컬 ‘보물섬제주’를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올렸다.

2012년과 비교해 보면 작품 수는 같으나 공연 횟수에서는 30여 회나 줄었다.

한편 아동극을 장르별로 분석해 보면 인형극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도외 극단의 경우 화려한 무대장치와 소품, 의상 등 제작비가 많이 드는 일반 연극이 대세인 점과 비교된다.

〈표 7〉 도내 극단 아동극 공연 현황

구분	세이레 어린이극장	자파리 연구소	극단수놓음	깨비랑	제주문화 기획연구소	계
공연 횟수	14	19	10	14	1	58
작품 편수	3	4	1	1	1	10

〈표 8〉 도내 극단 아동극 장르별 공연 현황

구분	인형극	일반연극	계
공연 횟수	43	15	58
작품 편수	7	3	10

3) 도내 극회 및 동호회 공연 현황

2012년에는 제주대극예술연구회가 2편 4회, 실버스타연극단이 1편 1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연극동아리가 1편 1회 도합 4편 6회에 불과했던 동호회 활동이 2013년에는 8개 기관·단체 9편 22회 공연으로 갑절 늘어났다.

내용별로 보면 제주대학교극예술연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30일간의 야유회’(이근삼 작)와 연말 ‘여우비’를 4회씩 공연했고, 제주대학교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와 제주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뮤지컬 ‘광해-빛의 바다로 가다’를 제주도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했다. 성산농협은 ‘뽕파전’을 농협 강당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했으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연극으로 놀며 배우며’ 수료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제주도문화회관 무대에 올렸다.

매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버스타연극단은 ‘불효자는 읍니다’를, ‘꿈꾸는 고물상’이라는 단체가 ‘모두를 위한 동화-비오는 날의 풍경’을, 제주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가 ‘아름다운 사람 읍보’를 각각 공연했다.

한편, 무용단인 퍼포먼스 몸짓(대표 강종임)이 중년 주부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 ‘지지고 볶고’를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공연했다.

이처럼 동호회의 활동이 많아지는 것은 연극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표 9〉 도내 극회 및 동호회 공연 현황

구분	제주대 극예술 연구회	제주 MBC	성산 농협	퍼포먼스 단몸짓	설문대 여성 문화센터	실버스타 연극단	꿈꾸는 고물상	제주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계
공연 횟수	8	1	1	4	1	1	2	4	22
작품 편수	2	1	1	1	1	1	1	1	9

3. 도외 극단 제주 공연 현황

1) 2013년 도외 극단 공연 현황

도외 극단의 제주 나들이 공연은 편수로는 아동극이 일반 연극의 배가 되지만 공연 횟수로는 일반 연극이 많다. 2013년 도외 극단의 공연은 77편 357회로 작품 편수나 공연 횟수 모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1년, 2012년 아동극과 마당극에 대한 자료가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2013년 와서 KT제주본부 소극장을 p&p커뮤니케이션이 임대해 연중 상설 공연을 펼쳐 공연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p&p커뮤니케이션은 2021년 11월부터 2013년 2월 3일까지 ‘이즈유’,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코믹 스릴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37회 공연했고,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당신이 주인공’을 59회 공연했으며, 공포 스릴러극 ‘흉터’를 10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49회 공연했다. ‘이즈유’를 제외하고도 3편에 150회를 공연한 셈이다.

한 해 동안 선보인 도외 극단의 공연을 보면 연희단거리패의 ‘수업’, 전국 20곳을 순회공연한 강부자와 전미선 출연의 ‘친정엄마와 2박 3일’, 배우=아이들의 ‘사랑가’, 제주 출신 연출가인 김종건이 연출한 ‘순이삼촌’, 역시 제주 출신 극단 대표인 예회의 모노드라마 ‘로라의 유리동물원’이 공연되었다. 또 ‘붓바람’, ‘아유크레이지’, ‘사랑가’, 지방문예회관 개발지원 사업으로 32회 서울연극제 대상 수상작인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일본 극단 초청 기획인 ‘키사라기미키짱’, (주)엠플러스의 ‘코믹걸드립걸스’가 있다. 그리고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참가작인 ‘뽕짝뮤지컬 군수선거’, ‘왕세자실종사건’, ‘그와 그녀의 목요일’이 공연되었고, 초청 기획한 ‘교수와 여제자 2’가 제주러브랜드에서 공연되었다.

뮤지컬 공연으로는 재즈뮤지컬 ‘러브인뉴욕(LOVE IN NEWYORK)’, ‘그날들’, ‘비밥’, ‘담배가게 아가씨’, 제주문화진흥원 기획 공연 ‘그리스’, ‘넌센스 2’, 미르엔컴퍼니의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등이 있다.

〈표 10〉 2011~2013 도외 극단 제주 공연 현황

구분		일반 연극	뮤지컬	아동극	마당극	계
2011년	공연 횟수	32	26	0	0	58
	작품 편수	9	13	0	0	22
2012년	공연 횟수	81	13	0	0	94
	작품 편수	11	4	0	0	15
2013년	공연 횟수	178	38	106	35	357
	작품 편수	11	12	24	30	77

2) 도외 극단 아동극 공연 현황

아동극 공연은 24편 106회 이뤄졌는데 1편을 제외하고 전부 뮤지컬을 결들인 일반 연극이었다.

작품을 보면 극단술이의 ‘피터팬’, ‘리틀라이온’, ‘인어공주’, 두부기획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피터와 늑대’, ‘페페로 할아버지의 꿈’, ‘토끼와 자라’, 극단 국민의 ‘신데렐라’, ‘오즈의 마법사’, 아트컴퍼니의 ‘빨간 모자와 늑대’, ‘출동 로보콩’, 극단 유리가면의 ‘피노키오’, ‘안아줘요 무무’, ‘호두까기 인형’이 있다.

그 밖에도 그림자극 ‘비발디의 사계’(극단 영), ‘애들아 같이 놀자’(극단 나무), ‘재크와 요술저금통’, ‘돈키호테’(극단21), ‘거리 위의 빨간 모자’(극단Y.A), ‘빼꼼이의 천방지축’(p&p 커뮤니케이션), ‘어린이 캣츠’(극단종이비행기), ‘넌 특별하단다’(화니컴퍼니), 한자교육뮤지컬 ‘마법천자문’(초록공간문예기획단), ‘꼬마버스 타요’(ES생활문화) 등이 있다.

〈표 11〉 도외 극단 아동극 장르별 공연 현황

구분	인형극	일반연극	계
공연 횟수	2	104	106
작품 편수	1	23	24

4. 시·공간별 공연 현황

1) 월별 공연작품 현황

2013년도 공연 편수와 총 연극 작품 편수가 다른 것은 한 작품이 공연장을 달리한 경우가 있거나 전달 말일과 다음달 초에 걸쳐 공연됐기 때문이다.

7월과 8월에 공연이 많은 것은 ‘4·3평화인권마당극제’와 이어 열린 ‘전국민족극한마당’에 도외 극단의 참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마당극 공연은 39편으로 일반 연극 33편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아동극 공연이 9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전반기(1~6월) 공연이 42편에 그친 데 비해 후반기(7~12월) 공연 작품은 91편으로 갑절 이상의 공연이 후반기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가 없지만 공연 횟수도 여기에 비례할 것이다.

〈표 12〉 월별 공연 작품 현황

장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일반연극	1	0	4	4	2	2	1	2	3	4	2	8	33
뮤지컬	1	0	1	3	3	1	0	0	2	0	1	4	16
청소년극	0	0	0	0	0	1	3	0	0	0	0	0	4
아동극	3	1	4	3	2	6	1	2	12	2	4	1	41
마당극	0	0	0	0	0	0	17	22	0	0	0	0	39
계	5	1	9	10	7	10	22	26	17	6	7	13	133

2) 지역별 공연 현황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 공연이 112편으로 서귀포시 지역 8편보다 11.6배 정도 많은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연극이 제주시 중심으로 공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일반 연극, 아동극, 마당극이 30여 편씩 제주시에서 공연된 반면, 서귀포시 공연은 장르 별로 손꼽을 정도다.

도외 공연은 자파리연구소가 ‘오돌또기’란 작품으로 3월 16~17일 일본에서 공연한 것과 정선, 인천, 평택, 공주, 서산, 구리, 순천에서 공연한 것이다.

〈표 13〉 지역별 공연 현황

장르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국외	계
일반연극	31	2	0	0	33
뮤지컬	15	1	0	0	16
청소년극	4	1	0	0	5
아동극	31	3	7	1	42
마당극	32	0	0	0	32
계	112	8	7	1	128

3) 공연장별 공연 현황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소극장, 큰마당 공연이 도합 40편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아트센터는 24편 중 아동극 공연이 절반을 넘는 13편이나 됐다. 다음으로 4·3평화인권마당극제가 열린 제주4·3평화공원이 17편이며, 기타로는 성산농협, 동홍초, 러브랜드, 명도암 유스호스텔 등이 있다.

〈표 14〉 공연장별 공연 현황

공연장	일반연극	뮤지컬	청소년극	아동극	마당극	계
제주문예회관대극장	4	4	0	3	3	14
제주문예회관소극장	5	0	3	3	7	18
제주문예회관 큰마당	0	0	0	0	8	8
제주아트센터	5	6	0	13	0	24
한라아트홀	4	1	0	6	0	11
간드락소극장	0	0	0	3	0	3
KT소극장	3	0	0	0	0	3
세이레아트센터	3	0	0	2	0	5
아라뮤즈홀	0	1	0	0	0	1
제주4·3평화공원	0	0	0	0	17	17
국립제주박물관	0	2	0	4	0	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1	0	0	0	2
서귀포 김정문화회관	0	1	0	1	0	2
예술공간 오이	1	0	0	0	0	1
미예랑소극장	4	0	0	0	0	4
기타	3	0	1	2	7	13
계	33	16	4	37	42	132

III. 2013년 행사별 공연 현황

1. 제22회 제주연극제

제31회 전국연극제 예선대회를 겸한 제22회 제주연극제가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부재호) 주관으로 4월 23~2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극단이어도 ‘돼지사냥’(이상우 작·김광흡 연출), 극단세이레극장 ‘비연소’(이상우 작·정민자 연출), 극단가람 ‘해가지면 달이 뜨고’(김태수 작·이상용 연출) 등 도내 3개 극단이 참가했다.

경연을 한 결과 최우수상은 극단가람, 우수상은 극단이어도가 차지했다. 그 밖에 개인상은 연출상 이상용(가람), 연기상 강종임(이어도), 강상훈(세이레), 스태프상은 정현주(가람)가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기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연극적 표현방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점 등이 아쉬웠고 각각의 장면이 재미에 치우쳐 극적 긴장감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주제를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면서 “극의 마지막이 절정을 향해 온전히 진행되지 못해 갑작스런 느낌을 주었다”고 평했다.

2. 제6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공감하는 문화, 소통하는 예술’을 내건 제6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해비치리조트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전국 문예회관, 문화예술단체와 기획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 공연장 장비, 소프트웨어업체 관계자는 물론 도민, 관광객이 함께하는 제주지역 대규모 문화 이벤트이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아트마켓으로 전국 문예회관에 필요한 각종 공연예술상품을 판매하였는데 189개의 작품이 참가했다.

4~5일에는 극단모시는사람들의 연극 ‘숙영낭자전을 읽다’, ‘정읍사’를 비롯해 창작오페라 ‘다라다라’, 퍼포먼스 공연 ‘빛, 날다’ 등 5개 장르 16개 작품이 시연됐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제주도문예회관, 한라아트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서귀포 김정문화회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왕세자 실종사건’, ‘3월의 눈’, ‘뽕짝뮤지컬 군수선거’, ‘공명유희’, ‘국악! 신세계로’, 동요콘서트 ‘구름뽕’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있었다.

이번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에는 전국 150여 곳의 문예회관과 단체, 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가해 대규모 아트마켓과 학술 심포지엄, 쇼케이스 등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이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처음 공연예술가들의 침목을 위해 출발한 행사가 지금은 국내 최고 공연예술 아트 페스티벌로 성장했다”며 “제주도가 예술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 제16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제17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제주예선대회를 겸한 제16회 제주청소년연극제가 7월 1일부터 5일까지 3개 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는 ‘유랑극단’(이근삼 작),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탑과 그림자’(이만희 작), 대정여자고등학교는 ‘그놈을 잡아라’(정형석 작)라는 작품으로 경연을 벌였는데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아 8월 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가했다.

한편 우수상은 제주사대부고와 대정여고가 차지했으며, 지도교사상(제주도교육감상)은 고종보(제주외고), 최우수연기상은 박진아(제주외고), 연기상은 오세희(사대부고), 김다나(제주외고), 이은지(대정여고)가 차지했다.

4.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놀이패한라산이 ‘생명의 호흡, 평화의 몸짓’을 슬로건으로 주관한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이 마당극제에는 일본, 푸에르토리코 등 외국 극단과 목포, 대구, 청송, 성주, 청주, 광주 등 전국 각 지역 광대패들이 참가하여 축제를 벌였다.

참가작을 보면 열림굿으로 부토 천공요람극단 서승아의 ‘침묵’, 행위예술가 한영애의 ‘붉은 목숨 서산에 꽃으로 오소서’, 극단 갯돌(목포)의 마당극 ‘품바품바’ 공연이 4·3평화공원 큰 마당에서 열렸다.

7월 31일에는 극단 함께사는세상(대구)의 ‘아름다운 사람 아줌마 정혜선’, 연극자리 소풍(제주)의 ‘춤추었을 뿐인데’, 도도 연극과교육연구소(대구)의 ‘감자꽃’, 극단 향로(일본)의 ‘하늘 가는 물고기 바다 나는 새’, 나무닭움직임연구소(청송)의 ‘2013 열사거리순례’, 놀이패한라산(제주)의 ‘사월굿 마지막 빨치산’, 별고을광대(성주)의 ‘그 여자 뽕파’가 공연됐다.

8월 1일에는 Deborah Hunt(푸에르토리코)의 1인극 ‘꾸러미 The Package’, 극단 함께사는 세상(대구)의 ‘바람의 기억’, 이름없는 공연 팀의 ‘1004년을 공존해 온 평화를’, 극단 달오름(일본)의 ‘마당극 4·24의 바람’, 극단 꼭두광대(청주)의 동학창작탈극 ‘눈자라기’,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가족풍물단의 ‘우리 가락 좋을씨고’, (재)광주문화재단 (사)나라사랑예술단의 1인극 ‘애꾸눈 광대’ 공연이 4·3평화공원 큰 마당과 소극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군뽕놀이-생명평화기원굿’으로 뒤풀이를 하면서 막을 내렸다.

5. 제26회 전국민족극한마당

놀이패한라산과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가 주관하는 제26회 전국민족극한마당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일대와 명도암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매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최하는 전국민족극한마당 행사는 2013년에는 제주에서 개최됐다.

8월 2일 제주도문예회관 큰 마당에서 제주시 연합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행사는 (사)예술공장두레(창원)의 ‘귀동아 방귀동아’ 공연에 이어 개막식이 거행되었고, 풍물굿패

신나락(제주)의 ‘삼석울림’, 나무닭움직임연구소(청송)의 ‘광대열사곳’이 이어졌다.

오후 10시에는 장소를 명도암 유스호스텔 앞마당으로 옮겨 양일동(부산)의 ‘아리랑을 위한 비나리’, 놀이패한라산(제주)의 ‘사월곳 마지막 빨치산’ 공연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8월 3일에는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극단 현장(서울)의 마당인형극 ‘지성이와 감천이’, 노래극단 희망새(서울)의 ‘진숙아 사랑한다’, 극단 해풍(부산)의 ‘老미화와 줄리엣’, 극단 동네풍경(안산)의 ‘우리동네 편의점 블루스’가 공연되었다. 한편 문예회관 큰 마당에서는 마당극회 우금치(대전)의 마당극 ‘별을 먹는 장돌뱅이’, 극단 달오름(일본 오사카)의 마당극 ‘4·24의 바람’ 공연이 있었다. 대극장에서는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꽃 같은 시절’ 공연이 있었고, 오후 10시부터 명도암 유스호스텔에서 극단 꼭두광대(청주)의 동학창작탈극 ‘눈자라기’, 이름없는 공연팀의 ‘우린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공연이 있었다.

8월 4일 소극장에서는 극단 현장(서울)의 마당인형극 ‘지성이와 감천이’가 다시 공연되었고, 민요패 소리왓(제주)의 ‘우리 할망넌 영 살아수다’, 극단 일터(부산)의 ‘동회 호테’, 극단 함께 사는 세상(대구)의 ‘바람의 기억’ 공연이 있었다. 대극장에서는 씨알누리(청원)의 ‘무(無), 무(巫), 무(舞)’, 마당극단 좋다(대전)의 ‘심청이 놀부를 만났을 때’가 공연되었고, 큰 마당에선 극단 자갈치(부산)의 ‘뚝 달린 나무’, 큰들문화예술센터(진주)의 ‘순풍에 뚝 달고’ 공연이 있었다.

명도암 유스호스텔 앞마당에서 연극자리 소풍(제주)의 ‘춤추었을 뿐인데’ 공연 후 시상식을 갖고 ‘달는 곳 및 신새벽 난장’이라는 제목으로 뒤풀이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6. 2013 제주전국장애인연극제

9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2013 제주전국장애인연극제가 개최되었다.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제주도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연극제는 3일 경남햇빛촌의 ‘맹사장댁 경사’, 4일 경기 녹두의 ‘세상 밖으로’, 5일 제주 서툰사람들의 ‘사랑이 지나가면 2’가 공연되었다. 한편 개막식 오프닝 공연으로 극단 휠이 ‘휠체어 힐링반다’를 선보였다. ‘장애인 연기자들이 연극제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예술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 연극단이 순회 정기공연 등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연극제의 취지다.

7. 제22회 소극장연극축제

도내 극단들의 연극 축제인 제22회 소극장연극축제가 도내 소극장에서 열려 12월 주말

을 달궜다.

참가작을 보면 극단가람(대표 이상용)이 8일부터 10일까지 한라아트홀에서 ‘늙은 부부 이야기’(연출 홍창현)를 공연했고, 19일부터 21일까지 미예랑소극장에서는 극단이어도(대표 김광흡)가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연출 정상언)를 공연했다.

이어 극단세이레극장(대표 강상훈)은 27일부터 29일까지 세이레아트센터에서 ‘기막힌 동거’(연출 정민자)를 무대에 올렸다.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표정 그리고 호흡마져 느낄 수 있는 무대와 객석 간 거리감은 소극장 무대의 매력으로 꼽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 소극장이 침체를 겪고 있지만, 이 소극장연극축제의 또 다른 매력은 신인 연기자와 연출가의 등용문이라는 점이다. 2013년에도 열심히 연출 수업을 하던 홍창현과 정상언이 가능성을 선보였다.

8. 기타

세이레아트센터(대표 강상훈)가 소극장을 이전 개관했다.

1992년 제주시 중앙로에서 극단세이레극장으로 출발한 세이레 아트센터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건너편 현대자동차영업소 뒷 블록으로 이전 운영하다가 용담동 복개천으로, 그러다 2007년 제주시 연동 중앙중 네거리에 소극장 아트센터를 열었고, 여기서 6년 동안 많은 연극 공연과 연극교육을 했다.

그러다가 2013년 제주시 삼도1동 오라파출소 뒤편 하나님의 교회 지하 1층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규모는 약 120평, 갤러리에 북카페, 공연장까지 갖춘 복합예술공간이다.

한편 도내에는 세이레 아트센터 말고도 사설 소극장으로 중앙로에 미예랑소극장(대표 김광흡), 예술공간 오이(대표 오상운), 아라동에 간드락소극장(대표 오순희)이 있다.

(주)해라(대표 지윤성)가 기획 제작한 뮤지컬 ‘판타스틱’이 7월 6일 제주관광대학 컨벤션홀에 상설공연장을 개장했고, 제주영상센터 소극장에선 PMC의 ‘난타’가 연중 공연되었다.

IV. 나오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는 도내 극단 공연보다 도외 극단의 공연이 활발하다. 도외 극단의 특징은 전용관을 만들거나, 장기 임대해 관광객을 상대로 상설공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 작품을 장기 공연하면서 연기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의

극단들도 전용 소극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도 즉 공연 일수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도외 극단의 공연처럼 과감하게 제작비를 투자하여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내야 하고, 도외 극단의 공연을 반면교사 삼아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획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연극교실, 주부 연극교실, 연기자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연극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연기자, 연출자 등 연극인들을 양성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 무대에선 언젠가부터 노령화가 고착되어 새롭고 젊은 연기자를 보기가 어려워졌다.

도외 극단에 점령되다시피 한 아동극 공연도 방법을 달리해서 도내 극단이 흡수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극단 간 협력과 정보 교환이다. 지금처럼 시기하며 경쟁적 관계만을 유지해서는 침체된 현상을 타파하기 어렵다. 2014년에는 좀 더 성숙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관객 앞에 다가서길 기대한다.

무용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2013 제주 무용계의 현황과 미래

이 애 리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예술가들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을 매우 못 견디 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더욱 부당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비평가들은 말한다. 특히 무용인들이 비평들을 더욱 강하게 부정한다고. 즉 ‘평가 불가 능성 논증’을 내세우며 비평 자체를 거부한다고 말한다.

무용인들은 주장한다. 누구나 주관적이며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평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비평가들은 말한다. 그럼 그렇게 자기표현만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부정 한다면 굳이 국민 세금을 지원 받으며 표현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말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보며 무용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보게 된다.

과연 제주의 무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가? 세금의 지원을 받으며 부끄럽지 않게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보게 된다.

무용(舞踊, dance)은 인간 내부의 미적(美的) 정서를 육체를 빌려 율동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함께 지닌 예술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 특히 무용은 다른 예술과는 달리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동작에 예술성이 결정되는 순간의 시간적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무용의 표현은 순간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의 결정체이기에 모든 무용인들의 작품 하나하나는 모두 다 소중하다.

그러나 이 소중한 작품 또한 객관성을 간과할 수 없다.

조사 결과 다른 예술에 비해 무용에 대한 제주도 대중들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 무용과 무용인들의 침체와 비활성화의 근본 원인을 현장 활동을 하는 관계인들이나 관객들의 인식 부족의 탓으로 혹은 행정적 미비로 인한 시스템의 부재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제주도에 어떤 민속무용들이 있는지, 무용단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 부족이 우리 무용인들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해보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단체인 BPW(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제주는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활동을 거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로 등록될 수 있도록 단계적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 2014년 5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PW세계대회에서 제주해녀 섹션을 마련하고 해녀춤을 공연하여 제주의 춤으로 부각시켰다.

이렇듯 무용과 관계없는 타 단체에서도 제주 민속무용을 알리려 하는데, 우리 무용인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스스로 반성해본다. 우리는 제주의 무용을 대중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제주의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문화 활동과 무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저 반짝 타 시도의 무용인들을 초대해 그들의 잔치의 장만을 제공하여 순간의 시각적인 만족만을 줄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장에 목말라 있는 제주의 무용인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뛰어난 무용인들의 기량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대의 젊은 제주 무용인들이 객관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창작무용 발표회나 제주 민속무용을 승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층에 있는 제주 무용인들이 젊은 세대의 무용인들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3년에는 전년에 비해 좀 더 많은 종류의 공연들이 있었다. 조사 자료를 보면 총 34회의 공연이 있었고 2건의 수상이 있었다. 전년과 비교하며 2013년 제주 무용의 현황을 돌아보고자 한다.

II. 공연활동 현황

1. 2013년 공연 현황

1) 지역별 공연 현황

2013년 무용 공연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의 제주시립 요양원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안타깝게도 대부분 공연이 제주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귀포시 지역과 도외 지역의 공연은 너무나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과 같이 2010년에 비해 2011~2013년에는 공연 횟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더욱이 서귀포시 지역 공연은 2012년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외 공연도 2011년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무용 공연은 총 횟수도 적지만 서귀포시 지역과 도외 지역의 공연이 매우 빈약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국외 공연도 2010년 제주오름무용단의 일본 공연 2회와 2011년 제주해송민속무용단 1회, 제주도립무용단의 아랍 국가들과 우호친선을 위한 공연 1회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에는 단 1회의 국외 공연도 갖지 못했다.

국외로 나가면 우리의 무용은 매우 인기가 높으며, 제주도립무용단의 기량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국외 공연이 없는 사정은 그동안의 내부 갈등도 원인이겠다. 이제 안정적인 분위기에 접어들었으니 미래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또한 다른 단체들도 좀 더 많은 국외 공연의 교류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서귀포시민들도 무용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도록 무용인들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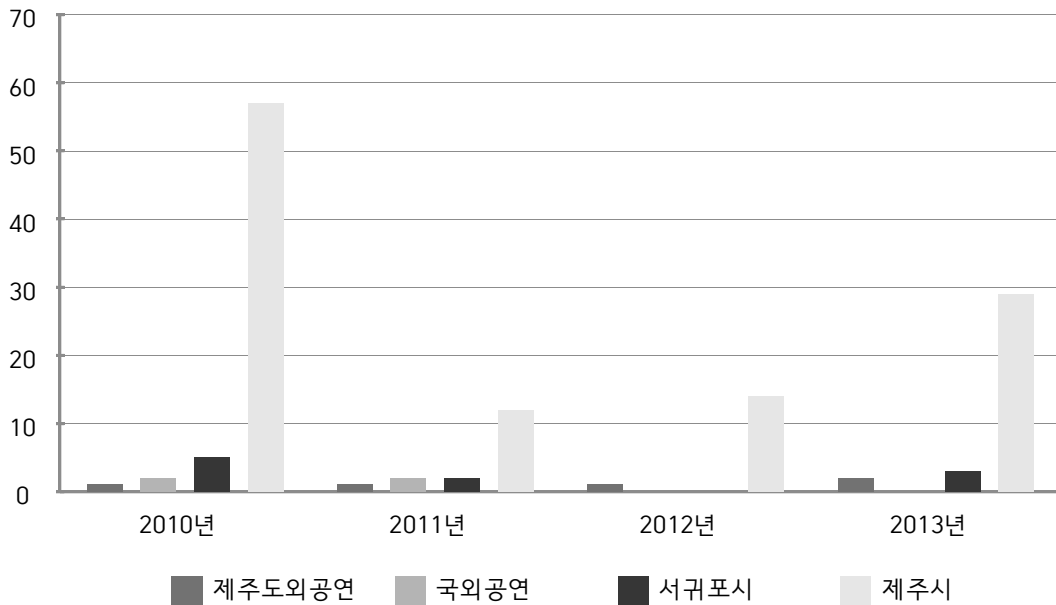
다행히 2013년에는 무용 공연의 총 횟수가 조금 회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무용 공연을 지역별로 나누어 표와 그래프로 분석, 비교해보았다.

〈표 1〉 지역별 공연 통계(도내·외, 국외 활동)

(단위: 회, %)

연도	구분	제주도의 공연	국외 공연	서귀포시	제주시	계
2010년	건수	1	2	5	57	65
	비율(%)	1.5	3.1	7.7	87.7	100
2011년	건수	1	2	2	12	17
	비율(%)	5.9	11.8	11.8	70.5	100
2012년	건수	1	0	0	14	15
	비율(%)	6.7	0	0	93.3	100
2013년	건수	2	0	3	29	34
	비율(%)	5.9	0	8.8	85.3	100



2) 장르별 공연 현황

2013년 무용 공연 중 정기공연은 제주도립무용단의 제43회 정기공연을 비롯해 도 댄스스포츠연합회의 스윙댄스 정기공연, 박윤희 벨리댄스 정기공연, 샬롬발레단 정기공연, 도립무용단 제44회 정기공연, 발레하우스 정기공연, 빛무용단 정기공연 등 모두 8회가 열렸다.

도립무용단의 제44회 정기공연에서는 ‘제주 환타지’라는 주제로 제주적인 소재와 정서를 재창조했다. 배상복 안무자는 자신만의 색깔에 제주적인 문화성을 가미하여 창작한 작

품 ‘Soul of Jeju IV’ 시리즈를 선보여 도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 한국인의 정서와 제주인의 정서를 융합한 작품의 창작성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제주의 빛’, ‘바다의 노래’ 등의 작품에서도 안무자가 제주인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한국 춤의 정수만을 엄선했던 작품을 선보이려 노력하여 새로운 안목을 심어 주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재활원과 요양원 등지를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6회가 열렸으며, 학원과 개인 등의 발표회가 7회, 축제공연 3회, 초청공연 1회 등이 있었다. 또 무용교실 1회와 승무 연수, 진주 ‘교방무’ 연수 등 워크숍이 총 3회 있었고 추모공연과 평화예술제 공연, 청소년 무용 콩쿠르 등 기타 6회의 공연이 열려 2013년 총 34회의 무용 공연이 있었다.

제주도립무용단은 도서·읍면지역과 문화소외지역, 제주 문화를 접하기 힘든 지역을 찾아가 공연을 하였고, 제주오름민속무용단과 한국무용협회 제주시지부 등은 창암재활원, 위미에덴요양원, 성이시들요양원, 세화요양원 등지에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화관무, 부채춤, 소고춤, 난타, 사랑가 등을 선보이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위문과 격려의 공연을 펼쳤다.

4월은 제주의 아픈 역사와 비극을 지닌 시기이다. 그런 만큼 제주도립무용단은 4·3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원혼들의 한과 억울함을 표현하며 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유하는 작품 ‘흔들리는 섬’을 공연하였다. 또 5월에는 2007년과 2009년 열렸던 제주예술제와 2011년 처음 열렸던 제주평화예술제를 아울러서 제주의 갈등을 문화예술로 치유하자는 취지 아래 제주평화예술제가 ‘평화의 올림’이란 주제로 3일부터 사흘간 제주도문예회관 및 서귀포칠십리시공원 등지에서 개최됐다. 5월 4일과 5일에 거쳐 한빛누리예술단, 한라예술단, 오름무용단, 제주민속예술단, 올래예술단, 해송무용단 등의 단체가 무용 공연을 통해 어울림 한마당을 펼쳤다.

탐라문화제에서는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문화유산과 민속, 역사, 예술을 선보이는 프로그램 등 문화의 원류를 찾아내 중흥시킨다는 목표로 축제를 열었는데, 무용 분야에서는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해녀춤과 제주 전통 굿춤인 제주칠머리당굿 등 무형문화재 공연을 펼쳤다. 그 중 ‘느영나영’의 노래에 맞춰 추는 귀여운 어린이들의 해녀춤은 관객들에게 높은 호응과 사랑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 해변무용축제에서는 서울 온누리무용단, 전남 장미영무용단, 경남 권미애무용단,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등의 청소년 무용수들이 출연해 ‘숲의 대화’, ‘줄무늬 잡옷을

입은 사람들’ 등을 선보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제주에서 보기 드문 남자 청소년 무용수들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동작과 멋진 테크닉이 제주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공연이었다.

제주 청소년들의 작품으로는 중앙중 ‘아이디얼’의 창작댄스, 성산고 Dangerous(데인저러스),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쇼프로브’의 스트리트댄스, 신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장고춤, 숙명 발레아카데미 등이 참가하여 나름 열심히 준비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제주시 지역 청소년들의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였고, 정통 무용 작품이 매우 빈약한 점이 아쉬워 이제는 꿈만 심어 줄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 또한 앞서가는 무용인들이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11월에는 제주시청소년시설협회 주최로 ‘제주시 청소년 통큰 페스티벌’이 열렸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소년들의 재능겨루기의 장이었지만 무용과 댄스 분야 참가도 있어 청소년의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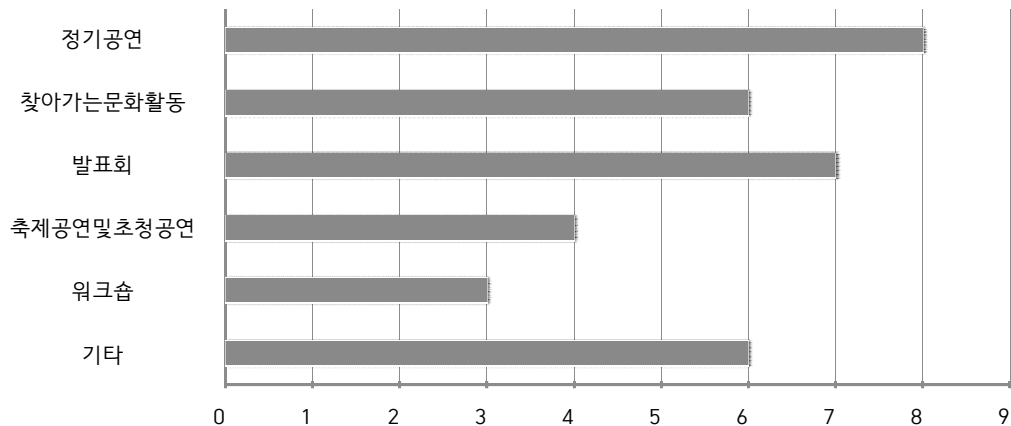
12월에는 제주춤아카데미가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공연을 펼쳤다. 김희숙 안무자는 자신이 걸어온 춤 인생과 스승인 고(故) 송근우 선생의 춤사위, 그리고 제주곳에서의 춤의 근원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스승에 대한 추모의 예를 담아 ‘해조음’, ‘영개울림’, ‘한량무’, ‘피리독주’, ‘새타령 춤’, ‘검무’, ‘말명장고’, ‘생불할망’ 등을 공연하였다. 그 중 ‘해조음’은 해녀춤, 대바지춤, 물허벅으로 구성되고, ‘말명장고’는 수심방이 신을 청한 후 장고 가락과 함께 신명나게 추는 춤이다. 또 ‘생불할망’은 하늘의 신궁의 문을 여는 초감제를 시작으로 신에게 향과 술을 바치며 춤이 추어지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삼승할망이 험한 길을 헤치고 오는 모습과 꽃을 가꾸는 선녀들의 서천 꽃밭이 춤으로 추어진다. 또한 제주시 이도2동의 고전무용 주민자치동아리의 우정 출연도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금악초등학교에서 열린 5일 동안의 무용교실은 초등학생들에게 신체 표현을 위한 몸의 움직임을 깨우치고 음악에 맞춰 제주의 자연과 설화에 대한 창의력과 무용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올레민속무용단의 승무 연수와 진주 ‘교방무’ 연수 등 전통무용 워크숍도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움에 목말라 있는 제주 무용인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무용협회나 제주시무용협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무용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표 2〉 2013년 장르별 통계

(단위: 회, %)

구분	정기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발표회	축제공연 및 초청공연	워크숍	기타	계
건수	8	6	7	4	3	6	34
비율(%)	23.5	17.6	20.7	11.8	8.8	17.6	100



2013년 서귀포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舞-춤을 추다’란 주제로 개인 공연을 하게 된 이연심은 태평무 이수자답게 태평무를 선보인 데 이어 살풀이, 물허벅춤, 해녀춤 등을 추어 제주 여인들의 옛 삶을 미학적으로 잘 표현하며 의미 있는 공연을 보여주었다. 이연심 안무자는 여러 무용수와 함께 춘 ‘나의 휘파람은 차라리 통곡을’이란 작품을 통해 제주 여인들의 힘들고 지친 삶을 표현해주는 해녀춤을 선보였고, 가을편지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작품도 관객들에게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순서도 마련하여 젊은 성악인들의 활기찬 시엠(CM)송과 우리 가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무대에 올리며 새로운 장르를 관객들에게 선보여, 모처럼 서귀포시민들에게 무용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도외 공연으로는 단 2회가 있는데, 먼저 도립무용단의 배상복 안무가가 함께한 고(故) 최현 선생 추모공연 ‘비상 VI’라는 작품이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최현춤보존회 주최로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회장인 배상복 안무자가 직접 연출한 작품으로, 최현 선생의 춤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멋스런 춤사위를 선보이며 그의 춤 세계를 기억하게 했다.

다른 하나는 제주 출신 현대무용가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설진 무용인이 2013년 11월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였다. 그는 세계 현대무용의 메카라 불리는 벨기에에

서 상위에 거론되는 무용단 ‘피핑툼’이라는 무용단의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안무가로서도 천재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무용수다. 그는 제주에서 무용을 하다 고2 때 서울로 올라가 무용을 배웠다. 그 후 2008년 유럽으로 건너가 벨기에 ‘피핑툼’ 무용단 오디션에 합격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도 언젠가는 제주에서 공연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

3) 시기별 공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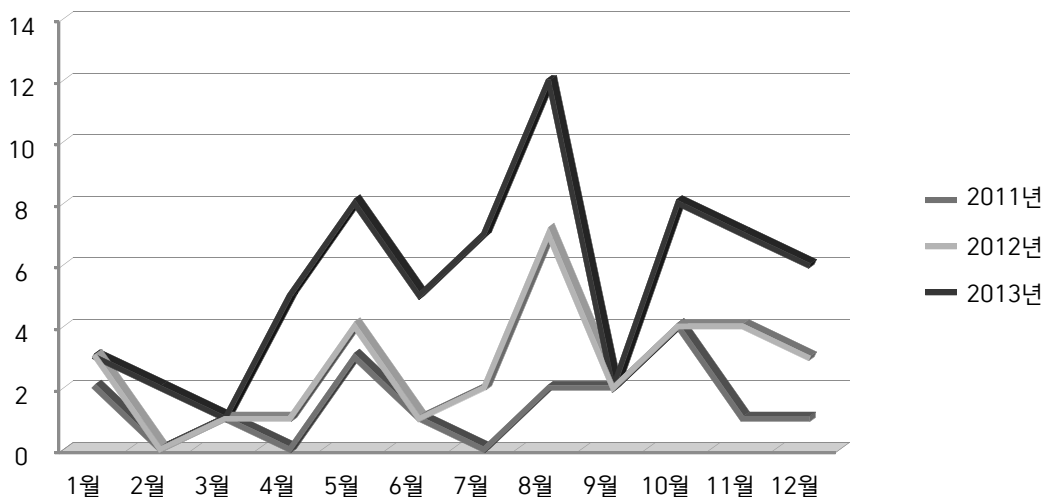
시기별로 나누어 2013년도의 공연을 분석해보자.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1월에 공연이 시작됐으나 2013년도에는 도립무용단의 공연이 열린 2월이 한 해 공연의 시작이었다. 2012년의 경우 8월에 공연이 집중됐으나 2013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분포도는 역시 계절과 관계가 있어 날씨가 따뜻하고 밖으로 많이 나가 활동량이 많은 시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시기별 공연 현황

(단위: 회,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1년	건수	2	0	1	0	3	1	0	2	2	4	1	1	17
	비율(%)	11.8	0	5.9	0	17.5	5.9	0	11.8	11.8	23.5	5.9	5.9	100
2012년	건수	1	0	0	1	1	0	2	5	0	0	3	2	15
	비율(%)	6.7	0	0	6.7	6.7	0	13.3	33.3	0	0	20	13.3	100
2013년	건수	0	2	0	4	4	4	5	5	0	4	3	3	34
	비율(%)	0	5.8	0	11.8	11.8	11.8	14.7	14.7	0	11.8	8.8	8.8	100



4) 수상 현황

무용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수상실적이 저조하다. 2011년 2건에 이어 2013년에도 2건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2013년 수상 중 하나가 이수 자격 취득이어서 무용 분야의 활동이 매우 미흡하다는 걸 알 수 있다. 2014년에는 좀 더 많은 수상 소식을 기대해본다.

〈표 4〉 수상자 현황

연도	수상자	수상 내용
2011년	강명희	전국국악예술경연대회 금상
	최 란	한국무용전국콩쿨대회 우수상
2013년	이지은	이탈리아베니스국제아트엑스포 우승
	한면정	중요무용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이수자격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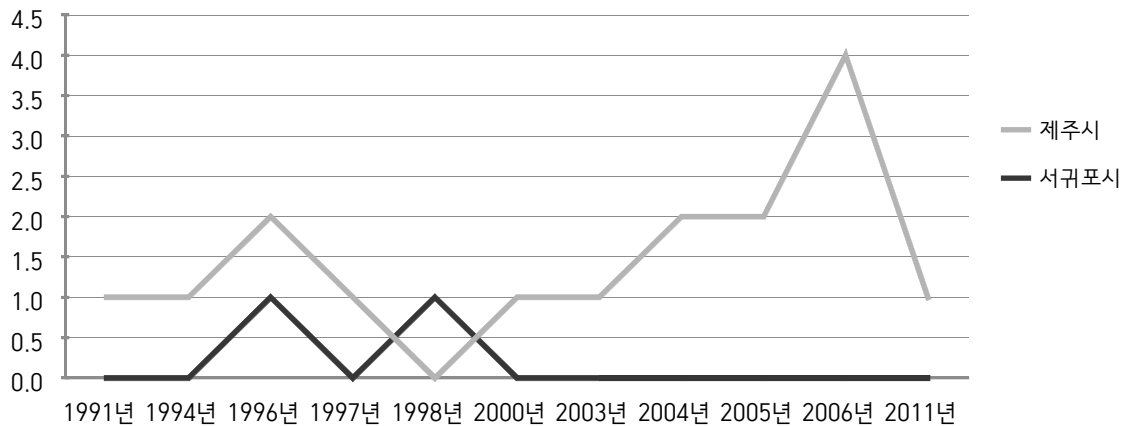
5) 제주도 무용 예술 단체

제주도의 무용 단체를 살펴보자.

제주도의 무용단체는 역시 타 문화예술 단체에 비해 수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표 5〉 제주도 무용 단체 창립 시기

연도	제주시	서귀포	계
1991년	1	0	1
1994년	1	0	1
1996년	2	1	3
1997년	1	0	1
1998년	0	1	1
2000년	1	0	1
2003년	1	0	1
2004년	2	0	2
2005년	2	0	2
2006년	4	0	4
2011년	1	0	1
합 계	16	2	18



1991년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가 생긴 이후 1994년 예지무용단이 창립되었다.

이어 1996년 제주시 지역에서 민속무용단과 제주전통어렁무용단이, 서귀포시 지역에선 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가 최초로 창립되었다.

1997년에는 제주춤아카데미가, 1998년에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두 번째로 제주민속무용단이 결성되었다.

이후 2000년 제주오름민속무용단이, 2003년 숨비민속무용단이 만들어졌다.

2004년에는 혼비무용단과 제주헤라스벨리가, 2005년에는 댄스인 제주무용단과 한국무용협회제주시지부가 새로 생겨났다.

2006년에는 가장 많은 무용단이 생겨났는데 사라예술단, 예술단 사람들, 이지연발레단, 해송민속무용단 등 모두 4단체가 창립되었다.

이후 4년 동안 창립 단체가 없다가 2011년에 제주춤예술원이 창립되었다.

Ⅲ. 나오며

2013년 제주 무용계의 현황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절실히 우리 무용계가 객관적인 인정을 받는 작품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아무리 순수예술이라 주관적인 면이 중요하다 하지만 객관성이 없는 작품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객관적 표현으로 예술적 감동이 넘쳐흐르는 작품을 만들어 관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안무해야 하지 않을까? 본인만 만족하고 본인에게만 뜻있는 작품이라 한다면 관객 없는 공연을 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 무용인들은 무용에 관

심 있는 도민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용 전공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에는 젊고 순수한 무용인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건재하게 나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치 못하다.

지금 무용계는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 순수 예술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1980년대는 무용계가 무용인구나 공연 횟수, 춤에 대한 인식 등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 무용의 르네상스로 불렸던 시기였다. 1970년대에는 개인 발표회가 주류를 이뤘다고 하면 1980년대에는 무용인들이 서로 공동 작업을 통하여 개인적인 부담을 떨쳐버리고 대규모로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러한 무용예술의 활성화는 늘어난 무용 전공인들의 활약이 컸고, 그와 시기를 같이하여 탄생한 다양한 성격의 무용 그룹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 큰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문화예술 축전을 통해 무용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어 성장을 했으며, 이에 힘입어 대중들의 무용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무용예술의 대중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0년 들어서는 직업 무용단에 대한 기능과 역할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표 6〉 전국 직업 무용단체 현황 (1970~1980년대)

단체명	창단연도	단원수	현 단장 (상임안무자)	장르
국립국악원무용단	1987	40	문일지	한국무용
국립무용단	1962	60	송 범	한국무용
국립발레단	1962	50	임성남	발레
광주시립무용단	1976	44	박금자	발레
대구시립무용단	1981	27	구본숙	한국무용
대전시립무용단	1985	32	김 란	한국무용
목포시립무용단	1980	22	정영래	한국무용
부산시립무용단	1974	40	홍민애	한국무용
서울시립무용단	1974	50	배정혜	한국무용
유니버설발레단	1984	46	로 이 토비아스	발레
인천시립무용단	1984	26	민태금	한국무용
제주민속예술단	1990	28	김희숙	한국무용
창원시립무용단	1987	20	이남주	한국무용
88서울예술단	1986	86	국수호 (예술감독)	한국무용 (뮤지컬)

〈표 6〉과 같이 1970~1980년대에는 9개 단체가 각 시도를 대표하는 형태로 창단되었다.

제주민속예술단의 경우 1990년 3월 발족하였는데, 1985년 제주시립무용단으로 출범하여 운영되다 확대된 것으로 28명의 단원 중 사물놀이 4명을 제외한 24명의 단원이 모두 무용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창작무용극 ‘생불화’로 첫 공연을 가진 제주민속예술단은 곧 제주도에서 관할하는 도립무용단으로 개칭되어 본격적인 무용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표 7〉 4년제 대학에 무용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학교명	개설연도	정원	지역
이화여자대학교	1963	50	서울
한양대학교	1964	40	서울
경희대학교	1966	40	서울
세종대학교	1967	40	서울
조선대학교	1972	40	광주
중앙대학교	1974	40	안성
한성대학교	1974	40	서울
효성여자대학교	1974	40	대구
서원대학교	1975	30	청주
청주대학교	1979	40	청주
부산여자대학교	1979	40	부산
원광대학교	1890	40	이리
한양대학교(반월)	1983	40	반월
동아대학교	1983	40	부산
부산대학교	1983	40	부산
공주사범대학교	1983	12	공주
숙명여자대학교	1984	40	서울
계명대학교	1984	40	대구
경성대학교	1984	40	부산
수원대학교	1984	40	수원
대한체육과학대학교	1987	40	용인
전북대학교	1988	20	전주
전주우석대학교	1989	40	전주
단국대학교	1989	40	천안
성균관대학교	1989	40	서울

〈표 7〉과 같이 1980년대까지 4년제 대학은 무용과를 개설하였고 전문대학에서도 무용과들을 신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주도내 대학은 현재도 무용과를 개설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 무용계의 활성화와 국제교류 확산 흐름은 2003년에도 이어졌다. 2003년에는 한국무용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광범위하게 감지됐다. 이 같은 변화는 크게 무용을 둘러싼 주변의 변화와 무용계 내부의 변화로 대별된다. 무용사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는 우선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과 무용예술을 포함한 문화정책과 지원제도 등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1급 공연장과 국제무용페스티벌을 통해 해외 유명 춤 단체들의 내한 공연이 많아지면서 음악회나 전람회를 찾던 중산층 엘리트 관객들이 무용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났고, 홍보나 마케팅 등 무용제작 시스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제무용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무용을 보려는 일반 관객들의 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이렇게 무용계는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4년 현재는 순수예술들의 침체기를 거쳐 무용단체들의 재정난으로 이어지며 개인 무용단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있고, 정부 방침과 교육부의 변화에 따라 무용인들이 취업난에 부딪히면서 순수 무용을 하려는 무용인들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무용계가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작품이 나와야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 백조의 호수처럼 대중성 있는 작품 말이다. 이러한 작품들이 지금껏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클래식 음악에 힘입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용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김복희 무용가가 인터뷰에서 강하게 피력했다. 필자가 서론에 들어가며 했던 얘기와 같은 맥락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물론 이러한 작품을 만들려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또한 마음과 능력만 갖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때문에 도와 지원 기관에서 무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물질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다면 아마도 멋진 대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져본다.

2014년 BPW세계대회 갈라쇼에서 세계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제주도립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세계 여성들은 도립무용단의 춤을 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다. 무용단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자리였다.

우리의 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립무용단의 기능은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제주의 젊은 무용인들에게 주위의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길이 무용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객관적으로도 인정받고 사랑 받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 제주에서 무용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해본다.

영상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2013 제주 영상계-지역 영상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 혁 진

제주독립영화협회 대표

I. 들어가며

2013년 국내 영화시장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1조 8,839억 원으로 사상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이는 극장 매출의 증가 그리고 부가시장 및 해외 수출의 회복 세에 따른 결과이다.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관람 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에 달하였고 관객 수와 매출액 모두 역대 최고다. 특히 2013년 한국영화 관객 수는 2008년 6,355만 명에 비해 100.3%나 증가한 1억 2,727만 명을 기록하였다.

해외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설국열차’ 효과와 중국 대작영화 기술서비스 수주 덕에 완성작 수출과 기술서비스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83.7%, 26.8% 늘어 전체 해외 수출액은 2012년 대비 57.2% 증가한 5,900만 달러였다. 그리고 부가시장도 IPTV 매출 증가에 따라 2012년 대비 24.0% 증가한 2,676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국내, 해외 시장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한국영화 투자수익률이 2012년 13.3%에 이어 2013년에는 15.2%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은 양적, 질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체 국내 영화시장의 호조에 기여한 주역 중에는 제주 출신 감독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우선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관왕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오명 감독의 제주 토종 영화 ‘지슬’이 2013년 1월 말 열린 세계 최대 독립영화제인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국내 작품 최초로 극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고 그 여파를 몰아서 3월 개봉과 동시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량 성영화 극영화 부문 흥행기록을 새로 세우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가을에 개봉한 한재림 감독의 ‘관상’은 914만여 명의 관객 동원으로 2013년 흥행순위 3위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제주 출신 영화인들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도내외적으로 제주가 단순한 로케이션(현지 촬영)의 장소 제공 역할만

이 아닌 창작의 산실로서 경쟁력을 갖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3년 제주도내 영상 관련 활동들도 양적 성장과 함께 다양한 기획들의 증가로 질적인 발전도 이뤄낸 한 해였다.

(사)제주영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로케이션은 모두 44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3편이 증가했다. 이처럼 소폭 상승에 그친 요인으로는 다른 지역의 로케이션 유치 노력과 제주지역의 물적 인프라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제반 요건의 부족함은 지속적인 로케이션 증가를 어렵게 하는 실질적인 걸림돌인 것이다.

씨네아일랜드 주최의 제주영화제가 만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제주지역만의 영화제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고 소박한 규모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영화 마니아와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위한 영화제 성격의 행사들도 꾸준히 늘어나며 자리 잡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학생들의 창작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여 제주의 미래를 더한층 밝게 해준 한 해였다. 대표적 영화 전문교육 학교인 남원초와 창천초의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 수상 소식은 올해에도 이어지며 그 저력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별로 소통하는 의미를 담고 진행되는 ‘여성 영화제’, 장애인들의 인권 함양에 큰 역할을 하는 ‘장애인 인권영화제’ 그리고 음악으로 듣는 영화, 영화로 보는 음악을 표방하는 ‘제주프랑스영화제’가 해를 거듭하며 참신한 기획으로 영화의 변방인 제주에 새로운 바람을 선사하고 있다.

2013년 제주 영상문화예술계의 현황 분석을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공한 자료와 지역 일간지, 각 단체별 홈페이지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공식적인 기록에 남지 않은 활동은 누락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제주 로케이션 현황 및 문제점

영화와 방송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영상물의 제주 로케이션은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을 고비로 큰 폭의 증가 없이 소폭 상승에 그치며 한계치에 다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제주도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만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영상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행정의 무관심과 변화보단 현상 유지에만 신경 썼던 영상위의 소극적인 대처능력으로 인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

한 결과였다.

영상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제주 내 영상시설은 타 지역보다 매우 열악한 환경이며, 제주 토종 영화 ‘지슬’의 성공 이후 제주도내 시설과 장비 보강 및 지원체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제주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행정의 꾸준한 지원정책과 영상위의 뚜렷한 자기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3년 (사)제주영상위원회에 제작 지원 신청 및 제작 협조를 요청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1〉 2013년 제주 로케이션 현황

구분	작품명	제작사
영 화	덴트로비움	북경 HI-LINK
	늑대들의 여행법	(주)웃기시네
	썬더맨	필마픽처스
	하늘의 황금마차	자파리필름
	썬샤인	이달투
	비단벌레를 찾아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청음	개인 제작
	홀립	개인 제작
	소녀의 꿈	개인 제작
	천우신조	개인 제작
	이중섭의 아내	우주마사필름
	CAMP	퍼플캣츠
	하얀 자전거	개인 제작
	빈집	개인 제작
	평정지에는 평정지에다	드림빌
	게스트 하우스	우노픽처스
	애월	유비컬쳐
	결혼전야	수필름
드라마	미스코리아	에스엠컬처엔터테인먼트
	아이리스	태원엔터테인먼트
	구가의 서	삼화네트웍스
	결혼의 여신	삼화네트웍스
	愛的合同	북경등객문화전매 유한회사
	구암 허준	MBC
	오자룡이 간다	디케이엔엠
	출생의 비밀	아이에이치큐
	시크릿러브	메이즈 엔터테인먼트
	아직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라미디어

기 타	윤종신 뮤직비디오	미스틱89
	칠성사이다 CF	
	잉글리쉬무무 홍보	잉글리쉬무무
	대한항공 CF	베가프로덕션
	신승훈 뮤직비디오	
	한복 날아오르다	65스트레오
	현대자동차 사내방송	
	주정/유일한그녀	디스패치
	노스페이스 광고	
	머렐 광고	
	블랙야크 CF	
	LG U+ CF	
	E1 CF	
	박정현 뮤직비디오	엔써웍스
	아빠어디가	MBC
	유승우 뮤직비디오	엠미디어웍스

※ 출처 : (사)제주영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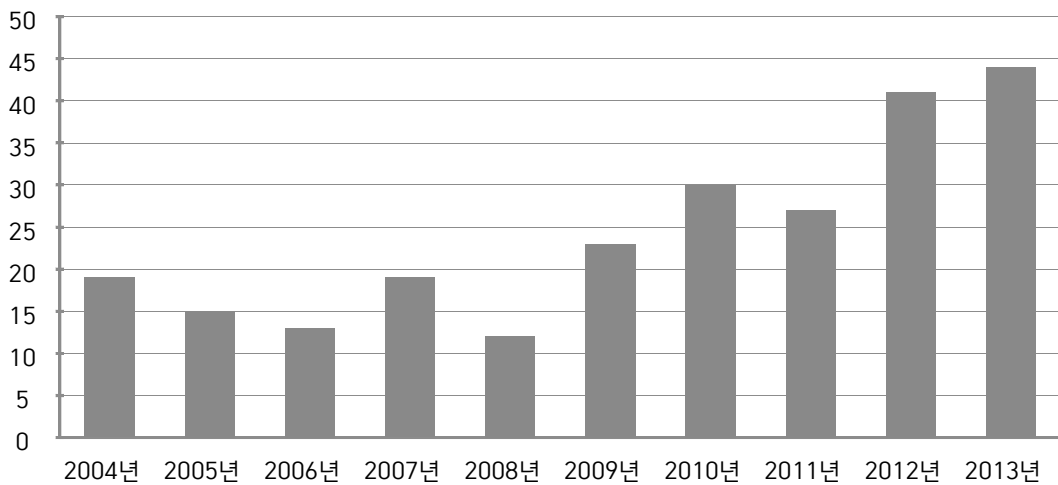
〈표 1〉에서 보면 전체 로케이션 지원작 중에서 제주 올 로케인 작품은 여전히 5~6편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 제작이 대부분인 이들 작품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효과는 미미하지만 그 대부분이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감독들의 작품이고 실질적인 제주 지역 내 창작 시스템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제작비로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작업의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물적 인프라의 확충은 당면 과제로 남아 있다.

〈표 2〉에서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제기되는, 제작에 필요한 제반 시설의 부재는 앞으로도 제주를 단순한 배경으로 담는 데 그칠 우려가 큰 게 현실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하며 2013년에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로케이션만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더는 영상산업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수인 것이다. 섬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 확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주지역 로케이션을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 내 영상 관련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2〉 최근 10년간 연도별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현황

연도	촬영 작품 수			
	영화	드라마	기타	합계
2004년	8	9	2	19
2005년	6	5	4	15
2006년	8	3	2	13
2007년	8	6	5	19
2008년	4	6	2	12
2009년	9	11	3	23
2010년	9	10	11	30
2011년	15	5	7	27
2012년	19	9	13	41
2013년	18	10	16	44
계	104	74	65	243

※ 출처 : (사)제주영상위원회



Ⅲ. 영상문화 향유 증대 및 영상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1.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제주영상미디어센터

2006년 국비와 제주도의 지원으로 제주영상위원회 산하 기구로 개관하며 시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목소리를 미디어 도구를 통해 표현하고 교류하며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심체 역할로서 출발한 영상미디어센터도 어느새 8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양적 수치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 프로그램의 질도 그만큼 발전하고 만족스러운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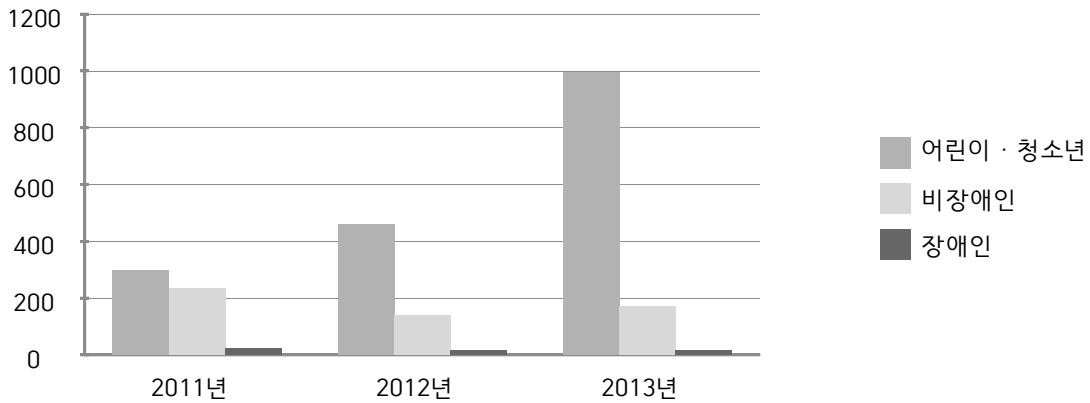
〈표 3〉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자체 교육과 위탁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미디어교육의 참여 인원과 프로그램도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요인으로는 2012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서 토요 특별활동까지 프로그램의 일정이 늘어나면서 양적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고정적인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기본 참여 인원도 유지되고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급 이상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고급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여 수요자들의 참여를 늘리는 데 신경 써야 할 때이며, 지역에서도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우려스럽게도 어린이와 청소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오히려 참여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도 자체 교육으로만 진행되며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교육도 더는 증가 없이 매년 1회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교육 참여 인원을 비율로 나눠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84.2%를 차지한 반면 비장애인 참여 비율은 14.6%, 장애인 참여 비율은 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교육의 증가만큼 다른 계층의 교육 참여 증가에 대한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표 3〉 최근 3년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어린이·청소년	비장애인	장애인	총인원
2011년	미디어 교육	296	235	22	553
2012년	미디어 교육	460	141	16	617
2013년	미디어 교육	996	172	15	1,183

※ 출처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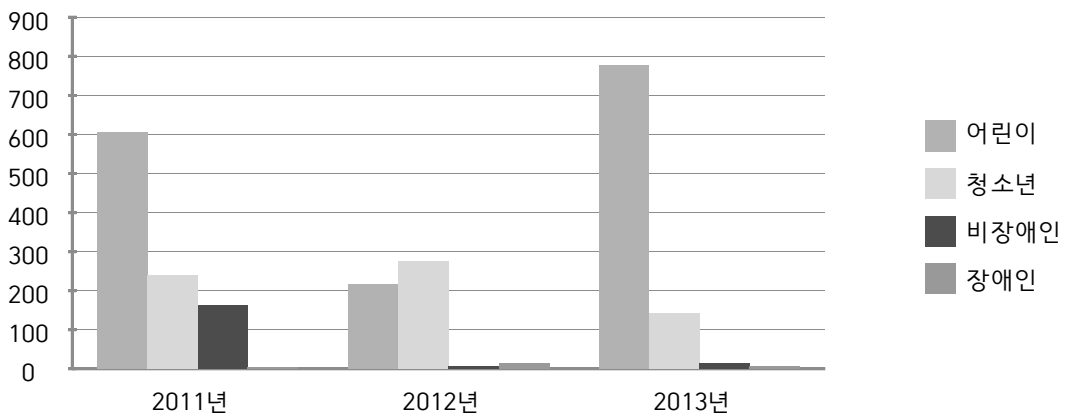


〈표 4〉의 최근 3년간 미디어 체험 참여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원은 해마다 일정치 않은 편차가 있지만 꾸준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비장애인들의 미디어 체험은 최근 몇 년 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대중화로 단순한 미디어 체험을 하기 위해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미디어센터에는 ‘난타’ 공연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더 많아진 것이 현실이며 특별한 미디어 체험을 할 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비장애인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큰 요인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참여 인원 역시 미디어 교육과 별 차이 없이 극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최근 3년간 미디어 체험 운영 현황

연도	내용	어린이	청소년	비장애인	장애인	합계
2011년	미디어체험	606	239	162	5	1,012
2012년	미디어체험	216	274	7	15	512
2013년	미디어체험	778	143	15	6	942

※ 출처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의 설립 목적에는 미디어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디어 향유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견하여 미디어로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 현재 모든 제반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더 많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폭을 확대하는 데 고민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 영화예술강사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소속된 영화예술강사들의 활동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15~20개의 학교에서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부터 실기까지 진행되며 예술전문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기초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남원초를 비롯한 몇몇 학교는 전국적으로도 소문난 영화학교로 자리를 잡았으며 다른 학교들도 영화를 통한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계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초·중·고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점차 중·고등학교의 참여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2. 관련 단체 활동

1) 제주독립영화협회

제주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로 구성된 제주독립영화협회는 꾸준히 제주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보편적이면서 지역적 특색이 녹아 있는 작품들을 제작해오고 있다. 2013년 오명 감독의 '지슬' 제작에도 참여하여 큰 성과를 이뤄냈고 장편, 단편 작업에도 회원들이 함께 하며 지역 영상문화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1월 초 '지역 독립영화의 전망과 과제,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독립영화협회의 오명 감독이 연출한 제주4·3 장편극영화 '지슬'을 포함해 그동안 100% 제주산 토종 영화에 대한 성과를 짚어보고, 전북과 부산 독립영화협회의 사례들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지역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상영회를 개최해온 (사)제주씨네아일랜드는 영화 정기상영회인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 영화!'와 '내 인생의 최고의 영화'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작품성 있는 영화 감상 기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영화문화 향유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월부터 연말까지 상영회를 진행하며 관객들

과 만남의 자리를 이어갔으며 만 3년 만에 부활한 ‘제주영화제’를 재정비하며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3) 문화기획 PAN

영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을 체험하기 위한 행사인 ‘씨네클럽’은 프랑스영화를 테마로 매월 문화기획 PAN(대표 고영림)과 주한프랑스문화원의 공동 주최로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저녁시간에 진행됐는데 영화 감상과 함께 전문가 초청 씨네 토크도 열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영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컴트루통합문화예술교육기획

컴트루통합문화예술교육기획은 화면 해설과 자막 해설이 가미된 작품들을 소개하는 배리어프리영화상영회인 ‘잘 보여! 잘 들려! 마음으로 보고듣는 가족영화관’을 기획하여 장애나 연령의 제약 없이 모두가 편안하고 평등하게 영화를 누릴 수 있게 진행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 6월 5일 제주도내 언론사 및 협력기관 사전 모니터링 사회를 시작으로 애월, 김녕, 함덕, 조천, 한경, 성산, 하귀, 한림, 구좌 등지에서 상영회를 가졌다.

그리고 서문시장 상인의 문화 향유 및 문화 사업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서문공설시장만의 독특한 문화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서문극장’을 개관하고 ‘응답하라 1960’ 서문극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2월에는 한라도서관에서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도서관 속 시네마원정대 밖거리반’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주도내 중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자신만의 시선을 기반으로 초단편영화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직접 쓴 후, 각자 ‘원 썬 원 컷’을 찍어 결과물을 만들고 그 성과로 ‘원 썬 원 컷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3. 무료 영화 상영회

1) 영화문화예술센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생겨난 영화문화예술센터는 해를 거듭할수록 센터의 활용도가 다양해짐은 물론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는 주 6일 하루 1~2편 상영으로 늘려 운영한 결과 가족 관객을 비롯한 어린이 이용률이 꾸준한 증가 추세로 집계됐다. 2관의 대관

횃수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반면 1관의 관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상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도 실시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 지역 및 기관·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문화예술센터가 무료영화관의 한계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인구유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점점 늘어나는 여러 기관 및 민간단체의 다양한 상영회와 차별화하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기획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년간 영화 상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3년간 영화 상영 현황

연도	상영횃수 (1관)	관객수	대관횃수 (2관)	관객수	합계	
					운영	관객수
2011년	520	38,023	37	9,974	557	47,997
2012년	559	36,418	53	8,076	612	44,494
2013년	620	46,425	10	1,694	630	48,119

2) 각급 기관 및 단체 운영 현황

〈표 6〉 2013년 도내 무료 영화 상영회 현황

구분	제주도립 미술관	컴트루통합문화 예술교육기획	문화기획 PAN	제주도 문예회관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 횃수	3	10	10	7	36

〈표 6〉에서 보듯이 각급 기관과 단체의 무료 영화 상영회도 꾸준히 이뤄진 한 해였다. 다양한 기획을 통해 접근하기 쉬운 공간들에서 상영을 통해 인지도를 넓혀가고 단체별로 특성을 살린 상영회를 개최했다.

4. 영화제 개최

1) 제주영화제

만 3년 만에 부활을 알린 제9회 제주영화제는 2013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메가박스 제주와 제주시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열렸다. 전국 단위에서 출품된 200여 편의 작품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30편(극영화 22·애니메이션 4·다큐멘터리 4)이 본선에 진출해 수상을 겨뤘다.

13명의 관객심사단과 3명의 전문심사단이 본선 진출작에 대한 심사에 나섰고 최우수 작품상에 고희동 감독의 '9월이 지나면', 우수 작품상에 신현탁 감독의 '그레코로만'이 선정됐다. 최우수 작품상으로 지목된 '9월이 지나면'은 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감독의 작품이다. 공모전에 출품할 설계도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013년 7월 개최됐던 제12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은 바 있다. 심사위원 특별상은 고은진 감독의 '팔당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관객상은 김현규 감독의 '자네 아내와 여행을 가고 싶네'가 차지했다. 폐막식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의 폐막작 상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 여성영화제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한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가 '여성, 어깨를 맞대고 나서다'라는 주제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일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세계 여성 감독들의 다양한 경험과 시각으로 공유, 평등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 아래 기존 운영되던 익숙한 낯설 △여성, 길을 나서다 △소수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특별 섹션 △비경쟁 공모작 외에도 '남자, 여자를 말하다' 섹션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남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성 문제에도 주목하며 공감의 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다.

제주여성영화제 기간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11개국 29편의 '여성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났으며 감독과 대화와 애니메이션 체험, 영화의 여성지수를 알아보는 '벡델 테스트(Bechdel Test)', 포토존, '하간장터' 등이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여성영화제는 (사)제주여민회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3) 장애인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고은실)는 2013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국내 11개 작품, 해외 9개 작품 등 총 20개 작품을 상영했다.

이번 영화제는 국내 첫 장애인인권영화제로 시작, 해외 10개국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음에도 참여 대상이 한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2013년에는 '첫 조직위원회 출범'을 통해 내실화와 홍보 강화 등에 공을 들인 만큼 관객들의 호응이 높았다. 장애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인권을 다룬 영화들이 스크린에 내걸리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영화제에는 '일반 영화', '청소년 영화', 그리고 '어린이 영화'로 테마를 구분하고, 각자 기호에 맞춰 영화를 골라 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영화제 기간 문정석 마술공연팀과 난타 공연, 벨리댄스 공연 등이 펼쳐지며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4) 프랑스영화제

영화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을 지역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제주프랑스영화제가 ‘사랑해 파리’라는 주제를 들고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열렸다.

회를 거듭할수록 관객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낭만의 도시 파리에 대한 즐거운 기억과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들로 즐거운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표 7〉 제4회 제주프랑스영화제 개요

명칭	제4회 제주프랑스영화제
테마	사랑해 파리
일시	2013년 11월 15일~11월 17일
장소	영화문화예술센터
주최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내용	총 10편 상영(사랑을 부르는 파리, 마지막 지하철, 발렛, 아멜리에, 파리에서, 파리의 도둑고양이, 시작은 키스, 나넬 모차르트, 클로드 샤브롤의 내가 본 파리, 빨간 풍선)

5) 남원 꿈빛어린이영화제

남원초등학교가 주최하는 제주의 대표적 어린이 영화 축제인 제6회 남원 꿈빛어린이영화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2013년 여섯 번째로 열린 행사는 남원초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희망자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14일(목) 오후 7시 제남도서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5일 낮까지 남원초 어린이들이 만든 영화 14편과 영평초, 창천초에서 출품한 영화 4편을 합해 총 18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영화 꿈나무들의 재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를 상영하는 동안 상영관 옆 남원생활체육관 앞마당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영화제 분위기를 띄웠다. 6학년 학생들이 도우미가 되어 코너를 운영하면서 나도 영화평론가(엽서에 소감쓰기), 영화의 원리를 찾아서(조트로프 Zeotrope 만들기), 나도 영화감독(영화 촬영 체험하기), 매직플라이(매직 나는 나비 제작)와 함께 맛있는 솜사탕과 팝콘 제공 등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6)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JEBS) 영상제

제주대학교 영상제가 11회째를 맞으며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영상제에서 제주대학교

영상제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이 영상제는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의 창의력과 실험정신을 고취시켜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의미로 영상제의 작품 공모 주제를 ‘처음’으로 정하고 장르에 상관없이 10분 이내의 영상물로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5. 수상

1) 오명 감독의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

‘어이그 저 컷짓’, ‘뽕똥’, ‘이어도’에 이어 오명 감독이 1948년 제주4·3사건을 배경으로, 폭도로 몰린 주민들이 숨어 지내던 동굴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흑백영화로 그려냈다.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기존 영화들이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춘 반면 ‘지슬’은 순박한 주민들을 통해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영화 제목인 ‘지슬’은 제주어로 감자를 뜻하며 소울 푸드(soul food)라는 점에서 생존, 희망 등을 상징한다.

제주 출신 감독과 배우들이 제주에서 찍었으며, 배우들의 제주 사투리로 인해 한국어 자막이 들어갔다. 2013년 3월 1일 제주에서 먼저 개봉하였고 개봉 3주 만에 1만 5,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21일부터는 전국 개봉이 시작되었고, 다양성 영화로는 드물게 관객 14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영화 최초로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 중 하나인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열린 제19회 브줄아시아 국제영화제 장편영화 경쟁 부문 최고상인 황금수레바퀴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지슬’은 터키의 최대 영화 축제인 이스탄불영화제에서 인권영화 경쟁 부문에 출품되어 다른 경쟁작들에 비해 특히 주목받으며 심사위원 특별언급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한 해 동안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차례 수상과 국내 영화제에서 지속적인 주목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 한재림 감독의 ‘관상’

전작 ‘연애의 목적’과 ‘우아한 세계’를 통해 색다른 감성과 연출력을 인정받은 한재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매력적인 한 편의 영화로 탄생한 영화 ‘관상’은 왕의 자리가 위태로운 조선, 얼굴을 통해 앞날을 내다보는 천재 관상가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관상이라는 큰 기둥을 중심으로 시대를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의 광풍 속으로 뛰어든 어느 한 사람의 기구한 운명, 그리고 뜨거운 부성애, 각기 다른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욕망까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담아내며 2013년

하반기 극장가를 강타하였다. ‘관상’은 누적 관객 수 913만 4,114명을 기록하며 흥행성적 3위와 역대 대한민국의 영화 흥행 기록 13위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하며 한재림 감독이 흥행 감독으로 공고히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관상’은 제50회 대중상 6관왕과 제33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3관왕, 제34회 청룡영화상, 제5회 올해의 영화상, 제50회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주요 부문을 수상하며 흥행과 작품성에서 모두 인정받는 큰 성과를 냈다.

3) 남원초와 창천초

제주의 영화 명문교인 남원초(교장 현석종) 6학년 고유경 학생이 제작한 ‘나는 자유를 갈망한다’와 오지민 학생이 제작한 ‘남자답게 사는 법’이 10월 26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 시상식에서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장이 수여하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남원초는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에서 5년 연속으로 입상하며 ‘영화 명문’의 맥을 이어갔다.

또한 창천초등학교(교장 전효인) 영화반도 초등 부문 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2009년 방과 후 학교 영화반이 운영된 지 4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작품명은 ‘오늘의 숙제’로,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숙제를 어린이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표현했다. 연출을 맡은 창천초 6학년 오아령 학생이 대표로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장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청소년영화제는 ‘청소년이여! 꿈과 희망을 잡아라!’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 수많은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본선에 오른 10개 작품이 경합을 겨뤘다.

III. 나가며

그동안 제주는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변방으로 인식되어 왔다. 섬이라는 입지조건과 부족한 인프라가 항상 제주 문화예술 발전의 큰 걸림돌로 지적됐고 변변한 교육기관조차 없는 영상 분야는 그 격차가 더 크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전문 고급 기술을 배우기 위해 관심 있는 인재들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런데 근 10여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전문 장비들의 대중화와 디지털 영상 환경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영상을 찍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역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영화감독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제주 지역 역시 1990년대 시작된 영상문화의 태동기를 거쳐 20여 년이 지난 현재 가장 활발한 기운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제주는 더는 변방이 아니며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영상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2013년 한 해 동안 도내외적으로 보여주었다.

영상 관련 전문학과나 예중, 예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지금, 이미 여타 지역에 비하면 한참 뒤져 있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기초교육에서부터 영상 관련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책적으로 제도와 교육기관을 만들어야만 할 때이다.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초·중·고 예술교육 제도의 정착과 영상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당연히 제주도가 발 벗고 나서서 공약으로만 끝나는 첨단영상도시가 아닌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져가는 실천력이 담보되는 행정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영상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게 현재의 흐름이다. 따라잡기도 벅찬 현실 속에서 마냥 손 놓고 남들의 잔치만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수년째 제기되는 영상 인프라 구축과 제주지역만의 특성이 담긴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제주의 감독을 키워내기 위한 환경 구축에 집중할 때이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과 기술적인 보완을 위한 인프라까지 갖춰진다면 무한 경쟁의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도 충분한 경쟁력과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될 때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명제를 ‘지슬’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뛰어난 작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편람

2014 JEJU CULTURE & ARTS YEARBOOK

제주문예연감

본 편람 자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요청에 응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활동실적, 사진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및 제주도내 문화시설의 대관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작성하였으므로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학 단행본

장 르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소설	구소은	검은모래	은행나무출판사
소설	권무일	말-현마공신	평민사
소설	김현자	점자도서 술이의 노래	도서출판 청어
소설	문지효	남편이 돌아왔다	로코코
소설	양성호	탐라삼고전	파랑새미디어
소설	오순정	열하일기는 소설이다	북랩
소설	제주4·3평화재단	2013전국 청소년 4·3문예공모 수상작作品集	제주4·3평화재단
소설	조중연	탐라의 사생활	살창
소설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새	창작과 비평사
수필	강순희	천천히 그러나 항상 앞으로	수필과 비평사
수필	강영민	정해쇄언	이가출판사
수필	강영수	내아내는 해녀입니다	정은출판
수필	강창일	여의도에서 이어도를 꿈꾸다	도서출판 ZIDCOM
수필	고경길	창너머비치는 삶	문예운동사
수필	고성기	내마음의 연못	북하우스
수필	고평열	가던길 멈추고	고평열
수필	김가영	세월은 강물처럼	오름
수필	김택남	제주소년, 꿈을 투망하다	제민일보출판부
수필	문영호	문득바라본 마음속 풍경들	열림문화
수필	사비나	육지것의 제주살이	제주미디어㈜
수필	신구범	삼다수하르방 길을 묻다	제이앤앤
수필	오계아	유자나무의 노래	제주콩
수필	오민숙	콩잎에 자리짓	선우미디어
수필	오승휴	담장을 넘을까봐	수필과 비평사
수필	이영철	안나푸르나에서 산티아고까지	여행마인드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내안에 메아리	제주수필문학회
수필	허경자	그 섬이고 싶었네	문예운동사
수필	현임종	속보고 듣고 느낀대로	대동출판사
수필	현진숙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디딤돌
수필	현태용	노오란 바람이 부는 땅	오름
수필	현화진	설송산고	현화진
수필	현희형	99곡의 맥, 맥구름 올챙이	현희형
시	강상돈	쇠뚝구리는 아무데나 쇠뚝을 굴리지 않는다	고요아침
시	강연익	수평선으로 시간을 떠밀며	그림과 책
시	강은미	자벌레 보폭으로	한국문연
시	고훈식	곧건들읍씨	도서출판 국보
시	김경훈	낭푼밥 공동체	도서출판 각
시	김관옥	우석헌집	김관옥
시	김광렬	그리움에는 바퀴가 달려있다	푸른사상

장 르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시	김도명	허튼소리	도서출판 각
시	김동주	총으로 글을 쓸 수는 없지 않은가	도서출판 각
시	김병심	신, 탐라순력도	도서출판 각
시	김병심	돌아와요 당신이니까	도서출판 각
시	김성수	눈으로 먹는 밥	모아드림
시	김시원	나의 航海抄	깊은샘
시	김양숙	기동서방 길들이기	나무아래서
시	김인택	자연의 색은 순수하다	해암
시	문무병	11월엔 그냥 젖고싶어	도서출판 각
시	박은희	춤추는 옛장수	bookin
시	변성언	부드러운 힘	책나무출판사
시	변재천	흐르는 세월, 고독처럼	성민출판
시	서안나	립스틱발달사	천년의 시작
시	신례초 전교생	저, 여기있어요	신례초등학교
시	양순진	자작나무카페	오감도
시	우도면사무소,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제주문인협회	해뜨는 섬, 우도	우도면사무소, 우도면주민 자치위원회, 제주문인협회
시	이청리	이어도아리랑	이름신서
시	이청리	다산 정약용	이름신서
시	장방영	내어둠의 바다	다층
시	조선희	수국꽃편지	우리글
시	조선희	빛바랜 사진처럼	한림
시	한기팔	순비기꽃	서정시학
시	한문용	서우봉 노래	창조문학사
시	한창원	협궐열차가 지고 간 하루	다인아트
시	한희정	꽃은 줍는 13월	동학사
시	해림	꽃에게 말하다	시와소금
시	현상길	올레소야곡	풀잎
시	현택훈	남방큰돌고래	한국문연
시조	김광원	패랭이 꽃	문예연구사
시조	김윤숙 외 139명	그 섬에 가고싶다	제주시조시인협회
시조	제주시조문학회	제주시조	제주시조문학회
시조	한희정	꽃을 줍는 13월	동학사
시조	홍성운	오래된 숯가마	푸른사상
아동	김은중	특명 이어도를 지켜라	상수리
아동	박재형	박재형 동화선집	지만지
아동	오승주	책놀이책	이야기나무
아동	오지연	알을 품은 나무	푸른책들
아동	장영주	민족전래동화 인물편, 호랑이편	소년문학사
아동	황금녀	고른배기	도서출판 각
기타	4·3도민연대	제주4·3신문자료모음 (제주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4·3도민연대

장 르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기타	박찬식	1901 제주민란 연구-근대외래문화와 토착문화갈등	도서출판 각
기타	애월 귀일면 감시회	감시안록	애월 귀일면 감시회
기타	우당도서관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견문록	우당도서관
기타	이영권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	한울아카데미
기타	제주4·3연구소	빌레못굴, 그 끝없는 어둠속에서	한울
기타	제주교육박물관	역해 탐라빈홍록	제주교육박물관
기타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의 바다, 땅, 그리고 사람	제주대학교 박물관
기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기타	제주도, 한국문화원연 합회제주지회	제주민속사전	제주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지회
기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통사	JDI제주발전연구원
기타	조성운	창가학과와 재일한국인	한울
기타	하귀농협	2013 최신가례편람	하귀농업협동조합
기타	한라도서관	제주문헌목록집	한라도서관
기타	홍순만	제주의 碑	제주문화
기타	고영철	사회비평집-구라	도서출판 신우
기타	김이중	표준 우리말 바른 우리말	제주문화
기타	박경훈	제주담론 1	도서출판 각
기타	조명철	허와실의 두얼굴	한국아카이브
기타	(사)제주도 한국서예사랑모임	제주사람 걷는 말 2	(사)제주도 한국서예사랑모임
기타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기타	오안일	옛 제주인의 샘 3집	서울문화사
기타	제주어센터	"제주어구술자료 총서 5권 제주시애월읍 수산마을 홍진규 할머니 생애구술 앞머애랑 들어나오라 뒷머애랑 나고나 가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기타	진성기	한라산 옛말 (1)	디딤돌
기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리지	한라일보
기타	김순이, 왕염	제주문화원-제주신화집 중국어판	제주문화원
기타	김철수	둘레길.올레길에서 볼 수있는 제주도의 약용식물	늘
기타	문무병	설문대할망 손가락	도서출판 각
기타	서귀포시	희망서귀포 통합본	서귀포시
기타	이광진	제주도의 울림을 찾아서	광문당
기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기타	제주도, 한국문화원 연합회제주지회	추자면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생활문화조사보고서 II	제주문화원
기타	현혜경	제주 먹을거리 풍경	제주발전연구원
희곡	장일홍	희곡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연극과 인간

문학 문예지 · 동인지

장 르	단체명	도서명
수필	녹담수필문학회	녹담수필 12집
수필	동인脈	수필집 脈 2013 7집
수필	백록수필문학회	백록수필 13호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9회 수필문학의 향연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 20집
수필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여류수필 12집
시	고광문학동인회	물고기 구름이 비늘을 벗는 무렵 3집
시	다층문학동인	녹색손톱(통권 63호, 2013년 하반기호)
시	돌과바람	돌담을 휘감던 바람은 3집
시조	작은 詩앗.채송화	시인의 견적 13호
시조	젊은시조문학회	시조갤러리 31호
시조	젊은시조문학회	시조갤러리 32호
시조	젊은시조문학회	시조갤러리 33호
시조	제주시조문학회	제주시조 20호
시조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시조 21호
종합	구좌문학회	동녘에 이는 바람 7호
종합	굴림문학회	굴림문학 22집
종합	다층	계간문에 다층 통권57호(2013년봄호)
종합	다층	계간문에 다층 통권58호(2013년여름호)
종합	다층	계간문에 다층 통권59호(2013년가을호)
종합	다층	계간문에 다층 통권60호(2013년겨울호)
종합	동녘도서관	글 따는 손 6호
종합	서귀포기적의 도서관	지혜의 오름 창간호
종합	서귀포문인협회	서귀포문학 24집
종합	서귀포학생문화원 보람독서회	글내음 19호
종합	성산일출도서관 독서회	해오름 글허벅 2호
종합	성산포문학회	성산포문학 4집
종합	영주문학회	영주문학 2호
종합	정드리문학회	노을에 놓다 4집
종합	제주동서문학회	동서문학 18집
종합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 59집
종합	제주문화원	제주문화 19호
종합	제주문화포럼	문화와 현실 16호
종합	제주아동문학협회	팽나무가 하는 말 32집
종합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40호
종합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41호
종합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43호
종합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서귀포지회	서귀포예술 9호
종합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서귀포지회	서귀포예술 10호

장르	단체명	도서명
종합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제주예총 25호
종합	한림읍 책읽는 주부들의 모임	트멍 3호
종합	현대문예 제주작가회	제주현대문예 4집
기타	불교문인협회	해향 창간호
기타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 논술연구회	느영나영 4호
기타	제주4·3평화재단	4·3과 평화 12호
기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42호
기타	제주의 겨울노래	제주시사랑회

문학 등단

장르	성명	내용
수필	강덕수	월간 '한국시' 2013년 8월호 수필부문 신인작품상 당선 / 당선작 '고향에 진 빛' 등 3편
수필	강성균	현대문예 추천문학상 수필 부문 당선 / 당선작 '어머니에게 아들은 무엇인가'
수필	곽한나	문학시대 2013년 봄호 당선 / 당선작 '풍경 속의 풍경'
수필	은희	현대수필 2013 여름호 신인상 당선 / 당선작 '언어에 대한 단상'
수필	한복섭	대한문학 2013 가을호(통권43호) 수필부문 신인문학상 당선 / 당선작 '아내의 생일' 등 2편
수필	현정희	수필과비평 제146호 신인상 당선 / 당선작 '조약돌의 사상'
시	김대술	첫시집 발간 / 시집 '바다의 푸른 눈동자'
시	김철수	문예운동 2013 봄호(117호) 시 부문 당선 / 당선작 '심연의 다리' 등 3편
시	박은희	첫시집 발간 / 시집 '춤추는 옛장수'
시	신태희	제주문인협회 2013년 신인문학상 당선 / 당선작 '바늘귀이야기' 등 4편
시	오상석	문학광장 9,10월호 신인문학상 당선 / 당선작 '달팽이' 등 3편

문학 수상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강만익	2013년 문화관광체육부 역사분야 우수학술도서 선정	일제시기 목장조합 연구	문화관광체육부
강방영	제주문학상 수상	내어둠의 바다	제주문인협회
강순복	제3회 서귀포문학상 수상	끼궂꼬 직끈꿈	서귀포문인협회
구소은	제1회 제주4·3평화문학상 소설 분야 당선	검은모래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김광수	제7회 한국신문학상 시부문 한국신문학대상 수상	울타리 안팎 풍경	한국신문학인협회
김민정	2013 제주도민 독후감 대회 대상 수상	-	한라도서관
김옥자	제249회 아동문예문학상 당선	연과 바람 등 3편	아동문예
김은주	제 18회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대상 (통일부장관상) 수상	새터민은 같은 핏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일관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김품창, 장수명	통돼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서안나	시_상반기 우수문학도서 선정	립스틱 발달사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손경희	2013 제7회 제주로케이션 중,단편 시나리오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외로운 돌	(사)제주영상위원회
송두영	제22회제주시조지상백일장 시상식 일반부 선정 (이하 생략)	물메둑길에서	제주시조시인협회
오예지	훈민정음 반포 567돌 한글날 기념 제49회 전도 중·고등학생 문학백일장 산문부 최우수상 수상 (이하생략)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윤지애	문패가 있는 우리마을 시낭송 대회 최우수상 수상	-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
장영주	제1회 박화목 아동문학상 수상	찰떡우정	한국아동문화회
조옥순	제2회 백두산 문학상 수상	문학발전 기여와 관련한 수상	백두산 문인협회, 계간 백두산 문학
현기영	제12회 아름다운 작가상 수상자 선정	순이 삼촌 등	(사)한국작가회의 _젊은작가포럼
현길언	소설_상반기 우수문학도서 선정	섬의 여인, 김만덕 -꿈은 누가꾸는가?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현길언	2013년 제2회 녹색문학상 수상	숲의 왕국	(사)한국 산림문학회
현수미	제33회 백록문학상	경마장 밑바닥	제주대학교
현택훈	제1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 분야 당선	곤을동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문학 행사

행사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여름 수필 캠프) 한여름의 풍류, 수필의 향기를 찾아서	우도 일원	백록수필문학회
14회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칠십리공원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2013 한국청소년 시낭송 축제 한마당	대기고 송암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시인협회
2013 가을 야외수필교실 '가을바람에 수필을 띄우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백록수필문학회
2013 서원탐방문학기행	전북~충남일대 서원	백록수필문학회
2013 제주문학동인 축제	산지천 분수광장	제주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3 포엠콘서트 '거리에 흐르는 가을의 시'	산지천 분수광장 야외무대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2013년 제주책축제	신산공원,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중등국어교육연구회, 제주초등국어교과교육연구회
89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행사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8회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 학생 시 낭송대회 '시사랑 밝은마음'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홀	제주시사랑회
90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91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92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93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94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95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96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97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98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99회 詩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산지천 해상호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詩 사랑회
김경훈의 4·3문학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민족예술인총연합
꽃의 마음을 읽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야외공연장	파란나비
나의삶, 나의 철학	서유당 인문학 작은도서관	제주철학사랑방
내안에 메아리 발간회 9집	하니관광호텔 연회장	제주수필문학회
노자에게 길을 묻다	제주치과실험 회의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철학사랑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동인脈 워크숍	오션 베스트빌	동인脈
등단 및 출판기념 축하 시낭송회	제주문화원 강당	제주문화원 문예창작반 19기
문학의 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문학동아리 화흔
백록수필 14집 출판기념회	그랜드호텔 대연회장	백록수필문학회
봄길따라 수필과 동행하다	송악산, 대정향교, 추사기념관	백록수필문학회
선진문화유적지 탐방	충북 일원	제주수필문학회
설문대 문화의날 - 아름다운책축제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문화센터
세상과 통하는 인문학 특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송악어머니 독서회 문학탐방행사	박경리기념관 외	제주 송악도서관

행사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시낭송회 100회 기념 '제주의 겨울을 노래하다'	한라도서관 홀	제주시사랑회
시를 품은 오일장	모슬포 오일장	제주시사랑회
시의 향기를 찾아서	성산 오정개해안	제주문인협회
신년맞이 글밭풍경전	제주대학교병원 로비	현대문예제주작가회
옴비토나의 북콘서트	달리도서관	달리도서관
우리고장작가 독후감 시상식 및 제주아동문학의 밤	제주문예회관	제주아동문학협회
우영팻티 송키 발간기념회	제주사랑방	현대문예제주작가회
이생진 시인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의 밤	이중섭생가	정방동 주민센터, 현대문예제주작가회
전국지역문학인 교류대회	전남화순	한국지역문학인협회, 현대문예제주작가회
전국학술대회 '다문화와 한국어'	제주대 진양관 3층 제주문화원형체험관	영주어문학회, 국어문화원
정기총회 및 제21대 회장 취임식	호텔하니크라운 별관 2층 대연회장	한국문인협회
정례회 개최	행복한 차실	현대문예제주작가회
정례회 및 등단환영회	제주사랑방	현대문예제주작가회
제1회 의녀 홍윤애 추모문학제	애월 유슈암리 의녀 홍윤애 묘	제주문인협회, 정드리문학회
제52회 탐라문화제 우리고장 작가 창작집 독후감 시상식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도-모리셔스 문학교류의 밤	Audi Zentrum, Redit Mauritius	국제PEN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제주문학 58집 발간기념회	호텔하니크라운 별관 연회장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수필 제20집 발간 기념회	하니관광호텔 연회장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문학회 정기총회 및 회장선출식	-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신화, 문화유적탐사 및 수필낭송회	북촌너븐송이 4·3유적지 외 6곳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올레에서 부르는 시의 노래	금능으뜸원해변 잔디광장	한수풀문학회
제주이주정착민(입도조)을 위한 제주문화 바로알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원화전시 및 북콘서트 '제주그림책 훈디 허게마썸'	각북카페	제주그림책연구회
찾아가는 아동문학교실	백록초등학교	제주아동문학협회
철학과 철학사랑방의 나아갈 길	서유당 인문학 작은도서관	제주철학사랑방

행사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청소년 인문학 여름캠프 인문학 징검다리 '나의 생각을 말하다'	제주시청소년 수련관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주문화포럼
평생교육 수필축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 한라터	백록수필문학회
행복한 삶을 위한 철학	서유당 인문학 작은도서관	제주철학사랑방

문학 공모

단 체	공모명	모집단위 및 응모자격
계간문예 <다층>	다층신인상 공모	전국(기성포함)
나는기자다	영주신춘문예작품 공모	전국(기성포함)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전국(기성포함)
제주매일신문	제주평화문학상 공모	전국(기성포함)
제주문인협회	제주신인문학상 공모	제주, 제주연고(미등단 신인)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신인상 공모	제주, 제주연고(미등단 신인)
한라일보	신춘한라문예작품공모	전국(기성포함)

미술 도내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1.01~01.03	현덕식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현덕식
01.03~01.07	천치인 이형기도자조형전	제주도문예회관	천치인 이형기
01.04~01.18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서귀포시
01.06~01.12	그룹선 회원전	연갤러리	그룹선회
01.10~01.15	다님전	제주도문예회관	다님회
01.13~01.17	박성진전	연갤러리	박성진
01.15~01.31	강문실 전통보자기전	갤러리 카페 올리브	강문실
01.16~01.21	제4회 이음전	제주도문예회관	이음회
01.16~02.17	7인7색전	안나의 커피 이야기	김규승 계남두 초록누룽지 정동근 강금실 권오준 김기덕
01.18~01.24	김규승전	연갤러리	김규승
01.22~01.25	강부연 작가 삼무일기전	이중섭미술관(창작)	강부연
01.22~01.27	출향 재미동문전	제주도문예회관	재미동문회
01.23~01.27	현대여성 미술협회 제주도지부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도지부
01.23~03.16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이야기-미혼모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28~02.01	제11회 수크래프트전	제주도문예회관	수크래프트회
01.28~02.02	3인의 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현영옥
02.02~02.09	박동심 서양화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박동심
02.02~03.19	2013 신년특별기획 「새벽·국토·자연」 판화展	제주현대미술관	강승희, 김억, 김준권
02.03~02.08	현경희 도예전	연갤러리	현경희
02.08~04.30	2013 소장품전-정, 사랑을 느끼는 마음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02.11~02.16	컬트 다소니전	제주도문예회관	컬트 다소니회
02.17~02.23	김성환 서양화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서양화가 김성환
02.22~02.28	제11회 열공갤러리 초대전	열공갤러리	허정숙
02.22~02.28	이복자 헤어전시	연갤러리	이복자
02.22~03.03	김정하 시선이 머물다전	현인갤러리	김정하
02.23~02.28	제주3인전 “삼다이 이야기”	제주도문예회관	제주3인회
02.23~03.12	나는 작가가 아니다.	갤러리노리	배금아 정희옥 한명철
02.24~02.28	고성기 시 김후림 연을 타고 날다 전	제주학생문화원	고성기 김후림
02.27~04.29	꽃피고 새 울다 展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03.01~03.06	조영희 소장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소장자 조영희
03.04~12.31	제주 참 바당돌 전시회	아쿠아플라넷제주	아쿠아플라넷
03.05~03.17	구명본 '술, 숲을 떠나다'전	현인갤러리	구명본
03.07~04.02	연갤러리 특별기획 판매전 -그림에 시선이 머물다	연갤러리	연갤러리
03.11~06.08	고민철 초대전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고민철
03.13~03.19	소장작품 서양화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문화예술진흥원
03.15~05.05	유근상 생명의 악동전	오백장군갤러리	유근상
03.17~03.22	김양순, 1.엄마 2.고향의향기	이중섭미술관(창작)	김양순
03.18~03.22	제12회 미술동인 “집” 정기전	제주도문예회관	미술동인 “집”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3.19~03.31	조도연 자연과의 교감	현인갤러리	조도연
03.19~07.14	세계미술거장전-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3.23~03.27	제40회 백록담전	제주도문예회관	백록담회
03.23~04.23	한국의 현대미술	제주현대미술관	김숙진 김영재 민경갑 박광진 엄태정 오승우 이숙자 이영찬 조문자 황용엽
03.24~03.29	유영민 서각 개인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유영민
03.26~05.06	니시가와유키오 초대전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03.27~04.02	제주수채화협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수채화협회
03.28~04.01	한라미술인협회 정기전	제주도문예회관	한라미술인협회
03.30~05.30	제평서각회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제평서각회
04.01~09.30	제17회 김영훈 특별전 '흙으로 빚어낸 제주이야기'	제주민속촌	김영훈
04.03~04.09	6인의 작가(도외작가) 회원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4.04~05.02	박유승전	성안미술관	박유승
04.05~04.30	허문희 개인전 비밀의정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허문희
04.06~06.02	심미경 개인전	카멜리아힐	심미경
04.08~04.12	강동균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강동균
04.09~04.21	김병구 '책이야기'전	현인갤러리	김병구
04.11~04.19	연갤러리 기획 이창희 초대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4.12~04.30	지역작가 초대전-적중풍동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04.13~04.17	제11회 섬 여백전	제주도문예회관	섬 · 여백회
04.18~04.21	박현영 제4회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박현영
04.19~04.28	최석운 초대전	갤러리노리	최석운
04.20~04.27	김소엽 도예전	세심재갤러리	김소엽
04.22~05.07	연갤러리 강명순 특별전 전통 닥나무 한지 시연, 체험	연갤러리	연갤러리
04.23~05.05	김효선 초대전	현인갤러리	김효선
04.25~05.31	제20회 4·3미술제 쉼 - 여러 개의 시선들	4·3평화기념관 예술전시실	탐라미술인협회
04.27~05.01	홍순용 수채화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서양화가 홍순용
04.27~06.18	Beyond Realism - "그림 입니까?" 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5.02~05.06	제72회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5.02~05.31	조영자 일상에 이는 바람의 노래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조영자
05.04~05.09	홍순용 수채화전	이중섭미술관(창작)	홍순용
05.04~05.24	말전	갤러리노리	저청초·중학교, 병설 유치원
05.07~05.12	박유승 서양화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서양화가 박유승
05.07~05.13	곽경태 도예전	세심재갤러리	곽경태
05.08~05.14	정희옥 부엉이 개인전	연갤러리	정희옥
05.08~05.27	이베리아반도 대장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5.10~05.16	제15회 서귀포미술협회 회원전	기당미술관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05.10~06.02	최미남 개인전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최미남
05.12~05.16	제41회 제대미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미술학부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5.13~05.18	제주우수청년작가전	제주도문예회관	김동원의 2명
05.15~05.21	연갤러리 소장판매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5.16~06.00	이철수 판화전	오백장군갤러리	이철수
05.17~05.22	청암 신철수 한국화전	제주도문예회관	청암 신철수
05.18~05.26	이미영 도예가 개인전	성안미술관	이미영
05.21~07.31	김소라 개인전	매너레스토랑	김소라
05.22~05.28	송부미 첫 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송부미
05.23~05.29	제주우수청년작가 신승훈 초청전	제주도문예회관	신승훈
05.25~05.31	신주옥 개인전	고래가 될 카페	신주옥
05.30~06.03	제주섬유예술의 새로운 발견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섬유예술가회
06.01~06.13	최정미 조각전	이중섬미술관(창작)	최정미
06.01~06.21	연갤러리 기획 소장전 “특별한 선물”	연갤러리	연갤러리
06.01~06.30	2013 아트창고 레지던스 입주작가 오프닝전	문화공간 시선 · 쉼	2013 아트창고 레지던스 입주작가
06.03~06.15	설문대센터 수강생 작품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센터 수강생
06.05~06.13	신지숙 개인전	아트스페이스씨	신지숙
06.08~06.28	이한윤 도예전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이한윤
06.08~07.07	신수희 개인전	갤러리노리	신수희
06.14~06.19	현대사생회 제주초청전	제주도문예회관	(사)현대사생회
06.15~06.21	최형양 개인전	이중섬미술관(창작)	최형양
06.15~06.30	사실과 추상의 이중주	현인갤러리	이규홍
06.17~06.29	제4회 제주생활수예전시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생활수예연구회
06.17~07.17	문화중 소장품전-한경유예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06.20~06.22	제3회 한 중 교수·학생 디자인 교류 작품전시회	신산갤러리	제주관광대학교 인테리어건축과
06.20~06.24	제43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공모전	제주도문예회관	도청 기업사랑과
06.22~06.28	연갤러리 신진작가 기획 김소라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6.22~07.02	제주현대미술관 소장작품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6.22~07.11	서귀포 서예 초대작가 협의회전	이중섬미술관(창작)	현수연
06.26~06.30	제주판화가협회 정기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판화가협회
06.30~07.05	난곡 문춘심 서화전	제주도문예회관	난곡 문춘심
07.01~07.05	제12회 제주도예가회정기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예가회
07.01~07.07	연갤러리 신진작가 기획 서성봉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7.03~07.09	김성오 탐라몽유도 꿈 속에서 노닐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성오
07.06~07.09	제17회 제주디자인협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디자인협회
07.06~07.12	제11회 고경희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화가 고경희
07.06~09.03	도홍록 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7.09~07.23	진정숙 개인전	연갤러리	진정숙
07.10~07.17	김남숙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김남숙
07.13~07.18	제20회 제주청년작가전	제주도문예회관	문화예술진흥원
07.13~07.25	공예공방수강생 작품전	이중섬미술관(창작)	서귀포시
07.18~07.24	양근석 수채화전	제주도문예회관	수채화가 양근석
07.19~09.29	달콤한 유혹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7.19~10.31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전	이중섭미술관	김기대 김성란 변금윤 양재열 유승현 이호인 전종철
07.20~07.30	조기섭 초대전 '그 섬, 이 시간'	문화공간 시선	아트창고
07.24~08.18	당신의 뜨락은 - 소장작품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7.25~07.31	연갤러리 신진작가 기획 고난영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7.27~07.31	이명철 제3회 개인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이명철
07.27~08.01	힐링도예출품작전	이중섭미술관(창작)	-
07.30~08.04	송창훈 조각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송창훈
08.01~08.07	김애란 개인전	연갤러리	김애란
08.01~08.29	지역여성작가발굴지원전 기억의 화원-장경숙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8.01~08.30	제3회 임성호 개인전	초계미술관	임성호
08.01~08.31	강미선 개인전	갤러리 카페 올리브	강미선
08.04~08.15	김영중 작품전	별방갤러리	김영중
08.05~08.09	제10회제주시각디자인정기협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시각디자인협회
08.06~12.01	<house & home : 나를 찾다>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8.07~08.09	정우철 어린이 후원전	고래가 될 카페	정우철
08.08~08.14	한국화협회전	연갤러리	한국화협회
08.08~08.17	제인 진 카이젠	아트스페이스씨	덴마크 예술위원회, 아트스페이스씨
08.10~08.15	출향 제주작가 초청전	제주도문예회관	에뜨알
08.10~08.15	한유경, The story of Trees	이중섭미술관(창작)	한유경
08.10~08.30	윤돈휘 개인전	문화공간 양	윤돈휘
08.10~09.01	부지현 개인전	갤러리노리	부지현
08.15~08.21	제6회 김요섭 개인전	절물휴양림	김요섭
08.15~08.21	현용휴 개인전	연갤러리	현용휴
08.16~10.20	김영중 기획전	해녀박물관	김영중
08.17~08.31	제4회 찾아가는 조각전	문화공간 시선·쉼	제주조각가협회
08.17~09.05	제4회 사계 정기전	이중섭미술관(창작)	-
08.21~08.26	제8회 조윤득 도자·조형전	제주도문예회관	조각가 조윤득
08.22~08.28	제16회 형전	연갤러리	형회
08.24~10.27	제2회 권기수 개인전	박여숙 화랑	권기수
08.27~09.01	제3회 정진숙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정진숙
08.27~09.11	양계탁 초대전	현인갤러리	양계탁
08.29~09.03	고용석 네 번째 개인전 - 생활도예전-	연갤러리	고용석
08.30~09.03	박동규, 주상림 한·중 서화 양인전	제주도문예회관	KCTV제주방송
09.02~09.06	제15회 일구구오전	제주도문예회관	일구구오회
09.02~09.30	센터 문화동아리 연합전시 '다정다감'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9.04~09.10	김선희 개인전	연갤러리	김선희
09.04~09.29	조영자 작품초대전	성안미술관	조영자
09.05~12.31	장리석 화백의 감각적 시선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9.07~09.13	제3회 마주보기 그림동화회 원화전	이중섭미술관(창작)	마주보기 그림동화회
09.07~09.24	유종욱 도예가 개인전	갤러리노리	유종욱
09.07~10.14	규당 조종숙 작품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9.08~09.12	제22회제대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졸업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문화조형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9.10~10.10	KBS제주 김택화 작품전	제주도립미술관	KBS제주방송총국
09.10~11.03	기획 특별전 한라산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9.11~09.17	김영민, 진주아 도자기&목공 전시회 -우리부부의 사는 이야기-	연갤러리	김영민 진주아
09.11~09.30	김병수컬렉션 기증전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09.12~09.20	강승철 도예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강승철
09.14~09.26	제27회 산남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산남회
09.21~09.25	연갤러리가 선정한 신진청년작가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9.24~10.13	장현승 섬유예술가 작품전	제주돌문화공원	장현승
09.26~09.30	자파리전	연갤러리	자파리회
09.27~10.07	임종만 전기환 정착석 아름다운 동행전	현인갤러리	임종만 전기환 정착석
09.28~10.03	제주 여성미술제	제주도문예회관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
09.28~10.03	제남서각회(강복순-부시장님)	이중섭미술관(창작)	제남서각회
09.28~10.05	제주옹기전	담화헌	담화헌
10.01~10.11	김부곤 도예전	연갤러리	김부곤
10.01~10.11	고행보 도예전	이중섭미술관(창작)	고행보
10.02~10.14	홍익대 서양화과 동기전 '르·누보'	기당미술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64학번 동기생
10.04~10.08	한·중 국제미술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
10.04~10.31	2013여성테마전시 여성작가6인전 '여풍열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04~11.30	검여 유희강-칼처럼 돌처럼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10.05~10.10	毛 자파리	이중섭미술관(창작)	-
10.05~10.12	2013 제주만화작가대회전	제주시 교육박물관	제주만화작가회
10.05~12.15	아이들의 보물창고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11~10.18	제12회 열공갤러리 초대전 이성중	열공갤러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10.12~10.18	고행보 도예전	신산갤러리	고행보
10.12~10.18	오소민 조각전	연갤러리	오소민
10.12~10.19	제3회 조수비엔날레	조수문화마당	조수비엔날레 운영위
10.12~12.15	허문희 초대전	초계미술관	허문희
10.16~10.20	문향전	세심재갤러리	취운향당
10.16~10.29	원터가든 일본현대미술의 마이크로팝적 상상력 전개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17~10.19	제31회 한국서각협회전	신산갤러리	서각협회
10.18~10.24	임영수, 서각작품전시회	이중섭미술관(창작)	한국신장장애인제주협회
10.19~02.28	니콜과 티에리 폴크 클레르 라도전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10.19~10.25	연갤러리 5주년 기획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0.19~12.17	중국 현대미술 거장 평정지에 기획 초대展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0.19~12.30	시각적 사유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10.20~10.25	제3회 유창훈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화가 유창훈
10.20~10.25	오창윤 11회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오창윤
10.26~10.31	강은정 한국화전	제주도문예회관	강은정
10.26~10.31	김대규 10폭 병풍전시회	이중섭미술관(창작)	김대규
10.26~11.01	정현영 개인전	문화공간 양	정현영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10.26~11.01	백주순 개인전	연갤러리	백주순
10.31~11.30	바라보며, 쉬어가다	한라도서관 전시실	일구구오회
11.01~11.06	제24회 제주조각가협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조각가협회
11.02~11.07	제1회 은가비 회원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은가비회
11.02~11.11	고보형 개인전	연갤러리	고보형
11.02~11.15	김수연 개인전	문화공간 양	김수연
11.08~11.29	"예술단체 발굴·지원전 '제주옹기, 여성의 삶을 담다' 제16회 제주옹기디자인협회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09~11.14	안현일 작품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안현일
11.09~11.26	중국작가 조우치전	갤러리노리	조우치
11.11~11.17	대한민국 명품 강진청자 제주에 온다	신산갤러리	강진청자박물관 강진청자협동조합
11.11~12.14	개관 42주년 기념 명품 판화 특별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1.12~11.17	고예현 서양화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고예현
11.12~11.18	문창배 개인전	연갤러리	문창배
11.16~11.21	삼무서회 회원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삼무서회
11.17~11.22	제주대학교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졸업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 미술학부
11.19~11.25	김지영 개인전	연갤러리	김지영
11.20~12.20	임성호 개인전	카페갤러리 모드락	임성호
11.21~12.04	박석유 개인전	서귀포 갤러리 하루	박석유
11.23~11.27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주초청전	제주도문예회관	(사)한국전업 미술가협회
11.23~11.28	이름	이중섭미술관(창작)	
11.23~12.22	제5회 환경조각전	삼달리 일출랜드	박금옥
11.26~12.02	김성희 도예전	연갤러리	김성희
11.29~12.03	제23회 제주대학교 멀티 미디어 디자인전공졸업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 산업 디자인학부멀티
11.30~12.05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공예공방 전시회	이중섭미술관(창작)	서귀포시
11.30~12.20	정찬일 개인전	문화공간 양	정찬일
12.03~12.09	김수현 도예전	연갤러리	김수현
12.03~12.25	제16주기 소암선생 추모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12.04~12.09	박성진 서양화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서양화가 박성진
12.04~12.09	이창희 개인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화가 이창희
12.06~12.12	서귀포교육발전기금모금 미술품 판매전	이중섭미술관(창작)	서귀포시
12.10~12.14	제2회 전통문화불교 장엄 지화전	제주도문예회관	한창훈(지화스님)
12.10~12.16	김지은 판화전	연갤러리	김지은
12.11~12.31	은지화 신소장품전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12.13~02.09	2012 & 2013 신소장품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13~02.16	교과서 속 현대미술을 만나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13~12.20	제라한 예술공작 프로젝트 통합전시회	가시리	가시리 창작지원센터예술인회
12.14~12.17	강주현 시간을 머금은 드로잉	문화곳간 시선·웹	강주현
12.14~12.20	‘송창’ 작가 그룹전	성안미술관	중국 송창 예술인 마을 작가 14명
12.15~12.22	2013keaf 아카이브전	이중섭미술관(창작)	
12.15~12.30	고영만 · 고재만 초대전	현인갤러리	고영만 고재만
12.17~12.23	송은실 섬유디자인전	연갤러리	송은실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12.18~12.20	강주현 시간을 머금은 드로잉	아트 스페이스 C	강주현
12.20~01.13	제주그림책연구회 원화전	한라도서관 전시실	제주그림책연구회
12.21~01.07	탐라미술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ISLAND 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2.22~01.29	송년특별기획 여성작가展	제주현대미술관	양미경, 이인옥, 차미정
12.22~03.02	다빈치 노트의 비밀을 풀다 2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23~12.28	몽지학당 전각전	이중섭미술관(창작)	김구해
12.24~12.30	연갤러리 기획 강혜경, 권오준 초대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2.24~12.31	제2회 강태환 개인전	초계미술관	강태환
12.26~12.30	제12회 연전	제주도문예회관	연희
12.29~01.05	김연실전	연갤러리	김연실
12.31~01.04	7인7색 바람이불다전	제주도문예회관	김규승

미술 도외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2.02~02.17	문봉선<독야청청-천세를 보다>전	서울미술관	문봉선
03.27~04.21	강요배 개인전	서울 학교재 갤러리	강요배
04.23~04.30	안정희 개인전	인사동 갤러리 서호	안정희
05.16~06.02	전경선, 허문희 2인전	부산 맥화랑	부산 맥화랑
05.22~05.28	한중옥 크레파스전	서울 갤러리 그림손	한중옥
06.22~07.21	김옥선, 사진의 재발견(리-포토그래피)전	블루스퀘어 네모	블루스퀘어 네모
08.15~08.26	강요배, <풍경-그림을 그린다는 것>3인전	부산 신세계갤러리	부산 신세계갤러리
09.25~10.01	제11회 홍진숙 개인전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홍진숙
09.26~10.02	제1회 김유림 개인전	강원도 원주시 아라 갤러리	김유림
10.05~11.03	제9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시관	양상철
10.20~11.10	제6회 고권개인전-커가는 섬	서울 그리다갤러리	그리다갤러리
10.25~11.10	이명복 초대전	서울 갤러리 자작나무	이명복
11.07~11.13	김미령 목우구상미술제 전시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김미령
11.12~02.02	문봉선, 대숲에 부는 바람, 풍죽전 출품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12.24~12.31	박수영 개인전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박수영

미술 해외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 소	국가	주최 및 주관
03.14~03.17	홍콩 어포더블 아트페어 참가(장은철 작가)	홍콩 컨벤션센터	홍콩	홍콩 어포더블 아트페어
03.28~04.01	아트 파리 아트페어 참가(양경식 교수)	프랑스 파리	프랑스	아트 파리 아트페어
06.16~06.22	제주도의 바람 일본에 분다	일본 구로자키 북구주시립미술관	일본	니시가와 유키오의 제자
09.19~09.24	제주웅기	일본 오사카	일본	담화회

미술 수상

일자	장르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08.21	한국화	김선희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꽃자왈 소견1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서양화	박주애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자명당-project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공예	양형석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섬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판화	변세희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upside-down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한국화	박보경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우수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한국화	장응호 지예슬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특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한국화	이하늘 외 3명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서양화	박동심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우수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서양화	김수연 외 7명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특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서양화	오익숙 외 11명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조각	조정숙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우수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조각	김성국 김명수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특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조각	김충훈 박철휘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판화	이연정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우수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판화	현유정 외 4명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특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판화	지예슬 외 2명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공예	이미영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우수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공예	박미선 외 3명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특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공예	김영순 외 5명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디자인	송관중 외 1팀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선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미술 행사

일자	장르	행사명	장소	주관처
02.19~02.23	미술	탐미협 오키나와 탐방 / 평가회	오키나와/각북카페	탐라미술인협회
05.31	미술	서귀포 월종미술관 개관	월종미술관	(재)월종후연미술문화재단
07.02	미술	4·3미술제 20주년 기념도록 '다시 10년의 4·3미술' 출판기념회	각북카페	탐라미술인협회
09.21	미술	탐미협 창립 20주년 기념식	이호해수욕장	탐라미술인협회
10.01~10.19	종합	2013 제주프린지페스티벌	제주시 삼도2동 문화의거리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11.15	미술	윤재갑 초청강연회	유수암문화자치부	제주아트프로젝트, 아트&콘텐츠
11.22~11.27	종합	2013 제주교육문화축제, 제8회 제주평생 학습축제	제주학생문화원	-
12.12~12.23	종합	제12회 한국실현예술제	서귀포시 일원	한국실현예술제운영위원회
12.20	종합	2013 시·도기획지원사업 빈집 프로젝트 유수암버스차부 개관식 기념전	유수암버스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서예 도내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1~01.02	제4회 백록예문회전	제주도문예회관	백록예문회
01.08~01.12	제7회 탐라서예문화회전	제주도문예회관	탐라서예문화회
02.03~02.08	제3회 상지서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상지서회
02.11~02.16	남계 박경석 문인화 유작전	제주도문예회관	박은희
02.17~02.22	제2회 목랑회전	제주도문예회관	목랑회
02.24~02.28	제13회 한연회서예전	제주도문예회관	한연회
02.24~02.28	고성기 시 김후림 연을 타고 날다 전	제주학생문화원	고성기, 김후림
02.24~02.28	제14회 한연회서전	제주도문예회관	한연회
03.07~03.12	2013세계 문자서예대표작가 제주초청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글서예랑모임
03.13~03.17	제6회 서석각자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서석각자회
04.27~05.01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 본부 제주지부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제주지부
04.07~04.11	탐라서각연구회 제9회 정기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탐라서각연구회
04.17~04.21	제30회 상묵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상묵회
04.27~05.01	국서련 제주지회 4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사)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제주지회
05.07~05.11	제42회 제주소묵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소묵회
05.09~05.13	제3회 제주 부산 서화교류 제묵전	신산갤러리	(사)대한서화예술협회 제주지회
05.18~05.22	제4회 지원문인화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지원문인화회
05.30~06.03	제56회 영주연묵전	제주도문예회관	(사)영주연묵회
05.30~07.01	제주 서화의 맥 특별전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대학교
06.09~06.13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06.25~06.29	제12회 해정 박대준선생 추모서전	제주도문예회관	정연회
07.19~07.24	제주-대구·경북 서예가협회 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
07.25~07.29	제20회 제주도서예대전 입상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30~08.04	제10회 한글서예사랑모임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글서예사랑모임
08.05~08.09	제8회 효돈서각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효돈서각회
08.16~08.20	제주·강원 문인화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문인화연구회
08.21~08.24	제8회 아름다운 한글서예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글서예묵연회
08.21~08.24	한묵회 서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글서예묵연회
08.30~09.03	박동규 장지중 2인 서화전	제주도문예회관	KCTV제주방송
09.04~09.07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09.07~10.14	조종숙 작품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9.07~10.20	제9회 한국예문회전	규당미술관	한국예문회
09.18~09.27	부채그림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문인화협회제주지회
09.21~09.27	제6회 춘강사군자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사회복지법인 춘강
10.04~11.11	소암기념관 개관 5주년 특별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예술의 전당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08~10.12	제57회 서귀포소목회전	성산읍 고성리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서귀포소목회
10.09~10.13	제12회 한글사랑 서예대전입상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글서예사랑모임
10.14~10.19	국제각자예술대전 입상작품전 제주2013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서각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15~12.31	제주인의 삶을 읽다-제주의 옛문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0.26~10.31	제주·경기 서예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사)삼다연서학회
11.01~11.06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서예작가초대전	제주도문예회관	(사)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01~11.06	제주미협서예초대작가전	제주도문예회관	(사)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제주미협 서예분과위원회
11.02~11.07	김형식 작가 개인전	조천읍 선흘리 선흘꽃밭	김형식
11.03~11.07	제주서도협회 회원전	제주학생문화원	(사)한국서도협회 제주도지회
11.07~11.11	제13회전국추사회호대회 입상작품 및 초대작가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11.15~11.20	삼무서회전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사)삼무서회
12.15~12.20	서예·문인화 제주작가 협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서예·문인화 제주작가협회
12.21~12.25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	제주도문예회관	(사)한국서가협회제주도지회
12.21~12.25	제9회 지회전	신산갤러리	(사)한국서각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21~12.25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 공모입상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서가협회제주도지회

서예 도외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5.10~05.16	제주와 인천이 서예로 만났다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 한국서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10.16~10.23	한국서예협 제주도지회, 전북지회와 교류전	군산예술의전당	(사)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전라북도지회

서예 해외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 소	국가	주최 및 주관
04.07~04.11	한중 장애인 서화 국제 교류전	심천시 나호구 문원각예술관	중국	(사)삼다연서학회
08.23~08.27	한중 묵향으로 (도서예학회 상해서 교류전)	상해시 공인문화 궁	중국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상해시 직공애호자 조직연합회
09.23~09.28	박동규 장지중 2인 서화전	호남성 악록서원	중국	KCTV제주방송

서예 수상

일자	수상자	수상명	주최 및 주관
05.04	임순현	제19회 대한민국전서예대전 우수상	(사)대한민국서예가연합회
05.04	강선창 외 11명	제19회 대한민국전서예대전 특선	(사)대한민국서예가연합회
05.04	고문길 외 8명	제19회 대한민국전서예대전 입선	(사)대한민국서예가연합회
08.20	고경욱	제39회 제주도 미술대전 서예 부문 대상	(사)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08.20	양영란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대상	(사)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08.20	김부자외 2명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특선	(사)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0.09	김민정	제12회 한글사랑서예대전 대상 한글으뜸상	(사)제주특별자치도한글서예사랑모임
10.09	조정화	제12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최우수상	(사)제주특별자치도한글서예사랑모임
10.29	서영욱	제13회 전국추사서예대전 종합대상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10.29	임순현 김진범	제13회 전국추사서예대전 한문 부문 대상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10.29	이상연	제13회 전국추사서예대전 문인화 부문 대상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10.29	고제동 영금석	제13회 전국추사서예대전 한문 부문 우수상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10.29	문현순	제13회 전국추사서예대전 문인화 부문 우수상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11.21	윤정미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 대상	(사)한국서예자협회 제주도지회
11.21	윤영춘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 행초부문 우수상	(사)한국서예자협회 제주도지회
11.21	양우근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 예서부문 우수상	(사)한국서예자협회 제주도지회
11.21	심연희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 한글부문 우수상	(사)한국서예자협회 제주도지회
11.21	김정호 윤두진	제12회 한라서예전람회 문인화부문 우수상	(사)한국서예자협회 제주도지회

사진 종합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4~01.09	제주대학교 사진동아리JPC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대학교 사진동아리JPC회
01.04~01.10	사진으로 보는 4·3진상규명운동 사진전	신산갤러리	제주4·3평화재단
01.13~01.17	제12회 섬에서 부는 바람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섬에서 부는 바람
01.15~02.24	제주자생버섯 사진 전시회	한라도서관 1층 소전시실	한라도서관
01.18~01.22	2012 보도사진·영상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카메라기자회
01.20~01.31	조류보호협회 도지회 천연기념물 전시회	한라수목원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03.01~03.06	제주수중사진 연구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수중사진연구회
03.02~03.17	고병희씨의 "제주의 야생초"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고병희
03.11~05.30	비둘이전	가시리 자연사랑 미술관	자연사랑 미술관
03.17~03.24	상필이가 만난사람들	동문재래시장	곽상필
03.20~03.26	기상청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지방기상청
04.02~04.06	제주사진교실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사진교실
04.03~04.07	4·3 사진전 "후유장애인 들의 아픔을 다시듣다"	제주도문예회관	탐라사진가협의회
04.12~04.16	제21회 녹색사진연구회 정기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녹색사진연구회
04.22~04.26	제21회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협의회
04.31~05.10	제주야생화 생태사진전	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양생화회
05.13~05.17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사진전	제주도문예회관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05.26~05.26	제방사 도민 대상 안보교육 사진 전시	서귀포월드컵 경기장 일대	해군제주방어사령부
06.01~09.30	나무와 돌이 함께한 세월	자연사랑미술관	서채철 포토샐러 자연사랑관장
06.01~14.05.31	내셔널 지오그래픽 창간 125주년 사진전	프시케월드	프시케월드
06.04~06.08	제주영상동인 제35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영상동인
06.04~06.08	제21회오름사진 연구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오름사진연구회
06.20~06.25	제주도치과의사회 사진동호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치과의사회 사진동호회
07.16~09.30	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특별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08.05~08.31	제주돌문화사진가 회원전	메이즈랜드	제주돌문화사진가회
08.09~08.30	감귤박물관 기후사진 전시회	감귤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
08.16~08.20	제8회 제주딴블루포토클럽 수중사진 전시회	제주도문예회관	딴블루 수중
08.25~08.29	한·중·일·네덜란드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환경사진연합회
09.03~11.31	제2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도내외 지역 순회 전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09.07~09.11	제7회 기획주제전 '제주의 들꽃 이야기'	제주도문예회관	포스나인
09.13~09.17	옛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불교신문

기간	전시회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24~09.29	제주 중산간마을 사진전	서울 종로구 류가헌	제주도여행학교
11.07~11.11	제39회 한라사우회 회원전	제주도문예회관	한라사우회
11.12~11.16	회원전 및 한·중 국제사진문화 교류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11.18~11.22	제주민속사진연구회전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민속사진연구회
11.18~14.02.28	신용만의 한라산 겨울이야기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신용만
11.22~11.24	찾아가는 예술 동아리 아이휴 사진 전시회	한라수목원	제주서중학교
11.23~12.07	정전 60주년 보도사진전	자연사랑미술관	한국보도사진가협회
11.27~12.03	제20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제주칼빌딩	대한항공
11.28~12.03	제52회 탐라문화제 사진공모 입상작품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협의회
12.05~12.19	심상현 사막야생화 사진전	제주웹컴센터	심상현
12.06~12.15	제1회 섬 속의 섬을 사진과 함께	열공갤러리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대학
12.19~12.20	해정원 아가의집 사진전시회	신산갤러리	해정원 아가의집
12.24~14.02.28	박형근 개인전	경기창작센터	박형근

사진 수상

일자	장르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08.21	고영석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대상	넋들이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김재준 유인심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우수상	-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문학림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특선	-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김경돈 외 5명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선	-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9.30	강희만	제129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	한국사진기자협회
11.27	최용환	제52회 탐라문화제 기념 전국사진촬영대회 금상	축제장으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11.27	김동현	제52회 탐라문화제 기념 전국사진촬영대회 은상	하관재연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건축 전시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8.21~09.03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건축부문 입상작 전시	제주도문예회관	(사)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2.10~12.14	대한민국 건축대전 입상작품제주순회전	제주도문예회관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건축 수상

일자	수상자	수상작	수상명	주최 및 주관
08.21	김정식	한두기 노인마을 프로젝트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건축부문 대상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김민희	-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건축부문 우수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김현 정소희	-	제39회 제주도미술대전 건축부문 특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8.21	이명범 외 4명	-	제39회 제주도 미술대전 건축부문 입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9.11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대표 선은수)	에스엠원 하우스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문 본상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 협회 (주)서울경제신문
09.30	양건(가우건축)	(주)NXC센터	2013년 제주건축문화대상	-
11.28	포도호텔, 월드컵경기장, 다음 본사, 제주현대미술관, 해심헌, 제주목관아지, 성읍민속마을	포도호텔, 월드컵경기장, 다음본사, 제주현대미술관, 해심헌, 제주목관아지, 성읍민속마을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7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건축 행사

기간	전시회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3.23	제주시 원도심 옛길 탐험	칠성동	문화기획PAN
03.27	건축학개론 '카페 서연의집' 개장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명필름문화재단
08.20	문화 통한 원도심 재생방안 모색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09.25	평화섬 정책 세미나	서귀포 칼호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대 세계환경과섬연구소
10.10~10.13	2013 제주건축문화축제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별관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11.29	건축학회 제주지회 학술포럼	웰컴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최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주관

양악 종합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10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2013 신년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01.11	freeconcert 김명원 트리오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1.12	한라소년합창단 제2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소년합창단
01.12	하현진, 드린지오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1.14	바이올린 향상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김태근
01.17	서귀포시청 연주	서귀포시청 2층강당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1.19	소리어울림 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소리어울림 멘토링센터
01.22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39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1.24	환우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제주의료원	도립 제주합창단
01.24	사계바다소리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계초등학교
01.25	찾아가는 음악회 1	제주튼튼병원	도립 제주교향악단
01.25	이형규 오보에 전국 투어 리사이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Fest기획
01.26	제주극동방송 전속 빛선교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극동방송전속 빛선교합창단
01.26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소년소녀합창단
01.27	허대옥솔로콘서트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1.29	제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재)제주극동방송
02.01	도립제주교향악단 11시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청
02.02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제1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02.03	AKI MUZIK 창단 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AKI MUZIK
02.05	제주여자중학교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여자중학교
02.05	송당초등학교 목관앙상블 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송당초등학교
02.06	외도 하모닉 윈드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외도초등학교
02.07	제2회 광양초등학교 관악부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양초등학교
02.07	오현고 밴드 동아리 “정점” 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오현고밴드동아리 “정점”
02.08	제7회 남녕고등학교 교악대 동문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남녕고교악대
02.08	“라면 먹고 갈래” 창단 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애송이프로젝트
02.09	세계환경수도를 위한 신년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현고음악부 동문회
02.14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제주학생문화원	제주 CBS
02.14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0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02.14	제주흥사단 “프리스타일” 겨울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흥사단
02.15	플루트, 클라리넷 리사이틀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02.16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2.16~02.17	2013 Vian Trio Tour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2.19~02.24	기타리스트 찰리 정, SURPRISE GIG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2.20	청소년 희망나눔 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브레이크 뉴스
02.20	제주 신포니에타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신포니에타
02.21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2013 신춘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도립 제주교향악단/합창단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2.23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복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2.23	사우스카니발&남기다밴드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2.23	젊은 예술가의 초상 김현경(바이올린) & 김현아(피아노)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2.24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2.28	대기고 밴드 동아리 “재규어” 겨울 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도청소년문화의집
02.28	도립제주교향악단 신춘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청
03.02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3.03	OZ Band 12th story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오즈밴드
03.06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문화광장
03.07	양방언 특별 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제주제일인센터
03.08	새내기를 위한 캠퍼스 음악회	제주관광대 컨벤션 홀	도립 제주교향악단
03.09	제16회 제주들불축제 국제자매도시 환영음악회	라마다 호텔	도립 제주교향악단
03.09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복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3.09	제2회 노래하는 나무 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어쿠스틱기타하우스
03.10	리스트링 연주회	한라아트홀	리스트링
03.10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3.16	변진섭 The Ballad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신한생명
03.16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3.16	소규모아카시아밴드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3.22	창작오페라 “광해 빛의 바다로 가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 제주MBC/제주대학 교스토링텔링연구개발센터
03.23	한라원드야상블 한·일친선교류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원드야상블
03.23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복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3.23	김마스타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3.23~03.24	재즈보컬 장정미 쉼텃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3.23~03.24	2013 THE 신승훈 SHOW POP TOUR in JEJU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CJ E&M
03.24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3.26	김보람 플롯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03.28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제80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도립 제주합창단
03.31	제 22회 제주왕벚꽃축제 축하음악회	제주종합경기장	도립 제주합창단
03.31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복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3.31	제주색소폰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색소폰앙상블
04.03	4·3예술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04.04	피아노학회 신인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04.04	제4회 우수신인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사)제주성악협회
04.06	제주장로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장로합창단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06	늘푸른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늘푸른음악회
04.06~04.07	배선용 '나팔수의 휴일'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4.07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복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서귀포시청
04.07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04.07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04.09	제주영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	제주영지학교	도립 제주합창단
04.09	아르페지오 정기연주회(피아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아르페지오
04.11	도립제주교향악단 제104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도립제주교향악단
04.12	2013 봄 작은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4.12	제43회 정기연주회 '새봄을 여는 관악의 향연'	서귀포김정문화회관	서귀포관악단
04.13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복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서귀포시청
04.13	시밀레색소폰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시밀레색소폰앙상블
04.13	이디라마(with 김경범, 강경덕)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4.14	제27회 CBS 아가페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CBS아가페합창단
04.14	박윤우 트리오(대중)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4.16	김미나 피아노 독주회 '베토벤, 그리고...'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미나
04.19	박미루 감굴밭콘서트	남원읍 하례2리 감굴밭	남원읍 고사리축제
04.20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4.20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앙상블존
04.20	DJ jake lounge&groove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4.20	오카리니스트 이정순의 힐링콘서트	삼무야영장	오카리나제주공방
04.21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복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서귀포시청
04.21	제라한 싱어즈 창단 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라한 싱어즈
04.22	제주영송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	제주영송학교	도립 제주합창단
04.23	하늘다래 음악회 단원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도립 제주합창단
04.24	도립 서귀포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도립 서귀포합창단/서귀포시청
04.25	조재혁 초청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특별자치도피아노학회
04.25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기획 "희망 나눔 음악회"	평화의 마을	서귀포관악단/평화의마을
04.26	제주대학교 성악연구부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4.27	2013 타악 한마당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제주타악기양상블
04.27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복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서귀포시청
04.27	드린지오 앨범 쇼케이스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4.27	제주관광 산책로에 흐르는 플루트 선율	우도검멜레해변	제주플루트카로랑앙상블
04.28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4.28	제주불교연합봉축 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불교연합봉축위원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29	도립 서귀포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서호요양원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4.30	심희정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05.02	도립교향악단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청
05.03	광주·제주 교류연주회	제주대학교 음악관연주홀	제주피아노학회, 광주듀오협회
05.03	Rob Van Bavel TRIO 바흐에서 스윙까지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5.04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5.04	한라원드앙상블 창단 20주년기념 제55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원드앙상블
05.04	Allegrow · 질은의 담담한 만남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5.05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북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5.05	피아니스트 황금경&김세운 Introducing Children's Songs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5.07	제주대학교 예술대자민대학 관악연구부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대학교
05.09	제주대학교 피아노 연구부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피아노연구부
05.10	하귀1리 주민을 위한 산사음악회	월영사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05.10	선상의 인문학 메아리 초청연주	산방산유람선	서귀포관악단
05.10	찾아가는 문화활동	대흘초등학교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5.11	2014 타악 한마당	제주정신요양원 · 제주시 립희망원	제주타악기앙상블
05.11	국가명승지(제92호) 지정기념 訪仙門 축제 음악회	방선문계곡	도립제주교향악단
05.11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북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5.11	싱어송라이터 시와의 공연	인디음악 전문 펍 B동 301호	인디음악 전문 펍 B동 301호
05.11	양정원의 사랑으로 가는 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양정원
05.11	이진호와 데빌이소 마르코 '함께 들어주실래요'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5.11	책읽어주는 클래식 콘서트	각북카페	자작나무숲
05.11	GET과 함께 콘서트(대중)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국립제주박물관
05.12	2015 타악 한마당	제주애덕의집	제주타악기앙상블
05.12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5.14	도립제주합창단 Everyboby up! World Pop&K-Pop in Choir	제주아트센터	도립 제주교향악단/ 합창단
05.16	찾아가는 음악회 2	영평초등학교	도립제주교향악단
05.16	찾아가는 음악회 3	삼양초등학교	도립제주교향악단
05.16	학교방문연주회	서귀포오석학교	서귀포관악단
05.16	바이올린 향상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김태근
05.16	찾아가는 음악회 4	곽금초등학교	도립제주교향악단
05.17	첼로 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오성중
05.17~05.18	재주소년의 박경환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5.18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5.18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양상블 준
05.19	힐링콘서트 기타로놀자 with Hata Shuji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5.19	부활 콘서트 2013	제주그랜드호텔 1층 컨벤션홀	오라관광(주)
05.21	학교방문연주회	사계초등학교	서귀포관악단
05.23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제47회 정기연주회	서귀포 김정문화회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5.23	찾아가는 문화활동	서귀포시 주사랑요양원 · 성요셉요양원	제주신포니에타
05.23	2013 도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음악회	서귀포시 주사랑요양원 · 성요셉요양원	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
05.23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기획 "희망 나눔 음악회"	평화의 마을	서귀포관악단/평화의마을
05.24	찾아가는 문화활동	물메초등학교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05.24	해설이 있는 음악회	애월더럭분교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05.25	박민정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05.25	두남자의 음악이야기 (색소폰연주자 이정식과 대금 산조 이수자 이성준)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국립제주박물관
05.25	2013용연선상음악회 - 2013 도민 대통합의 염원	제주시 용연 일대	제주시청/ 도립 제주합창단
05.25	201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마술 피리' (마술과 함께 듣는 플루트 앙상블)	제주한마음병원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05.25	정기연주회	한라아트홀	클래식음악
05.25	자작나무숲의 천원콘서트 물감상자 뮤직드로잉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05.26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5.27	조인트 리사이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강지희
05.28	2013 특별연주회	문예회관대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5.28	제주대학교 아라음악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5.29	서귀포학생문화원 2013 문화예술초청공연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학생문화원
05.30	오류림 피아노 귀국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05.31	해설이 있는 음악회	하귀일초등학교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06.01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6.02	공명유희	국립제주박물관	월드뮤직그룹 공명/ 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진흥원
06.02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북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6.04	제주대학교 성악전공 교수 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6.04	서귀포학생문화원 2013 문화예술초청공연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학생문화원
06.04	대륙의 끝, 심해, 은하의 물고기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사단법인 공명/ 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진흥원
06.05	감성과 문화예술의 균형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문화광장
06.05	창작오페라 다라다라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주창회/해비치아트페스 티벌/문화예술진흥원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6.05	팝카펠라 원달러의 아주뽀(FUN)~한 콘서트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메노뮤직/해비치아트페 스티벌/문화예술진흥원
06.06	4string 제2회음악회	한라아트홀	4string
06.08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북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6.08	201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마술 피리' (마술과 함께 듣는 플루트 앙상블)	제주해안경비단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06.08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6.09	마음수련 힐링콘서트	제주아트센터	마음수련동호회
06.12	도립 서귀포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정혜재활원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6.14	학교방문연주회	대정초등학교	서귀포관악단
06.14	제19회 제주앙상블준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앙상블 준
06.14	찾아가는 문화활동	귀덕초등학교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6.15	201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마술 피리' (마술과 함께 듣는 플루트 앙상블)	S중앙병원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06.15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도립 서귀포관악단
06.15~06.16	남진 단독 리사이틀	제주아트센터	레알코믹스
06.16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북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06.16	제주특별자치도 소년소녀합창단 연합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소년소녀합창단연합회
06.18	학교방문연주회	의귀초등학교	서귀포관악단
06.19	학교방문연주회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서귀포관악단
06.20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제105회정기연주회(베토벤의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시청
06.20	lounge & groove music djing with DJ JAKE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6.20	해설이 있는 음악회	백록초등학교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06.21	찾아가는 문화활동	한림읍 야외공연장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6.21	학교방문연주회	법환초등학교	서귀포관악단
06.22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북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06.22	서귀포교류연주회	서귀포 김정문화회관	앙상블 준
06.22	한소리여성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소리여성합창단
06.22	아리랑 라디오 K-POp Concert	제주아트센터	아리랑국제방송
06.22	프리재즈시리즈1 -잔향 '무화된 의식'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6.23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기당미술관	도립 서귀포관악단
06.23	고요함속에 외치는 소리 Flute로 표현하는 감정의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니어화음 플루트오케스트라
06.24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2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06.25	제주합창단 제81회 정기연주회 특별출연	제주아트센터	서귀포관악단/제주합창단
06.25	도립제주합창단 제81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도립 제주합창단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6.26	도립 서귀포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온성학교	도립 서귀포합창단
06.26	학교방문연주회	무릉초등학교	서귀포관악단
06.26	해양경찰 창립60주년 기념음악회	제주아트센터	해양경찰청/ 도립제주교향악단
06.27	성안관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성안관악단
06.28	찾아가는 음악회 5	함덕초등학교	도립제주교향악단
06.28	찾아가는 음악회 6	북촌초등학교	도립제주교향악단
06.29~06.30	김종혁의 BASS CHAPEL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01	최영미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음연
07.01	두비두비코앤코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코앤코제주지사
07.02	제주체임버코랄 제8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체임버코랄
07.04	제주 tech+ 포럼 초청음악회	아라뮤즈홀	도립 제주합창단
07.04	제주도립교향악단 -해설의 있는 그린 콘서트 Pop's Concert	제주아트센터	도립 제주교향악단
07.05	제주대학교오렌지스쿨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오렌지스쿨
07.05~07.06	프리재즈시리즈2 - 이상 'ZERO'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05	찾아가는 문화활동-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	제주영송학교	제주브라스앙상블
07.06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이중섭거리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7.06	기획초청공연 “윤종신 제주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문화예술진흥원
07.07	프리재즈시리즈3 - DUO 오정수 & 김책 '나의발견'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09	구좌중앙초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구좌중앙초등학교	도립 제주합창단
07.10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초청연주	제주컨벤션센터 탐라홀	도립 서귀포관악단
07.12	한동초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한동초등학교	도립 제주합창단
07.12	찾아가는 문화활동-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	북촌초등학교	제주브라스앙상블
07.12	3호선버터플라이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7.12	2013 One Day Festival 전국 공연장 습격작전 -임수연의 모던 피아노 이야기	카페 세바	2013 One Day Festival/카페세바
07.12	2013 One Day Festival 전국 공연장 습격작전 -스트링 콰텟 카메라타 제주	본태박물관	2013 One Day Festival/본태박물관
07.12	2013 One Day Festival 전국 공연장 습격작전 -첼리스트 문웅휘	스테이비우다	2013 One Day Festival/스테이비우다
07.13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북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7.13	직장인을위한무료콘서트	한라아트홀	fantastics in jeju
07.13	OZ Summer Rock Festival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OZ Band
07.13~09.01	음악! 그 울림속의 여름 2013 함덕 MUSIC WEEK	서우봉해수욕장 특설무대	조천읍 함덕리
07.14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이중섭거리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7.18	송당초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송당초등학교	도립 제주합창단
07.18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관광공사
07.18	옥상달빛 2집발매기념 전국클럽투어	엘리엇스체어	옥상달빛
07.19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초청음악회	제주신라호텔	도립제주교향악단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19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관광공사
07.19	옥상달빛 2집발매기념 전국클럽투어	카페 세바	옥상달빛
07.19~07.20	새연교 무지개 뜬날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7.20	김미나 피아노독주회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20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이중섭거리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7.20	김거지+흔적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7.20	찾아가는 음악여행	탐라신화공원	음악사랑 온새미
07.21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복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7.21	제4회 제주 Beau Piano Duo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 Beau Piano Duo
07.22	종달초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종달초등학교	도립 제주합창단
07.22	2013 갈라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07.23	농업인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시농협
07.25	2013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개막연주회	제주해변공연장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07.26~07.27	새연교 무지개 뜬날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7.26	김재아&김강희 피아노 듀오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재아
07.27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복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7.27	좋아서 하는밴드와 싱어송라이터 박명규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국립제주박물관
07.27	영화 속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앙상블 준
07.27	소규모아카시아밴드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7.27	골든스윙밴드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7.28	제1회 월정 한모살 콘서트	월정리로와카페 야외특설무대	월정리, 월정리청년회
07.28	제3회 S-현드럼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S-현드럼
07.31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음악협회와 함께하는 어울림	해변공연장	제주시청
08.02	새연교 무지개 뜬날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8.02	2013 서귀포여름음악축제	서귀포천지연야외공연장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
08.03	새연교 무지개 뜬날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8.03	별빛오름콘서트	제주시 별도봉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08.03	제13회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초청연주	예래생태공원	서귀포관악단
08.05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해변공연장	서귀포시청
08.06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40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8.08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부산대학교원드오케스트라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8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연수구립관악단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8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제주대학교원드심포니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8.08	제18회 국제관악제 -대만 도원교향관악단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8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삼육대학교원드오케스트라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8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클라리넷콰이어 '서울24'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8	제18회 국제관악제 -서귀포관악단 공연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서귀포관악단/국제관악제
08.09	제18회 국제관악제 -서귀포관악단 공연	서귀포천지연야외공연장	서귀포관악단/국제관악제
08.09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삼육대학교원드오케스트라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9	제18회 국제관악제 -대만 도원교향관악단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9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부산대학교원드오케스트라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9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마론윈드오케스트라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9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빅토리아윈드오케스트라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9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나츠엔위튜티윈드오케스트라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9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남양주윈드오케스트라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9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상명대학교관악단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9	제18회 국제관악제 -독일 크라이스버청소년관악단	탐라교육원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9~08.10	새연교 무지개 뜬날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8.10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서북전시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8.10	재즈바이올리니스트 민선정의 SURPRISE JAZZ CONCERT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8.10	제18회 국제관악제 -대만 중국문화대학원드오케스트라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0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상명대학교관악단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0	제18회 국제관악제 -독일 크라이스버청소년관악단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0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클라리넷콰이어 '서울24'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0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울산대학교심포닉밴드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0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연수구립관악단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0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울산대학교심포닉밴드	여미지식물원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클라리넷콰이어 '서울24'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삼육대학교원드오케스트라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 한국 울산대학교심포닉밴드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영남대학교원드오케스트라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빅토리아원드오케스트라	절물자연휴양림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독일 크라이스버청소년관악단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홍콩 홍콩청소년관악단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호주 시드니한인원드오케스트라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대만 중국문화대학원드오케스트라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상명대학교관악단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대만 디아파송색소폰과르텟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1	제18회 국제관악제 -미국 체스트넛브라스컴퍼니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미국 체스트넛브라스컴퍼니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호주 시드니한인원드오케스트라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대만 디아파송색소폰과르텟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홍콩 홍콩청소년관악단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중국 서안철일중학관악단	대흘초등학교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아셀플루트앙상블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에코색소폰앙상블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울산대학교심포닉밴드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경희대학교원드오케스트라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영남대학교원드오케스트라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2	제18회 국제관악제 -마에스트로 콘서트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주특별자치도민60만시대 개막 축하음회	제주특별자치도청	도립 제주합창단
08.13	2013 제주국제관악콩쿠르 트럼펫 결선부문	제주아트센터	도립 제주교향악단/(사)제주 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계명심포닉밴드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홍콩 홍콩청소년관악단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경희대학교원드오케스트라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아셀플루트앙상블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홍콩 홍콩관악연주협회관악단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독일 크라이스버청소년관악단	금능으뜸원해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제주경찰악대	금능으뜸원해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호주 시드니한인원드오케스트라	한림공원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독일 크라이스버청소년관악단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일신여자고등학교관악단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중국 서안철일중학관악단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3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대한민국해군악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	2013 제주국제관악공쿠르 호름, 트롬본 결선부문	제주아트센터	도립 제주교향악단/(사)제주 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영남대학교원드오케스트라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	제18회 국제관악제 -홍콩 홍콩관악연주협회관악단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대한민국해군악대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	제18회 국제관악제 -호주 시드니한인원드오케스트라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	제18회 국제관악제 -중국 서안철일중학관악단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	제18회 국제관악제 -독일 크라이스버청소년관악단	한림공원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일신여자고등학교관악단	한림공원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	제18회 국제관악제 -프랑스 트롬바마니아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5	제 68주년 광복절 경축음악회	제주학생문화원	도립 제주합창단
08.15	제18회 국제관악제 -대만 아파송색소폰과르텟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5	제18회 국제관악제 -프랑스 트롬바마니아	제주해변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5	제18회 국제관악제 -대만 체스트넛브라스컴퍼니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5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일신여자고등학교관악단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8.15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한국흠피리오카리나앙상블	절물휴양림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5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한국흠피리오카리나앙상블	김영갑갤러리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5	제18회 국제관악제 -홍콩 홍콩관악연주협회관악단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5	국제관악제 “환영의 밤” 합동공연	탐동해변공연장	도립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
08.15	월정리블루스 같이살자 지구, 우리	카페 고래가 될	카페 고래가 될
08.15	제18회 국제관악제 -한국 계명대학교심포닉밴드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5~08.16	조윤성&프랜즈의 라틴코리아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8.16	제8회제주국제관악콩쿠르 - 입상자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도립 제주교향악단/(사)제주 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6	김태근 바이올린 제자발표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김태근
08.16	제18회 국제관악제 -프랑스 트롬바마니아	용눈이오름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6~08.17	새연교 무지개 뜬날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8.17~08.18	한여름밤 사랑나누기 콘서트	동홍동 산지천 물놀이장	동홍동연합청년회
08.18	비상 여름 정기공연 “꿈을 향한 날갯짓”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아라청소년문화의집
08.20	제2회 우란분재 음악 대향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불교전통문화보존회 수정사
08.21	아리랑 라디오 개국 10주년 기념 K-Pop Concert	제주아트센터	아리랑 국제방송
08.22	서귀포플루트 동아리 제4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시청 평생학습관	서귀포시청평생학습관, 서귀포플루트동아리
08.23	사우스카니발 정규1집 쇼케이스	미예랑 소극장	사우스카니발
08.23~08.24	새연교 무지개 뜬날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8.24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앙상블 존
08.26	한 여름 밤의 애상/제주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트리오 에피모/현악3중주
08.27	강경수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강경수
08.28	도립 서귀포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성요셉요양원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8.30	2013 FRIDAY SUMMER PARTY	제주그랜드호텔	제주그랜드호텔
08.30~08.31	새연교 무지개 뜬날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8.30	2013 한 여름밤의 음악회	화북초등학교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09.04	제주대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문화광장
09.04	제주농협하나로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농협하나로 합창단
09.05	도립제주교향악단 제106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청
09.06	제5회 소프라노 오능희 독창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오능희
09.06	대전, 군산, 제주 피아노 앙상블 교류연주회	제주대학교 음악관연주홀	제주피아노학회, JMC피아노연구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07	양코르새연교, 가을밤의 속삭임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9.07	추억의 팝스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원드앙상블
09.07	한희정 제주도 콘서트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9.08	희망협주곡 음악회@@	한라아트홀	사)희망 나눔아이캔
09.08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플루트협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09.09~09.10	새연교 무지개 뜬날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9.09	제주도 장기기증의 날 기념음악회	제주웰컴센터	도립 제주합창단
09.12	첼리스트 김면정 귀국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9.12	노형 주민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노형근린공원,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09.13	노형 주민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노형제1공원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09.13	서귀포학생문화원 2013 문화예술초청공연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학생문화원
09.14	김여정 첼로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09.14	양코르새연교, 가을밤의 속삭임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9.14	레인보우 콘서트 초청연주 - 서귀포관악단 공연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9.14	명상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앙상블 준
09.14	국악이 짬즈를 만났을 때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9.15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필청소년 오케스트라
09.15	재규어 여름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재규어
09.17	아라음악 콩쿠르 수상자 음악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9.17	개교기념 오현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현고등학교
09.20~09.21	양코르새연교, 가을밤의 속삭임	새연교 특설무대	서귀포시청
09.21	안녕! 가을 장필순&가을방학	본태박물관	본태박물관, 제주아트캠프
09.26	도립제주합창단 제82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도립 제주합창단
09.27	찾아가는 공연 가을 산책	제주향교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09.27	제7회 카멜리아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카멜리아코스/제주여자중,고등 동문
09.27	현은숙의 건반 위 은파	서귀포김정문화회관	현은숙
09.28	원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원 타악기 앙상블
09.28	작가의 산책길 앙상블음악회	이중섭거리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청
09.28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이중섭거리	서귀포관악단/ 서귀포시청
09.30	CTS 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CTS제주방송
09.30	도립제주교향악단 2013우수 신인 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청
09.30	김지영 첼로 리사이틀	제주대아라뮤즈홀	개인
10.01	서귀포초 솜바니스트 오케스트라 공연	서귀포서초등학교	서귀포서초등학교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02~10.03	갈라콘서트 -창작오페라 '擎' -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오페라단
10.03	양방언 제주판타지	제주돌문화공원 야외공연장	도립 제주교향악단
10.04~10.05	제24회 탐라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10.05	탐라합창제 시범연주	제주문예회관	도립 제주합창단
10.05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이중섭거리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10.05	있다[itta]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10.08	음악학부 졸업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10.08	학교방문연주회	새서귀초등학교	서귀포관악단
10.08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참!좋은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IBK기업은행
10.08~10.10	금관양상블 브라스마켓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10	임산부를 위한 가족음악회	학생문화원 소극장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10.10	제15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10.10	음악학부 졸업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10.10	제주피아노학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특별자치도 피아노학회
10.10	제25회 한림공고 동문의 날 전야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10.10	10개월간의 아름다운 기다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립제주예술단
10.11	찾아가는 음악회 7	하귀일초등학교	도립 제주교향악단
10.11	장필순의 가을	KCTV 제주방송 공개홀	제주메세나운동본부
10.11	제주대학교 성악연구부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성악연구부
10.11	제주중앙고 개교 60주년 기념 중앙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중앙고등학교
10.12	해설이 있는 금관 앙상블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국립제주박물관, 한국종합예술학교
10.12	학교방문연주회	제남도서관	서귀포관악단
10.12	제8회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10.12	조성일 1집 음반발매 미니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뷰티풀데이뮤직
10.12~10.19	조수비엔날레	조수문화마당	조수문화마당
10.13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나눔오케스트라
10.13	음악의 본 고장 유럽으로 떠나는 실내악 여행 1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앙상블 준
10.13	이루마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주)쇼이즈
10.13	사이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10.14	제주-미야자키 피아노 교류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미야자키피아노연구회
10.15	제5회 제주카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카리스합창단
10.15	가을을 닮은 뮤지션 '양빛나라' 의 노래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10.15~10.16	자작나무 숲 - 작은콘서트	애월초, 더럭분교, 평대초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10.16	제2회 제주시청 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청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17	2013 Jazz in Jeju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재)제주CBS
10.17	도립제주합창단 사랑방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도립 제주합창단
10.18	제주문화기획연구소 - 작은콘서트	제주추사관 야외무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10.19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이중섭거리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10.19	제68주년 경찰의 날 기념 제2회 제주폴밴드 정기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지방경찰청
10.19	제4회 대한민국 녹색예술제	제주아트센터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예술단
10.19	2013 우도동굴음악회 동굴과 재즈	우도 고래굴	동굴소리연구회
10.20	재즈상설공연 All that jeju	미예랑 소극장	미예랑소극장, 라이브쇼
10.20	제주칸투스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칸투스합창단
10.21	초청 실내악 연주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심희정
10.22	가을의 선율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원양하
10.22	도립제주교향악단 제107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청
10.25	제주필하모닉색소폰오케스트라 창단공연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사)제주필하모닉색소폰 오케스트라
10.25	애월읍민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신업중학교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10.25	학교방문연주회	효돈초(효돈체육관)	서귀포관악단
10.26	이승철 콘서트 20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장군엔터테인먼트
10.26	창작 합창의 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한국합창연합회제주지회
10.26	김창완 밴드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문화예술진흥원
10.26	vagueblossom solo play ' 긴 여름의 꽃'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10.26~10.27	한지연 피아노즉흥솔로 & 한지연트리오 (대중)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0.28	2013 평화통일 음악회(통합)	제주아트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10.29	소프라노 강현주 독창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강현주
10.29	서영화 · 박순방 피아노 듀오 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박순방
10.30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단원음악회 II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10.31	제주대학교 오케스트라 제30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 음악학부
11.01	김현경 제자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김현경
11.01	ROB VAN BAVEL & Friends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1.02	작가의 산책길 문화공연	이중섭거리	서귀포관악단
11.02	김훈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11.02	주니어화음플루트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니어화음 플루트오케스트라
11.03	화음플루트 제9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화음플루트 오케스트라
11.04	우수신인 데뷔 콘서트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특별자치도음악학회
11.04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권사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권사합창단
11.05	제주대학교 현악연구부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성악연구부
11.06	박웅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07	2013 우수신인대뷔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교향악단
11.07~11.10	재즈파크 빅밴드와 유열의 힐링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1.08	칼리오페 정기연주회 하얀박꽃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칼리오페/ 합창, 중창
11.09	약천사 어르신들을 위한 초청연주	약천사	서귀포관악단/약천사
11.09	Saxphonist 최원석 퀸텟의 Holy는 jazz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1.12	2013 협주곡의 밤	문예회관대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11.12	연예인 특별 축하 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이어도투어
11.13	제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 2013 가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11.14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I	애월고등학교	도립 제주교향악단
11.14	제주대학교 피아노 연구부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피아노 연구부
11.14	장애인어울림따뜻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협회 부설제주여성장애인인성당소
11.15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II	제주고등학교	도립 제주교향악단
11.15	학교방문연주회	한마음초등학교대강당	서귀포관악단
11.15	찾아가는 사랑음악회	종달리실버복지타운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11.15	제4회 프랑스영화제 개막공연	영화문화예술센터	서귀포관악단/ 프랑스영화제
11.15~11.16	제주타악기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타악기앙상블
11.15~11.17	창작오페라 라 애랑&배비장	제주아트센터	제주오페라단
11.16	제4회 프랑스영화제 초청공연	영화문화예술센터	서귀포관악단/ 프랑스영화제
11.16	제주관광 산책로에 흐르는 플루트 선율	구좌읍 실버복지타운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11.16	유럽으로 떠나는 실내악 여행 2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앙상블 준
11.16	사우스카니발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11.17	소리너울 동문 연주회/클래식기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소리너울동문회/ 클래식기타
11.19	숙명여자대학교 피아소노 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숙명여자대학교
11.19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11.19	카메라타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카메라타중창단/ 현직 음악교사
11.20	제주대학교 작곡연구부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작곡연구부
11.20	제9회 돌체우먼코러스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돌체우먼코러스
11.20	유네스코 세계문화공연	제주아트센터	제주유네스코협회
11.21	김효정 바이올린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11.21	도립서귀포합창단 제48회 정기연주회	서귀포김정문화회관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11.22~11.23	2013 KCTV 합창 페스티벌 "Harmony & Dream"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KCTV제주방송
11.23	정다운라이브 숲	미예랑 소극장	미예랑소극장, 라이브숲
11.23	울엄마열정콘서트(동호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동아리연합
11.23	멜로우이어(스웨터의 신세철 솔로프로젝트)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23~11.24	잉거마리의 가을 그리고 사랑노래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1.24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3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11.24	제주신포니에타 제12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신포니에타
11.25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2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11.26	제주빅색소폰합주단 정기연주회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홀	제주빅색소폰합주단
11.26	문화영 클라리넷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기획연구소
11.26	베가트리오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베가트리오
11.26	제8회 소외계층 아동 및 백혈병 소아암 환아돕기 러브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어린이재단
11.28	학교방문연주회(서귀북초등학교)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관악단
11.28	시설방문음악회	송악도서관	서귀포관악단
11.28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4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11.28	도립제주합창단 제83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청
11.29	불가리아 시립파잘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초청 협주곡의 밤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11.29	학교방문연주회	삼성여자고등학교 목련관	서귀포관악단
11.30	제주대학교 로망스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로망스
11.30	한수풀&민들레의겨울밤하모니	한라아트홀	제주시청
12.01	제23회 제주불교우담바라어린이 합창단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불교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12.02	통일토코콘서트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통일교육위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12.02	2013 기독교합창단 연합 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기독교합창단연합회
12.03	제주극동방송 창사 40주년 기념 “송년감사대축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재) 제주극동방송
12.03	도립제주교향악단 제108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교향악단
12.05	강슬기 바이올린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12.05	장애인 뮤직페스티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12.06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대학원생 졸업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12.07	자작나무숲 책임어주는 클래식콘서트 2013 마지막 무대	각북카페	자작나무숲
12.07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여행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교사 오카리나 앙상블
12.07	2013 제주사랑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성산고등학교
12.07	LOTTE DUTY FREE Family Concert	제주아트센터	(주)에이트리 커뮤니케이션즈
12.08	제주음악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음악협회
12.09	제9회 펠릭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펠릭스합창단
12.09	관음사마하야나합창단 제6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관음사 마하야나합창단
12.10	오지는 3집 발매 기념 전국투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주)마스터플랜
12.10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대학원생 졸업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12.13	아리랑라디오 공개방송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아리랑 라디오
12.13	제44회 정기연주회 "송년의 밤"	서귀포김정문화회관	서귀포관악단
12.14	송년음악회	제주도립미술관 대강당	제주도립미술관
12.14	Young Artist Concert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오승직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14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클라리넷앙상블
12.14~12.15	the Great American SongBook _ Duo Natalie & Martin	카페 세바	카페 세바
12.15	2013 소리바라기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소리바라기 제주 교사노래모임
12.17	김현경 바이올린 리사이틀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12.17	제12회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12.18	태고가릉빈가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태고가릉빈가합창단
12.18	KBS 7080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12.19	도립제주예술단 송년음악회	제주아트센터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12.21	소극장 오페라 리골레토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소극장오페라단S
12.21	동홍주민한마당 "가족 해설 음악회"	동홍아트센터	서귀포관악단/ 동홍동주민센터
12.21	한라원드앙상블 제56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원드앙상블
12.21	음악의 본 고장 유럽으로 떠나는 실내악 여행 3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앙상블 준
12.21	데빌이소 마르코, 이디라마, 젠 얼론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12.21	2013평화음악제	제주시 벤처마루앞광장	제주도청 문화관광스포츠국
12.22	제주대학교 소리너울 클래식기타 제29회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소리너울
12.22	제18회 눈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라원드앙상블
12.24	연말송년음악회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제주성안교회	제주성안교회 음영위원회
12.24	강아솔 정직한 마음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12.26	제2회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꿈의 오케스트라
12.26	2013 제2회 영주작은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영주고등학교
12.27	재즈의 밤 말로의 따뜻한 겨울	KCTV 제주방송 공개홀	제주메세나운동본부
12.28	수상한 커튼(with 로켓아가씨)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12.30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12.30	도립제주교향악단 제108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청

양악 독주 · 독창

기간	공연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1.27	허대욱솔로콘서트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3.26	김보람 플루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04.16	김미나 피아노 독주회 “베토벤, 그리고...”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미나
04.25	조재혁 초청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특별자치도피아노학회
04.30	심희정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05.25	박민정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05.30	오류림 피아노 귀국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개인

기간	공연명	장 소	주최 및 주관
07.01	최영미 피아노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음연
07.20~07.21	김미나 피아노독주회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8.27	강경수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강경수
09.06	제5회 소프라노 오능희 독창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오능희
09.12	첼리트스 김면정 귀국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9.14	김여정 첼로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여정
09.30	김지영 첼로 리사이틀	제주대아라뮤즈홀	김지영
10.29	소프라노 강현주 독창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강현주
10.40	Merry Challi in Jeju	제주대아라뮤즈홀	개인
11.02	김훈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훈
11.06	박웅 독창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박웅
11.21	김효정 바이올린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효정
11.26	문희영 클라리넷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문화기획연구소
12.05	강슬기 바이올린 독주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강슬기
12.17	김현경 바이올린 리사이틀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김현경

양악 수상

일자	수상자	수상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5.04	김인규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2013제주예술인상	제주문예회관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05.25	사우스카니발	K-루키즈 2013 최종6팀 가운데 선발	서울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07.10~07.13	제주 빠로빠체 합창단	제6회 오리엔탈 칸센투스 국제 합창제 청소년 합창부문 금메달	서울마포아트센터	마포문화재단, (사)국제합창교류센터

양악 콩쿠르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13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제9회 콩쿠르 및 17기 평가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06.06	제6회 제주피아노학회 피아노콩쿠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특별자치도 피아노학회
06.08~06.09	프라임 음악신문 피아노 경연대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하모니 피아노
06.15	삼다 피아노 경연대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삼다악기
08.07~08.16	2013 제18회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8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제주아트센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8.23~08.24	아라음악콩쿠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08.28	제1회 제주신인가요제(성인가요부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에코엔터테인먼트
11.09	제2회오카리나경연대회	한라아트홀	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09	제8회 제주플루트 평가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국플루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09~11.10	프라임 음악신문 피아노 경연대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하모니 피아노사
11.23~11.24	세광음악경연대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주)DLS

양악 도외공연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3.20	미니콘서트 지슬의 봄	홍대 씨클라우드	자파리 필름
04.01	대전-제주 교류연주회	목원대학교 콘서트홀	JMC피아노연구회/ JMC피아노연구회제주피아노학회
04.15	교향악 축제	예술의 전당	도립 제주교향악단
06.01	유럽순회연주회	독일 쾰른	도립 제주합창단
06.02	유럽순회연주회	독일 로렐라이	도립 제주합창단
06.06	유럽순회연주회	이태리 베루지아	도립 제주합창단
07.27~07.28	한중친선교류공연	베이징 국가대극원	제주윈드오케스트라
08.25	제4회 대한민국국제관악제 개막축하공연	서울광화문광장	서귀포관악단/ 대한민국국제관악제
08.26	제4회 대한민국국제관악제 초청공연	서울예술의전당	서귀포관악단/ 대한민국국제관악제
09.10	사우스카니발 정규1집 쇼케이스	홍대 打	사우스카니발
09.25	서울색소폰콰르텟 제주올레와함께하는 콘서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주)벤	(주)벤타코리아, 제주올레

양악 행사

행사일지	행사명	장소	개최지
01.02	2013년 시무식	시청 제1별관	도립제주교향악단
01.15~01.19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3 겨울음악캠프	회천리조트	제주시
03.01	94주년 3·1절 기념식	조천체육관	도립 제주합창단
04.03	제 65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제주4·3평화공원	도립 제주합창단/서귀포관악단
04.26	제47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회식	강창학구장	도립 서귀포관악단/ 제주특별자치도
04.28	제47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폐회식	강창학구장	서귀포관악단/제주특별자치도
05.05	제91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연주	제주월드컵경기장광장	서귀포관악단/제주특별자치도
05.08	제41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연주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서귀포관악단
05.09	서귀포시 귀농귀촌교육 수료식 축하연주	서귀포시청1청사 대강당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05.23	2013 합동결혼식	제주시민회관	도립제주교향악단/제주합창단

행사일지	행사명	장소	개최지
05.31	예담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	예담노인전문요양원	도립서귀포합창단/서귀포시청
06.06	제57회 현충일 추념식	서귀포충혼묘지	도립 서귀포관악단
06.11	권혁주와 함께하는 제2회 마스터클래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JR Music & Art
06.12	故 우성 변시지 화백 서귀포시 사회장 영결식	한빛장례식장	도립 서귀포관악단
06.25	제 63주기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 원혼 합동위령제	용담 레포츠평원	도립제주교향악단
06.28	2013년 상반기 퇴임식	시청 제1 별관	도립제주교향악단
07.14	창작오페라 오디션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오페라단
07.22	제63주기 삼면원혼 위령제	삼면원혼위령제단	서귀포관악단
07.29~08.01	제6회 제주피아노학회 캠프	제주대학교 음악관	제주시
07.30~08.03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3 여름음악캠프	회천리조트	제주시
08.02	2013 서귀포여름음악축제	서귀포천지연 야외공연장	도립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
08.07~08.16	2013 제18회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8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제주아트센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08.08~08.13	2013 제18회 제주국제관악제 타악기 캠프	회천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08.14	제4회 국제U-13관악대경연대회 U-13 Band Contest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08.09~08.19	2013 서귀포 야해 페스티벌	서귀포 표선 해비치 해변	서귀포시청
08.17	소리어울림 “음악캠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대학교 소리어울림음악멘토링센터
08.30	1차 2013 JEJU 장애인뮤직페스티벌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제주시
09.24	2차 2013 JEJU 장애인뮤직페스티벌	동홍아트홀	서귀포시
09.27	불로장생(不老長生)을 테마로 한 제19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서귀포칠십리공원 특설무대	도립 서귀포관악단/서귀포시청
10.04	탐라합창제	제주문예회관	도립서귀포합창단/서귀포시청
10.03~10.05	2013 제주관악제	제주학생문화원	한국관악협회 제주지회
10.09	567돌 한글날 경축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 제주합창단
10.11~10.13	JET FEST (JEJU Experience Tour & Festival)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제주시전역	기획집단 제주바람
10.29~10.30	마스터클래스-클라리넷 거장 줄리안밀키스 제주초청 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음악교육연구소
11.22	2013 서귀포 세계감굴박람회 초청연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도립 서귀포관악단
11.27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느영 나영 한마당 축제 초청연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도립 서귀포관악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1.24	제18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도립 서귀포관악단
12.05	3차 2013 JEJU 장애인뮤직페스티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시
12.19	서귀포시 행정명품경진대회 특별출연	김정문화회관	도립 서귀포합창단
12.20	201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	제주문예회관	도립제주교향악단/제주합창단

국악 전통예술

일자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2	허튼 곳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주)노리안마로
02.06	제주 큰굿이야기 '허튼굿-신임하소록'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주)노리안마로, (사)제주큰굿보존회
02.08	함께하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민요동아리 민요공연'	제주시보건소 노형지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요동아리
02.06~02.10	호주CNY페스티벌(시드니)	호주, 달링하버, 페스티벌 공연장	(주)노리안마로, 비스타엔터테인먼트
03.06	허튼굿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주)노리안마로
03.09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제주농요공연	새별오름	제주농요보존회/제주시
03.12	영천문화원과의 문화교류공연	시민회관 1층	서귀포문화원/서귀포문화원 부설민속보존예술단
03.12	영등환영풍어제	제주시수협어판장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03.13	제주농요 김향옥 초청공연	제주대아라뮤즈홀	제주대문화광장
03.23	토요박물관 산책무대 -퓨전국악밴드 '고래야(古來惹)' 공연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국립제주박물관
03.25	영등송별대제	제주시 사라봉 칠머리당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04.03	4·3비나리	제주4·3평화공원 야외광장	(주)노리안마로
04.03	제주 큰 굿 이야기 '허튼굿-불도맞이2'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주)노리안마로
04.05	왕벚꽃축제 제주농요공연	종합운동장 특설무대	제주농요보존회/제주시
04.13	대금연주회	한라아트홀	대낭소리
04.18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자미성요양원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04.24	국악공연팀 풍류에 초청공연 '악(樂)요(樂)락(樂)'	제주대아라뮤즈홀	제주대문화광장
05.01	제주 큰 굿 이야기 '허튼굿-보세감상'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주)노리안마로, (사)제주큰굿보존회
05.01~09.30	어르신문화동아리활성화민속공연	평안요양원,정혜재활원, 남제주요양원 등	서귀포문화원/서귀포문화원 부설민속보존예술단
05.01~10.31	신명을 전하는 저잣거리 다이나믹 예술난장 제주광대들2	전국 12개 시도	(주)노리안마로
05.09~10.17	관광객과 함께 하는 해녀노래 공연	해녀박물관	해녀노래보존회(사라예술단) /해녀박물관
05.10	함께하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민요동아리 민요공연'	제주시보건소 노형지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요동아리
05.10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평안요양원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05.18	세계박물관의 날	국립중앙박물관	(주)노리안마로, 국립중앙박물관
05.25	찾아가는 연물굿	한국노인복지센터	풍물굿패 신나락
05.26	찾아가는 연물굿	한라요양원	풍물굿패 신나락
06.01	권미숙의 창작곡 제주아리랑과 육자배기 발표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재) 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지부
06.03	2013년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함께하는 “국악 신세계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국악원/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진흥원

일자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6.05	제주 큰 굿이야기 '허튼굿-용놀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주)노리안마로
06.05	국악뮤지컬 하얀눈썹호랑이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국악뮤지컬집단 타루/해비치 아트페스티벌/문화예술진흥원
06.05	봄,여름,가을,겨울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아즐가/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진흥원
06.05	THE BEYONDERS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스톤재즈/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진흥원
06.05	컨템포러리 판소리 <북극가>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엠제이플래닛/해비치아트페스 티벌/문화예술진흥원
06.05	노름마치 풍[風] THE K-WIND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사)노름마치예술단/해비치아 트페스티벌/문화예술진흥원
06.05	SOUL 打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사)문화프로덕션도모/해비치 아트페스티벌/문화예술진흥원
06.08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경천요양원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06.13~07.11	찾아가는 문화예술 “제주바당어머소리” 공연	해녀박물관	해녀노래보존회(사라예술단)
06.22	찾아가는 연물굿	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풍물굿패 신나락
06.23	찾아가는 연물굿	한아름전문요양원	풍물굿패 신나락
06.26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장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가락'	주사랑 요양원	(주)노리안마로
06.28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장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가락'	세화요양원	(주)노리안마로
06.29	찾아가는 연물굿	나눔요양원	풍물굿패 신나락
07.03	제주 큰 굿 이야기 '관세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주)노리안마로
07.06~08.25	2013 일요상설공연 소나무숲 국악콘서트	한라수목원 하나아트 야외무대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07.25	정기공연 '푸다시' (2013 에딘버러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작)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노리안마로
07.25	KBS 국악관현악단 남상일의 흥부놀부 이야기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08.01~08.10	뒤뚱드생로즈 민속축전	프랑스/ 프랑스령 과들루프	(주)노리안마로 / CIOFF(International Council of Organizations of Folklore Festivals and Folk Arts · 세계민속축전)
08.03~08.04	제26회 전국민족국악한마당 2013 제주 -마당극 및 퓨전 콘서트 등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놀이패한라산
08.12~08.28	꼭 봐야할 공연 10	영국 에든버러/ C VENUES	(주)노리안마로/ 프린지 페스티벌
08.17	제주농요전승을 위한 공연	문예회관대극장	제주농요보존회
08.17	계사년 가뭄해소 기우제굿	산지천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08.31	제6회 전통문화향연	탐동 제주해변공연장	제주농요보존회
09.07	제21회 정기공연 '제주 굿한마당'	탐동 제주해변공연장	제주탐라예술단
09.07~09.08	제주섬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 소리축제 -아리랑 아라리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민요패 소리왓
09.14	국악이 재즈를 만났을 때	카페 세바	카페 세바
09.14	제8회 정기공연 “제주섬 국악을 품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09.24~09.30	프라이머 멕시코 코리아	DANZA극장	(주)노리안마로/멕시코
09.28	제17회 서귀포칠십리 가요제	서귀포칠십리시공원	서귀포문화원

일자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28	故 안사인선생님 추모곡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전수관(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10.12	제12회 거문고 정악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제주택견전통문화예술원
10.12	가향과 함께하는 국악여행	제주대아라뮤즈홀	국악단 가향
10.14	유명주의 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유명주전통춤용단
10.19	바람의 섬 두번째 이야기	제주대아라뮤즈홀	제주빌레앙상블,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10.19	남도민속보존회 제13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남도민속보존회
10.24	NEO(네오) 푸다시	김정문화회관	(주)노리안마로
10.25	제주스테이 비우다의 두번째 하우스콘서트 -음악트리오 YPK	제주스테이 비우다	제주스테이 비우다
11.22~11.24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사업 -소옥의 아리랑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민요패 소리왓
11.23	국악의 꽃 판소리 한마당	한라아트홀소극장	(재) 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지부
11.29~11.30	2013 국악콘서트 '通'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12.13	전통 예술 제주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 로천예악진흥협회
12.15	2013 제주국악관현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국악관현악단
12.20	서귀포문화예술인의 밤	서귀포시민회관	서귀포문화원
12.22	테우리코시, 도그네 포제 걸궁 공연	제주시민회관	제주시민속보존협의회
12.24~12.25	공연 '삼승할망꽃놀래', '우리할망넌 영 살았수다'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민요패 소리왓
12.27	2013 연말맞이 희망나눔 '난장'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노리안마로
12.30	제주도민 무사안녕 기원곡(시왕맞이)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국악 기타행사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2.01~08.31	2013년 생생문화재사업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04.01~10.31	문화학교 운영 (난타,무용,가요,향토역사,요가,민요6개강좌)	서귀포시민회관	서귀포문화원
08.13	제12회 전도학생물놀이 경연대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 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09.10	한가위 다들영 놀아봄주 (권역별 어르신 문화축제)	제주해변공연장	서귀포문화원, 한국문화원연 합회, 제주도문화원연합회
10.02~10.06	제52회 탐라문화제	제주시 탐동광장	사단법인 한국예총제주특별지 도연합회/제52회탐라문화제 추진위원회
10.02~10.04	제52회 탐라문화제 기념 전국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0.02	제32회 대한민국국악제	탐라문화제 탐동 주행사장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05 10.13"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제주대아라뮤즈홀	(사)한국청소년제주연맹
10.06	제30회전국민요경창대회	탐라문화제 탐동 주행사장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10.11~10.12	제20회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	성읍민속마을 남문광장	성읍1리마을회,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10.18	거문오름 휴휴(Hue.休)페스티벌	세계자연유산센터 특설무대	제주관광공사, (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10.19	2013년 삼성혈 문화의 거리 축제 -탐라천년의 시간을 거닐다	삼성혈문화의 거리 일대	이도1동
연중	지역문화단체육성(성산읍민속보존회, 정의 골소리패, 남원풍물패, 덕수리민요소리패, 대정시조회, 서귀포민속보존예술단)	성산,표선,남원,덕수, 대정, 서귀포	서귀포문화원
12.20	서귀포문화예술인의 밤	서귀포시민회관	서귀포문화원
12.22	테우리코시, 도그네 포제 걸궁 공연	제주시민회관	제주시민속보존협의회
12.24~12.25	공연 '삼승할망꽃놀래', '우리할망넌 영 살았수다'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민요패 소리왓
12.27	2013 연말맞이 희망나눔 '난장'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노리안마로
12.30	제주도민 무사안녕 기원굿(시왕맞이)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국악 수상

일자	수상자	소속	수상명	주최 및 주관
08.13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 김녕중학교,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 김녕중학교,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제12회전도학생 풍물놀이경연대회 최우수상	제주자치도 문화원연합회
10.06	현성이	-	제30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일반부 대상(문화체 육관광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10.06	안보순	-	제30회전국민요경 창대회 일반부 우수 상(제주도지사상)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연극 일반연극 · 뮤지컬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1.18~01.20	감성연극 '15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웃음꽃	극단 웃음꽃
01.25~01.27	러브인 뉴욕 올댓 재즈	제주아트센터	극단 가람	극단 가람
03.01~03.02	연극(초연) "길 위에서 길을 찾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가람	극단 가람
03.02~03.03	창립30주년'30일간의 야유회'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제주대극예술연구회	제주대학교 연극동아리 극예술연구회
03.03	개그쇼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브라더스컴퍼니	브라더스컴퍼니
03.08~03.09 03.15~03.16 03.22~03.23	낭독극장 다량쉬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극단 세이레
03.17	토크콘서트 "창작오페라 -광해 그리고 유배를 말한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제주MBC/ 제주대학교스토링 텔링연구개발센터	제주도 / 제주MBC / 제주대학교스토링텔링 연구개발센터
03.29~03.30	뮤지컬 "투란도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로망스예술무대	로망스예술무대
03.30~03.31	이오네스코의 '수업'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연희단거리패	세이레아트센터
04.13	뮤지컬 "비밥"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CJ E&M/ (주)페르소나	국립제주박물관
04.13~04.14	감성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제주아트센터	화니컴퍼니	화니컴퍼니
04.24	비언소	제주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극단 세이레
04.20~04.21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4	제주아트센터	극단 유리가면	레알코믹스
04.23~04.25	해가지면 달이뜨고	제주아트센터	극단 가람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제22회 제주연극제 및 제 31회 전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04.23~04.25	돼지사냥	제주아트센터	극단 이어도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제22회 제주연극제 및 제 31회 전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04.23~04.25	비언소	제주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제22회 제주연극제 및 제 31회 전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04.26~04.27	기획초청공연 "담배가게 아가씨"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4.27	붓바람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극단 하땅세	국립제주박물관
05.05	난타 (추가공연)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주)제주피엠씨	(주)제주피엠씨
05.10~05.11	비언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세이레	극단 세이레
05.11~05.12	친정엄마와 2박3일	제주아트센터	렛츠고엔터테인먼트	렛츠고엔터테인먼트
05.17~05.18	졸탄 극장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장군엔터테인먼트	장군엔터테인먼트
05.18~05.19	뮤지컬 그리스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5.21~06.02	비언소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극단 세이레
05.22	뮤직드라마 아우크레이지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미니티켓	제주대학교 문화광장
05.25~05.26	트로트 뮤지컬 "사랑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배우=아이들	배우=아이들
05.31~06.02	뽕짝뮤지컬 군수선거	제주아트센터	소풍전날주식회사	제6회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6.03	연극 오돌또기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자파리연구소	제6회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6.04	올림픽하이라이트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좋은공연제작소	제6회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6.05	THE FUNNIEST SHOW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축제하는사람들 이락	제6회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6.05	창작뮤지컬 〈춘향YO-원래,춘향은 못생겼다〉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끼리프로젝트	제6회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6.05	빛, 날다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프로젝트 날다	제6회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6.05	숙영낭자전을 읽다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극단모시는사람들	제6회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6.07~06.08	해비치아트페스티벌 공연 '왕세자실종사건' 뮤지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죽도룩달린다	제6회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6.08	3월의 눈	서귀포김정문화회관	국립극단	제6회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6.08~06.09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제주문화회관 대극장	극단 쇼이즈	극단 쇼이즈
06.13~06.14	연극 『슬픔의 노래』	제주문화회관 소극장	배우=아이들	배우=아이들
06.22~07.31	당신이 주인공	KT제주본부 소극장	만선	만선
07.12~07.13	특별 초청공연 연극 "순이삼촌"	제주문화회관 대극장	Company Da	제주도제주도문화예술 진흥원
07.13	탐댄스 뮤지컬 탐쇼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탐꾼	국립제주박물관
07.25	흥부놀부이야기	제주아트센터	KBS국악관현악단/선 화예술무용반/남상일	KBS제주방송총국
07.26~08.15	라스베가스 오리지널 아크로바틱 일루션 매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썬스그레이벨	더블요소 프로덕코리아
07.30	침묵	4·3 평화공원 큰마당	부토 천공요람 서승아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7.30	붉은 목숨 서산에 꽃으로 오소서	4·3 평화공원 큰마당	행위예술가 한영애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7.30	마당극 품바품바 열림굿	4·3 평화공원 큰마당	극단 갯돌(목포)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7.31	아름다운 사람 아줌마 정혜선	4·3 평화공원 내 소극장	극단 함께사는 세상 (대구)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7.31	춤추었을 뿐인데	4·3 평화공원 내 소극장	연극자리 소풍 (제주)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7.31	감자꽃	4·3 평화공원 작은마당	도도 연극과 교육연구소(대구)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7.31	하늘 가는 물고기 바다 나는 새	4·3 평화공원 작은마당	극단 항로(일본)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7.31	열사국 〈죽은 광대들의 기억의 시간〉	4·3 평화공원 작은마당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청송)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7.31	사월굿 마지막 빨치산	4·3 평화공원 큰마당	놀이패 한라산(제주)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7.31	그여자 뽕파	4·3 평화공원 큰마당	별고을광대(성주)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8.01	1인극 〈꾸러미 The Package〉	4·3 평화공원 내 소극장	Deborah Hunt (푸에르토리코)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8.01	춤추었을 뿐인데	4·3 평화공원 내 소극장	연극자리 소풍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8.01	바람의 기억	4·3 평화공원 작은마당	극단 함께사는 세상 (대구)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8.01	1004년을 공존해온 평화를	4·3 평화공원 내 소극장	이름없는 공연팀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8.01	마당극 4.24의 바람	4·3 평화공원 큰마당	극단 달오름(일본)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8.01	동학창작탈굿 눈자라기	4·3 평화공원 작은마당	극단꼭두광대(청주)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8.01	1인극 애꾸눈 광대	4·3 평화공원 큰마당	(재)광주문화재단, (사)나라사랑예술단	놀이패 한라산 / 제7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
08.02	귀동아 방귀동아	제주문예회관 큰마당	(사)예술공장 두레 (청원)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26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2	삼석울림	제주문예회관 큰마당	풍물굿패신나락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27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2	아리랑을 위한 비나리	명도암유스호스텔 앞마당	양일동(부산)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28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	사월굿 마지막 빨치산	명도암유스호스텔 앞마당	놀이패 한라산(제주)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29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	마당인형극 지성이와 감천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현장(서울)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30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	진숙아 사랑한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노래극단 희망새(서울)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31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	썰미오와 줄리엣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해풍(부산)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32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	우리동네 편의점 블루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동네풍경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33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	마당극 별을 먹는 장돌뱅이	제주문예회관 큰마당	(사)마당극패 우금치(대전)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34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	마당극 꽃 같은 시절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놀이패 신명(광주)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35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	마당극 4.24의 바람	제주문예회관 큰마당	극단 달오름(일본 오사카)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36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	동학창작탈굿 눈자라기	명도암유스호스텔 앞마당	극단 꼭두광대(청주)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37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	우리이젠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명도암유스호스텔 앞마당	이름없는 공연팀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38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4	마당인형극 지성이와 감천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현장(서울)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39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4	우리 할망넌 영 살아수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민요패 소리왓(제주)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40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4	동희호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일터(부산)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42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4	바람의 기억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함께사는 세상 (대구)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43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4	뚝 달린 나무	제주문예회관 큰마당	극단 자갈치(부산)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44회 전국민족극한마당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8.04	심청이 놀부를 만났을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마당극단 줄다(대전)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45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4	마당굿 순풍에 돛달고	제주문예회관 큰마당	큰들문화예술센터 (진주)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46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4	춤 추었을 뿐인데	명도암유스호스텔 앞마당	연극자리소풍(제주)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제47회 전국민족극한마당
08.03~08.04	복사꽃 지면 송화날리고	제주아트센터	극단이루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8.05~08.06	공연장상주단체 연극교실	한라아트홀	극단가람	극단가람
08.08~08.09	공연장상주단체 교류전 -로라의 유리동물원	한라아트홀 소극장	극단 예휘	극단가람
08.10	더퍼니스트쇼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축제하는 사람들이라	국립제주박물관
08.14~08.18	공연장상주단체 연극교실	한라아트홀	극단가람	극단가람
09.02	휠에서힐링받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예술극회 휠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전국장애인연극제
09.03	맹사장택 경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햇빛촌 (경남)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014 전국장애인연극제
09.04	세상밖으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녹두 (경기)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전국장애인연극제
09.05	사랑이지나가면2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서툰사람들 (제주)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전국장애인연극제
09.03, 09.05~09.06	매직&버블쇼	한라아트홀	극단제이엠	극단제이엠
09.09~09.13	뮤지컬 낚솔	한라아트홀	극단가람	극단가람
09.13	헬리콘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대학교 영어영문과	제주대학교 영어영문과
09.14~09.15	뮤지컬 그날들	제주아트센터	(주)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09.14~09.15 09.21~09.22"	도둑의 품격	미예랑 소극장	극단 이어도	극단 이어도
09.21	제24회 우리네공연 연극 "광인들의 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우리네연희연구회	우리네연희연구회
09.26~10.05	교수와 여제자2	제주러브랜드 아트센터	예술집단 참	제주러브랜드
9.27~09.28	기획·초청공연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CJ E&M/ (주)빌리지엔터테인먼트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9.30	마당극 뽕파전	성산농협 대회의실	극단 갯돌(목포)	성산농협
10.09	홍터	KT제주본부 소극장	P&P커뮤니케이션	P&P커뮤니케이션
10.05~10.06 10.13~10.14	주부들의 이야기 -지지고 볶고	미예랑 소극장	퍼포먼스단 몸짓	퍼포먼스단 몸짓
10.20	동치미	한라아트홀	극단가람	극단가람
10.25~10.26	몽생이의 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세이레	극단 세이레
10.27	제주콘서트콰이어 뮤지컬 뽕고랑 레스토랑 II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콘서트콰이어	제주콘서트콰이어
10.30~11.21	크리스마스에 삼십만원을 만날 확률	세이레아트센터	극단 세이레	극단 세이레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11.09	코믹컬 드림걸즈	제주아트센터	(주)엠플러스	(주)엠플러스
11.1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연극으로배우며놀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21	일본전통희극 교겐	제주대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일본국제교류기금
11.28~11.30	의자는 잘못 없다	미예랑 소극장	극단 이어도	극단 이어도
12.01	뮤지컬 낫술	서귀포김정문화회관	극단가람	서귀포시
12.04	뮤지컬 낫술	제주대 아리무즈홀	극단가람	제주대문화광장
12.07	실버스타연극단 정기공연 -불효자는 읊니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2.17	빈방있습니까	한라아트홀	제주극동방송	제주극동방송
12.04~12.26	기막힌 동거	세이레아트센터	제주 극단 세이레	제주 극단 세이레
12.08~12.10	늙은부부이야기	한라아트홀	극단가람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22회소극장연극축제
12.19~12.21	우리사랑해도 될까요	미예랑 소극장	극단 이어도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22회소극장연극축제
12.23~12.25	뮤지컬 '넌센스 2'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미르앤컴퍼니/ 제주명키	미르앤컴퍼니/제주명키
12.23~12.25	극예술연구회 정기공연 -여우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제주대학교극예술연구회
12.24~12.25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제주아트센터	미르앤컴퍼니	미르앤컴퍼니
12.27~12.28	아름다운 사람 울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대학생성경읽기 선교회	대학생성경읽기 선교회
12.27~12.29	기막힌 동거	세이레아트센터	제주 극단 세이레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22회소극장연극축제
12.28~12.29	모두를 위한 동화 -비오는 날의 풍경 레이니데이	꿈꾸는 고물상 내 보물창고	꿈꾸는 고물상	꿈꾸는 고물상
연중공연	판타스틱	제주관광대학 컨벤션홀	(주) 해라/(주)제이팩	(주) 해라/(주)제이팩
연중공연	년버벌 퍼포먼스 난타	제주대학교 아리무즈홀	제주피엠씨주식회사	제주피엠씨주식회사

연극 청소년극 · 아동극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1.12~01.13	가족뮤지컬 '피터팬'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극단 술이	S.R 뮤지컬 컴퍼니
01.19~01.20	어린이 뮤지컬 "빨간모자와 늑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아트컴퍼니	아트컴퍼니
01.30	가족극 "탐나를 구하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02.15~02.17	EBS 캐릭터 뮤지컬 "빼꼼이의 천방지축"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피앤피커뮤니케이션	피앤피커뮤니케이션
02.28	난, 아프지 않아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청소년극회 2기	제주 극단 세이레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3.06, 03.07, 03.13, 03.14, 03.20, 03.21, 03.27, 03.28	무지개물고기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어린이극장	극단 세이레
03.09	그림자극 '비발디의 사계'	국립제주박물관 대강당	극단 '영'	국립제주박물관
03.09~03.10	어린이 캣츠	제주아트센터	J엔터컴	J엔터컴
03.23~03.24	코코몽 시즌 2 -출동 로보콩	제주아트센터	아트컴퍼니	아트컴퍼니
03.30~03.31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삼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놀이기획	놀이기획
04.19~04.21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수눔음	극단 수눔음
04.27~04.28	한자교육뮤지컬 마법천자문	제주아트센터	초록공간문예기획단	초록공간문예기획단
05.03~05.04	버블아트 매직 쇼	제주아트센터	극단 국민	극단 국민
05.15	상상놀이극 '애들이 같이 놀자'	동홍아트홀	극단나무	동호동주민센터
05.24~05.26	죽꾸는할망	간드락소극장	자파리연구소	자파리연구소
05.25~05.26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제주아트센터	극단 술이	극단 술이
06.01~06.16	거리위의 빨간모자	간드락소극장	극단 YA	간드락소극장
06.04	동요콘서트 구름빵	한라아트홀	(주)뮤지컬구름빵	해비치아트페스티벌 / 문화예술진흥원
06.05	동요콘서트 구름빵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홀	(주)뮤지컬구름빵	해비치아트페스티벌 / 문화예술진흥원
06.05~06.06	아기돼지 삼형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국민	극단 국민
06.07~06.08	뮤지컬 통과 체리	제주아트센터	극단수눔음공연예술	극단수눔음공연예술
06.08	재크의 요술지갑	국립제주박물관	(주)꿈꾸는용	국립제주박물관
06.11~06.13	해와달이된오누이	한라아트홀	두부기획	두부기획
06.27	무지개물고기	한경도서관	세이레어린이극장	극단 세이레
06.22	으랏! 천둥아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자파리연구소	국립제주박물관
06.28~06.30	으랏! 천둥아	간드락소극장	자파리연구소	간드락소극장
06.28~06.30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제주아트센터	극단 국민	극단 국민
06.29~06.30	파워레인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유리가면	극단 유리가면
07.01~07.02	유랑극단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대사대부고 연극부	한국메세나협회/한국연극 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01~07.02	탐과 그림자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외국어고 연극부	한국메세나협회/한국연극 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01~07.02	그 놈을 잡아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대정여고	한국메세나협회/한국연극 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04~07.07	북마임	간드락소극장	극단 이미지헌터빌리지	간드락소극장
07.24~07.27	공연장상주단체 교류전 -돈키호테	한라아트홀	극단21	극단가람
07.10~07.12	토끼와자라	한라아트홀	두부기획	두부기획
07.19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심인	극단 심인
08.02~08.04	꿈꾸는 아이들	간드락소극장	자파리연구소	자파리연구소
08.10~08.11	어린이마술쇼	한라아트홀	놀이기획	놀이기획
08.25, 08.31	그 여름 마지막 마술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French Drop	French Drop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8.30~09.01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제주아트센터	극단수놓음공연예술	극단수놓음공연예술
08.31~09.01	버블아트 매직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버블아트	버블아트
09.28	가족뮤지컬 안아줘요 무무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극단뮤다드	국립제주박물관
09.28	어린이뮤지컬 보물섬제주	한라아트홀	제주문화기획연구소	제주문화기획연구소
09.28~09.29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제주아트센터	극단 국민	극단 국민
10.01	애들아 같이놀자	애월읍수산리 마을회관	극단나무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우리동네 예술제
10.02~10.03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애월읍수산리 마을회관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우리동네 예술제
10.02~10.03	뮤지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제주아트센터	극단수놓음공연예술	극단수놓음공연예술
10.10~10.11	복합뮤지컬 피터와늑대	한라아트홀	두부기획	두부기획
10.20	제1회 주니어 마술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한국마술협회 제주센터	사)한국마술협회제주센터
10.27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꿈틀꿈틀 인형극장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외국인 평화공동체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11.02~11.03	꼬마버스 타요	제주아트센터	ES생활문화	ES생활문화
11.13~11.14	인형극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삼형제이야기(시즌2)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장애인인형극동아리 “깨비랑”	장애인인형극동아리 “깨비랑”
11.20~11.30	인형극 글방의 아이들	세이레아트센터	제주 극단 세이레	제주 극단 세이레
11.20~11.22	복합뮤지컬 피터와늑대	한라아트홀	두부기획	두부기획
11.25~12.01	2013 매직 페스티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수놓음예술공연	극단 수놓음예술공연
11.30~12.01	리틀 라이온	제주아트센터	극단 술이	극단 술이
12.05~12.06	어린이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바투	극단 바투
12.12	빨간 모자야 위험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극단 심인	극단 심인
12.21~12.22	어린이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제주아트센터	극단 유리가면	극단 유리가면

연극 도외공연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3.03~03.10	뮤지컬 숨비소리	독일베를린	숨비소리컴퍼니	국제관광박람회 ITB
03.16~03.17	우수국제공연예술가와의 만남 - 가족극 오돌또기	일본/카고시마어린이 예술센터	자파리연구소	카고시마 어린이예술센터
08.07~08.19	탐과 그림자	서울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연극부	한국메세나협회/제17회 전국청소년연극제
09.05	가족극 오돌또기	정선 (공연장 미상)	자파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9.07	가족극 오돌또기	인천 (공연장 미상)	자파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9.09	가족극 오돌또기	평택 (공연장 미상)	자파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9.10	가족극 오돌또기	공주 (공연장 미상)	자파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9.11	가족극 오돌또기	서산 (공연장 미상)	자파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9.14	가족극 오돌또기	구리 (공연장 미상)	자파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9.17	가족극 오돌또기	순청 (공연장 미상)	자파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9.24	가족극 오돌또기	성산 (공연장 미상)	자파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극 수상

일자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07.05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연극부 페르소나	제17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제주예선대회 및 제16회 제주청소년연극제 단체 최우수상	탐과그림자	한국메세나협회 /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23~07.25	극단 가람	제22회 제주연극제 및 제31회 전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최우수상	해가지면 달이뜨고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연극 행사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23~04.25	제22회 제주연극제 및 제31회 전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제주아트센터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5.03	2013 평화예술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06.03~06.05	제6회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해비치호텔 및 표선 해비치해변 일대	제6회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07.01~07.02 07.05	제17회 청소년 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07	제주설화공연 및 동화구연대회	한라아트홀	사)색동회제주지회
07.31~08.01	제7회4·3평화인권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 한라산
08.02~08.03	연극교실	한라아트홀	극단가람
08.02~08.04	제26회 전국민족극한마당	제주문예회관 및 제주시 일대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08.31	백록예술제	한라아트홀	드림엔터테인먼트
09.02~09.05	2013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30~10.03	우리동네 예술제	조천읍 애월읍 등의 마을무대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12.08~12.29	제22회소극장연극축제	한라아트홀 소극장, 미예 랑소극장, 세이레아트센터	(사)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무용 종합

일자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비고
02.04	2013년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추자도 등 제주전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예술진흥원, 제주특별 자치도립무용단	
02.26	Dream of Ballet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숙명발레아카데미	
04.03	제65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 추모공연 (눈부시리 만치 찬란한 그 날을 보다)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제주도립무용단	
04.05	제주도립무용단 제43회 정기공연 (눈부시리 만치 찬란한 그 날을 보다)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무용단	
04.05	도립무용단 제43회 정기공연	제주아트센터	문화예술진흥원	
04.20	플라멩고공연 '제주, 봄 바람, 그리고 플라멩고'	레아플라멩고 아카데미	레아플라멩고 아카데미	
05.03~05.05	2013 제주평화예술제	제주도문예회관 및 서귀포 칠십리 시공원	한국예총제주특별 자치도연합회	
05.05	제주오름민속무용단, 2013 찾아가는 문화활동	창암재활원	제주오름민속무용단	
05.23	제주오름민속무용단, 2013 찾아가는 문화활동	위미에덴요양원	제주오름민속무용단	
05.30	제주오름민속무용단, 2013 찾아가는 문화활동	성이시돌요양원	제주오름민속무용단	
06.04	삼일 밤 삼일 낮	제주해비치호텔 그랜 드볼룸홀	(사)NOW무용단/ 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진흥원	
06.15	제2회 스윙댄스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댄스스포츠연합회 스윙댄스분과	
06.20	찾아가는문화활동 얼썬! 좋다 우리도 할수있쎄	세화요양원	한국무용협회 제주시지부	제주시지부 무용단
06.28	찾아가는문화활동 얼썬! 좋다 우리도 할수있쎄	외도성지요양원	한국무용협회 제주시지부	제주시지부 무용단
07.05	물음표가느낌표에게	한라아트홀	예지무용단	
07.07	故 최현선생 추모공연 '비상VI'	서울대학교예술극장 대극장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최현충보존회	제주도립무용단 배상복 안무가 참여
07.11	제주오름민속무용단 11~13일 '승무 연수'	올레민속무용단 연습실	제주오름민속무용단	
07.27	제3회 지젤발레 축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지젤발레단	
07.28	박윤희 벨리댄스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박윤희벨리댄스	
08.01	여름방학 숨비소리 무용교실	금악초등학교	무용강사 이영주	
08.18	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	탐동 해변공연장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	
08.21	제3회전국청소년무용콩쿨대회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	
08.25	2012년전통춤 워크샵(진주교방무)	올레민속무용단	제주시	
08.30	살롬발레단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살롬발레단	

일자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비고
10.01	이지은 무용발표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현대무용가 이지은	
10.06	제52회 탐라문화제기념 중국 길림예술단 초청 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0.25~10.26	제주도립무용단 제44회 정기공연 (Soul of Jeju IV-제주환타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문화예술진흥원	
10.25	舞 - 춤을추다	서귀포 김정문화회관	이연심	
11.02~11.03	반렌브란덴가 32번지	서울 LG아트센터	피핑통 무용단	제주출신 김설 진씨 공연
11.05	제주도립무용단 상임단원 공개모집	제주도립무용단	제주문화예술진흥원	
11.09	제3회 제주시 청소년 통(通)큰 Festival	탐동 해변공연장	제주시청소년 시설협회	가요, 댄스, 퍼포 먼스 경연무대
12.08	발레하우스 정기 공연	제주대아라뮤즈홀	발레하우스	
12.22	영계울림-춤, 제주에 스며들다	한라아트홀 소극장	(사)제주춤아카데미	
12.29	제2회 빛무용단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빛무용단	

무용 수상

일자	수상자	소속	수상명
01.15	이지은	체코프라하 체임버발레단	이탈리아베니스 국제아트엑스포 우승
03.06	한명정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이수자격 취득

영상 상영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1~02.28	끼리끼리 상영회 '어이그 저 콧것' '뽕돌' 상영	제주 전역	자파리필름
01.08	제주씨네클럽 '네멋대로해라'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2.05	제주씨네클럽 '사랑해파리'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2.05	씨네토코쇼 보여줘! 이 영화 '서칭 포 슈가맨'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2.19	씨네토코쇼 보여줘! 이 영화 '더 헌트'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2.23~02.24	좋은영화 무료상영 '광해 왕이 된 남자'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2.24	예술 테마가 있는 영화감상회 '비욘드 사일런스' 상영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제주도립미술관
03.01	지슬 공식개봉	제주 CGV	자파리필름
03.05	제주씨네클럽 '제8요일'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3.07	가족의 나라 공식개봉	전국	Star Sands, Slow Learner
04.02	제주씨네클럽 '세라핀'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4.16	찾아가는여성영화, 달콤삼삼름한 여성영화 맛보기 '사라의 열쇠' 상영	영화예술극장	2013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 / (사)제주여민회
05.07	제주씨네클럽 '토토의천국'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5.11~05.12	좋은영화 무료상영 '호리는강물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상영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6.07	찾아가는여성영화, 달콤삼삼름한 여성영화 맛보기 '바다를 건너 온 엄마' 상영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 / (사)제주여민회
06.11	제주씨네클럽 '잠수종과 나비'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6.25	지슬 재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07.02	제주씨네클럽 '라비앙로즈'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7.27	찾아가는여성영화, 달콤삼삼름한 여성영화 맛보기 '밤의 이야기' 상영	이호태우해변	2013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 / (사)제주여민회
07.28	예술 테마가 있는 영화감상회 '어거스트 러쉬' 상영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제주도립미술관
07.31	씨네토코쇼 보여줘! 이 영화 '인 더 하우스'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8.06	제주씨네클럽 '코파카바나'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8.13	씨네토코쇼 보여줘! 이 영화 '춤추는 숲'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8.24	좋은영화 무료상영 '가면속의 아리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8.25	좋은영화 무료상영 '딕타 지바고'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03	제주씨네클럽 '프린스 앤 프린세스'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09.06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 출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09.27	특별시사회 '히어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10.08	제주씨네클럽 '쇼팽의 푸른노트'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10.12	응답하라 1960 서문극장 '완득이' 상영	제주서문공설시장 3층 대회의실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0.15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 영화 '마지막 4중주'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10.19	응답하라 1960 서문극장 '7번방의 선물' 상영	제주서문공설시장 3층 대회의실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0.22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 영화 '나에게서 온 편지'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10.23, 10.25, 10.30	베리어프리 영화 '잘 보여! 잘 들려! 마음으로 보고 듣는 가족영화관' ('7번방의 선물', '그대를 사랑합니다' 상영)	제주읍면지역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0.26	응답하라 1960 서문극장 '시티라이트' 상영	제주서문공설시장 3층 대회의실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0.29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 영화 '블루 재스민'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11.01	다큐멘터리 산악영화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상영	영화문화예술센터	(사)제주영상위원회
11.02	응답하라 1960 서문극장 '그대를 사랑합니다.' 상영	제주서문공설시장 3층 대회의실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1.05	제주씨네클럽 '버터플라이'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11.05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사랑에 빠질 확률'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11.09	응답하라 1960 서문극장 '연애의 목적' 상영	제주서문공설시장 3층 대회의실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1.12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 영화 '러브 레이스'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11.16	응답하라 1960 서문극장 '과속스캔들' 상영	제주서문공설시장 3층 대회의실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1.19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 영화 '어떤 시선'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11.23	응답하라 1960 서문극장 '마지막 4중주' 상영	제주서문공설시장 3층 대회의실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1.26	씨네토크쇼 보여줘! 이 영화 '로마 워드 러브' 상영	메가박스 제주	(사)제주씨네아일랜드
11.30	응답하라 1960 서문극장 '위캔드넷' 상영	제주서문공설시장 3층 대회의실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2.03	제주씨네클럽 '피카소의 미스테리' 상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문화기획PAN, 주한프랑스문화원
12.22	예술 테마가 있는 영화감상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입니까' 상영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제주도립미술관
12.27	좋은영화 무료상영 '인셉션' 상영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2.28	좋은영화 무료상영 '센스앤센서빌리티' 상영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2.29	좋은영화 무료상영 '부러진하늘' 상영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영상 수상

일자	수상단체(개인)	수상명	수상작	주최 및 주관
01.26	오멸(자파리필름)	29회 미국 선댄스영화제 월드시네마 극영화 부문 심사위원대상	지슬	선댄스영화제
02.12	오멸(자파리필름)	프랑스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황금수레바퀴상	지슬	프랑스브졸 국제아시아영화제
05.15	오멸(자파리필름)	이스탄불 국제영화제 인권극영화경쟁부문 심사위원특별언급상	지슬	이스탄불 국제영화제
06.20~06.29	오멸(자파리필름)	모스크바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특별전 '지슬'상영	지슬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10.26	김유경(남원초)	제13회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 장려상	나는 자유를 갈망한다	한국청소년 영상예술진흥원
10.26	오지민(남원초)	제13회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 장려상	남자답게사는법	한국청소년 영상예술진흥원
10.26	창천초 영화반	제13회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 은상	오늘의 숙제	한국청소년 영상예술진흥원

영상 행사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04~07.05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우수사례발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영상미디어센터
07.07	여성영화제 비경쟁 작품 4편 선정	(사)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회 / (사)제주여민회
07.07~07.12	제주영화제 작품 공모	(사)제주씨네아일랜드 (홈페이지)	제주영화제집행위원회 / (사)제주 씨네아일랜드
08.21~12.14	도서관 속 시네마 원정대	한라도서관	컴트루통합문화 예술교육기획
09.06~09.09	2013 제주영화제	메가박스 제주	제주영화제집행위원회/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26~09.29	2013 제주여성영화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회/ (사)제주여민회
10.12	응답하라 1960 서문극장 프로젝트 서문극장 개관	제주서문공설시장 3층 대회의실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11.07~11.09	2013 제14회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11.15~11.17	2013 제4회제주프랑스영화제 '사랑해파리'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11.30~12.01	도서관 속 시네마원정대 크랭크인 캠프	한라도서관	컴트루통합문화예술교육기획
12.12~12.14	DSLR을 활용한 특수촬영 워크숍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제주영상위원회
12.14	원씨원컷페스티벌	한라도서관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영상 영화제 상영작

일자	상영작	장소	영화제	주최 및 주관
09.06~09.09	9월이 지나면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그레코로만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자네 아내와 여행을 가고 싶네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팔당 사람들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숨바꼭질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사랑의 대화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온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밀청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피스, 피스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더 케이스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탐욕의 제국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나들이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웰랑 드레이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꼬다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첫 데이트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그 강아지 그 고양이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자네 아내와 여행을 가고 싶네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거짓말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울게하소서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9월이 지나면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삼인성호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사랑의 묘약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아동학대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레바논 감정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팔당 사람들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달이 기울면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잔인한 내림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그레코로만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축지법과 비행술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그녀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일자	상영작	장소	영화제	주최 및 주관
09.06~09.09	잘 먹고 잘 사는 법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곧 죽어도 여자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웨딩세레모니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06~09.09	404호	메가박스 제주	제9회 제주영화제	(사)제주씨네아일랜드
09.26	알라에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6	원더우먼! 슈퍼히로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6	춘정 골든차일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6	노라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7	살점하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7	짜을 찾아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7	잔인한 나의 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7	내가 깨어날 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7	살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7	보이지 않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8	그녀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8	앵두야 연애하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8	아버지의 이메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8	노라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8	루시와 목소리의 대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8	에이미의 동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8	원더우먼! 슈퍼히로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28	우리도 사랑일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30	보이지 않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30	공범자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30	에이미의 동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30	비바람을 헤친 긴 사랑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30	레즈비어니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30	그녀의 연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30	마이 플레이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09.30	탐욕의 제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4회 제주여성영화제	(사)제주여민회
11.07	종렬씨의 눈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8	첫면접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일자	상영작	장소	영화제	주최 및 주관
11.08	광화문아래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8	청음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8	장구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8	시선너머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8	파인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8	비정상인?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8	304대 18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8	나비와 바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Shooting Beauty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Este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Lucy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One Question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마이크로폴리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Anything you can do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디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피아니스트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미션임파서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마이크로폴리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Love, sex and disability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11.09	Point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14회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문화예술 단체

2014

제주

문예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문화예술 단체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문학 (26)	구좌문학회	695-976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167	782-8846	고여생	16	2002
	굴림문학회	690-817	제주시 연화중길 20 301호	746-7686	오승휴	150	1991
	글밭제주동인회	699-906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 해안로 2758	784-8882	이승익	20	2004
	녹담수필문학회	690-828	제주시 서광로 29길 25 월드컵아파트 101동 404호	722-0542	문익순	17	2000
	다층문학동인	690-825	제주시 오복 5길 14 1층	757-2265	변종태	50	1990
	동인 맥(脈)	690-828	제주시 광양4길 25	722-0177	이용익	11	2007
	백록수필문학회	690-844	제주시 서광로32길 14-2	758-7497	고성의	81	1998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제주지부	690-833	제주시 동광로13길 5-8	-	류건영	120	1997
	(사)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697-370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54-6	739-2332	윤봉택	96	1993
	(사)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00	제주시 임항로278 제주문학의 집 3층	748-3125	김순이	242	1962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690-800	제주시 임항로 278	070-4115-1038	김수열	80	1998
	새별문학회	690-843	제주시 서광로5길 12 현우빌라 102호	722-4049	김상우	57	2002
	성산포문학회	699-901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73	784-9479	현윤조	16	2008
	시올레동인	690-818	제주시 남녕로 46 동남APT 101동 406호	744-4158	김원욱	5	2009
	아동문학동인 동화섬	690-802	제주시 원노형6길 12-1 동화섬 사무국	747-6664	장영주	70	2002
	애월문학회	695-913	제주시 애월로 139-5	744-5735	강선종	70	2009
	제주동서문학회	690-726	제주시 삼무로 12 제원아파트 A동 106호	746-3365	이동수	20	1996
	제주수필문학회	690-826	제주시 신성로 10길 19 전원파크맨션 505호	738-6769	부희식	85	1994
	제주詩사랑회	690-121	제주시 아란12길 9 아라미화아파트 402호	010-3490-4360	김장선	30	2001
	제주시조문학회	690-814	제주시 신대로22길 20	702-7702	김윤숙	35	1984
	제주아동문학협회	690-802	제주시 1100로 3213-15 A동 502호	712-1056	장승련	29	1980
	제주여류수필문학회	690-818	제주시 성신북길 20 대영빌라 301호	745-2101	양부임	16	2001
	조엽문학회	690-840	제주시 수덕3길 43 2층	757-7578	고훈식	25	1997
	한라산문학동인회	690-840	제주시 수덕9길 61-1 1층	712-1409	신제균	30	1987
	한수풀문학동인회	695-923	제주시 한림읍 금능1길 15	796-7855	양민숙	16	2005
	현대문예제주작가회	697-835	서귀포시 동홍로 36번길 7-1	010-3691-6301	조옥순	45	2007
양악 (78)	CBS제주 아가페합창단	690-802	제주시 원노형로 102 한화아파트 101동 501호	743-5838	김정우	45	1984
	CBS제주 소년소녀합창단	690-813	제주시 신광로 15	748-7400	배재우	40	2001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양악 (78)	KBS제주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690-029	제주시 복지로1길 8 KBS 제주방송총국	749-0939	KBS총 국장	50	1961
	당신의사람들	690-806	제주시 도남로 53	757-1260	우중훈	15	2008
	돌체무먼코러스	690-162	제주시 오라로 10길 6	728-4802	이진영	35	2002
	동굴소리연구회	690-232	제주시 오광로 18-3	743-9793	현행복	10	1992
	리더스 클라리넷앙상블	690-822	제주시 용문로14길 14	711-7750	양상식	8	2008
	모던아츠	690-804	제주시 도령로 15 13층	010-3077-8888	홍정호	25	2005
	밀라노와 친구들	690-833	제주시 신산로15길 36	752-9808	김지은	10	2004
	베가피아노트리오	690-809	제주시 서사로 31 수현빌딩 4층	759-9077	장선경	3	2004
	사단법인 제주특별 자치도 음악학회	690-815	제주시 연삼로 64 707호	747-7776	이춘기	300	2003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690-832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미디어센터내	722-8704	김왕승	35	1995
	(사)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690-121	제주시 구산로 4길 13-4	721-2588	김성현	100	1989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690-817	제주시 국기중길 14 4층	712-9035	김광정	56	1998
	(사)제주특별자치도 음악학회	690-815	제주시 연문4길 6-1 케이앤하우스 101호	070-4383-7861	이춘기	60	2003
	(사)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34	제주시 신산로 34-1 지하	751-8844	강문철	170	1974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690-834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739-3287	김승철	73	1987
	(사)한국음악협회제주 특별자치도지회	690-811	제주시 서사로 40 3층	755-7333	김승철	250	1962
	(사)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도지회	690-788	제주시 신설로 55 이도 한일베라체 102동 1201호	726-1123	김봉균	60	1986
	서귀포 YWCA 소년소녀합창단	697-842	서귀포시 부두로 3	762-1406	고영의	30	1999
	서귀포 청소년오케스트라	697-701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흥동) 문화예술과	760-2481	김영진	50	2011
	소리샘중창단	697-864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 서귀포학생문화원	730-4535	이승자	17	1999
	소리어울림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인문대학 1호관 3층 소리어울림	754-2477	김정희	60	2009
	솔렘남성중창단	690-833	제주시 동광로17길 34-1 301호	-	고창학	13	1991
	시밀레색소폰앙상블	690-802	제주시 1100로 3285 지하 드림뮤직	713-9958	이정석	25	2009
	시밀레주니어앙상블	690-802	제주시 1100로 3285 지하 드림뮤직	713-9958	이정석	15	2012
	신성합창단	690-817	제주시 연북로 70 에코그린 1802호	070-4483-7861	오승직	80	2014
	아마빌레 플루트앙상블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754-2796	허대식	20	2007
	에코재즈밴드	690-043	제주시 서해안로 648 세진상가 404호	-	현충헌	20	1999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양악 (78)	오름브라스콰이어	697-828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88체육관 지하 관악단	739-7394	현은주	11	2004
	원	690-830	제주시 천수로13길 27	-	강택환	13	2003
	자작나무숲	690-162	제주시 아연로 107	747-7596	이현미	24	2002
	제남두드림앙상블	697-845	서귀포시 서호 호근로 183-11 제남아동센터	739-1020	이상준	25	2010
	제네스체임버 오케스트라	690-809	제주시 남성로 156	010-4692-2122	임대홍	20	2002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690-809	제주시 관덕로2길 1 제주YMCA	722-4405	김태성	68	1997
	제주YWCA 여성합창단	690-814	제주시 삼무로 11길 3	711-8322	한애자	36	1972
	제주관음사 관음자비랑합창단	690-121	제주시 산록북로 660	724-6830	장부임	45	2002
	제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695-795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상4길 67	713-8100	배서영	50	1994
	제주남성합창단	690-850	제주시 전농로9길 26-5	750-4375	고준철	25	2003
	제주늘푸른음악회	690-818	제주시 남녕로 32 401호	758-2757	진군흠	40	2001
	제주드림앙상블	690-802	제주시 1100로 3285 지하 드림뮤직	713-9958	이정석	10	2006
	제주목관5중주	695-963	제주시 신촌5길 40-5	-	홍상기	7	2008
	제주부부합창단 '느영나영'	690-824	제주시 가령로 57	-	김천석	34	2000
	제주불교여성합창단	690-815	제주시 연삼로 64 가동 309	010-4690-6968	김정자	40	1992
	제주불교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690-162	제주시 오라2동 1192-1	746-1884	재용스 님	40	1998
	제주브라스앙상블	690-834	제주시 신산로 34-1	744-4784	허성훈	20	1995
	제주빅밴드	690-818	제주시 일주서로 7800 지하	748-7004	김용형	70	2008
	제주소년소녀합창단	690-825	제주시 고산동산1길 9-11 지하1층	-	이진영	45	2000
	제주솔로이스츠	690-809	제주시 서사로 31 수현빌딩 4층	759-9077	장선경	5	2007
	제주신포니에타	690-122	제주시 신설로 6길 8 더클래식 301호	725-6603	김형삼	35	2001
	제주앙상블존 (JUNE)	690-833	제주시 동광로 114 4층	752-3775	강효정	6	1995
	제주오페라단	690-122	제주시 아봉로88 다담빌리지 101-405	702-3409	권영희	156	1988
	제주문드오케스트라	690-832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미디어센터내	722-8704	이유근	65	1999
	제주청소년관악단	690-811	제주시 서사로 40 하나새마을금고 3층	755-7333	윤정택	40	2003
	제주청소년 플루트앙상블	697-831	제주시 연수로 3 지하	-	박소진	30	2003
	제주체임버 오케스트라	690-779	제주시 남광로 181 대유대림APT 310동 202호	753-2882	김인규	30	1984
	제주첼시코랄	690-817	제주시 연북로 70 에코그린 1802호	070-4483-7861	오승직	25	2005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양악 (78)	제주칸투스합창단	690-833	제주시 삼성로18길 28 신산미화아파트 라동 109호	756-0901	강병효	40	2002
	제주콘서트콰이어	690-777	제주시 천수로 92 신천지아파트2차 상가 208동 301호 김현주 음악학원	753-3232	차충성	20	1999
	제주클라리넷앙상블	690-804	제주시 도령로 9 정각빌딩 지하1층	711-9991	정육성	35	1993
	제주타악기앙상블	690-811	제주시 서사로 40 새마을금고 3층	755-7333	장문희	11	2003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690-831	제주시 연수로 3 지하	746-8401	신애선	200	1999
	제주팝소케스트라	690-806	제주시 삼도2동 903-32 수현빌딩 4F	759-9077	강민수	45	2000
	제주플루트 카론앙상블	690-832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미디어센터내	-	이영자	30	2005
	제주플루티스트 앙상블	690-831	제주시 연수로 3 지하	722-7970	이영래	20	2001
	제주피아노학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202호	-	박순방	56	1999
	제주필 청소년오케스트라	690-122	제주시 신설로 6길 8 더클래식 301호	748-3313	김형삼	75	2002
	주니어화음플루트 오케스트라	690-122	제주시 신설로 6길 8 더클래식 301호	748-3313	김순길	50	2005
	청년노래단 '청춘'	690-809	제주시 남성로25길 15 진도빌딩 2층	-	양성미	8	2000
	칼리오페OB중창단	697-843	서귀포시 동문로 15	-	부정익	50	1999
	펠릭스합창단	690-802	제주시 연북로 38 연동클리닉BD 5F 연세피부과의원	711-3679	송동훈	35	2002
	표선유스콰이어	699-911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114	-	김도웅	41	2005
	프라임타악기앙상블	690-807	제주시 독짓골2길 16 상가내 지하	010-3688-8942	이병준	8	2004
	한국음악교육협회 제주도지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예술대학 음악학과	747-7776	이춘기	100	2003
	한라소년합창단	690-828	제주시 동광로51 지하1층	-	안성복	40	1991
	한라윈드앙상블	690-833	제주시 신산로 93-1	751-1155	정연재	48	1993
	한라챔버오케스트라	690-150	제주시 아연로 478-6	-	이영만	15	2001
미술 (35)	화음플루트 오케스트라	690-122	제주시 신설로 6길 8 더클래식 301호	727-9809	김순길	27	2007
	그루터기회	690-831	제주시 태성중2길 8	724-4251	양근석	15	2001
	그룹 연	690-161	제주시 서광로 2길 5-14 (오라1동 2442-12)	-	이용석	11	2000
	미술동인집	690-837	제주시 동화로1길 39 주공A 203동 506호	721-3222	고보형	50	2001
	바란그림회	690-824	제주시 천수로 6길 8 2층	010-3690-7545	이승수	21	1997
	백록담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예술학부 미술학과 사무실	754-2811	손일삼	21	1977
	(사)문화조형연구센터	690-811	제주시 충효1길 4-1	726-5400	하석홍	10	2006
	(사)제주국제예술센터	690-834	제주시 삼성로5길 22 예림타운 302호	010-4696-8799	백광익	15	2010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미술 (35)	(사)제주디자인협회	690-714	제주시 516로 2870 스포츠예술학부 디자인학과 3호관 3207호	754-0317	최재용	60	1995
	(사)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697-841	서귀포시 중정로 91길 1	733-5287	현충언	35	1999
	(사)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32	제주시 신산로 82 지하	757-1919	김성환	260	1955
	(사)한국제주전업미술가협회제주도지회	690-833	제주시 신산로15길 49 354-17 2층	754-4477	한용국	17	2012
	산남회	697-834	서귀포시 동홍북로 24 3층	739-1042	박순민	11	1993
	섬 여백회	690-821	제주시 성화로 6길 19	743-5844	유창훈	40	2003
	섬아트연구소	695-918	제주시 하귀로22길 9-6	711-1262	김해곤	7	2003
	수크래프트	690-100	제주시 회천동 1273	721-2777	양은주	15	2002
	시상작가회	690-814	제주시 도령로 128 삼무파크빌 804호	702-1627	이창현	18	1978
	에프알	690-829	제주시 성지로 12	759-3261	고경희	12	1982
	우석조형연구소 제주도지부	690-834	제주시 삼성로5길 22 예림타운 302호	010-4696-8799	백광익	4	1995
	이삭	690-815	제주시 귀아랑2길 9	010-2692-9116	강보라 미	12	2001
	일구구오	690-802	제주시 1100로 3308 에코트윈 A-302	712-6119	이연정	6	1995
	제주도예디자인협회	690-779	제주시 남광로 181 대유대림아파트 303동 206호	010-8661-8477	오옥자	30	2002
	제주馬미술연구소	695-909	제주시 상고길 98	070-4120-9590	유종욱	7	2003
	제주섬유예술가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312호	754-3694	박현영	33	2008
	제주수채화협회	690-831	제주시 태성중 2길 8 양선생미술교실	724-4251	양근석	15	2004
	제주시각디자인협회	690-815	제주시 신대로 159	070-8281-2422	손영수	50	2004
	제주옹기문화연구회	690-833	제주시 신산로 15길 15호	755-7771	박선희	42	1998
	제주의 표정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학부 미술학과 사무실	754-2811	손일삼	30	1998
	제주조각가협회	690-964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955	070-4130-4078	김상현	45	1988
	제주판화가협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예술학부 미술학과	754-2810	박성진	20	1999
	제주한국화협회	690-824	제주시 천수로 2-4	753-1023	장은철	30	1992
	창작공동체 우리	690-090	제주시 명림로 175-12	723-2750	조윤득	7	2005
	탐라미술인협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4층	758-0331	송맹석	30	1993
	한라미술인협회	137-805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사평대로 26길 104 태항빌라 가동 301호	-	전재현	78	1996
	한우리회	690-815	제주시 문송길 37 다솔주택 401호	010-3639-3637	박여순	12	1984
	형전회	690-122	제주시 금월길 15-2	758-0318	진주아	22	1998
서예 (31)	반숙서숙연우회	690-802	제주시 과원북 4길 39 2층	746-5402	현원지	23	1983
	사봉서각회	690-122	제주시 승천로 82	010-4691-4606	이군성	98	2003
	(사)삼다연서학회	690-831	제주시 칠성로 4길 32	752-8251	김선영	60	2007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서예 (31)	(사)서귀포서예가협회	697-844	서귀포시 천지로 23	763-9019	성정순	32	1975
	(사)영주연묵회	690-814	제주시 신대로18길 28 에프왈빌 501호	772-5885	현병찬	50	1965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	690-831	제주시 고마로 145-1	010-7622-3679	임정택	52	1990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690-161	제주시 오남로6길 24 2층	744-4959	황옥선	112	1994
	(사)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사랑모임	690-800	제주시 사랑봉3길 28	772-5885	현병찬	235	2002
	(사)한국문인화협회 제주도지회	690-130	제주시 첨단동길 89-24	722-3995	이형준	45	2003
	(사)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25	제주시 고산동산1길 8	751-2281	양상철	40	1999
	(사)한국서각협회 제주도지회	695-964	제주시 조천6길 9 천호빌라 나동 101호	010-3315-1520	김병연	70	2003
	(사)한국서각협회 제주시지부	695-904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321-13	02)781-2584	한찬섭	65	2000
	(사)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14	제주시 신대로 63 조선일보빌딩 307호	744-9851	김영진	60	1989
	(사)한라서예학회	697-843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3	010-3693-2221	김성만	26	2001
	삼무서회	697-831	서귀포시 이어도로253번길 38	010-2695-2370	오영호	20	2001
	상묵회	690-814	제주시 신대로 63 조선일보빌딩 307호	742-1707	김혜정	50	1984
	서귀포소묵회	690-814	제주시 신대로 70 덕일빌딩 502호	010-7270-2163	김경호	20	1977
	송악서각회	697-930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2리 3729-1	-	윤형근	13	2004
	정연회	690-809	제주시 관덕로 34-1	721-6529	부현일	25	1981
	제주도서예문인화 총연합회	690-838	제주시 청풍남6길 2	010-8557-5156	현병찬	300	2006
	제주문인화그림벗회	690-802	제주시 과원로 27 부영아파트 303동 703호	-	박한중	10	1992
	제주문인화연구회	690-824	제주시 청굴로 28	070-8831-1013	최형양	34	2004
	제주서각회	695-964	제주시 조천6길 9 천호빌라 나동 101호	010-3315-1520	김병연	60	2000
	제주소묵회	690-808	제주시 관덕로3길 9-1 3층	010-6608-6925	김순택	45	1973
	제주전각학연구회	690-815	제주시 신대로 21길 31 윤이빌라 가동 103호	010-8660-4106	김재흥	14	1998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695-947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8	772-5885	현병찬	182	2006
	제평서각회	690-834	제주시 신산로 1길 4(일도2동) 양지상가 103호	070-825-1171	최인덕	22	2006
	탐라서각연구회	690-232	제주시 이호2동 1468-2	010-9980-0857	오평범	23	2004
	탐라서예문화원	690-121	제주시 아란9길 22 104동 505호	010-9838-0990	김태행	30	2003
	통묵회	690-824	제주시 청굴로5길 6-5	728-2235	오형범	15	1991
	한연회	690-833	제주시 삼성로 16길 1 지하	757-8617	이항영	32	1997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사진 (33)	가온누리사진연구회	695-934	제주시 명월성로 394	070-8885-0114	김태수	12	2010
	가톨릭제주교구 사진가회	690-825	제주시 고산동산5길 31	752-6514	김홍남	11	1981
	녹색사진연구회	690-121	제주시 산천단동길 35	702-1747 010-3691-2269	이봉기	21	1990
	대정사우회	699-934	서귀포시 상모로290번길 13	794-2145	이성택	9	1982
	딤블루포토클럽	690-820	제주시 서문로 4 3층	723-3500	김유웅	12	1996
	모슬포카메라클럽	699-934	서귀포시 상모로290번길 13	010-6622-2559	오인수	12	1985
	백록사우회	690-809	제주시 중앙로 132 늘푸른가정의학과의원	752-9696	임영범	8	1999
	백마포도라인	690-232	제주시 오도1길 22	010-3691-7788	강봉옥	11	1999
	본뜬세상	699-911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732	070-4400-3831	김호일	7	1996
	(사)탐라사진가협회	690-828	-	010-5697-1839	이병철	8	2005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서귀포지부	697-842	서귀포시 중앙로 40길 7	762-4775	임진출	30	2002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협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5F	702-2113	홍순병	135	2003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690-818	제주시 남녕로 54 위더스빌 상가 101호	726-6326	장윤석	103	1977
	삼다사진동우회	690-802	제주시 노연로 30 1602호	010-4691-3586	김영규	10	1997
	새이웃사우회	690-829	제주시 오현길 9 603호	722-5539	양재훈	7	1993
	섬에서 부는 바람	690-836	제주시 중앙로 40 4층	010-3692-9001	고남수	23	2000
	제주교원 사진예술동우회	690-833	제주시 동광로13길 26-8	-	이수남	10	2001
	제주기독교사진선교회	690-121	제주시 아란9길 22 스위첸아파트 109동 1104호	756-3759	허찬보	10	1999
	제주도장애인 사진애호가협회	690-821	제주시 용담로9길 15 용흥주택 501	743-2522	김성남	15	2004
	제주민속사진연구회	690-821	제주시 성화로6길 42 현대아파트 303동 602호	743-6533	고남석	12	2001
	제주상록사진학회	690-819	제주시 용담로20길 34-2	010-5136-5284	전영국	30	2011
	제주상록사진학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21-1	010-2606-4585	문학림	32	2009
	제주수중사진연구회	699-931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구역로226	-	양승철	10	2009
	제주영상동인	690-061	제주시 동화로1길 49-17(화북1동)	726-2627	김환철	23	1984
	제주오름사진연구회	690-830	제주시 천수로9길 10 서해아파트 1차 313호	010-3691-0405	홍성주	20	1991
	제주카메라클럽	690-841	제주시 광평동로 66 중흥S클래스 101동 801호	070-7757-9181	지남준	16	1965
	제주포도라인	699-923	안덕면 화순중앙로 53번길 4	010-3691-8955	신준철	12	2011
	제주풍경사진가회	690-822	제주시 용문로 134-1	743-4832	임성춘	11	1994
	제주환경사진연합회	690-812	제주시 평전3길 2	725-8088	홍순병	26	1992
	칠십리사우회	697-836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6	010-3696-2935	문재민	12	1995
	한국방송대학교 제주포커스	690-150	제주시 오등봉길 48-13	-	이승일	10	1990
	한라사우회	690-815	제주시 신대로21길 33	742-2244	이광우	16	1980
	현실사진동우회	690-788	제주시 신설로 55 한일베라체 107동 1103호	757-7741	이창용	13	1996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무용 (18)	댄스인제주무용단	690-191	제주시 우정로 10길 9 2층	712-5999	손영신	25	2005
	(사)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	697-826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739-3287	김은희	35	1996
	(사)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	690-817	제주시 국기로 36	753-8786	이창훈	40	1991
	(사)한국무용협회 제주시지부	697-836	제주시 중앙로7길 21	070-753-5622	이춘열	30	2005
	숨비민속무용단	690-813	제주시 신광로 4길 22	784-3569	김정열	18	2003
	예술단사람들	690-061	제주시 금산 5길 13	-	강광옥	12	2006
	예지무용단	690-831	제주시 태성로5길 6	753-8614	김정희	20	1994
	이지연발레단	690-817	제주시 국기로 36	713-8786	이지연	50	2006
	제주민속무용단	697-835	서귀포시 태평로 529-6 덕산캐슬아파트 102동 403호	762-9797	김하월	17	1998
	제주민속예술단	690-809	제주시 중앙로 142	-	김명희	25	1996
	제주오름민속무용단	690-796	제주시 화삼북로 2길 12 삼화휴먼시아 115동 1202호	784-3569	최길복	28	2000
	제주전통어멍무용단	690-818	제주시 도령로11길 25	-	김진희	7	1996
	제주춤아카데미	690-191	제주시 우정로6길 32	742-6659	김희숙	20	1997
	제주춤예술원	690-800	제주시 천수동로 21	755-5434	김미숙	15	2011
	제주해라스밸리	690-804	제주시 수덕3길 4	713-4043	윤선아	50	2004
	해녀노래보존회 (사라예술단)	690-832	제주시 동광로 19길 50-2	757-7970	강경자	30	2005
	해송민속무용단	690-824	제주시 정든로2길 18	752-2152	윤경월	35	2006
	훈비무용단	690-812	제주시 서사로22길 12	756-4891	강해인	18	2004
연극 (13)	극단 가람	690-820	제주시 남성로 15	722-0794	이상용	45	1975
	극단 세이레극장	690-812	제주시 서광로 182-6	744-8911	강상훈	27	1992
	극단 오름	697-837	서귀포시 문부로11번길 24-2	-	오창순	10	1989
	극단 오이	690-809	제주시 관덕로 6길 14 지하	010-5755-9220	오상운	70	2011
	극단 이어도	690-829	제주시 중앙로 72	722-5254	김광흠	25	1978
	극단 정낭극장	690-819	제주시 서문로 76-5	722-1871	강한근	20	1980
	극단 수놓음공연예술	690-241	제주시 오래물길 10 쌍둥이펜션	010-2126-2019	김영울	10	2008
	놀이패 한라산	690-163	제주시 모시길 13	753-9539	윤미란	22	1987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5F	725-3287	부재호	150	1962
	세이레어린극장	690-812	제주시 서광로 182-6	744-8911	정민자	15	1992
	여.마.빠.랑신나는 인형극회	697-837	서귀포시 문부로11번길 24-4	762-4811	양희숙	4	1995
	연희패 다솜	690-140	제주시 영평동 사송길 93-11	751-5557	변종수	23	1992
	자파리연구소	690-122	제주시 간월동로 12 간드락소극장	070-4131-3031	성민철	8	2004
국악 (36)	노리안마로	699-914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8	722-0129	양호성	30	2005
	돌하르방예술단	690-834	제주시 동문로 62-1	726-5515	이정열	100	2001
	민요패 소리왓	690-811	제주시 서사로 36 3층	721-4967	안민희	27	1992
	박경선 소리마당	697-855	서귀포시 신흥중앙로 69	732-1411	박경선	19	2009
	백록민속예술단	690-826	제주시 구남로 7길 31호 지하	702-7368	한춘자	15	1991
	사라예술단	690-832	제주시 동문로 124 지하	757-6188	강경자	50	2005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국악 (36)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690-825	제주시 승천로 8 지하	756-0105	고석철	20	2002
	(사)용화문화예술회	690-162	제주시 연사길 54-2	746-3777	백용화	230	2009
	(사)제주소리보존회	690-232	제주시 오도1길 42(이호2동)	743-3242	고성옥	27	1994
	(사)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697-859	서귀포시 검은여로 87-3	763-1139	박영자	91	1989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690-836	제주시 산지로 47 2F(일도1동)	759-3888	고성옥	90	2004
	(사)한국아동국악 교육협회제주지부	690-808	제주시 무근성7길 1 3층 (삼도2동)	756-1129	송정희	180	2005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지부	690-802	제주시 원도형남1길 46-9 (노형동)	744-1254	권미숙	50	2005
	서귀포칠십리민속예 술단	697-030	서귀포시 하효중앙로98번길 14-6(하효동)	767-0281	김정자	25	2004
	서우제예술단	690-828	제주시 중앙로 184(이도1동)	722-1478	김복순	5	2010
	선돌예술단	690-832	제주시 고마로1길 4-2	725-7374	한성순	16	2004
	송죽예술단	690-834	제주시 동문로14길 3 지하1층	724-7924	김길예	30	1999
	어린이민요단 소리나라	690-811	제주시 서사로 36 3층(삼도1동)	721-4967	안민희	15	1992
	어울림예술단	690-824	제주시 승천로 27 연산홀주택 107동 407호(이도2동)	757-0411	고순금	6	2006
	올레민속예술단	690-844	서귀포시 서문로 21-4	762-4554 010-3693-4551	서순애	15	2008
	이어도민속예술단	690-042	제주시 용화6길 5-1(용담2동)	711-0081	홍송월	22	1996
	정의골 소리패	697-912	서귀포시 표선면 정의현로 101-8(성읍리)	787-0943	송심자	30	2003
	제주국악관현악단	690-824	제주시 가령로 5-1(이도2동) 2층	155-3412	조창규	35	2011
	제주국악단	690-828	제주시 동광로 3(이도1동) 제주교총회관 지하	010-3913-5211	한재준	18	2006
	제주도무형문화제16호 (제주농요보존회)	690-834	제주시 신산로1길 15(일도2동) 제주농요전수교육관	753-3980	김향옥	40	1986
	제주청소년풍물단	690-828	제주시 동광로 3(이도1동) 제주교총회관 지하	010-3913-5211	한재준	7	1992
	제주탐라예술단	690-834	제주시 동문로14길 3(일도2동)	722-0513	박순재	50	1986
	제주판소리보존회	690-802	제주시 원도형남1길 46-9	744-1254	권미숙	50	2005
	죽향국악원	690-804	제주시 다랑곶6길 6(노형동) 세븐빌딩 2층	723-0779	신은숙	50	1998
	죽향대금산조원형 보존회제주지부	690-827	제주시 중앙로 218 3층	723-7484	이광훈	70	2008
	징검다리 국악동호인회	690-804	제주시 다랑곶6길 6 세븐빌딩 2층	723-0779	신은숙	15	1995
	탐라민속예술원	690-121	제주시 아라1동 371	702-8485	김주산	50	1981
	풍물굿패 신나락	690-807	제주시 독짓골6길 9(도남동) 남천 빌딩 지하	702-6661	한진오	20	1993
	한누리예술원	690-090	제주시 명림로 49-23 (봉개동)	723-7267	안보순	50	2003
	한얼메아리예술원	690-827	제주시 광양13길 6-2(이도2동)	753-5005	현영순	20	2009
	해오름국악예술원	690-743	제주시 정촌11길 68(노형동)	010-9471-8880	현성이	15	2007

구분	단체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원수	창립연도
영상 (5)	(사)제주씨네아일랜드	690-836	제주시 관덕로9길 22 엘리트빌 2층	702-1191	현충열	160	1996
	(사)제주영상애니메이션 창작연구소	690-764	제주시 연화로 25 연동대림 205동 406호	-	문숙희	25	2012
	(사)한국영화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30	제주시 고마로18길 11	744-7799	이경근	350	1992
	제주독립영화협회	690-821	제주시 용화로 9길 32-4	758-0331	고혁진	10	1997
	컴트루통합문화예술 교육기획	690-836	제주시 관덕로9길 22 엘리트빌 2층	752-4257	오주연	150	2007
연예 (1)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34	제주시 동문로14길 3 지하1층	-	박종택	132	1971
총괄 (3)	(사)제주민족예술인 총연합	690-809	제주시 관덕로6길 17	758-0331	박경훈	170	1994
	(사)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	697-826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739-3287	이연심	500	1980
	(사)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5층	725-3287	강창화	2000	1962
건축 (3)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690-828	제주시 동광로1길 1	752-3248	고봉규	176	1965
	(사)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690-708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건축학부	741-7483	고만영	50	1985
	(사)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690-122	제주시 승천로 14	756-9334	고성천	45	1985
문화 (9)	(사)서귀포문화원	697-836	서귀포시 동흥로 31	733-3789	강명언	620	1996
	(사)제주문화원	690-808	제주시 중앙로 2 제주해변공연장 2층	722-0203	신상범	504	1994
	(사)제주문화포럼	690-850	제주시 전농로 107	722-6914	김세지	450	1997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690-809	제주시 관덕로6길 17	755-7372	김상철	100	1999
	(사)제주전통웅기 전승보존회	699-933	서귀포시 무영로254번길 3-1	792-7953	허은숙	500	2008
	(사)한국노동문화 예술협회제주지부	690-916	제주시 유수암로 218	753-2606	강순심	26	1994
	(사)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90-808	제주시 중앙로 2 제주해변공연장 2층	722-0203	신상범	17	2000
	제주문화놀이터	690-822	제주시 월성로4길 63	724-0429	이광진	4	201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690-800	제주시 사라봉길 75	753-7812	김윤수	30	1980
도립 (5)	제주특별자치도립 교향악단	695-918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6길 41	728-2745	제주시 부시장	70	1985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	690-834	제주시 동광로 69	710-7674	제주시 부시장	34	1990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697-828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739-7394	서귀포시 부시장	38	1998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697-828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739-5272	서귀포시 부시장	41	1987
	제주특별자치도립 합창단	695-918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6길 41	728-2745	제주시 부시장	51	1985

문화 시설

2014

제주

문화

연감

JEJU CULTURE & ARTS YEARBOOK

문화예술 박물관 · 미술관

명칭	설립자	소재지	규모	소장자료(점)	등록일	전화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일주동로 17	부지 55,579㎡ 건평 9,287㎡	2,915점	'01.6.15	720-8000
만덕관	김만덕기념사업회	제주시 사라봉길 75	전시실 165㎡	초상화, 훈례복 등 30점	'77.01월경	728-3690
제주민속박물관	진성기	제주시 일주동로 293-1	부지 2,959㎡ 연면적 491㎡	민구류 등 10,000점	'64.06.22	755-1976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삼성로 40	부지 31,515㎡ 연면적 6,473㎡	제주고유민속, 자연사자료 39,041점	'84.12.13	710-7708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시 오복4길 25	부지 5,373㎡ 연면적 3,710㎡	교육자료 31,448점	'95.09.13	752-9101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	부지 5,092㎡ 연면적 960.3㎡	한국화, 서양화 652점	'87.07.01	733-1586
신영제주영화박물관	신영균 (주)한국홍산	서귀포시 태위로 536	부지 81,790㎡ 연면적 3,195㎡	장비, 스틸원본 등 1,580점	'98.04.06	805-0008
제주민속촌	한국공항(주)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부지 156,503㎡ 연면적 6,838㎡	민속자료 8,187여점	'01.04.13	787-4501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시 아라1동 산1	부지 1,444,740㎡ 연면적 2,543㎡	민속자료 등 8,195점	'01.07.28	754-2240
테디베어뮤지엄 (곰완구전시관)	(주)제이에스 (김묘숙)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1	부지 13,555㎡ 연면적 4,030㎡	곰인형 등 1,356여점	'01.07.28	738-7600
설록차뮤지엄오설록 (설록차 전시관)	서경배 (지현상)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1235-13	부지 8,100㎡ 연면적 1,564㎡	토기 및 자기류 등 200여점	'01.12.28	794-5312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서귀동 532-1	부지 3,478㎡ 연면적 586㎡	미술품 134점	'03.07.29	733-3555
평화박물관	이영근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5길 63	부지 9,038㎡ 연면적 929㎡	군부대용품 등 1797점	'04.05.12	772-2500
서귀포감귤박물관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신희동 산1	부지 27,243㎡ 연면적 4,786㎡	민구류, 감귤류 등 409점	'05.02.25	710-6610
아프리카박물관	한중훈	서귀포시 이여도로 49	부지 9,617㎡ 연면적 3,741㎡	공예품 등 2800 여점	'05.02.25	738-6565
방림원	방한숙	제주시 용금로 864	부지 9,917㎡ 연면적 1,040㎡	식물류 등 345점	'05.11.11	773-0090
김영갑갤러리 두모악미술관	김영갑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부지 8,651㎡ 연면적 904㎡	사진, 필름, 조각품 등 264점	'06.02.27	784-9905
여미지식물원	남상규 (손일호외1)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부지 112,397㎡ 연면적 15,514㎡	식물류 등 443점	'06.03.24	735-1100

명칭	설립자	소재지	규모	소장자료(점)	등록일	전화
생각하는정원	(주)청원 성지연	제주시 녹차분재로 675	부지 34,114㎡ 연면적 248㎡	식물류 등 479여점	'07.08.30	772-3701
세계미니어처 전시관	(주)미니미니 랜드 박경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부지 47,663㎡ 연면적 4,786㎡	조형물 등 80여점	'06.03.24	782-7720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부지 969,731㎡ 연면적 18,956㎡	화산암 등 26,988점	'06.05.08	710-7731
건강과성문화 박물관	(주)에스메카 (류기호)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 로 1611	부지 25,564㎡ 연면적 3,720㎡	도자기류 등 3,000여점	'06.05.08	792-5700
일출랜드 식물원	강재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10	부지 97,496㎡ 연면적 304.5㎡	식물류 등 367점	'07.01.15	784-2080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	서귀포시 가시로 613번길 46	부지 13,815㎡ 연면적 1,600㎡	사진자료 500여점	'07.01.15	787-3110
소인국테마파크 전시관	진동열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78	부지 49,644㎡ 연면적 1,127㎡	조형물 등 100여점	'07.04.02	794-5400
러브랜드미술관	최은주	제주시 1100로 2894-72	부지 29,950㎡ 연면적 1,356㎡	조각품 180점	'07.04.02	712-6988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부지 99,383㎡ 연면적 1,939㎡	미술품 407점	'07.07.13	710-7801
제주공룡랜드	홍종열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1	부지 99,571㎡ 연면적 1,103.73㎡	화석 등 210점	'07.07.13	746-3060
다중이인형전시관	오유신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제주월드컵경기장	부지 1,305.73㎡ 연면적 864.32㎡	공예품 등 300여점	'07.07.13	739-3905
조랑말박물관	가시리 마을회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381-15	부지 550㎡ 연면적 534.52㎡	목축, 마문화 관련 200여점	'12.09.08	070-4145- 3456
돌하르방공원	김남홍	제주시 조천읍 북촌서1길 70	부지 14,876㎡ 야외전시 8,264㎡	돌하르방 156점	'07.08.30	782-0570
도깨비공원	이기후 (강혜경)	제주시 번영로 1488	부지 27,037㎡ 야외전시 17,392㎡	조형물 927점	'07.08.30	783-3013
제주조각공원	이은범 (이경률)	서귀포시 일주서로 1836	부지 412,286㎡ 야외전시 214,800㎡	조각품 등 300점	'07.08.30	794-9680
석부작테마공원	민명원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	부지 18,469㎡ 야외전시 12,775㎡	석부작 등 500여점	'07.08.30	739-3331
나비공원 프스케월드	임승호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7	부지 27,466㎡ 전시실4실 1,363㎡	나비 등 118종, 1,530점	'07.10.10	799-7272
한림공원	송봉규 (송상훈)	제주시 한림로 300	부지 299,574㎡ 실내8실 4323㎡ 야외 10개소 217,242㎡	식물 2592점	'07.12.20	796-0001
화석박물관	강경구	서귀포시 하천로 11	부지 8,026㎡ 실내 880㎡ 야외 1200㎡	국내외 화석 1882점	'08.02.29	787-7831

명칭	설립자	소재지	규모	소장자료(점)	등록일	전화
해녀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부지 82,831㎡ 전시면적5실 1,299㎡	해녀, 민속 관련 유물 2,496점	'08.02.29	782-9898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김영락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 63	부지 29,845㎡ 전시실 5실 2,149㎡	세계자동차 관련 65점	'08.05.09	792-3000
성안미술관	권용수	제주시 중앙로 470	부지 9,900㎡ 전시실 3실 252㎡	근현대미술품 120점	'08.07.03	729-9175
한라수목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수목원길 70	부지 203,249㎡ 전시실 3실 1,347㎡	1,100종, 10만여본	2011.12.6	710-7575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	김상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97	부지 29,134㎡ 전시실 15실 3,365㎡	민속유물 208점	'08.10.24	784-9001
우산미술관	제주아트랜드(임준성)	제주시 변영로 2172-80	부지 150,000㎡ 전시실 4실 1,265㎡	동서양화 및 서예 100점	'08.10.30	784-8900
제주 유리의 성	강신보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39-3	부지 35,978㎡ 전시실 991㎡ 실외전시 14,535㎡	유리조형 작품 118점	'08.12.09	772-7777
소암현충화 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시 물동산길 22	부지 1,903㎡ 전시실 3실 352㎡	서예 484점	'08.12.09	760-3511
조안베어 뮤지엄	오경애 (조안스튜디오)	서귀포시 대포로 113	부지 1,716㎡ 전시실 3실 221㎡	수작업공인형 119점	'08.12.30	739-1024

문화예술 전시실

명칭	주소	전화
갤러리 R	제주시 다랑곶길11	746-6898
그림이 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121	799-8102
먹글이있는집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58 저지문화예술인촌 내	772-5885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시 전농로 107	722-6914
박여숙화랑 제주	서귀포시 산록남로762번길 79 비오토피아 13호	792-7393
신산 갤러리	제주시 신산로 82	750-7347
산경도에전시실 (흙으로만나는사람들)	서귀포시 서삼중로 232	792-5882
서귀포시립도서관 전시실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	760-3688
서귀포학생문화원 전시실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763-0239
세심재 갤러리	제주시 서광로5길 17	753-5252
신산 갤러리	제주시 신산로 82	727-7800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시 중앙로 69	745-3693
연 갤러리	제주시 이도2동 680-4 2층	757-4477
열공 갤러리	제주시 정존7길 34	741-8888
제주도에촌 전시실	서귀포시 암반수마농로441번길 3	792-0052
제주조각공원전시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27	794-9680
제주특별자치도문화회관 제1·2전시실	제주시 동광로 69	750-7347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제주시 연삼로 489	750-1691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제주시 중앙로 2	759-1339
한라아트홀 전시실	제주시 한라대학로 38(노형동)	741-7575
현인 갤러리	제주시 서사로 43(삼도2동)	747-1500

문화예술 공연장

명칭	주소	규모	전화
간드락 소극장	제주시 아라2동 1371-5	100석	726-3031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강정동 176	383석	739-3548
더마파크 공연장	제주시 한림읍월림7길 155 (월림리)	1,246석	795-8080
동홍야외공연장	서귀포시 동홍동 646-1	308석	735-3516
미예랑	제주시 중앙로 72(이도1동)	90석	722-5254
새별오름 관광타운 공연장 (구 그린리조트)	애월읍 봉성리 산 59-1	980석	792-6100
서귀포 대정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21-8(하모리)	220석	794-6260
서귀포시민회관	서귀포시 동홍로 31-7(동홍동)	288석	733-1527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강정동)	417석	760-6412
서귀포학생문화원 공연장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동홍동)	660석	763-0239
세이레아트센터	제주시 서광로 182-6	60석	070-4231-8911
자작나무숲	제주시 관덕로6길 16(삼도2동)	30석	747-7596
저지문화예술 야외공연장	한경면 저지리 2114-63	1,000석	710-6601
제주관광대학 노형관 소극장	제주시 도령로 15(노형동) 제주관광대학 노형교육관	300석	754-5820
제주관광대학 야외공연장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제주관광대학	300석	740-8807
국립제주박물관 소강당	제주시 일주동로 17(건입동)	286석	720-80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서귀포시 중문동 2700	1,500석 통합4,300석	735-100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미래창조관	제주시 일주동로 61(화북1동)	350석	754-4724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1(아라1동)	448석	754-4696
제주아트리움공연장	제주시 노형로 89(해안동)	1,130석	746-9007
제주국제대학교 대강당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316석	754-0220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	제주시 사라봉동길 21-1(건입동)	125석	728-3960
제주시민회관	제주시 고전길 26(이도1동)	500석	728-3939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주시 신산로 82(일도2동) (사)제주영상위원회	346석	727-7800

명칭	주소	규모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주시 동광로 69(일도2동)	대 892석 소 200석 전시실 2실	750-7632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 연삼로 489(이도2동)	대 848석 소 201석 전시실 1실	750-1691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중앙로 2(삼도2동)	대 1,234석 전시실 1실	759-1339
(주)이레제주조랑말타운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564-21 (성읍리)	993석	787-2258
(주)제주드림랜드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529(봉성리)	980석	792-5006
천지연 야외공연장	서귀포시 서홍동 656	500석	733-1528
칠십리 야외공연장	서귀포시 서홍동 689	300석	733-1528
풍림리조트 오름공연장	서귀포시 이어도로 684(강정동)	278석	739-9001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관광안내 상영실	서귀포시 색달동 2864-3	150석	735-7363
한라대연회장	제주시 회천동 3-16	248석	786-1335
한라아트홀	제주시 노형동 1534	대 831석 소 224석 전시실 1실	741-7575
해피타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886	1100석	794-4444

2014 제주문예연감

인 쇄 일 2014년 11월 일

발 행 일 2014년 11월 일

발 행 인 **현 승 환**

발행·편집 **(재)제주문화예술재단**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8F

Tel. (064)800-9154 Fax. (064)800-9119

인 쇄 처 반석원색인쇄사(☎064-753-6980)

〈비매품〉 ISSN 2234-2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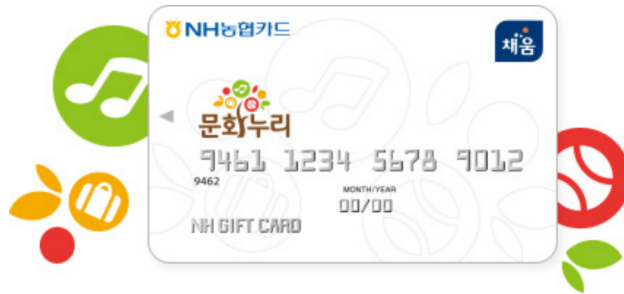
※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의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복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경륜경정공익사업적립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금액 (※2014년도 카드 발급 완료)

- 세대카드 : 연간 10만원 지원
- 청소년카드 : 연간 5만원 지원 (세대당 최대 5매 신청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 연간 5만원 지원

• 사용기간

• 2014년 2월 24일 ~ 201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장 르 구 분
문화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여행	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저
스포츠	프로 4대 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 배구)

• 문의처 제주주관처(제주문화예술재단) 064-724-9004

